06-정책-017
재단

Seoul Women's Foundation

2006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

조연숙 · 고선주 · 조영미 · 이종환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777

재단법인 서울여성

06-정책-017

2006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

■ 연구책임자 : 조 연 숙 (재단법인 서울여성 정책개발부)

■ 공동연구자 : 고 선 주 (재단법인 서울여성 정책개발부)
조 영 미 (재단법인 서울여성 정책개발부)
이 종 환 (재단법인 서울여성 위촉연구원)

2007. 1

재단법인 서울여성

발 간 사

서울특별시는 2004년부터 매년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첫째, 자치구 여성정책이 각 지역의 여성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보다 높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행정의 관리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관련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평가가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서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의사결정자의 이해와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여성정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반시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발전되기 위해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 자치구 여성정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의 평가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들과 바쁜 와중에도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성정책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재단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

서울특별시 (재) 서울여성
상임이사 김 금 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목적 4

제2절 범위와 방법 6
1. 평가의 범위 6
2. 평가의 방법과 절차 7

제2장 자치구 여성정책 현황 및 여성정책평가의 발전과정 13

제1절 여성정책의 목표체계와 자치구 여성정책의 일반현황 15
1. 여성정책의 목표체계 15
2. 자치구 여성관련 일반현황 19

제2절 서울시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의 발전과정 30
1. 선행 여성정책 평가연구 30
2.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전개과정 32

제3절 2006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틀 구성 37
1. 평가방향 37
2. 평가지표 체계의 설정 38
3. 평가방법 42

제3장 2006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 45

제1절 평가결과 요약 47
1. 평가결과 종합 47
2. 평가영역별 결과 요약 48

제2절 평가영역별 평가분석 결과 ····· 57
1. 여성정책기반조성 - 공통부문 ····· 57
2. 양성평등문화교육 및 문화조성 - 선택부문 ····· 92
3. 여성경제활동지원 - 선택부문 ····· 105
4. 여성사회참여지원 - 선택부문 ····· 113
5. 여성·가족복지향상 - 선택부문 ····· 126
6. 수범사업 ····· 138

제4장 자치구 여성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 169

제1절 자치구 여성정책의 문제점 도출 ····· 171
1. 여성정책 추진 기반조성 ····· 171
2.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 조성 ····· 173
3. 여성경제활동지원 ····· 174
4. 여성사회참여지원 ····· 175
5. 여성가족복지향상 ····· 176

제2절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 177
1. 여성정책기반조성 ····· 177
2.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 178
3. 여성경제활동지원 ····· 181
4. 여성 사회참여 지원 ····· 182
5. 여성·가족복지향상 ····· 183

제5장 결론 ····· 185

참고문헌 ····· 191

부록 ····· 193

부록 1. 자치구별 수범사례 ····· 195
부록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 및 작성지침 ····· 281

표 목 차

<표 1-2-1> 여성정책 평가부문별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 8
<표 1-2-2> 특수사업 수혜자 만족도 설문문항 ····· 9

<표 2-1-1> 자치구별 인구규모 및 여성 대 남성 비율 ····· 20
<표 2-1-2> 자치구 연령별 성비 ····· 21
<표 2-1-3> 자치구별 여성복지 시설 현황 ····· 22
<표 2-1-4> 성폭력 상담시설 및 상담운영실적 ····· 23
<표 2-1-5> 가정폭력상담소 수 및 상담운영실적 ····· 23
<표 2-1-6> 자치구여성정책조직 및 인력현황 ····· 24
<표 2-1-7> 2006년도 자치구 여성시책 요약 ····· 27
<표 2-2-1>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사업 총괄 현황(2004~2006) ····· 33
<표 2-2-2> 연도별 평가분야 비교 ····· 34
<표 2-2-3> 연도별 평가지표수 및 지표유형의 변화 ····· 35
<표 2-3-1> 2006자치구여성정책 평가지표 체계 ····· 39
<표 2-3-2> 부문별 지원 현황 ····· 42
<표 2-3-3> 분야별 배점 현황 ····· 43

<표 3-1-1> 3개년 여성정책 평가결과 비교 ····· 47
<표 3-1-2> 시상 대상 자치구 ····· 48
<표 3-1-3> 여성정책기반조성(공통부문) 세부점수현황 ····· 49
<표 3-1-4> 수범사례(공통부문) 세부점수현황 ····· 51
<표 3-1-5> 선택부문 세부점수현황 ····· 54
<표 3-2-1> 추진역량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57
<표 3-2-2> 자치구별 부서/팀명 및 평균점수 ····· 59
<표 3-2-3> 부서기능과 역할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59
<표 3-2-4> 조직의 독립성 성과 내용분석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61
<표 3-2-5> 성인지교육이수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62

<표 3-2-6> 담당공무원 1인당 여성인구수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63
<표 3-2-7> 20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여성정책팀 예산 및 관련 예산 비율 ····· 65
<표 3-2-8> 여성부서예산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66
<표 3-2-9> 여성관련 예산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68
<표 3-2-10>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여부별 해당 자치구 ····· 69
<표 3-2-11> 여성발전기금 조성액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70
<표 3-2-12> 여성발전기금 지원실적 유무별 해당 자치구 ····· 71
<표 3-2-13> 기반체계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72
<표 3-2-14> 자치구별 6급이상 공무원 수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 73
<표 3-2-15> 6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74
<표 3-2-16> 주요부서 5,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인원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75
<표 3-2-17> 위촉직 위원 대비 여성위원 비율 ····· 76
<표 3-2-18> 주요 위원회 여성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77
<표 3-2-19> 협의체 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79
<표 3-2-20> 협의체 회의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80
<표 3-2-21> 협의체 회의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81
<표 3-2-22> 성별영향평가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여부별 해당 자치구 ····· 82
<표 3-2-23> 성별영향평가 실적 유무별 해당 자치구 ····· 82
<표 3-2-24> 자치구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현황 ····· 83
<표 3-2-25> 성별영향평가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84
<표 3-2-26>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85
<표 3-2-27>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86
<표 3-2-28>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86
<표 3-2-29> 제출기한 준수여부 기술통계 ····· 87
<표 3-2-30> 보고내용 충실도 기술통계 ····· 87
<표 3-2-31> 참여지원 기술통계 ····· 88
<표 3-2-32> 자치구별 여성정책기반조성 평가의견 ····· 88
<표 3-2-33> 여성주간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93

<표 3-2-34> 자치구별 여성주간추진사업 ····· 93
<표 3-2-35> 여성주간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94
<표 3-2-36> 여성주간사업의 전문가 평가의견 ····· 94
<표 3-2-37>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96
<표 3-2-38> 자치구별 양성평등문화 추진사업 ····· 97
<표 3-2-39> 양성평등문화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97
<표 3-2-40> 양성평등문화사업 전문가 의견 ····· 98
<표 3-2-41> 양성평등교육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00
<표 3-2-42>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수자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01
<표 3-2-43> 교육이수자 중 6급 이상 관리직 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02
<표 3-2-44>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03
<표 3-2-45>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 ····· 103
<표 3-2-46>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수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04
<표 3-2-47>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06
<표 3-2-48> 자치구별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건수 ····· 107
<표 3-2-49>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07
<표 3-2-50> 전문가 의견 ····· 107
<표 3-2-51>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08
<표 3-2-52> 취업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09
<표 3-2-53> 자치구별 자체 취업사업 ····· 109
<표 3-2-54> 실질취업률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10
<표 3-2-55> 취업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10
<표 3-2-56> 창업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11
<표 3-2-57> 실질창업률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11
<표 3-2-58> 창업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12
<표 3-2-59>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전문가 평가의견 ····· 112
<표 3-2-60> 여성단체 육성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14

<표 3-2-61> 자치구별 지역여성단체 지원실적 및 기술통계 ····· 115
<표 3-2-62> 여성단체 육성 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15
<표 3-2-63>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 116
<표 3-2-64>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17
<표 3-2-65> 지도자교육 이수자수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17
<표 3-2-66> 홍보실적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18
<표 3-2-67> 발굴실적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18
<표 3-2-68> 사회단체 여성회원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19
<표 3-2-69> 자치구별 전문가 평가의견 ····· 119
<표 3-2-70> 일·가정 양립지원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20
<표 3-2-71> 방과후 교실 2006년 목표달성률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21
<표 3-2-72> 장애아 통합보육 2006년 목표달성률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22
<표 3-2-73> 시간연장형 2006년 목표달성률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22
<표 3-2-74> 보육정보센터 설치 여부별 해당 자치구 ····· 123
<표 3-2-75> 평가인증제 참여기관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23
<표 3-2-76> 지도·점검 참여기관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24
<표 3-2-77> 자체교육 참여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25
<표 3-2-78> 전문가 평가의견 ····· 125
<표 3-2-79> 여성인권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27
<표 3-2-80> 성매매 등 방지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27
<표 3-2-81>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자체사업실적 ····· 128
<표 3-2-82> 성매매 등 방지 관련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28
<표 3-2-83>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 ····· 129
<표 3-2-84>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30
<표 3-2-85> 여성복지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30
<표 3-2-86> 여성복지향상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31
<표 3-2-87>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자체사업명 ····· 131

<표 3-2-88> 여성복지향상사업 참여인원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32
<표 3-2-89> 여성복지향상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32
<표 3-2-90> 전문가 평가의견 ····· 133
<표 3-2-91> 건강가정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34
<표 3-2-92> 보육정보센터 설치 여부별 해당 자치구 ····· 134
<표 3-2-93> 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 135
<표 3-2-94>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명 ····· 135
<표 3-2-95> 지원센터 운영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36
<표 3-2-96> 전문가 평가의견 ····· 137
<표 3-2-97> 자치구 제출 수범사례 목록 ····· 138
<표 3-2-98> 자치구 수범사례 요약 ····· 139
<표 3-2-99> 목표적합성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49
<표 3-2-100> 독창성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50
<표 3-2-101> 지역특성반영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51
<표 3-2-102> 수범사업 예산규모 기술통계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52
<표 3-2-103> 홍보 및 대상선정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54
<표 3-2-104> 수범사업 계획 대비 실적 기술통계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55
<표 3-2-105> 수범사업 수혜자 만족도 응답자 현황 ····· 157
<표 3-2-106> 권역 및 수범사업별 수범사업 수혜자 만족도 차이 ····· 158
<표 3-2-107> 연령과 수혜자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 158
<표 3-2-108> 수범사업 수혜자 만족도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 159

그림목차

<그림 1-2-1> 평가과정과 절차 ····· 11

<그림 2-3-1> 여성정책 평가방향의 체계도 ····· 37
<그림 2-3-2> 지표구성체계 ····· 38

<그림 3-1-1> 추진역량 평균분포도 ····· 50
<그림 3-1-2> 기반체계 평균분포도 ····· 50
<그림 3-1-3> 여성정책기반조성 평균점수 이상 자치구 분포도 ····· 50
<그림 3-1-3> 수범사례 전체 평균분포도 ····· 52
<그림 3-1-4> 수범(여성복지향상) 평균분포도 ····· 52
<그림 3-1-5> 수범(양성평등달성) 평균분포도 ····· 52
<그림 3-1-6> 수범(여성경제사회참여) 평균분포도 ····· 52
<그림 3-1-7> 수범사례 평균점수 이상 자치구 분포도 ····· 53
<그림 3-1-8> 선택부문 전체 평균분포도 ····· 55
<그림 3-1-9> 선택(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평균분포도 ····· 55
<그림 3-1-10> 선택(여성경제사회참여) 평균분포도 ····· 55
<그림 3-1-11> 수범(여성·가족복지향상) 평균분포도 ····· 55
<그림 3-1-12> 선택부문 평균점수 이상 자치구 분포도 ····· 56
<그림 3-2-1> 자치구별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성인지교육이수비율 비교 ·· 62
<그림 3-2-2> 자치구별 담당공무원 1인당 여성인구수 비교 ····· 64
<그림 3-2-3> 05년~06년 여성부서 예산 증가율 비교 ····· 67
<그림 3-2-4> 여성관련 예산비율 비교 ····· 68
<그림 3-2-5>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비교 ····· 70
<그림 3-2-6>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비교 ····· 74
<그림 3-2-7> 주요부서 5, 6급 이상 여성공무원수 비교 ····· 75
<그림 3-2-8> 주요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비교 ····· 77
<그림 3-2-9> 협의체 수 비교 ····· 79
<그림 3-2-10> 협의체 회의건수 비교 ····· 80

<그림 3-2-14>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수자비율 비교 ····· 101
<그림 3-2-15>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수자 중 6급 이상 관리직비율 비교 ·· 102
<그림 3-2-16>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비율 비교 ····· 104
<그림 3-2-17> 수범사업 예산규모 비교 ····· 153
<그림 3-2-18> 수범사업 계획 대비 실적 비교 ····· 156

연 구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에서 각국의 여성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세계적인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힘입어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함.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02년 제2차 개정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치함.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는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제1항)에 명시하고 있음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자치단체의 특성과 역량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성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정책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이 크게 미흡한 분야가 있음. 여성정책은 그 정책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제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지역여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때에 과연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은 실제로 해당 지역여성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자치구 차원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고 향후 자치구 여성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진단하

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을 요약하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부가 실제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만큼 일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여성정책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자치구 여성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범위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대상범위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서울시 여성정책4개년계획(2003~2006)과 각 자치구가 해마다 수립하는 자치구여성정책시행계획에 의거한 사업을 포함함

- 시간적으로 여성정책평가의 대상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수행한 여성정책 사업임. 이는 2005년자치구여성정책종합평가 대상기간 이후 자치구여성정책 사업수행의 연속선상에서 수행하는 것임

□ 연구의 방법과 절차

○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임. 하나는 평가과정과 절차에 대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 자료의 성격에 따른 평가방법임

- 평가과정과 절차에 관한 방법으로서 '2006년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공통분야와 선택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음. 총 6개의 평가부문으로 구분하고, 여성정책기반조성분야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 수행 기반조성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다음, 선택분야는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 향상으로 각 자치구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 가운데 한 개 분야를 지원하여 선택하도록 함

- 평가 자료의 성격에 따른 방법으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실적자료에 의한 계량적 평가로 양적평가, 부문별 전문가에 의한 사업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그리고 실제로 정책의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다면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음. 특히 정책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정책이 고객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2006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절차는 2005년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구성, 자료수집, 평가, 평가완료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200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체 평가 틀,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평가방법과 지표, 그 외에 개선사항 등을 논의함. 또한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로부터의 평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정책수행의 애로사항, 여성정책목표 달성도,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정성, 평가방식 등을 평가함
- 평가지표의 구성과 관련하여 '2005평가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담당자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2005년 여성정책 대상과 범위,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방식 등을 수정·보완함.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초점을 여성대상 사업, 가족사업, 일반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사업으로 정리함
- 평가 자료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병행하여 수집하였음
- 제출기한을 엄수하도록 하여 1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기한 내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취합하여 평가부문별, 자치구별 우수구를 선별하였음
-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함

Ⅱ. 자치구 여성정책의 발전과정

□ 개요

○ 자치구여성정책평가는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대상 기간은 전년도 11. 1~ 당해연도 10. 31까지로 약 1년 동안 추진된 여성정책 실적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함
- 평가분야는 2004년과 2005년 10개 분야로 동일한 반면, 2006년도에는 6개 분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또 하나의 변화는 모든 자치구가 모든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선택한 정책분야를 평가함으로써 자치구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기하고자 함
- 평가항목 및 지표수는 평가 첫해인 2004년 34개 항목에 86개 지표였으나, 2005년 전문가 내용평가의 평가지표가 수 개 추가됨에 따라 27개 평가항목에 102개 평가지표로 전년도에 비해 평가지표가 15.7%(16개) 증가함. 2006년도 평가지표를 개선하고자 총 34개 항목 69개 지표로 대폭 축소함
- 평가자료 유형과 방법에 있어서 2004년도는 86개 지표 모두 사업추진 실적을 정량화하여 점수화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였으나, 2005년도는 그와 같은 정량적 방법이 과연 자치구의 여성정책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각 평가분야별 전문가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가 추가 되어 2005년도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함. 2006년도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외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여성시민에게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책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추가하였음.
-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사업비와 시상내역은 2004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총 10억, 2005년도 10억, 2006년도 5억이고 2004년도는 15개 자치구가 시상하였고, 2005년도에는 9개 자치구, 2006년도에는 10개 자치구가 시상함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사업 총괄 현황(2004~2006)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가대상기간	2003. 11. 1 ~ 2004. 10. 31	2004. 11. 1 ~ 2005. 10. 31	2005. 11. 1 ~ 2006. 10.
평가분야	10개 분야	10개 분야	6개 분야
평가항목 및 지표수	34개 항목 86개 지표	27개 항목 102개 지표	34개 항목 69개 지표
평가자료 유형 및 방법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만족도 평가
인센티브사업비	10억	10억	5억
시상내역	최우수구 1개 우수구 2개 모범구 12개	최우수구 1개 우수구 2개 모범구 5개 향상구 3개	-여성정책기반조성 분야 최우수구 1개, 우수구 2개 -4개 여성정책분야 최우수구 4개 -수범사례 3개

□ 2006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 2006년도 자치구 평가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설계되었음

- 첫째는 자치구 여성정책이 성 주류화의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 주류화 기반마련의 지침이 되고자 함
- 둘째는 자치구의 인구학적·환경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치구의 특성을 유도한 점임

Ⅲ. 평가결과 요약

1. 평가결과 종합

○ 2006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여 100%의 참여율을 보임.

○ 2006년 평가는 공통부문(여성정책기반조성)과 선택부문, 수범사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함.

- 기반체계조성은 총 200점 만점에 평균 115.21점이었으며, 최소점수는 55.00점, 최대점수는 155.00점임.

- 선택부문은 총 100점 만점이며,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향상 중 한 영역을 택하여 평가를 받았는데, 평균 70.96점으로 최소 43.00점에서 최대 95.00점으로 나타남.
- 수범사례는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 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의 3개 영역 중 한 영역을 택하여 평가에 임하였고, 총 100점 만점 중 평균 75.67점이며, 최소 53.67점에서 최대 100.00점까지 분포함.
- 기존 2004년 및 2005년과 달리 총점이 400점으로 조정되었으며, 각 정책 분야별로 점수가 독립적으로 적용됨.

3개년 여성정책 평가결과 비교

구분	2004	2005	2006			
			기반체계 조성	선택부문	수범사례	계
총점(점)	1,000(400)	1,000(400)	200	100	100	400
평균점수(점)	743.5(297.40)	708.4(283.36)	115.21	70.96	75.67	261.83
최대점수(점)	911.6(364.64)	856.0(342.40)	155.00	95.00	100.00	322.66
최소점수(점)	576.0(230.40)	512.5(205.00)	55.00	43.00	53.67	195.00

※주: 2004 및 2005의 ( )는 200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시상자치구는 모든 자치구에 공통 적용되는 기반체계조성 분야 최우수1, 우수구2와 수범사례 최우수구3와 선택적으로 경쟁한 네 개 정책부문-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 지원, 여성·가족복지향상-각 1개 자치구로 총 10개구가 시상함

시상 자치구

구 분	공통부문				선택부문			
	기반체계 조성	수범사례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 활동지원	여성사회 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 향상
		여성복지 향상	양성평등 달성	여성경제 사회참여				
최우수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도봉구	양천구	용산구
우 수	동작구	-	-	-				
우 수	마포구	-	-	-				

※주: 기반체계조성의 '우수 자치구'는 가나다순 배열임.

2. 정책영역별 결과 요약

1) 여성정책기반조성

□ 여성정책기반조성 부문은 추진역량 100점, 기반체계 100점으로 구분함

○ 추진역량(100): 최소 36.00점에서 최대 75.00점으로 평균 57.54점.
- 조직의 독립성(30): 최소 10.00점에서 최대 25.00점으로 평균 16.22점.
- 인력구성(20): 최소 6.00점에서 최대 17.00점으로 평균 12.16점.
- 여성부서 예산(30): 최소 14.00점에서 최대 30.00점으로 평균 20.28점.
- 여성발전기금(20): 최소 0.00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8.88점.

○ 기반체계(100): 최소 19.00점에서 최대 89.00점으로 평균 57.67점.
-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20): 최소 5.00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1.36점.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10): 최소 3.00점에서 최대 10.00점으로 평균 6.08점.
- 협력체계 구축(30): 최소 0.00점에서 최대 27.50점으로 평균 17.74점.
- 성별영향평가(10): 최소 0.00점에서 최대 10.00점으로 평균 6.38점.
- 여성정보 제공(20): 최소 1.00점에서 최대 15.00점으로 평균 3.24점.
- 여성정책추진 참여(10): 최소 0.00점에서 최대 10.00점으로 평균 5.31점.

여성정책기반조성(공통부문) 세부점수현황

평가항목		자치구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추진역량 (100)	조직의 독립성(30)	25	10.00	25.00	16.22	4.37
	인력구성(20)	25	6.00	17.00	12.16	3.25
	여성부서 예산(30)	25	14.00	30.00	20.28	4.33
	여성발전기금(20)	25	0.00	20.00	8.88	4.89
	소계	25	36.00	75.00	57.54	11.41
기반체계 (100)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20)	25	5.00	20.00	11.36	3.8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10)	25	3.00	10.00	6.08	2.48
	협력체계 구축(30)	25	0.00	27.50	17.74	10.02
	성별영향평가(10)	25	0.00	10.00	6.38	3.76
	여성정보 제공(20)	25	1.00	15.00	3.24	1.33
	여성정책추진 참여(10)	25	0.00	10.00	5.31	5.12
	소계	25	19.00	89.00	57.67	18.05
여성정책기반조성 계(200)		25	55.00	155.00	115.21	25.54

*주: ( )는 해당사항의 만점임.

2) 수범사례

□ 수범사례는 여성정책의 목표별로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의 선택분야로 구성함

○ 여성복지향상(100): 최소 61.67점에서 최대 100.00점으로 평균 81.63점.
- 사업수립(30): 최소 18.67점에서 최대 30.00점으로 평균 23.67점.
- 집행(20): 최소 14.00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6.97점.
- 성과(50): 최소 28.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41.00점.

○ 양성평등달성(100): 최소 53.67점에서 최대 91.00점으로 평균 65.62점.
- 사업수립(30): 최소 15.67점에서 최대 27.00점으로 평균 20.86점.
- 집행(20): 최소 11.33점에서 최대 16.33점으로 평균 13.33점.
- 성과(50): 최소 23.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31.43점.

○ 여성경제사회참여(100): 최소 53.00점에서 최대 95.00점으로 평균 75.38점.
- 사업수립(30): 최소 15.00점에서 최대 27.00점으로 평균 20.79점.
- 집행(20): 최소 11.33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4.58점.
- 성과(50): 최소 23.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40.00점.

수범사례(공통부문) 세부점수현황

평가항목		자치구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여성복지향상(100)	사업수립(30)	10	18.67	30.00	23.67	3.13
	집행(20)	10	14.00	20.00	16.97	2.09
	성과(50)	10	28.00	50.00	41.00	7.56
	여성복지향상 계(100)	10	61.67	100.00	81.63	10.32
양성평등달성(100)	사업수립(30)	7	15.67	27.00	20.86	3.68
	집행(20)	7	11.33	16.33	13.33	1.84
	성과(50)	7	23.00	50.00	31.43	10.37
	양성평등달성 계(100)	7	53.67	91.00	65.62	13.44
여성경제사회참여(100)	사업수립(30)	8	15.00	27.00	20.79	5.00
	집행(20)	8	11.33	20.00	14.58	2.61
	성과(50)	8	23.00	50.00	40.00	8.85
	여성경제사회참여 계(100)	8	53.00	95.00	75.38	12.30

주: ( )는 해당사항의 만점임.

○ '여성복지향상'을 선택한 영등포구가 100.00점으로 수범사례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음.

○ 가장 낮은 점수는 '여성경제사회참여'를 선택한 자치구에서 53.00점임.

○ 수범사례 평균점수 이상의 자치구(<그림 3-1-7> 참조)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이상 '여성복지향상' 선택자치구, 가나다순)
- 동대문구(이상 '양성평등달성' 선택 자치구)
-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용산구(이상 '여성경제사회참여' 선택자치구, 가나다순)

3) 선택부문

□ 선택부문은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8개 자치구 선택), 여성경제활동지원(3개 자치구 선택), 여성사회참여지원(5개 자치구 선택), 여성·가족복지향상(9개 자치구 선택)의 4개 분야로 구성하고 있음

○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100): 최소 49.00점에서 최대 80.00점으로 평균 65.08점.

- 양성평등문화(60): 최소 33.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43.08점.
- 양성평등교육(40): 최소 12.00점에서 최대 35.00점으로 평균 22.00점.

○ 여성경제활동지원(100): 최소 68.33점에서 최대 90.00점으로 평균 75.56점.

- 여성인적자원개발(50): 최소 28.33점에서 최대 38.33점으로 평균 32.78점.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60): 최소 36.67점에서 최대 51.67점으로 평균 42.78점.

○ 여성사회참여지원(100): 최소 43.00점에서 최대 81.33점으로 평균 58.93점.

- 여성단체육성(20): 최소 7.00점에서 최대 16.67점으로 평균 12.13점.
-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40): 최소 13.00점에서 최대 40.00점으로 평균 23.00점.
- 일·가정 양립지원(40): 최소 11.00점에서 최대 35.00점으로 평균 23.80점.

○ 여성·가족복지향상(100): 최소 67.00점에서 최대 95.00점으로 평균 81.33점.

- 여성인권(40): 최소 24.67점에서 최대 38.33점으로 평균 32.15점.
- 여성복지(40): 최소 22.67점에서 최대 38.33점으로 평균 32.26점.
- 건강가정(20): 최소 14.33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6.93점.

선택부문 세부점수현황

평가항목			자치구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100)	양성평등문화 (60)	여성주간사업추진(30)	8	20.00	26.67	23.54	2.43
		양성평등문화사업(30)	8	13.00	26.67	19.54	4.68
		소계	8	33.00	50.00	43.08	5.53
	양성평등교육 (40)	공무원양성평등교육(20)	8	8.00	20.00	12.75	4.86
		시민양성평등교육(20)	8	4.00	15.00	9.25	4.10
		소계	8	12.00	35.00	22.00	8.00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계(100)		8	49.00	80.00	65.08	11.87
여성경제 활동지원 (100)	여성인적자원 개발(50)	자체사업(40)	3	28.33	38.33	32.78	5.09
	여성경제활동 활성화(60)	취업(30)	3	14.67	26.67	19.33	6.43
		창업(30)	3	20.00	25.33	23.44	2.99
		소계	3	36.67	51.67	42.78	7.88
	여성경제활동지원 계(100)		3	68.33	90.00	75.56	12.51
여성사회 참여지원 (100)	여성단체육성 (20)	지역여성단체활성화(20)	5	7.00	16.67	12.13	4.27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 참여 증진(40)	여성지도자육성(10)	5	3.00	10.00	6.40	2.61
		지역여성사회참여(30)	5	10.00	30.00	16.60	7.92
		소계	5	13.00	40.00	23.00	10.12
	일 · 가정 양립지원(40)	공보육기반조성(25)	5	3.00	21.00	14.60	7.09
		보육서비스향상(15)	5	5.00	14.00	9.20	3.70
		소계	5	11.00	35.00	23.80	8.56
	여성사회참여지원 계(100)		5	43.00	81.33	58.93	17.24
여성 · 가족 복지향상 (100)	여성인권 (40)	성매매,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40)	9	24.67	38.33	32.15	4.09
	여성복지 (40)	여성복지향상사업(40)	9	22.67	38.33	32.26	4.70
	건강가정 (20)	가족지원관련인프라구축 및 운영(20)	9	14.33	20.00	16.93	2.54
	여성 · 가족복지향상 계(100)		9	67.00	95.00	81.33	8.92

※주: ( )는 해당사항의 만점임.

Ⅳ. 문제점과 향후과제

1. 자치구 여성정책 추진의 문제점

□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

○ 여성정책 담당조직의 낮은 위상과 독립성 미흡

현실적으로 자치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내의 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당팀의 기능과 역할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여성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모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담당팀의 기획·조정 역할이 조금씩 가미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성 인지적' 관점, '성주류화', '양성평등' 등 새로운 여성정책 관련 용어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여성정책의 전문성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여성정책 담당인력조차 한 해동안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여성정책 담당인력은 자치구 평균 약 4.5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수준이나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 낮은 여성정책예산 비율

예산은 '정책에 대한 숫자적 표현'이라 할 만큼 정부활동의 구체적 실현수단임. 자치구 총예산 대비 평균 여성정책담당팀 예산 비중은 0.25%에 불과하며, 타부서의 여성관련 예산의 총예산 대비 비율이 0.43%로 나타나 여성관련 예산은 자치구 전체 예산의 0.68%로 1%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여성의 대표성 제고의 필요성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한 수준임

○ 협조체제 구축과 역할의 강화 필요성

자치구 차원에서 협조체제 구축은 처음 시도된 것임. 이는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과 여성정책 담당팀의 위상제고를 위한 것이나 팀수준에서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 조성

○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내용의 부적절성

의식교육이나 의식개선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임. 자치구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관련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선 선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데 따른 오류와 무엇보다 담당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 필요

양성평등 교육이나 문화사업은 주로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향후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행사이후의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가 필요함

□ 여성경제활동지원

○ 여성경제활동 지원기반의 취약성

여성경제활동 지원은 여성정책분야 가운데 특히 취약한 분야의 하나임. 인적자원 개발이나 취·창업지원 등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 인력, 전달체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실정임

○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

취창업을 위한 자체사업의 대부분이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앞서 지적한 지원 기반이 취약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예산확보와 관련 부서나 혹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취약기반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임

○ 사업과 성과의 연계부족

여성경제활동지원 분야의 평가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취·창업을 위한 자체사업의 실질 취업률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취·창업 교육훈련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 여성사회참여지원

○ 여성 사회참여 지원의 한정성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이 있어온 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육성한 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회참여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에 한정되고 있어 여성의 인적 자본의 발전과 지역사회활동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여성인력 발굴의 활성화

정책과정에서 여성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자원봉사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정책과정, 예를 들면 일반시민의 대표로서 위원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때에 유능한 각계의 전문분야에 여성인재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자치구 여성위원회의 여성위원 평균 위촉비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자치구가 확보한 여성인재에 대한 DB가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

여성정책 분야의 다양한 사업 가운데서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투입 예산과 인력으로 치자면 모든 여성정책 분야를 통틀어도 보육사업의 비중을 넘지 못함. 보육이 이같이 중시되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임.

□ 여성가족복지향상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업의 체계적 접근 필요성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대상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되

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적 처방에의 접근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교육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현재의 실태는 특정 대상층과 강의 위주의 교육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 여성복지 사업 관리의 전문화 필요성

여성복지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별사업의 수행 후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참여자의 사후 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함. 또한 시행되고 있는 자체프로그램의 경우, 현금지원이나 문화체험,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등 사업이 제한되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2. 향후 추진과제

□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 성 주류화 기반 강화

-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확대
- 각종 자료의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생산 등

○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 강화
- 여성정책 추진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 여성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등

□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 지역사회 내 젠더 이슈를 찾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

- 2006년의 경우 종로구의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 되찾다"는 성폭력과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성매매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이나 "추석맞이 평등가족만들기 캠페인"(영등포구) 등도 좋은 사업임

○ 여성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여성창업강좌"(강북구), "이동여성상담소"(중랑구), "심리상담치료실"(강북구),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 지원사업"(강북구), "여성우울증

실태조사"(강서구) 등 여성의 현실적 요구를 찾아 그것을 해결,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남성과의 격차, 성별 불평등을 줄여가는 사업, 남성의 의식 개선 사업
- "남성 요리솜씨 뽐내기"(중랑구), "여성축구단 지원"(강서구), "민방위대원 양성평등교육"(관악구외) 등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남성들의 의식을 개선하며 여성들이 소외되기 쉬운 영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 소외된 여성집단을 정책의 주체이자 수혜자로 통합해가는 사업
- "결혼이민자 가정과 함께 하는 명절음식 만들기"(관악구),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족사랑캠프"(종로구), "장애인 멘티-멘토 한마당"(종로구) 등 이주 여성이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여성 등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 성 인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조사"(은평구), "여성정책포럼"(은평구외) 등 성인지적 정책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성평등 관점에서 인간과 역사,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역사 속 여성들을 찾아서"(종로구), "여성 영화제"(영등포구) "여성디자인포럼"(중랑구), "4행시 공모전"(영등포구) 등 역사와 문화에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과 활동, 성평등에 대한 지향을 탐색해 가는 사업

○ 유아, 10대, 청소년소녀들의 양성평등의식 함양 사업
- "양성평등 인형극"(종로구외) 등 아동이나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 함양 활동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프로그램 등은 감수성이 풍부한 성장기 소녀와 소년들에게 성평등의식을 길러줌으로써 미래사회의 젠더관계를 평등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임.

□ 여성경제활동지원

○ 관내 취약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수요 파악
○ 관내 여성교육훈련기관에 전문 직업상담사 지원하여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관내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지원
○ 관내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전문 직업교육프로그램 지원

□ 여성사회참여 지원

○ 여성대상 리더십 및 전문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활동을 대 주민 홍보 전개
○ 다양한 단체 발굴과 지원단체의 다각화
○ 연령계층별 단체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가족단위 참여활동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 평생교육 수료생의 동아리 활동 지원
○ 평생교육과 사회, 경제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여성가족복지향상

○ 예비부부, 재혼가족 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과 상담서비스 실시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 한부모가정 방문상담사업

V. 결론

자치구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치구 여성정책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자치구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자, 여성정책담당자(피평가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과 필요성

오늘날을 '평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의 중복과 잦은 평가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많아짐으로써 실제 새로이 사업을 개발할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평가가 낭비적이며 비능률적이라는 등 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의 업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감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부업무의 양적증가와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며,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점차 증대하는 국(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정부재정의 한계는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정부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정부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종료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에서 각국의 여성정책 추진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힘입어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적으로는 2001년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관평가, 특정정책에 평가 등 정부정책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미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02년 제2차 개정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정책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0조는 '시·도는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여성정책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담당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자치단체의 특성과 역량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이 크게 미흡한 분야가 있다. 여성정책은 그 정책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이 활발해진 이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의미할 때가 많았고,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이란 중앙정부의 정책내용이나 틀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경희, 2006). 지방자치제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지역여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때에 과연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은 실제로 해당 지역여성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현재 자치구 차원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고 향후 자치구 여성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연구목적

'평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물건에 대한 화폐가치를 결정함' 혹은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으로 정의된다. 여성정책의 평가를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 정의한다면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의 달성이라는 여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정책을 평가해야 하는가? 왜 평가를 해야 하는지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지식의 관점, 둘째, 관리의 관점, 셋째, 책임성의 관점(차의환, 1998: 노화준, 1991: 김명수, 2001)이다. 여기에 비둥(E.Vedung, 1995)은 전략상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략적 목적이란 정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상급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결점이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혹은 프로그램의 매력적인 측면을 과시하거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외양을 실제보다 더욱 낫게 표현하기 위해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바람직한 목적은 아니나 평가에 실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평가의 세 가지 목적을 통해서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평가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론형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이 실시되면 그것이 의도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책이 함축하고 있는 목표와 수단간 인과관계가 실제 평가를 통해서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연구를 통해 지식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여성정책이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상징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그와 같은 정책이 실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 여성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되는 다양한 시책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여성정책의 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이 어떠한 공과를 가져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가정보에 반영함으로써 관리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뿐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과연 여성과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는 평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그 결과를 다음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정책의 관리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정책 재원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다. 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이 달성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평가는 이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요약하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부가

실제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만큼 일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여성정책의 목표 달성에 과연 기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자치구 여성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범위와 방법

1. 평가의 범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대상범위는 여성발전기본법[1]과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2]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서울시 여성정책4개년계획[3](2003~2006)과 각 자치구가 해마다 수립하는 자치구여성정책시행계획에 의거한 사업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류 서울'을 모토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소외여성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제공, 아동보호 프로그램 강화 및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이라는 정책방향을 기초로 5개의 사업 분야와 목표, 14개 과제, 41개 단위사업이 있다[4]. 자치구의 여성정책은 상급 기관의 정책 범주에 있으며, 자치구의 역량과 특성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차별화와 특성화를 꾀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여성정책평가의 대상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수행한 여성정책 사업이다. 이는 2005년자치구여성정책종합평가 대상기간 이후 자치구여성정책 사업수행의 연속선상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

1)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범위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으로 정하고 있다.

2) 내용에는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고용상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2005년자치구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 참조.

4)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범주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 분야는 제외한다.

2. 평가의 방법과 절차

1) 평가방법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평가과정과 절차에 대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 자료의 성격에 따른 평가방법의 구분이다.

첫째, 평가과정과 절차에 관한 방법으로서 "2006년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공통분야와 선택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6개의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정책기반조성분야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 수행 기반조성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다음, 선택분야는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 향상으로 각 자치구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 가운데 한 개 분야를 지원하여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의 특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 분야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되 영역을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한 개 사업을 제출토록 하였다.

둘째, 평가 자료의 성격에 따른 방법으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적자료에 의한 계량적 평가로 양적평가, 부문별 전문가에 의한 사업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그리고 실제로 정책의 수혜대상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다면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양적 자료화가 가능한 지표에 대하여 계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전년대비 증감율, 여성공무원 혹은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전체 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 비율 등 각종 비율, 사업 건수 혹은 실적 등을 들 수 있다. 정량평가는 자료의 객관성이 높고, 상대적인 비교를 함에 있어서 명확한 비교가 가능한 반면, 평가대상에 내재한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계량화할 수 없는 지표에 한하여 전문가의 시각과 관점[5]을 통해서 사업내용이나 계량적 평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을 측정 지표화하여 계량적 평가를 보완

5) 각 부문별로 3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기반조성분야를 제외하고 내부연구진1인과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자치구가 실시한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내용의 평가를 위해서 우수, 양호, 보통의 세 가지 척도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해당사업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부문별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1〉 여성정책 평가부문별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평가부문		자료유형	평가유형	평가방법	평가위원
공통분야	여성정책 기반조성	실적자료	정량평가	계량평가	김경희(중앙대) 고선주((재)서울여성) 조연숙((재)서울여성)
		실적자료내용	정성평가	평가위원평가	
선택분야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실적자료	정량평가	계량평가	신경아(상지대) 류정아(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영미((재)서울여성)
		실적자료내용	정성평가	평가위원평가	
	여성경제 활동지원	실적자료	정량평가	계량평가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양인숙(한국여성개발원) 조연숙((재)서울여성)
		실적자료내용	정성평가	평가위원평가	
	여성사회 참여지원	실적자료	정량평가	계량평가	신경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희(한국여성개발원) 조영미((재)서울여성)
		실적자료내용	정성평가	평가위원평가	
	여성·가족복지 향상	실적자료	정량평가	계량평가	김연옥(서울시립대) 김혜영(한국여성개발원) 고선주((재)서울여성)
		실적자료내용	정성평가	평가위원평가	
공통분야	특수사업	실적자료	정량평가	계량평가	위의 평가위원 가운데 영역별 3인
		실적자료내용	정성평가	평가위원평가	
		설문조사	정성평가	만족도조사	

마지막으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특수사업 분야 수혜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6]. 오늘날 행정의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최종 고객인 시민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고객지향적' 행정이라고도 한다. 여

6) 만족도 조사는 사회과학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참여자 가운데 표본대상자를 4배수로 제출토록 하고 이 가운데 자치구별로 15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단 참여자수가 15명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전수조사 함). 조사기간은 2006. 10. 2 ~ 12(기간중 5일간)까지 수행하였다.

성정책의 고객은 시민, 특히 여성시민이다. 과연 자치구의 여성정책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여성정책 참여자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대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성정책 참여자 만족도는 각 자치구가 특수사업으로 제출한 1개 사업에 대하여 조사한다. 총6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욕구충족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정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후 참가의향, 여성정책목표달성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2〉 특수사업 수혜자 만족도 설문문항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	OO프로그램(서비스)은 귀하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2	OO프로그램(서비스)은 귀하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3	귀하는 OO프로그램(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Q4	귀하는 OO프로그램(서비스)의 운영 및 진행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Q5	향후에도 OO프로그램(서비스)이 개설된다면 다시 참가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Q6	OO프로그램(서비스)이 양성평등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평가절차

2006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절차는 2005년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구성, 자료수집, 평가, 평가완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2005년 평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첫째는 당해연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체 평가 틀,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평가방법과 지표, 그 외에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전체적으로 평

가항목과 지표가 방대하므로 중복되는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평가영역에 따라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의 적용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제시되었다.

둘째는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로부터의 평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성정책수행의 애로사항, 여성정책목표 달성도,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정성, 평가방식 등을 평가함으로써 2006자치구여성정책 평가 계획수립의 방향을 정비하였다.

○ 평가지표의 구성과 관련하여 '2005평가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담당자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2005년 여성정책 대상과 범위,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방식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초점을 여성대상 사업, 가족사업, 일반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사업으로 정리하였다.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2005년과 마찬가지로 문서에 의한 평가와 전문가 내용평가를 실시하되 정책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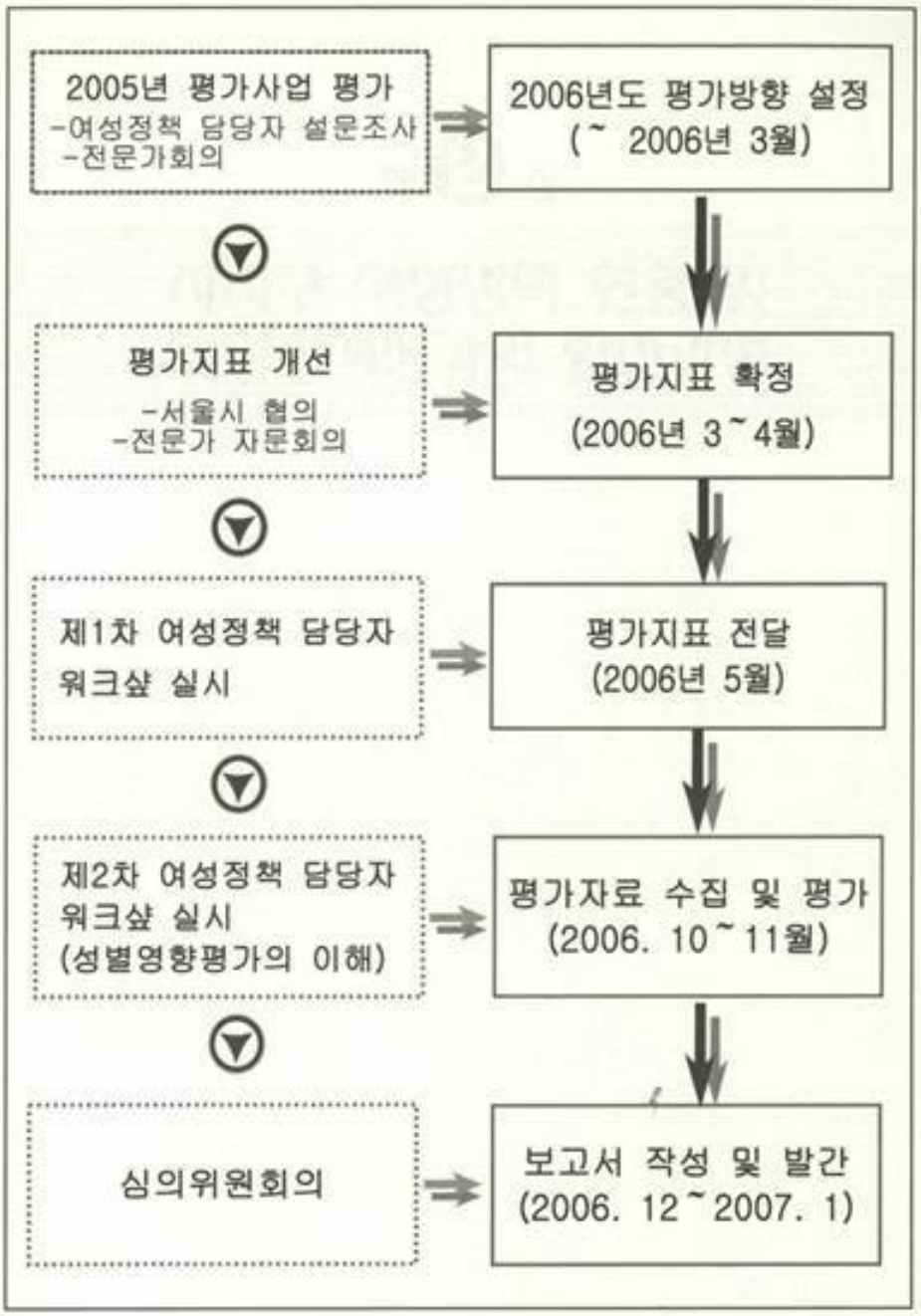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지표수를 크게 축소하고 성과지표를 보완토록 하였다.

평가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현재 자치구의 여성정책 영역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평가영역별 우수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치구의 특성화를 유도하였다.

○ 평가 자료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료 수집은 평가 쉬트와 각종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포함하는 별첨자료를 엑셀과 한글화일로 본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고(up-load) 각 자치구는 해당 양식을 내려받아(down-load) 양식을 기입하여 메일로 회송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써 평가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수집은 실적자료와 각종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제출기한을 엄수토록하여 1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기한 내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취합하여 평가부문별, 자치구별 우수구를 구별하였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그림 1-2-1〉 평가과정과 절차

제 2 장

자치구 여성정책 현황 및 여성정책평가의 발전과정

제2장 자치구 여성정책 현황 및 여성정책평가의 발전과정

제1절 여성정책의 목표체계와 자치구 여성정책의 일반현황

1. 여성정책의 목표체계

정책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라스웰(1951)이 정의한 '중요한 선택'으로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개념부터 '사회 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정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노선 혹은 행동방향', '목적과 수단 및 실제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책 등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 대상으로서 사회문제나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1997)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다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위 정책이 일련의 정책체계를 통해서 구체화되며 세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한편, 여성정책이란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능력을 개발·활용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정책의 범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범위를 가정하며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까지 포함한다(초의수, 1999).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개념은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자치구 여성정책은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의 정책기조 하에 상급기관 여성정책의 연계사업과 자치구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정책

의 목표를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목표와 수단의 연계체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여성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때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책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대상 정책으로써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정책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여성정책의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신경아, 2006). 즉, 대부분의 여성정책이 '여성정책=여성대상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성정책'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첫째는 보수성의 문제로 여성정책을 여성대상 정책으로 설정할 때 전통적인 성별분업 유지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부분 포함한다는 것이다. 김장담그기,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실적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것이 자칫 이와 같은 사업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여성정책의 고립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이 붙는 과제는 모두 여성정책 담당부서로 보내지며 이 곳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무시되거나 무관심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여성정책의 범주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출산, 보육 등에 대한 많은 예산지원은 실제로 양성평등의 달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여성정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산이나 보육은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평가의 대상이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으로 현재 존재하는 '여성 대상의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성정책 개념에 내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정책 사업 가운데 여성정책의 목표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체계를 살펴 볼 것이다.

1)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사전적으로 '비전'(vision)이란 이상상(理想像), 미래도, 가능 등을 포함하는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과 바램의 언어적 표현이다. 따라

서 비전은 높은 추상성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럴듯한 상(像)을 내포한다. 목표는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중앙정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7]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국가적으로 여성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2006년 현재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제1차기본계획에서 여성정책의 목표와 정책영역을 나누어 추진한 것에 이어 제2차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의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이란 1차 기본계획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킨 것을 보다 심화하여 생활 속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8]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여성정책4개년 계획(2003~2006)을 수립하고 연도별 정책지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성정책의 비전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양성평등 도시 서울'로 제시함으로써 '서울'이란 장소가 여성들로 하여금 행복한 곳, 양성평등한 곳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비전의 개념에는 시각과 대상의 포괄성과 추상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치구는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비전을 구체화하여 6대 방향(목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소외여성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제공/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어려운 청소년 아동보호 지원

7) 제1장 총칙에서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으로 정의(제3조)하고, 또한 동법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여성정책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포함하는 등 정책목표를 몇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이와 같은 중앙정부 여성정책의 비전은 '여성정책의 주류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여성발전'(WID) 패러다임에서 '젠더관계'(GAD)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은 여성가족부의 네 가지 정책 목표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즉 아동·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여성정책수행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정책이 아동청소년 정책영역을 아우르는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여성정책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의 범주에 속한 양성평등달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경제활동, 여성복지 향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2) 추진전략

추진전략이란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 작전, 전략의 추진 동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추진전략으로 성 주류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성 주류화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달성되는데 첫째는 여성의 주류화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 둘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을 통합시키는 것, 셋째, 주류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즉 모든 차원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주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협력체계 구축은 여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담당부처, 부서, 담당자 등 특정부처나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간, 정부와 사회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시민단체간, 또한 시민과 시민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은 서울시 및 자치구 여성정책 목표의 달성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여성정책이 몇 가지 부문과 영역으로 나뉘고 각 부문과 영역은 다시 세부 사업단위로 구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부문과 영역을 10대 정책과제로 나누고 115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10개 과제와 26개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9] 자치구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와 연계한 사업과 자치구가 자체적인 역량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다. 여성정책 분야와 구체적인 사업명은 '2006년 자치구 여성정책 사업 예시'에 소개되어 있다.

2. 자치구 여성관련 일반현황

1) 인구

서울시 인구는 2005년 현재 10,297,004명이며, 여성인구는 5,173,266명이고 남성 인구는 5,123,738명으로 여성비율(50.24%)이 남성비율(49.76%)보다 0.48%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 비해 전체 인구는 0.09% 증가되었으며, 여성인구는 0.27% 증가된 결과이다[10].

전체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써 624,855명이었으며, 송파구와 강서구가 각각 610,023명과 557,373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치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와 종로구로 각각 134,420 명과 173,861 명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2004년 대비 0.90%의 인구감소가 있었으며,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 역시 1.59%의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11].

여성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써 51.45%였으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49.00%로 조사되었다. 2004년 대비 각각의 비율변화를 보면, 강남구는 2004년 대비 0.03%의 감소를 보였으며, 금천구는 0.1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12](<표 2-1-1> 참조).

---

9) 본래 14대 과제 4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제와 단위사업을 제외한 수치이다.

10) 2004년 서울시 인구는 10,287,847명이며, 여성인구는 5,159,095명임(200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재단법인 서울여성. pp.38-39).

11) 노원구의 2004년 총인구는 630,555명이었으며, 중구의 2004년 총인구는 136,585명임(200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재단법인 서울여성. pp.38-39).

12) 2004년 강남구의 여성인구비율은 51.48%였으며, 금천구의 여성인구비율은 48.90%임(200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재단법인 서울여성. pp.38-39).

〈표 2-1-1〉 자치구별 인구규모 및 여성 대 남성 비율

자치구 구분	총인구(명)	인구수(명)		비율(%)	
		여성	남성	여자	남자
총 계	10,297,004	5,173,266	5,123,738	50.24	49.76
종로구	173,861	86,770	87,091	49.91	50.09
중 구	134,420	67,358	67,062	50.11	49.89
용산구	240,077	121,809	118,268	50.74	49.26
성동구	342,691	170,833	171,858	49.85	50.15
광진구	380,480	190,983	189,497	50.20	49.80
동대문구	386,280	191,834	194,446	49.66	50.34
중랑구	429,922	215,247	214,675	50.07	49.93
성북구	467,308	234,970	232,338	50.28	49.72
강북구	355,334	178,883	176,451	50.34	49.66
도봉구	383,448	192,936	190,512	50.32	49.68
노원구	624,855	317,286	307,569	50.78	49.22
은평구	473,456	238,979	234,477	50.48	49.52
서대문구	355,934	181,067	174,867	50.87	49.13
마포구	393,155	200,147	193,008	50.91	49.09
양천구	502,788	251,419	251,369	50.00	50.00
강서구	557,373	281,373	276,000	50.48	49.52
구로구	427,119	210,486	216,633	49.28	50.72
금천구	263,936	129,317	134,619	49.00	51.00
영등포구	421,327	208,205	213,122	49.42	50.58
동작구	414,668	208,770	205,898	50.35	49.65
관악구	537,235	263,765	273,470	49.10	50.90
서초구	406,875	208,210	198,665	51.17	48.83
강남구	547,775	281,832	265,943	51.45	48.55
송파구	610,023	308,513	301,510	50.57	49.43
강동구	466,664	232,274	234,390	49.77	50.23

※ 자료: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특별시 ·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시 전체 성비는 98.9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간 많게 나타났다. 이는 2004년[13]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2004년에 비해 여성인구가 좀더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9세이하, 10~19세, 30~39세는 남성인구가 많았으나, 20~2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의 계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13) 2004년 서울시 전체 성비는 99.4%임(200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재단법인 서울여성. pp.39-40).

특히 60세이상에서는 성비가 79.96%로 나타나 타 연령층보다 여성인구가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자치구별 성비는 관악구가 103.80%로 여성이 가장 적은 반면, 강남구는 94.06%로 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각 연령별로 가장 높은 성비를 보인 자치구와 성비는 9세이하 양천구 109.96%, 10~19세 종로구 119.16%, 20~29세 금천구 108.64%, 30~39세 관악구 125.02%, 40~49세 중구 108.01%, 50~59세 양천구 106.08%, 60세이상 서초구 86.95%였다 (<표 2-1-2> 참조).

〈표 2-1-2〉 자치구 연령별 성비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수)

	전체성비	9세이하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서 울 시	98.98	107.53	111.25	98.53	105.11	97.05	94.70	79.96
종 로 구	100.62	109.52	119.16	106.75	105.85	99.11	94.68	79.23
중 구 구	99.92	101.77	108.48	101.43	113.66	108.01	93.49	76.06
용 산 구	96.58	109.19	112.16	94.81	104.16	100.46	89.71	75.62
성 동 구	100.68	105.12	107.01	100.49	109.95	107.26	93.80	78.10
광 진 구	99.13	107.39	110.96	92.60	105.14	99.15	96.27	83.44
동대문구	101.71	105.62	110.32	106.73	111.89	102.73	93.81	81.47
중 랑 구	100.02	108.32	109.08	99.62	105.58	100.65	97.03	80.18
성 북 구	98.89	106.71	109.22	101.90	106.79	99.18	91.15	79.20
강 북 구	98.86	108.94	109.17	103.05	107.22	98.98	86.94	82.15
도 봉 구	98.63	106.23	111.06	102.96	98.62	93.37	101.18	80.45
노 원 구	96.93	108.06	112.26	99.24	96.53	94.52	99.66	70.16
은 평 구	98.26	106.44	108.59	99.81	104.63	96.74	91.31	82.12
서대문구	96.43	105.89	108.51	95.64	105.00	98.27	88.75	77.04
마 포 구	96.10	105.81	105.64	89.52	107.54	100.11	87.28	77.81
양 천 구	99.74	109.96	112.84	100.60	95.01	97.43	106.08	75.90
강 서 구	98.06	106.61	110.75	98.55	104.46	93.31	96.28	75.82
구 로 구	102.68	108.12	111.25	102.63	110.89	101.11	96.74	85.76
금 천 구	103.68	106.82	111.09	108.64	108.55	106.07	98.70	81.89
영등포구	102.02	109.28	112.70	98.88	111.80	103.37	95.53	82.61
동 작 구	98.46	105.86	109.03	99.17	110.06	95.47	87.92	82.00
관 악 구	103.80	107.41	111.25	102.50	125.02	99.94	88.04	85.87
서 초 구	95.19	108.06	110.31	91.48	95.50	89.75	91.30	86.95
강 남 구	94.06	109.76	116.87	85.52	95.52	86.94	92.84	82.10
송 파 구	97.91	109.39	109.94	95.02	99.78	92.42	100.71	80.62
강 동 구	100.97	107.57	118.92	105.05	101.91	92.67	102.24	79.14

※ 자료: 「서울통계 DB」, 서울특별시홈페이지(http://stat-app.seoul.go.kr/). 재구성.

2) 여성관련 시설 현황

서울통계(2005)에 의하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여성복지 시설 수는 41개소로 모자보호시설 6개소, 선도보호시설 15개소, 미혼모시설 2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1개소이다.

자치구별로 구로구가 여성복지 관련 시설이 가장 많은 6개소로 모자보호, 선도보호시설이 각 2개소와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각 1개씩 소재하고 있다. 다음은 용산구·성북구·강남구는 각각 4개씩 소재하고 있고, 마포구 3개소, 종로구·동대문구·강북구·은평구·서대문구·강서구·영등포구·동작구는 각 2개소, 중구·노원구·관악구는 각 1개소 소재하였으나, 성동구·광진구·중랑구·도봉구·양천구·금천구·서초구는 여성복지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자치구별 여성복지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시설 총수	유형별 시설수					
		모자보호	선도보호	미혼모	모자일시 보호	성폭력	가정폭력
총 계	41	6	15	4	2	3	11
종로구	2	-	1	-	-	-	1
중구	1	-	-	-	-	-	1
용산구	4	2	2	-	-	-	-
성동구	-	-	-	-	-	-	-
광진구	-	-	-	-	-	-	-
동대문구	2	-	1	-	-	-	1
중랑구	-	-	-	-	-	-	-
성북구	4	1	3	-	-	-	-
강북구	2	-	1	-	-	-	1
도봉구	-	-	-	-	-	-	-
노원구	1	1	-	-	-	-	-
은평구	2	-	-	-	-	1	1
서대문구	2	-	-	2	-	-	-
마포구	3	-	1	-	-	1	1
양천구	-	-	-	-	-	-	-
강서구	2	-	-	1	1	-	-
구로구	6	2	2	-	-	1	1
금천구	-	-	-	-	-	-	-
영등포구	2	-	2	-	-	-	-
동작구	2	-	2	-	-	-	-
관악구	1	-	-	-	-	-	1
서초구	-	-	-	-	-	-	-
강남구	4	-	-	1	1	-	2
송파구	1	-	-	-	-	-	1
강동구	-	-	-	-	-	-	-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통계DB

이 외에 성폭력 상담시설 9개소이며, 2005년 말 기준 한 해 상담건수는 19,065건이고 이 가운데 성폭력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 8,538건(44.8%)으로 나타났고, 성추행 3,293(17.3%)건으로 나타났다.

〈표 2-1-4〉 성폭력 상담시설 및 상담운영실적

단위: 건수, %

구 분	시설수	유형별 상담건 수			
		총 계	성폭력	성추행	기타
합 계	9	19,452	8,538	3,293	7,621
한국성폭력상담소	1	3,949	2,867	866	603
서울성폭력상담센터	1	1,220	632	307	281
내일청소년상담소	1	6,607	738	400	5,469
청소년성폭력상담소	1	1,670	553	755	36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1	1,393	754	392	247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1	1,251	1,101	7	143
가족과성상담소	1	1,203	601	406	196
한국여성장애인폭력상담소	1	801	620	7	174
한국여성상담센터	1	971	672	153	146

자료: 서울특별시 · 재)서울여성,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 소재 가정폭력 상담소는 6개소이며 2005년 상담실적은 8,1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담유형별로 신체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4,889건(30.2%), 다음이 경제적 학대 2,273건(28%), 정서적 학대 442건, 방임 42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5〉 가정폭력상담소 수 및 상담운영실적

단위: 건수, %

구 분	시설수	상 담					
		총계	신체폭력	정서학대	경제학대	방임	기타
총 계	6	8,117	4,889	442	2,273	423	90
한국가정폭력상담소	1	2,314	1,866	-	331	67	50
화해가족상담소	1	3,157	1,207	99	1,585	258	8
강서양천가정폭력 상담소	1	629	362	25	172	48	22
잠실가정폭력 상담소	1	816	524	262	24	5	1
은평가정폭력 상담소	1	567	391	44	95	37	0
한국여성 상담 센터	1	634	539	12	66	8	9

자료: 서울특별시 · 재)서울여성,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3) 여성정책조직 및 인력

자치구별 여성정책 소속부서 및 담당팀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여성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부서는 주로 가정복지과 혹은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담당은 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담당 조직차원에서 보면 과 수준에서

〈표 2-1-6〉 자치구여성정책조직 및 인력현황

구 분	소속과	팀명	인원	
			2005년	2006
평 균	-	-	4.12(명)	4.48(명)
종로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3	5
중 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	2	2
용산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4	5
성동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	3
광진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3	3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5	4
중랑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5	4
성북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4	4
강북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3	7
도봉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5	5
노원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4	4
은평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3	4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4	4
마포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	6
양천구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5	5
강서구	여성복지과	여성복지팀	5	5
구로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3	3
금천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5	5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5	6
동작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4	4
관악구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5	5
서초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5	6
강남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4	4
송파구	가족복지과	여성정책팀	5	4
강동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4	5

'여성복지과'를 두고 있는 자치구는 강서구와 양천구이며 각각 '여성복지팀'과 '여성정책팀'이란 팀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정책팀'이 가장 보편적인 팀명으로 14개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여성복지팀' 8개 자치구이며 이 외에 여성팀과 여성청소년팀이나 가정복지팀처럼 상대적인 거주인구가 작은 자치구에서는 청소년이나 아동 등 정책대상이 혼합된 팀명을 사용하는 자치구로 구분되고 있다.

한편 여성정책 담당 인력은 2006년 평균 4.48명으로 2005년에 비해 0.36명 증가하였다. 특히 강북구의 여성정책 담당인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여성정보화팀을 신설함에 따른 것이다.

4) 2006자치구 여성정책 영역별 세부사업 예시

자치구 여성정책은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여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가를 자치구가 제출한 2006년도 여성정책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약20개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중복적인 사업은 제외하였음).

자치구의 여성정책 사업은 대체로 여성정책추진기반,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소외여성복지,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등으로 구분되어 정책추진기반과 여성정책의 목표와 연계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팀의 사업계획 가운데 특히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가 많은 비중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추진기반 분야의 사업영역은 여성위원회 운영 관련, 인사관리, 여성정책추진의 전문성, 여성대체인력, 홍보, 여성발전기금 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사업은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나타난 것처럼, 자치구 차원에서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해 부서간 협조사업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정책의 성 주류화 달성을 위한 기

반체계 조성에 대한 접근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문화조성 분야는 여성주간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과 지원사업, 여성학 강좌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주간사업은 사업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기념식이나 여성지도자 등에 대한 시상,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주로 여성강좌를 포함하여 교육, 문화사업, 남녀 차별신고 센터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활성화 분야는 여성정책 분야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앞서 여성정책 개념이해의 문제에서 지적된 것처럼 여성정책이 주로 취약계층의 복지 측면에서 다뤄짐으로써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으며 자치구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에서 역시 경제활동인력의 성별 관점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사업영역이 여성교실이나 여성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한 직업교육실시, 취·창업을 위한 단기적 강좌 등, 취업정보제공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분야는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단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주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앞서 지적된 여성정책의 근본 취지와 잘 맞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외여성복지 분야는 여성보호시설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이 주요 사업영역으로 구분되어 시설지원과 상담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소외여성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대상이 매우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분야는 사업영역과 세부사업의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도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여성정책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개선, 출산양육비 지원과 아동급식 및 아동시설 지원과 같은 사업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7〉 2006년도 자치구 여성시책 요약

구분	사업 영역	세부사업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	①위원회 여성위촉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구정참여기회 확대
	②여성위원회 운영	○여성위원회운영 활성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여성홈페이지 개편
	③공정한 인사관리	○여성관리직 확대 및 다양한 직무순환 보직 -승진 등 인사에서 여성배려의 인사관리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차별적 인사관행 개선
	④여성정책전문성 향상	○여성정책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참여 기회제공 -여성지도자 교육 및 육성 ○여성정책 연구모임 운영
	⑤여성 대체인력 지원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지원
	⑥여성정책홍보 활성화	○여성정책관련 언론보도 강화
	⑦여성발전기금조성	○여성발전기금 조성
양성평등문화확산	①여성주간사업추진	○여성주간 행사추진 -여성주간기념식 -여성발전유공자표창 -여성주의 연극공연 -여류작가 전시회 -소호여성창업모델발표회 -여성유망직종세미나개최 -이벤트가 있는 바자회 실시 -평등걷기대회 개최 -여성주간기념표어공모
	②양성평등문화조성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성교양강좌 실시 -양성평등교육 실시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양성평등 문화사업 추진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③문화사업지원	-홈비디오 영상공모전 -여성백일장 -구립합창단 운영 -하하호호 가족사진 콘테스트 -3대가 함께하는 요리경연대회 개최 -건강가족 음악회 개최 -여성발표회 개최
	④여성학강좌운영	○여성교실, 여성교양대학 운영 ○여성 아카데미 교육 ○여성정보센터 설치운영

(계 속)

구분	사업 영역	세부사업
여성 경제 활동 지원	①여성직업전문교육 실시	○여성직업전문교육 실시 ○여성 취업교육 및 지원 ○소외계층 여성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여성기업 제품구매
	②창업강좌실시	○소자본 창업강좌 실시 ○창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③취창업 지원	○해외시장개척지원 ○중소기업제품직거래장터개설
	④지역특성화 사업	○희망시장 지원 -웨딩박람회 개최
	⑤정보화교실 운영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 개편 ○주부 정보화교실 운영 ○실버계층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 지원
여성 사회 참여 지원	①여성단체활동지원	○여성단체연합회활동지원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샵실시 -여성단체연합회 연말 평가회 개최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 -자원회수시설 견학 지원 -이웃돕기 바자회 지원 -도농간 여성단체 교류지원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지원 ○동새마을 부녀회 사업평가대회 ○아파트 꽃가꾸기 운동 ○cyber 주부 생활순찰단 ○구정평가단, 패널단 운영 ○주부기자단, 리포터 운영 ○학교어머니교실 운영 ○사랑의 김장나누기 ○여자테니스단 운영
	②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아카데미 개최 -자원봉사 활동자 기능양성교육 실시 -장애인 및 독거노인 나들이 -자원봉사축제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
소외 여성 복지 향상	①여성보호시설지원	○여성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자상담시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랑의 둥지 -성매매여성선도보호시설: 여성의집 ○여성시설 명절격려 ○성매매 예방 관련 추진 ○현장활동지소 운영 ○통합운영상담소 운영 지원

(계 속)

구분	사업 영역	세부사업
소외 여성 복지 향상	②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여성장애인 도움 사업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③저소득모. 부자가정지원	○저소득모. 부자가정 명절격려 ○저소득모. 부자가정 혈액검사 실시 ○저소득모. 부자가정이 함께하는 농촌체험 ○저소득층 동거부부의 결혼식 행사 추진 ○SOS 가정상담소 운영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료 지원 ○가족화합을 위한 가족캠프 실시
보육 및 아동 서비스 향상	①보육서비스개선	○어린이대축제 ○보육교사 국내,외 연수 ○보육시설종사자 전문교육 ○보육교사대체인력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확충 및 지원 ○방과후 보육의 확충 ○직장보육시설 운영내실화 ○구립보육시설 전문주치의제 시행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급 ○구립보육시설 위탁지원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 교육 및 설문조사 실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급확대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교사 표창 ○보육시설 종사자 친절 및 교육연수 ○어린이집 관련 행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무료 결핵 검진 ○보육시설 합동 소방훈련실시 ○컴퓨터 등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②보육시설 확충	○보육사업 지원 및 운용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품질향상 등
	③출산양육비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출산 축하용품 지원 ○세자녀 이상 우대 뇌수막염 예방접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및 모유전동유축기 대여사업
	④아동급식지원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⑤아동시설지원	○시설아동 방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시설 체육대회 지원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

제2절 서울시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의 발전과정

1. 선행 여성정책 평가연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정책 평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여성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 평가연구 초기에는 주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수립이후 이에 대한 평가나 중앙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때의 평가란 평가 틀이나 구체적인 평가지표 없이 추진실적의 점검 및 현황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그치고 있다(손봉숙, 1996; 한국여성단체, 1999; 김정자, 1997; 김재인외 1998; 김양희, 1998, 2000 등). 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보다 구체화되면서 평가의 기준과 틀을 마련하려는 등의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여성정책의 범위가 전 정책영역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수준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지표나 기준이 정책자체의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성정책 내용의 구체성, 중앙과 지방의 정책의 연계성 등 정책구조와 체계가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틀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김재인 · 조연숙, 2002 등).

한편, 지방자치제가 점차 진전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더욱 실천적 ·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지방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연구가 여성단체나 혹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경상남도, 1998; 여성단체연합, 2002; 경기도, 2002; 전라북도, 2003 등). 여성단체연합(2002)은 16개 광역시 · 도의 여성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도하였는데 사업내용이 적합한지, 정책대상이 적합한지, 사업방법이나 접근성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있으나 평가의 틀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한편 김재인 등(2002; 2003)이 수행한 경기도와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행역량과 정책과정, 여성정책의 영역별로 여성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수단적 정책과제의 적절성, 연속성, 효과성, 추진 성과 등 평가방법과

내용, 평가지표가 보다 구체화·다양화 되고 있어 점차 평가의 틀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구조나 체계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높고 정책자체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외에 행정자치부(2001)가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는 주로 공직의 인사, 교육훈련, 능력개발, 위원회 여성참여 등 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의 영역에 한정하여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여성정책 평가는 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상범위가 여성공무원과 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있다. 다른 한편,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책의 최후 수혜자인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파악한다는데 평가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정책영역 가운데 여성 및 복지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거나(시·도 국정시책합동평가, 2005),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군 혹은 자치구 여성정책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강원도, 2003; 서울특별시, 2004, 2005 등).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평가보다는 여성정책 사업을 통해 나타난 실적이나 결과, 성과 등 대 시민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실천적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강원도(2003)는 시·군의 여성정책을 여성정책의 목표에 따른 정책분야로 나누고 9개의 세부시책을 평가영역으로 나누고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배점, 세부지표 및 산식에 대한 점수화를 통해서 계량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04년부터 자치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고 2006년까지 3회째 이어오고 있다. 자치구여성정책평가의 전개과정에 대해 평가영역과 방법, 평가지표의 설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전개과정

1) 개요

자치구여성정책평가는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여성정책사업비를 실적과 성과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자치구여성정책 평가사업의 전개과정을 평가대상기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자료 유형 및 방법, 사업비, 시상내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대상 기간은 전년도 11. 1~ 당해연도 10. 31까지로 약 1년 동안 추진된 여성정책 실적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한다. 이 같은 사업기간은 사업비 지급을 해당 연도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행정과정상 편의에 따른 것이다. 둘째, 평가분야는 2004년과 2005년 10개 분야로 동일한 반면, 2006년도에는 6개 분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또 하나의 변화는 모든 자치구가 모든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치구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기하고자 하였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셋째, 평가항목 및 지표수는 평가 첫해인 2004년 34개 항목에 86개 지표였으나, 2005년 전문가 내용평가의 평가지표가 수 개 추가됨에 따라 27개 평가항목에 102개 평가지표로 전년도에 비해 평가지표가 15.7%(16개) 증가하였다. 여성공무원 관련 실적지표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여성이행복한고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평가자료의 수집이 중복적이며 지표수가 많다보니 평가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큰 점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6년도 평가지표를 개선하고자 총 34개 항목 69개 지표로 대폭 축소하였다. 넷째, 평가자료 유형과 방법에 있어서 2004년도는 86개 지표 모두 사업추진 실적을 정량화하여 점수화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였으나, 2005년도는 그와 같은 정량적 방법이 과연 자치구의 여성정책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각 평가분야별 전문가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가 추가 되어 2005년도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였다. 2006년도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외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여성시민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책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사업비와 시상내역은 2004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총 10억에 최우수구(1개), 우수구(2개), 모범구(12개) 15개 자치구가 시상하였고, 2005년도에는 인센티브 사업비 총 10억에 최우수구(1개), 우수구(2개), 모범구(5개), 향상구(3개)의 9개 자치구가 시상하였다.

〈표 2-2-1〉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사업 총괄 현황(2004~2006)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가대상기간	2003. 11. 1 ~ 2004. 10. 31	2004. 11. 1 ~ 2005. 10. 31	2005. 11. 1 ~ 2006. 10.
평가분야	10개 분야	10개 분야	6개 분야
평가항목 및 지표수	34개 항목 86개 지표	27개 항목 102개 지표	34개 항목 69개 지표
평가자료 유형 및 방법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만족도 평가
인센티브사업비	10억	10억	5억
시상내역	최우수구 1개 우수구 2개 모범구 12개	최우수구 1개 우수구 2개 모범구 5개 향상구 3개	-여성정책기반조성 분야 최우수구 1개, 우수구 2개 -4개 여성정책분야 최우수구 4개 -수범사례 3개

2) 평가분야, 지표 및 방법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평가분야, 지표, 평가방법 등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평가분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정책 사업 분야는 대단히 광범위하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여성정책의 평가분야는 몇 개 분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정책기반, 양성평등, 여성경제활동, 여성사회참여, 여성 및 가족 복지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영역을 세분화하여 2004년에는 10개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보육서비스, 아동안전복지의 사업이 여성정책 사업으로 분류되

어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동안전복지 분야의 사업이 여성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관련성을 묻는 경우 여성정책의 대상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2005년도에는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대상 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직접 여성과 관련 있는 사업 분야로 한정하고자 평가분야를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화장실의 남녀 사용 공간 개수가 불균형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신규사업 분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건강증진분야를 평가분야로 보완하였으나, 주로 여성건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소사업으로 평가결과 모든 자치구가 유사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자치구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2006년도 평가분야에서 제외하였다. 2006년도는 이전의 평가와 달리 여성정책 분야를 여성정책의 전략적 목표 위주로 구분하여 평가분야를 단순화하였다.

〈표 2-2-2〉 연도별 평가분야 비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가분야	-여성정책발전기반구축 -양성평등시책추진 -여성경제활동 지원 -양성평등인사관리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복지향상 -보육서비스 -아동안전복지 -가족복지 -특수사업(수범사례)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 -양성평등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소외여성복지향상 -보육서비스증진 -여성건강증진 -가족복지 -신규사업(화장실개선사업) -특수사업(수범사례)	□ 공통 -여성정책기반조성 -수범사례 □ 선택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향상
비 고	25개 전 자치구 공통적용	25개 전 자치구 공통적용	-공통:여성정책기반조성 -4개 영역 중 1선택

(2) 평가지표 및 방법

앞서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것은 여성정책의 값어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제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지표의 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평가'란 어떤 사안에 대한 가치를 매기거나 부여하는 행동이다. '지표'란, 체제의 조건과 변화의

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indicator measures),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물인 구체적 지표통계(indicator statistic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성정책의 평가지표란 여성문제의 해결과 목표달성을 위해 시행한 시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의 삶과 복지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평가분야를 정책수행기반과 네 가지 차원의 전략적 목표분야로 구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이나 과제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구조에 대한 평가는 이 연구의 초점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자치구여성정책에 대한 메타평가(meta evaluation)로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지표는 평가 자료의 유형에 따라 크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지표는 사업시행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산출지표(output indicators)와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s)로 구분할 수 있다. 산출지표는 단지 사업시행건수 등과 같이 사업의 단순한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 결과지표는 단순한 수량적 많고 적음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결과의 달성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는 2004년 86개였다가 2005년 전문가 내용평가의 정성평가 지표를 추가·보완함에 따라 102개 지표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평가지표 수가 크게 감소하여 총 69개의 지표가 사용되었다.

〈표 2-2-3〉 연도별 평가지표수 및 지표유형의 변화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가지표 수	86개(100.0%)	102개(100.0%)	69개(100.0)
평가지표 유형 ○ 정량지표 - 산출지표 - 결과지표 ○ 정성지표	 63(73.3%) 25 38 13(26.7%)	 79개(77.5%) 58개 21개 23개(22.5%)	 49(71.0%) 39개 10개 20(29.0%)
평가방법	계량평가	계량평가, 전문가내용평가	계량평가, 전문가내용평가, 만족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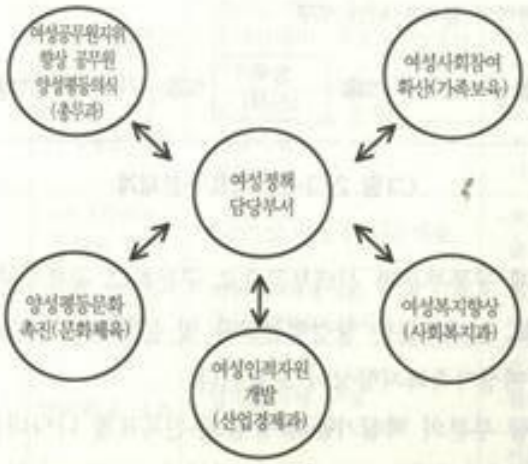
2004년에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비율이 각 73.3%, 26.7%, 2005년은 정량지표의 비율이 약 4.8%포인트 상승한 77.5%인 반면, 정성지표는 22.5%, 2006년은 정량지표 비율이 감소한 71%, 정성지표 29%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비율이 약 2/3를 훨씬 넘는 반면 정성지표의 비율은 약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량지표의 확대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반면,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지표로서 정량적 지표는 정부활동의 생산성이나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 건수의 증대가 예산 증대를 수반하였다면, 생산성이나 성과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평가의 틀을 갖추는 과정에서 여성정책 추진의 적극적 노력을 판단의 기준으로 봄으로써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업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 여부를 영역별 전문가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여성정책 평가가 보다 내실화되기 위해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절 2006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틀 구성

1. 평가방향

1) 성 주류화 정책적 접근

2006년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담당부서 여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자치구 전체 여성정책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초점을 두는 WID(Women in Development)적 접근과 함께 모든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GAD(Gender and Development)적 접근을 통해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도 이와 같은 거시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 추진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자치구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방향은 '여성정책 추진기반의 조성' 분야의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아래 <그림 2-3-1>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자치구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2-3-1〉 여성정책 평가방향의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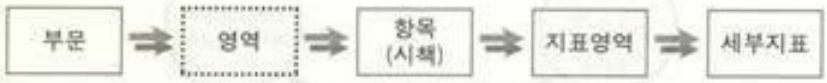
2) 지역적 특성화 유도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제의 진전에 따라 자치구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자치구 여성정책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치구 여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정책의 목표분야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양성평등, 여성경제활동확대,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의 향상으로 구분하고 자치구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한 개의 평가분야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2. 평가지표 체계의 설정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 설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체계를 따랐다. 지표구성체계는 부문, 영역, 항목, 지표영역, 세부지표로 구분된다.

- 부문: 여성시책의 핵심적 기능을 토대로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상위차원에서 유형화한 것
- 영역: 핵심기능이나 관리능력의 중점적 추진목표를 나타내는 차원(dimension)
- 항목(시책): 평가영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또는 사업
- 지표영역: 구체적인 시책이나 항목을 평가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주요 대상이나 범주를 의미
- 세부지표: 지표영역의 실측을 위한 도구



〈그림 2-3-2〉 지표구성체계

평가부문은 크게 공통부문과 선택부문으로 구분하고 공통부문은 여성정책기반조성과 수범사례로, 선택부문은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향상이 포함된다.

평가영역은 해당 부분의 핵심기능과 중점 추진목표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평가부문별로 몇 개의 평가영역을 구분하였다. 여성정책기반조성 분야는 크게 추진역

량과 기반체계로 평가영역을 구성하였다.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분야는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문화로 구분하였고, 여성경제활동지원 분야는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사회참여지원 분야는 여성단체 육성,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 증진, 일·가정 양립지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여성가족복지 부문은 여성인권, 여성복지, 건강가정으로 평가영역을 구분하였다.

평가항목은 평가영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영역에 따라 여성관련 시책을 포함하였다.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의 사업추진실적이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지표화 하였다. 평가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산식을 포함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2006자치구여성정책 평가지표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2-3-1〉 2006자치구여성정책 평가지표 체계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예시)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 공통: 여성정책 기반조성	추진역량	조직의 독립성	-자치구 성인지 정책의 기획·조정 역할 수행여부 -기획·조정기능 수행여부 -성과	-부서명 -부서기능과 역할 -전문가내용분석
		인력구성	-전문성 -인력의 충분성	-성인지교육이수비율 -자치구인구대비/담당공무원 수
		여성부서 예산	-전년도 대비 증가율 -총예산대비 여성 관련예산 비율	-여성 담당팀 예산 -여성부서외 여성사업 예산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 -기금조성 -실적	-조성계획 수립여부 -기금조성액 -사업지출 내용
	기반체계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전체공무원수/여성비율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위원회 여성비율 -주요위원회여성비율	-전체위원회위원/여성비율
		협력체계 구축	-협조협의체 구성 -협조체계 구축 성과	-유관부서가 참여한 협의체 -회의 건수 -전문가 내용분석

(계 속)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예시)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 공통: 여성정책 기반조성	기반체계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적 -내용분석
		여성관련 정보제공	-여성홈페이지 이용률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이용실적 -개최실적 및 내용분석
		여성정책추진 참여	-업무보고의 성실성 -참여도	-제출기한 준수여부 -보고내용 충실정도 -참여지원 정도
□ 선택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양성평등 문화	여성주간사업 추진	-사업추진실적	-건수 -내용분석
		양성평등문화 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사업을 포함	-사업추진실적	-건수 -내용분석
	양성평등 교육	공무원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교육이수자비율 -6급이상관리직 비율	-전체공무원수/교육이수자 비율 -교육이수/6급관리직 비율
		시민양성평등 교육	-사업추진실적 -교육참여자 수	-건수 -교육참여자 수
여성경제 활동지원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	-사업추진실적	-건수 -실질 창업율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취 업	-자체사업건수 -성과	-사업건수 -실질취업률 -내용분석
		창 업	-자체사업건수 -성과	-사업건수 -실질창업율 -내용분석

(계 속)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예시)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단체 육성	지역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추진실적 -성과	-지원단체 수 -내용분석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	여성지도자 육성	-지도자교육프로그램이수자	-이수자 수
		지역여성사회 참여	-지역전문인력발굴실적	-홍보실적 -발굴건수(명)
			-사회단체회원의 여성비율	-전체회원수 대비 여성비율
	일-가정양립 지원	공보육기반 조성	-맞춤형보육시설확충	-목표달성도 · 영유아 · 시간연장 ·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정보센터설치 -평가인증제참여실적 -보육시설 지도·점검 -자체교육 실시	-여부 -참여기관수 -총시설대비 지도비율 -교육참여율
여성복지향상	여성인권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자체사업건수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지정 -성과	-자체사업수 -의료기관 지정수 -내용분석
	여성복지	여성복지향상사업 (한부모가정, 저소득여성, 장애인 등)	-실적 -성과	-자체사업수 -참여인원
	건강가정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센터운영 -실적 -성과	-운영여부 -사업건수 -내용분석
■ 공통특수사업 (수범사례)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 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	사업수립	-합목적성	-목표적합성 내용분석
			-독창성	-기획의 독창성
			-지역특성화	-지역특성 반영
		집행	-예산의 적정성	-예산규모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홍보 및 대상선정
		성과	-목표달성도	-계획대비 실적
			-수혜자 만족도	-5점척도 만족도 조사

3. 평가방법

2006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방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보완하였다. 우선, 자치구 여성정책이 차별화되기 위해서 평가의 방향을 크게 공통부문과 선택구분으로 구분한 점이다. 공통부문은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과 수범사례로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토록 한 반면, 선택부문은 여성정책 영역을 양성평등, 여성경제,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향상으로 구분하고 자치구가 해당 선택분야를 지원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해당 부문을 선택함에 있어 네 개의 부문과 수범사례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을 둠).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분야는 8개 자치구가 지원하여 경쟁하고, 수범사례로서 이 분야를 지원한 자치구는 7개이다. 여성경제활동지원 분야는 여성정책 사업 분야 가운데 취약한 분야의 하나로 참여 자치구가 3개에 불과하다. 여성사회참여지원 분야는 5개 자치구가 지원하였고 수범사례는 여성경제·사회참여 지원 분야에 모두 8개 자치구가 지원하였다. 여성가족복지향상 분야는 선택부문에 9개구, 수범사례에 10개구가 지원하여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표 2-3-2〉 부문별 지원 현황

구 분	선택부문	수범사례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8)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구로구, 송파구(7)
여성경제활동지원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3)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8)
여성사회참여지원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강동구(5)	
여성가족복지향상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9)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10)
계	25	25

또한 평가부문별 배점은 여성정책기반조성 부문의 총점이 200점인 것을 제외하면 선택부문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였다. 분야별 배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3〉 분야별 배점 현황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수	지표별 배점
공통분야		여성정책기반조성	200	조직의 독립성	3	30
				인력	2	20
				예산	2	30
				여성발전기금	3	20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2	20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1	10
				협력체계구축	2	30
				성별영향평가	1	10
				여성정보 제공	2	20
				여성정책 추진참여	2	10
	수범	여성복지향상	100	사업계획수립	3	30
				집행	2	20
				성과	2	50
		양성평등달성	100	사업계획수립	3	30
				집행	2	20
				성과	2	50
		여성경제사회참여	100	사업계획수립	3	30
				집행	2	20
				성과	2	50
선택분야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100	여성주간사업추진	1	30
				양성평등 문화사업	1	30
				공무원양성평등교육	2	20
				시민양성평등교육	1	20
		여성경제활동지원	100	여성인력개발	1	40
				취업	2	30
				창업	2	30
		여성사회참여지원	100	지역여성단체 활성화	2	20
				여성지도자 육성	1	10
				지역여성 사회참여	2	30
				공보육 기반조성	1	25
				보육서비스 향상	4	15
		여성가족복지향상	100	성매매,성폭력 · 가정폭력방지및보호	3	40
				여성복지향상 사업	2	40
				가족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 운영	3	20

제 3 장

2006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

제3장 2006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 평가결과 종합

○ 2006년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여 100%의 참여율을 보임.

○ 2006년 평가는 공통부문(여성정책기반조성)과 선택부문, 공통부문(수범사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함.

- 기반체계조성은 총 200점 만점에 평균 115.21점이었으며, 최소점수는 55.00점, 최대점수는 155.00점임.
- 선택부문은 총 100점 만점이며,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향상 중 한 영역을 택하여 평가를 받았는데, 평균 70.96점으로 최소 43.00점에서 최대 95.00점으로 나타남.
- 수범사례는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 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의 3개 영역 중 한 영역을 택하여 평가에 임하였고, 총 100점 만점 중 평균 75.67점이며, 최소 53.67점에서 최대 100.00점까지 분포함.
- 기존 2004년 및 2005년과 달리 총점이 400점으로 조정되었으며, 각 정책 분야별로 점수가 독립적으로 적용됨.

〈표 3-1-1〉 3개년 여성정책 평가결과 비교

구분	2004	2005	2006			
			기반체계조성	선택부문	수범사례	계
총점(점)	1,000(400)	1,000(400)	200	100	100	400
평균점수(점)	743.5(297.40)	708.4(283.36)	115.21	70.96	75.67	261.83
최대점수(점)	911.6(364.64)	856.0(342.40)	155.00	95.00	100.00	322.66
최소점수(점)	576.0(230.40)	512.5(205.00)	55.00	43.00	53.67	195.00

※주: ①2004 및 2005의 ( )는 200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시상은 공통부문(여성정책기반조성, 수범사례)과 선택부문의 각 세부영역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총 10개 자치구를 선정함(<표 3-1-2> 참조).

- 여성정책기반조성(공통부문): 금천구(최우수), 동작구(우수), 마포구(우수).
- 수범사례(공통부문)
  - 여성복지향상: 영등포구(최우수)
  - 양성평등달성: 동대문구(최우수)
  - 여성경제사회참여: 성북구(최우수)
- 선택부문
  -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은평구(최우수)
  - 여성경제활동지원: 도봉구(최우수)
  - 여성사회참여지원: 양천구(최우수)
  - 여성·가족복지향상: 용산구(최우수)

〈표 3-1-2〉 시상 대상 자치구

구 분	공통부문				선택부문			
	기반체계 조성	수범사례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 활동지원	여성사회 참여지원	여성·가족복지 향상
		여성복지 향상	양성평등 달성	여성경제 사회참여				
최우수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도봉구	양천구	용산구
우 수	동작구	-	-	-				
우 수	마포구	-	-	-				

※주: 기반체계조성의 '우수 자치구'는 가나다순 배열임.

2. 평가영역별 결과 요약

1) 여성정책기반조성

추진역량(100)과 기반체계(100)로 세분.

(1) 추진역량(100): 최소 36.00점에서 최대 75.00점으로 평균 57.54점.

- 조직의 독립성(30): 최소 10.00점에서 최대 25.00점으로 평균 16.22점.

- 인력구성(20): 최소 6.00점에서 최대 17.00점으로 평균 12.16점.
- 여성부서 예산(30): 최소 14.00점에서 최대 30.00점으로 평균 20.28점.
- 여성발전기금(20): 최소 0.00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8.8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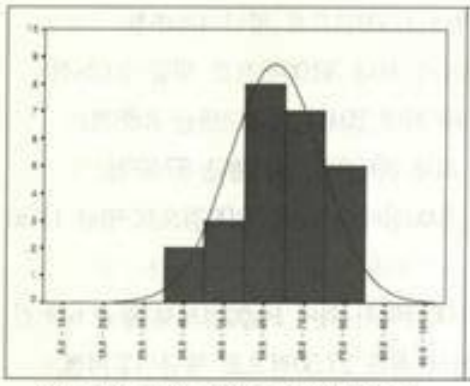
(2) 기반체계(100): 최소 19.00점에서 최대 89.00점으로 평균 57.67점.
-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20): 최소 5.00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1.36점.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10): 최소 3.00점에서 최대 10.00점으로 평균 6.08점.
- 협력체계 구축(30): 최소 0.00점에서 최대 27.50점으로 평균 17.74점.
- 성별영향평가(10): 최소 0.00점에서 최대 10.00점으로 평균 6.38점.
- 여성정보 제공(20): 최소 1.00점에서 최대 15.00점으로 평균 3.24점.
- 여성정책추진 참여(10): 최소 0.00점에서 최대 10.00점으로 평균 5.31점.

〈표 3-1-3〉 여성정책기반조성(공통부문) 세부점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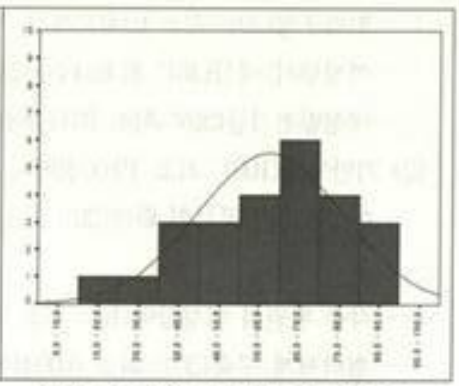
평가항목		자치구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추진역량 (100)	조직의 독립성(30)	25	10.00	25.00	16.22	4.37
	인력구성(20)	25	6.00	17.00	12.16	3.25
	여성부서 예산(30)	25	14.00	30.00	20.28	4.33
	여성발전기금(20)	25	0.00	20.00	8.88	4.89
	소계	25	36.00	75.00	57.54	11.41
기반체계 (100)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20)	25	5.00	20.00	11.36	3.8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10)	25	3.00	10.00	6.08	2.48
	협력체계 구축(30)	25	0.00	27.50	17.74	10.02
	성별영향평가(10)	25	0.00	10.00	6.38	3.76
	여성정보 제공(20)	25	1.00	15.00	3.24	1.33
	여성정책추진 참여(10)	25	0.00	10.00	5.31	5.12
	소계	25	19.00	89.00	57.67	18.05
여성정책기반조성 계(200)		25	55.00	155.00	115.21	25.54

※주: ( )는 해당사항의 만점임.

'기반체계'가 '추진역량'에 비해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함. → 추진역량보다 기반체계에서 자치구별 편차가 많음을 의미(<그림 3-1-1>, <그림 3-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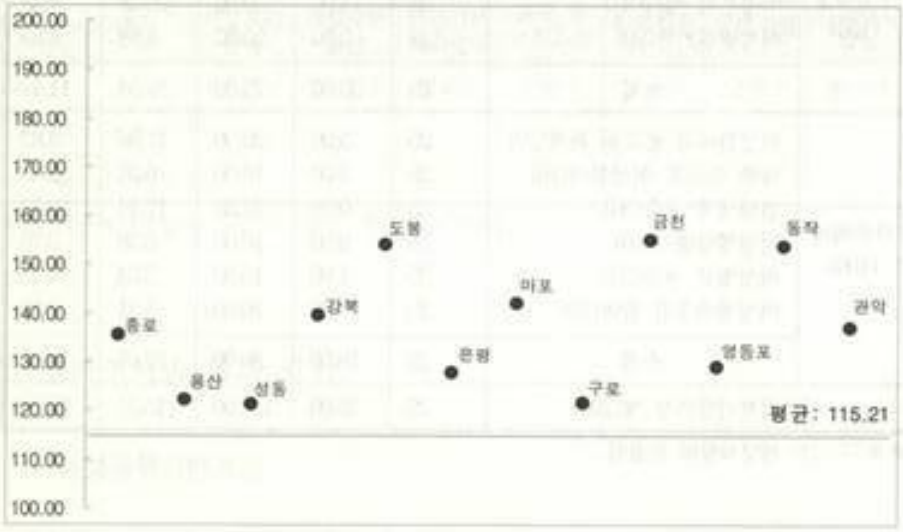


〈그림 3-1-1〉 추진역량 평균분포도



〈그림 3-1-2〉 기반체계 평균분포도

(3) 금천구가 155.00점으로 최고점수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자치구는 55.00점. 평균점수 이상의 자치구는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임(이상 가나다 순). 일부 자치구에서의 순위차이는 극히 미미한 점수차이로 발생하고 있음 (<그림 3-1-3> 참조).



〈그림 3-1-3〉 여성정책기반조성 평균점수 이상 자치구 분포도

2) 수범사례

여성복지향상(10개 자치구 선택), 양성평등달성(7개 자치구 선택), 여성경제사회참여(8개 자치구 선택)의 3개의 선택분야로 구성.

(1) 여성복지향상(100): 최소 61.67점에서 최대 100.00점으로 평균 81.63점.
- 사업수립(30): 최소 18.67점에서 최대 30.00점으로 평균 23.67점.
- 집행(20): 최소 14.00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6.97점.
- 성과(50): 최소 28.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41.00점.

(2) 양성평등달성(100): 최소 53.67점에서 최대 91.00점으로 평균 65.62점.
- 사업수립(30): 최소 15.67점에서 최대 27.00점으로 평균 20.86점.
- 집행(20): 최소 11.33점에서 최대 16.33점으로 평균 13.33점.
- 성과(50): 최소 23.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31.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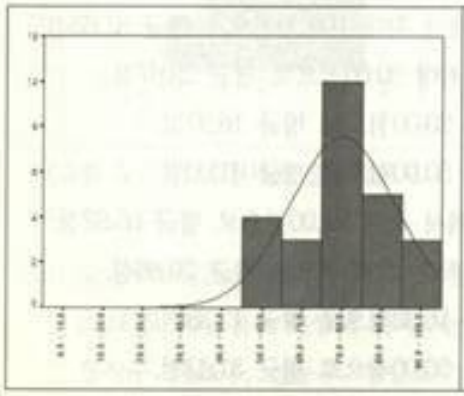
(3) 여성경제사회참여(100): 최소 53.00점에서 최대 95.00점으로 평균 75.38점.
- 사업수립(30): 최소 15.00점에서 최대 27.00점으로 평균 20.79점.
- 집행(20): 최소 11.33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4.58점.
- 성과(50): 최소 23.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40.00점.

〈표 3-1-4〉 수범사례(공통부문) 세부점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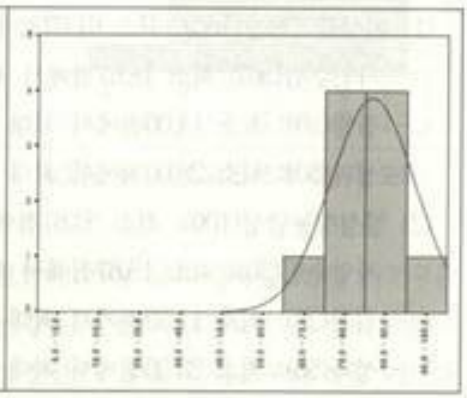
평가항목		자치구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여성복지향상(100)	사업수립(30)	10	18.67	30.00	23.67	3.13
	집행(20)	10	14.00	20.00	16.97	2.09
	성과(50)	10	28.00	50.00	41.00	7.56
	여성복지향상 계(100)	10	61.67	100.00	81.63	10.32
양성평등달성(100)	사업수립(30)	7	15.67	27.00	20.86	3.68
	집행(20)	7	11.33	16.33	13.33	1.84
	성과(50)	7	23.00	50.00	31.43	10.37
	양성평등달성 계(100)	7	53.67	91.00	65.62	13.44
여성경제사회참여(100)	사업수립(30)	8	15.00	27.00	20.79	5.00
	집행(20)	8	11.33	20.00	14.58	2.61
	성과(50)	8	23.00	50.00	40.00	8.85
	여성경제사회참여 계(100)	8	53.00	95.00	75.38	12.30

※주: ( )는 해당사항의 만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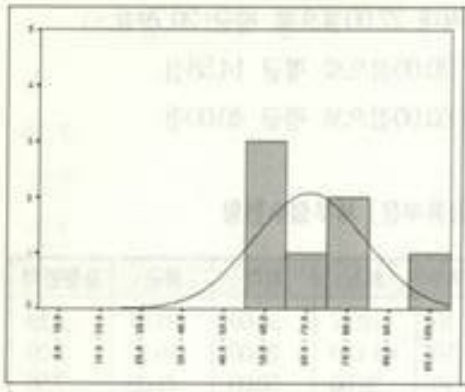
전체 자치구의 수범사례 점수는 70.0점~80.0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그림 3-1-3> 참조). '여성복지향상', '여성경제사회참여' 선택 자치구에 비해 '양성평등달성' 선택 자치구의 분포가 비교적 낮은 점수대에 많이 분포(<그림 3-1-4>, <그림 3-1-5>, <그림 3-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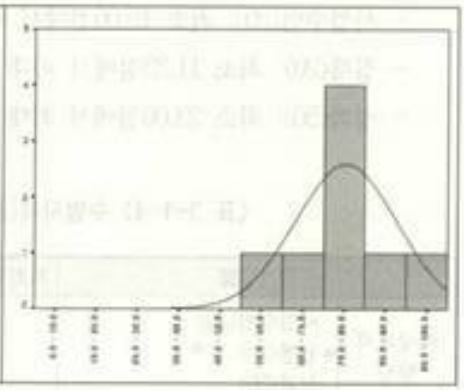
〈그림 3-1-3〉 수범사례 전체 평균분포도



〈그림 3-1-4〉 수범(여성복지향상) 평균분포도



〈그림 3-1-5〉 수범(양성평등달성) 평균분포도



〈그림 3-1-6〉 수범(여성경제사회참여) 평균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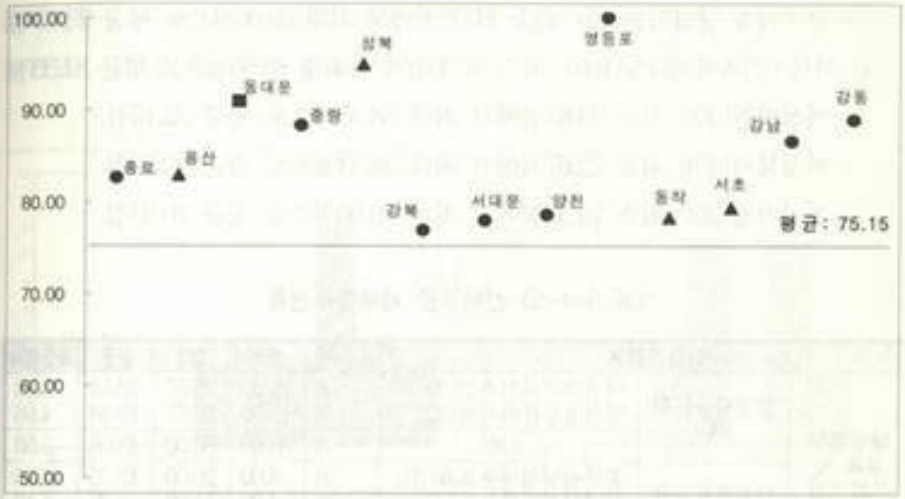
(4) '여성복지향상'을 선택한 영등포구가 100.00점으로 수범사례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음.

(5) 가장 낮은 점수는 '여성경제사회참여'를 선택한 자치구에서 53.00점임.

(6) 수범사례 평균점수 이상의 자치구(<그림 3-1-7> 참조)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이상 '여성복지향상' 선택자치구, 가나다순)

- 동대문구(이상 '양성평등달성' 선택 자치구)
-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용산구(이상 '여성경제사회참여' 선택자치구, 가나다순)



※ 주: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

〈그림 3-1-7〉 수범사례 평균점수 이상 자치구 분포도

3) 선택부문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8개 자치구 선택), 여성경제활동지원(3개 자치구 선택), 여성사회참여지원(5개 자치구 선택), 여성·가족복지향상(9개 자치구 선택)의 4개 분야로 구성(<표 3-1-5> 참조).

(1)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100): 최소 49.00점에서 최대 80.00점으로 평균 65.08점.
- 양성평등문화(60): 최소 33.00점에서 최대 50.00점으로 평균 43.08점.
- 양성평등교육(40): 최소 12.00점에서 최대 35.00점으로 평균 22.00점.

(2) 여성경제활동지원(100): 최소 68.33점에서 최대 90.00점으로 평균 75.56점.
- 여성인적자원개발(50): 최소 28.33점에서 최대 38.33점으로 평균 32.78점.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60): 최소 36.67점에서 최대 51.67점으로 평균 42.78점.

(3) 여성사회참여지원(100): 최소 43.00점에서 최대 81.33점으로 평균 58.93점.

- 여성단체육성(20): 최소 7.00점에서 최대 16.67점으로 평균 12.13점.
-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40): 최소 13.00점에서 최대 40.00점으로 평균 23.00점.
- 일·가정 양립지원(40): 최소 11.00점에서 최대 35.00점으로 평균 23.80점.

(4) 여성·가족복지향상(100): 최소 67.00점에서 최대 95.00점으로 평균 81.33점.

- 여성인권(40): 최소 24.67점에서 최대 38.33점으로 평균 32.15점.
- 여성복지(40): 최소 22.67점에서 최대 38.33점으로 평균 32.26점.
- 건강가정(20): 최소 14.33점에서 최대 20.00점으로 평균 16.9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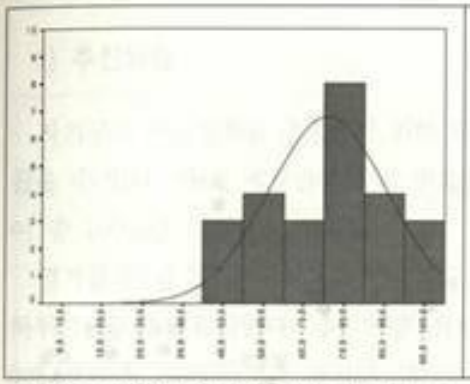
〈표 3-1-5〉 선택부문 세부점수현황

평가항목			자치구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100)	양성평등문화 (60)	여성주간사업추진(30)	8	20.00	26.67	23.54	2.43
		양성평등문화사업(30)	8	13.00	26.67	19.54	4.68
		소계	8	33.00	50.00	43.08	5.53
	양성평등교육 (40)	공무원양성평등교육(20)	8	8.00	20.00	12.75	4.86
		시민양성평등교육(20)	8	4.00	15.00	9.25	4.10
		소계	8	12.00	35.00	22.00	8.00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계(100)		8	49.00	80.00	65.08	11.87
여성경제 활동지원 (100)	여성인적자원 개발(50)	자체사업(40)	3	28.33	38.33	32.78	5.09
	여성경제활동 활성화(60)	취업(30)	3	14.67	26.67	19.33	6.43
		창업(30)	3	20.00	25.33	23.44	2.99
		소계	3	36.67	51.67	42.78	7.88
	여성경제활동지원 계(100)		3	68.33	90.00	75.56	12.51
여성사회 참여지원 (100)	여성단체육성 (20)	지역여성단체활성화(20)	5	7.00	16.67	12.13	4.27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 참여 증진(40)	여성지도자육성(10)	5	3.00	10.00	6.40	2.61
		지역여성사회참여(30)	5	10.00	30.00	16.60	7.92
		소계	5	13.00	40.00	23.00	10.12
	일·가정 양립지원 (40)	공보육기반조성(25)	5	3.00	21.00	14.60	7.09
		보육서비스향상(15)	5	5.00	14.00	9.20	3.70
		소계	5	11.00	35.00	23.80	8.56
	여성사회참여지원 계(100)		5	43.00	81.33	58.93	17.24
여성·가족 복지향상 (100)	여성인권 (40)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보호(40)	9	24.67	38.33	32.15	4.09
	여성복지 (40)	여성복지향상사업(40)	9	22.67	38.33	32.26	4.70
	건강가정 (20)	가족지원관련인프라구축 및 운영(20)	9	14.33	20.00	16.93	2.54
	여성·가족복지향상 계(100)		9	67.00	95.00	81.33	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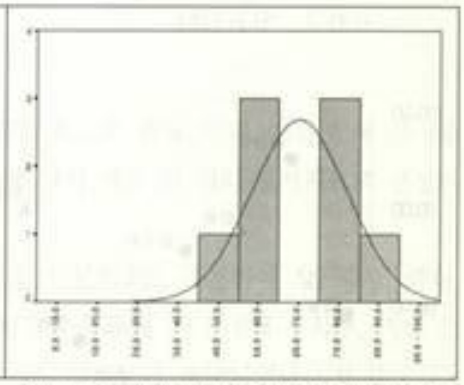
※주: ( )는 해당사항의 만점임.

전체 자치구의 선택부문 점수는 70.0점~80.0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그림 3-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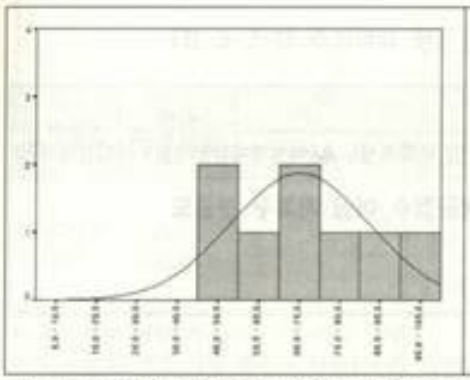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은 60.0점~70.0점 구간을 기준으로 대칭 분포, '여성경제사회참여[14]'는 40.0점~50.0점 구간부터 그 이상으로 고르게 분포, '여성~가족복지향상'은 70.0점~80.0점 이상 구간에 집중 분포(<그림 3-1-8>, <그림 3-1-9>, <그림 3-1-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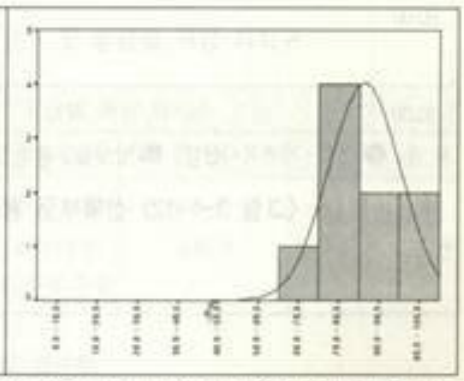
〈그림 3-1-8〉 선택부문 전체 평균분포도



〈그림 3-1-9〉 선택(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평균분포도



〈그림 3-1-10〉 선택(여성경제사회참여) 평균분포도



〈그림 3-1-11〉 수범(여성 · 가족복지향상) 평균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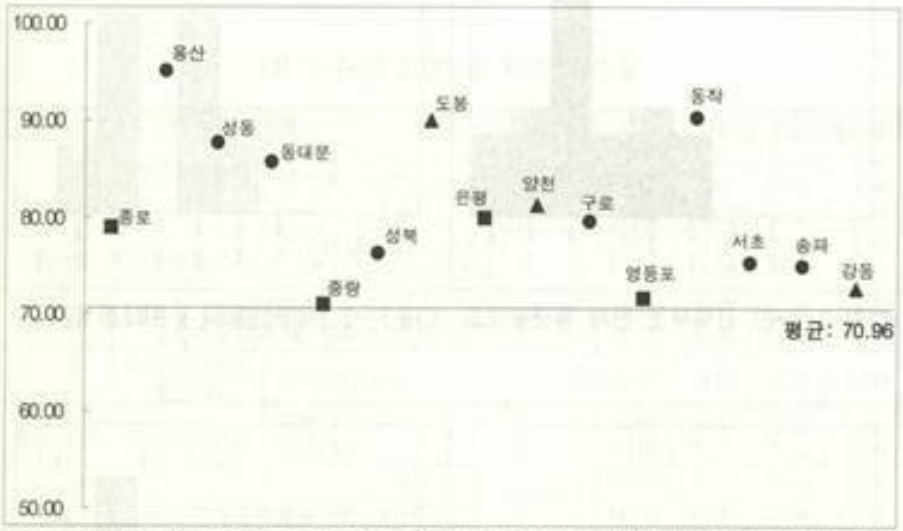
(4) '여성 · 가족복지향상'을 선택한 용산구가 95.00점으로 선택부문 최고점수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선택한 자치구에서 43.00점으로

14) '여성경제활동지원'과 '여성사회참여지원'이 각각 사례가 적어 취합함.

나타남.

(5) 선택부문 평균점수 이상의 자치구(<그림 3-1-12> 참조)

-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이상 '여성·가족복지향상' 선택자치구, 가나다순)
-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이상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선택 자치구, 가나다순)
- 강동구, 도봉구, 양천구(이상 '여성경제활동지원·여성사회참여지원' 선택 자치구, 가나다순)



※ 주: ●(여성·가족복지향상),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사회참여지원)

〈그림 3-1-12〉 선택부문 평균점수 이상 자치구 분포도

제2절 평가영역별 평가분석 결과

1. 여성정책기반조성 - 공통부문

여성정책기반조성은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과 기반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1) 추진역량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요소로 조직, 인력, 예산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세 개 역량변수는 각 변수에 다시 세부 몇 개의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총 100점을 배점으로 하였다.

평가결과, 총 25개 자치구의 점수분포를 사분위수로 구분하여 상, 중상, 중하,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추진역량' 전체영역에 대해 '상'은 6개 자치구, '상중'은 9개 자치구, '중하'는 4개 자치구, '하'는 6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표 3-2-1> 참조).

〈표 3-2-1〉 추진역량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중상	중하	하
추진역량 (100)	57.54 (11.41)	강북,관악,금천, 도봉,마포,종로	강서,구로,동작, 성동,송파,양천, 영등포,은평,중랑	강동,서대문, 성북,중	강남,광진,노원, 동대문,서초,용산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전문가 의견>

여성정책 업무가 조직 내에서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자치구는 손에 꼽힐 정도이다.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자치구들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다양한 여성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여성정책사업은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함께 관장하는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이 경우 여성복지 업무 또한 보육업무에 치중되어 있거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정책은 곧 보육정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그 외의 중요한 여성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우려할만한 상황이 예견된다.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구비되지 않으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과제에 부응하는 여성정책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현재 조직구조 속에서 여성정책업무는 8급, 7급, 몇 몇 자치구에서는 행정사무원이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여성정책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안건으로 채택되거나 고려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조직 구조에서 여성정책 업무의 독립성은 다양한 여성정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조직의 독립성

조직의 독립성은 여성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갖추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포함한 평가지표는 '조직의 주체성', '기획·조정기능 수행여부', '성과'의 3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30점을 배점으로 하였다.

① 부서/팀명

부서/팀명을 통해 조직의 주체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여성부서의 독립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며, '자치구 전체 조직도', '여성관련 과(課) 조직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10점 만점에 평균 7.72점이었으며, 14개 자치구(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는 '여성정책팀'의 명칭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9개 자치구(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용산구)는 '여성복지팀', 1개 자치구(중구)는 '가정복지팀', 1개 자치구(동대문구)는 '여성청소년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표 3-2-2> 참조).

〈표 3-2-2〉 자치구별 부서/팀명 및 평균점수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부서/팀명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가정복지팀	여성청소년팀
부서/팀명	7.72 (2.65)	강북,관악,구로, 금천,도봉,동작, 마포,성동,송파, 양천,영등포, 은평,종로,중랑	강남,강동,강서, 광진,노원, 서대문,서초, 성북,용산	중	동대문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② 부서기능과 역할

'여성정책 담당부서 업무분장표' 및 '05년과 06년의 조직/팀의 업무분장표 비교'를 통해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함으로써 기획·조정 기능 수행여부를 검증해볼 수 있다. 전문가 3인이 각각 '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치구를 평가하였으며,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배점하였다. 자치구 여성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부분적일지라도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수구로 분류하였다.

10점 만점에 평균 4.28점이었으며, 6개 자치구(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송파구, 종로구, 중랑구)가 '상', 10개 자치구(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가 '중상', 9개 자치구(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가 '중하'에 위치하였다(<표 3-2-3> 참조).

〈표 3-2-3〉 부서기능과 역할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중상	중하	하
부서기능과 역할	4.28 (1.71)	강북,금천,도봉, 송파,종로,중랑	강동,강서,관악, 광진,동대문, 마포,양천, 영등포,은평,중	강남,구로,노원, 동작,서대문, 서초,성동, 성북,용산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③ 내용분석

내용분석지표는 여성정책 담당 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사업계획을 통해 살펴보았다. 05년과 06년의 사업계획서 비교'를 근거로 전문가 3인이 각각 '기획/조정 포함', '약간개선', '전통사업 위주'의 3개 범주로 평가하였고, 이를 다시 평균하여 자치구별로 최종 배점하였다.

<전문가 의견>

보육사업이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이 되었고, 국정과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업무가 여성정책의 주요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보육사업을 제외한 여성정책 사업은 대부분 국비 및 시비 보조 사업인 경우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 사업에는 여성주간행사,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모부자가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지원 사업 등 의무사항(국고보조사업)에 국한된 최소한의 여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정책 사업으로 꼽힌 것은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목표는 여성인력활용으로 삼고 있으나, 정작 여성들의 자원활동에 기대어 저소득층지원을 위한 김장담그기나 알뜰장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유휴여성인력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며, 기존의 성역할을 전제한 전통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인력활용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한 사업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몇몇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정보센터나 여성플라자와 같은 공간은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보육사업 이외에 다양하고 해당 구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사업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10점 만점에 평균 4.22점이며, 10개 자치구(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가 '상', 8개 자치구(구로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가 '중상', 7개 자치구(강남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 용산구)가 '중하'로 나타났다(<표 3-2-4> 참조).

〈표 3-2-4〉 조직의 독립성 성과 내용분석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중상	중하	하
내용분석	4.22 (1.06)	강동,강북,강서, 관악,금천,도봉, 동작,은평,종로, 중랑	구로,마포,서초, 성동,성북,양천, 영등포,중	강남,광진,노원, 동대문,서대문, 송파,용산	-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2) 인력구성

담당인력의 업무 관련 지식의 습득은 업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여성정책 업무는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양성평등의식이나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을 통해서 갖춰질 수 있는 소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당인력의 전문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담당인력의 수가 자치구의 여성인구 수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인력구성'은 '성인지교육(최소 7시간 이상의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성인지예산교육 등) 이수자 통보 공문' 및 '06년 서울여성통계'를 근거로 하였으며, '전문성'과 '인력의 충분성'에 주안하여 평가하였다.

① 성인지교육 이수비율

'성인지교육 이수비율'은 여성정책담당 인원 대비 교육 이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먼저 각 자치구들의 여성정책담당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까지 평균 4.48명이었으며, 이들 중 성인지교육 이수자는 최소 0명(광진구/노원구/마포구/용산구/중구)에서 최대 4명(동작구/은평구/중랑구)까지 평균 1.76명이었다. 성인지교육 이수자가 한 명도 없는 자치구가 6개 자치구나 된 반면 담당팀 전원이 전부 성인지 교육을 받는 자치구도 3개나 되는 등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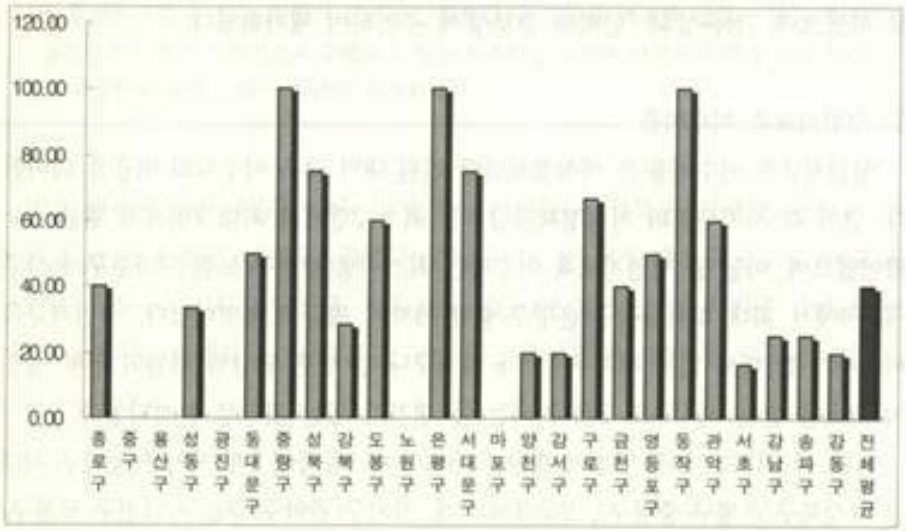
한편, 본 지표는 10점 만점에 평균 6.08점이며, 1등급에 5개 자치구(동작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 2등급에 7개 자치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영등포구/종로구), 3등급에 7개 자치구(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성

동구/송파구/양천구), 4등급에 6개 자치구(광진구/노원구/마포구/서초구/용산구/중구)가 분포하였다(<표 3-2-5>, <그림 3-2-1> 참조).

〈표 3-2-5〉 성인지교육이수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성인지교육 이수비율	6.08 (2.48)	동작,서대문, 성북,은평,중랑	관악,구로,금천, 도봉,동대문, 영등포,종로	강남,강동,강북, 강서,성동,송파, 양천	광진,노원,마포, 서초,용산,중
	성인지교육 이수비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부서공무원 (명)	2.00	7.00	4.48 (1.12)	
	교육이수자 (명)	0.00	4.00	1.76 (1.33)	
	이수비율 (%)	0.00	100.00	40.21 (32.49)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기존 원칙(1등급 5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6개)을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1〉 자치구별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성인지교육이수비율 비교

② 담당공무원 1인당 자치구 여성인구수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1인당 자치구 여성인구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인력의 충분성을 평가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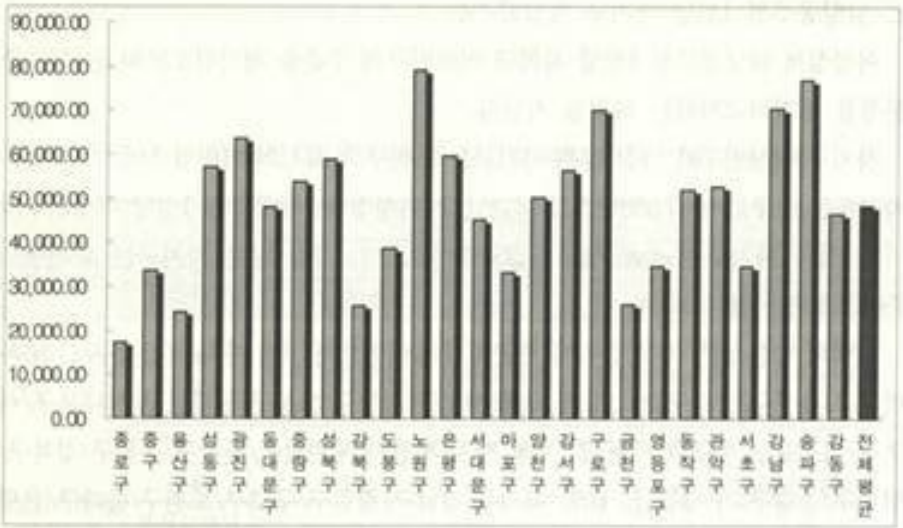
자치구 여성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317,286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써 67,358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담당공무원 1인당 여성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17,354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79,321.50명이었다.

인력의 충분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6.08점이었으며, 5개 자치구(강북구/금천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가 1등급, 7개 자치구(강동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서초구/영등포구/중구)가 2등급', 7개 자치구(강서구/관악구/동작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중랑구)가 3등급, 6개 자치구(강남구/광진구/구로구/노원구/송파구/은평구)가 4등급에 위치하였다(<표 3-2-6>, <그림 3-2-2> 참조).

〈표 3-2-6〉 담당공무원 1인당 여성인구수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담당 공무원수/ 자치구 여성인구수	6.08 (2.48)	강북,금천,마포, 용산,종로	강동,도봉, 동대문,서대문, 서초,영등포,중	강서,관악,동작, 성동,성북,양천, 중랑	강남,광진,구로, 노원,송파,은평
	담당공무원 1인당 자치구여성인구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부서공무원 (명)	2.00	7.00	4.48(1.12)	
	여성인구 (명)	67,358.00	317,286.00	206,930.64 (61,938.80)	
	담당자수/ 여성(명)	17,354.00	79,321.50	48,372.74 (16,969.57)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기존 원칙(1등급 5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6개)을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2〉 자치구별 담당공무원 1인당 여성인구수 비교

(3) 여성부서 예산

예산은 '정책에 대한 숫자적 표현'이라 할 만큼 정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정책이 단지 수사적(rhetoric) 표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여성정책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여성정책 담당팀의 예산증감률로써 전체 예산 대비 전담팀 예산비율의 증감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정책팀예산을 제외한 타 부서의 여성정책 관련예산 비중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자료는 05년도와 06년도의 예산서를 근거로 하였으며, '금년도 여성정책관련 부서 예산의 증가율' 및 '전체예산대비 여성관련 예산(여성정책관련부서 예산 제외)의 비율'을 평가하였다. 특히 자치구가 제출한 여성관련 예산 가운데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의 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아동 · 청소년 사업과 보육 관련 사업은 제외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 자료를 요약하면 <표 3-2-7>과 같다.

〈표 3-2-7〉 20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여성정책팀 예산 및 관련 예산 비율

연번	자치구명	금년도총예산	금년도 여성부서예산 (여성정책팀)	총예산대비 여성팀예산 비율	금년도 여성관련예산 (여성정책팀제외)	총예산대비 여성관련예산비율
1	종 로 구	185,243,097,000	404,084,000	0.22	1,035,822,000	0.56
2	중 구	203,577,982,000	876,259,000	0.43	443,149,000	0.22
3	용 산 구	203,919,059,000	562,939,000	0.27	297,390,000	0.15
4	성 동 구	161,872,168,000	189,361,000	0.12	825,784,000	0.51
5	광 진 구	177,840,304,000	148,474,000	0.08	30,755,000	0.02
6	동대문구	209,605,110,000	336,337,000	0.16	177,933,000	0.08
7	중 랑 구	181,144,401,000	156,551,000	0.09	541,034,000	0.30
8	성 북 구	220,224,548,000	312,084,000	0.14	655,565,000	0.30
9	강 북 구	202,911,836,000	299,110,000	0.15	1,176,280,000	0.58
10	도 봉 구	164,438,017,000	264,389,000	0.16	758,456,000	0.46
11	노 원 구	250,506,275,000	88,420,830	0.04	2,645,715,000	1.06
12	은 평 구	173,000,000,000	249,978,000	0.14	289,675,000	0.17
13	서대문구	214,390,119,000	338,282,000	0.16	490,400,000	0.23
14	마 포 구	191,500,000,000	676,880,000	0.35	630,371,000	0.33
15	양 천 구	190,546,000,000	375,223,080	0.20	572,093,000	0.30
16	강 서 구	244,511,656,000	1,149,550,000	0.47	696,670,000	0.28
17	구 로 구	175,004,450,000	194,200,000	0.11	211,653,000	0.12
18	금 천 구	145,165,490,000	290,910,000	0.20	1,755,216,000	1.21
19	영등포구	199,000,000,000	167,493,000	0.08	1,112,798,000	0.56
20	동 작 구	185,546,979,000	399,710,000	0.22	928,771,000	0.50
21	관 악 구	235,830,000,000	1,541,858,000	0.65	3,630,584,000	1.54
22	서 초 구	205,408,153,000	622,854,500	0.30	182,338,000	0.09
23	강 남 구	384,519,340,000	1,199,943,000	0.31	872,371,000	0.23
24	송 파 구	264,632,015,000	3,187,656,000	1.20	1,021,473,000	0.39
25	강 동 구	173,920,378,000	119,073,000	0.07	978,457,000	0.56

① 전년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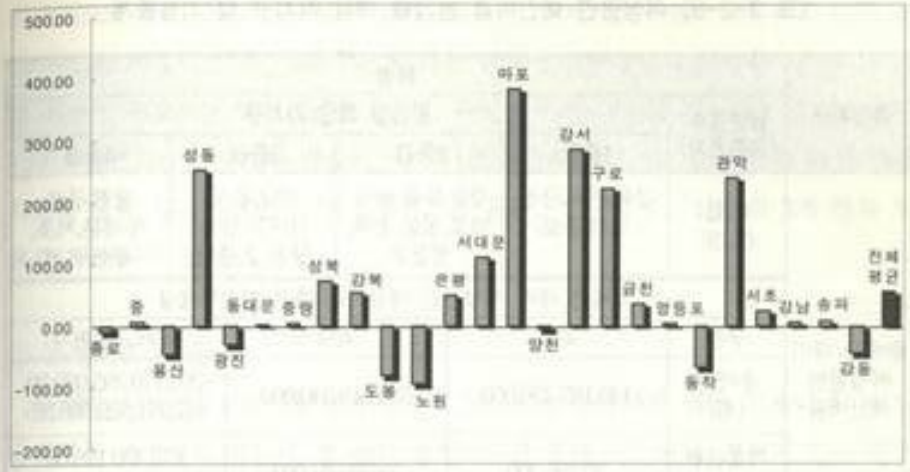
2005년도 여성정책관련 부서예산은 평균 557,982,623.20원으로 성동구가 가장 적은 53,872,000원이었으며, 송파구가 가장 많은 2,938,562,000원이었다. 2006년도 여성정책관련 부서예산은 평균 565,664,776.40원이었으며, 88,420,830원인 노원구가 가장 적은 예산의 자치구였고, 3,187,656,000원인 송파구가 가장 많은 예산의 자치구였다. 2005년 대비 2006년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 55.98%였는데, 노원구가 92.01% 감소, 마포구가 383.39% 증가로 각각 가장 증가율은 낮은 자치구와 가장 높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여성정책관련 부서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점 만점에 평균 13.96점이며, 1등급에 5개 자치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마포구/성동구), 2등급에 7개 자치구(강북구/금천구/서대문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은평구), 3등급에 7개 자치구(강남구/동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종로구/중구/중랑구), 4등급에 6개 자치구(강동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작구/용산구)가 속하였다(<표 3-2-8>, <그림 3-2-3> 참조).

〈표 3-2-8〉 여성부서예산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전년대비 증가율	13.96 (3.60)	강서,관악,구로, 마포,성동	강북,금천, 서대문,서초, 성북,송파,은평	강남,동대문, 양천,영등포, 종로,중,중랑	강동,광진,노원, 도봉,동작,용산
	전년도 대비 여성부서 예산 증가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2005년예산 (원)	53,872,000.00	2,938,562,000.00	557,982,623.20 (640,341,626.22)	
	2006년예산 (원)	88,420,830.00	3,187,656,000.00	565,664,776.40 (660,982,016.44)	
	증가율 (%)	-92.91	383.39	55.98 (124.47)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기존 원칙(1등급 5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6개)을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3〉 05년 ~06년 여성부서 예산 증가율 비교

② 총예산대비 여성관련 예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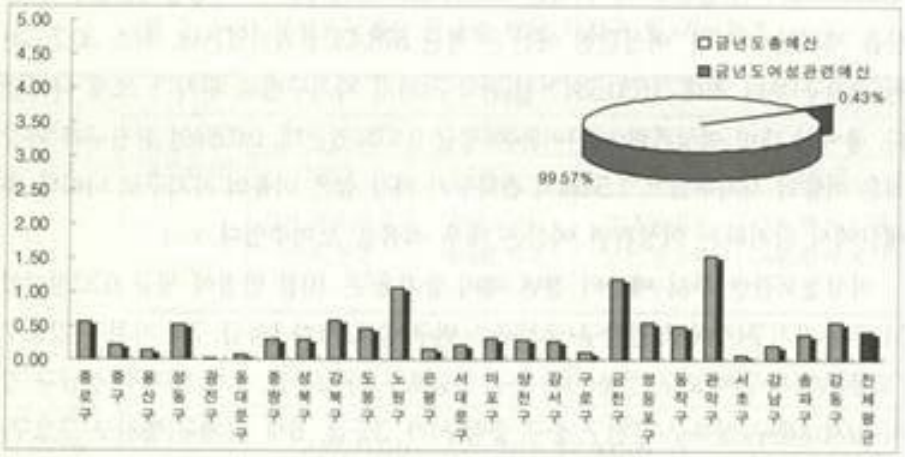
자치구들의 2006년 총예산은 최소 145,165,490천원(금천구)에서 최대 384,519,340천원(강남구)까지 평균 205,770,295천원이었다. 여성정책관련부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관련 예산'은 평균 878,430천원이었는데, 최소 30,755천원(광진구)부터 최대 3,630,584천원(관악구)까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총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비율은 평균 0.43%였는데, 0.02%인 광진구가 가장 적은 비율의 자치구였고, 1.54%의 관악구가 가장 높은 비율의 자치구로 나타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여성관련 예산은 매우 적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정책관련 부서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점 만점에 평균 6.32점이었고, 5개 자치구(강북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종로구)가 1등급, 7개 자치구(강동구/도봉구/동작구/마포구/성동구/송파구/영등포구)가 2등급, 7개 자치구(강남구/강서구/서대문구/성북구/양천구/중구/중랑구)가 3등급, 6개 자치구(광진구/구로구/동대문구/서초구/용산구/은평구)가 4등급에 해당되었다(<표 3-2-9>, <그림 3-2-4> 참조).

〈표 3-2-9〉 여성관련 예산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총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비율	6.32 (2.19)	강북,관악,금천, 노원,종로	강동,도봉,동작, 마포,성동,송파, 영등포	강남,강서, 서대문,성북, 양천,중,중랑	광진,구로, 동대문,서초, 용산,은평
	총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비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총예산 (원)	145,165,490,000	384,519,340,000	205,770,295,080.00 (47,071,529,986.55)	
	여성관련 예산(원)	30,755,000	3,630,584,000	878,430,120.00 (795,811,911.42)	
	관련예산 비율(%)	0.02	1.54)	0.43 (0.36)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기존 원칙(1등급 5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6개)을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4〉 여성관련 예산비율 비교

(4) 여성발전기금

국가적으로 각종 기금의 종류가 많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기금사업을 폐지하거나 점차 감소하려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예산 대비 여성정책 관련 예산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발전기금은 이러한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방침서, 발전기금 통장사본, 사업지출내용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운용', '기금조성', '실적'의 3개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조성계획 수립여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방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되, 계획이 있는 경우 5점, 계획이 없는 경우 0점으로 배점하였다.

5점 만점에 평균 4.40점이며, '조성계획 있음'에 해당하는 22개 자치구이며 '조성계획 없음'에 해당하는 3개 자치구로 나타났다(<표 3-2-10> 참조).

〈표 3-2-10〉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여부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조성계획 수립여부	
		있음	없음
조성계획 수립여부	4.40 (1.66)	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구로,금천,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중랑	강남,노원,서초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② 기금조성액

자치구들의 실질적인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의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발전기금 통장사본 또는 투융자기금에 적립하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하였다.

자치구들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평균 292,319천원이었는데, 발전기금이 전혀 없는 자치구(강남구/구로구/노원구/서대문구/서초구/영등포구)와 1,534,565천원으로 가장 많은 자치구(양천구)와 같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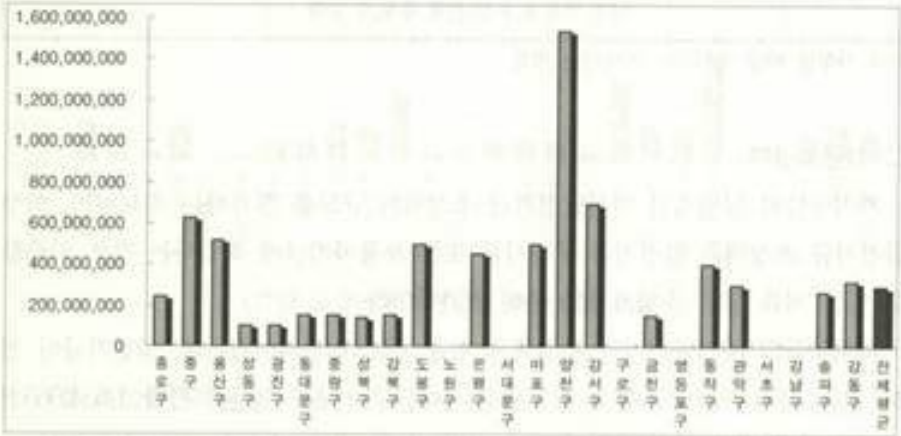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7억원 이상인 자치구가 1개 자치구(양천구)였으며, 5억

원 이상 5개 자치구(강서구/도봉구/마포구/용산구/중구), 3억원 이상 4개 자치구(강동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1억원 이상 9개 자치구(강북구/광진구/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종로구/중랑구)로 조사되었다(<표 3-2-11>, <그림 3-2-5> 참조).

〈표 3-2-11〉 여성발전기금 조성액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기금조성액					
		7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없음
기금 조성액	3.68 (2.79)	양천	강서,도봉, 마포,용산, 중구	강동,관악, 동작,은평	강북,광진, 금천,동대문, 성동,성북, 송파,종로, 중랑	-	강남,구로, 노원,서대문, 서초,영등포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기술통계량(원)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기금 조성액(원)	0.00		1,534,565,535.00		292,319,140.24 (334,080,623.35)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기존 원칙(7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을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5〉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비교

③ 기금지원실적

여성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지출 내용이 명시된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실적이 있는 경우 5점,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배점하였다.

5점 만점에 평균 0.80점이었는데, '지원실적 있음'이 4개 자치구(금천구/도봉구/동작구/양천구)로 적었으며, '지원실적 없음'에 21개 자치구(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노원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로 다수 분류되었기 때문이다(<표 3-2-12> 참조).

〈표 3-2-12〉 여성발전기금 지원실적 유무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지원실적 유무	
		있음	없음
발전기금 지원실적	0.80 (1.87)	금천,도봉,동작,양천	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서초,성동,성북,송파,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중랑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2) 기반체계

여성정책 추진기반 요소로서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 여성정보제공, 여성정책참여의 6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각 항목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기반체계' 영역도 총 100점을 배점으로 하였으며, 각 점수분포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상'에 해당하는 자치구 6개(금천구/도봉구/동작구/마포구/영등포구/용산구), '상중'에 7개 자치구(강북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노원구/은평구/종로구), '중하'에 6개 자치구(강동구/강서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중랑구), '하'에 6개 자치구(강남구/서대문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중구)로 나타났다(<표 3-2-13> 참조).

〈표 3-2-13〉 기반체계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중상	중하	하
기반체계 (100)	57.67 (18.05)	금천,도봉,동작, 마포,영등포,용산	강북,관악,광진, 구로,노원,은평, 종로	강동,강서,동대문, 성동,성북,중랑	강남,서대문,서초, 송파,양천,중구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는 '6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 '주요부서(총무, 감사, 기획예산, 자치행정 및 주무팀) 팀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수'의 2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총 20점 만점이다.

①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자치구의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서울시 인사과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6급 이상 공무원은 평균 240.5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근무하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288명이었으며, 가장 적게 근무하는 자치구는 용산구로 206명이었다. 이 가운데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평균 32.24명이었는데, 금천구와 노원구가 각각 18명과 45명으로 가장 적은 자치구와 가장 많은 자치구로 나타났다(<표 3-2-14> 참조).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평균 13.37%였는데, 8.37%의 종로구가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였으며, 17.05%의 강서구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조사되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0점 만점에 평균 6.08점이었으며, 1등급 5개 자치구(강서구/노원구/도봉구/마포구/서초구)는 2등급 7개 자치구(강남구/강북구/동작구/서대문구/성동구/중구/중랑구), 3등급 7개 자치구(강동구/관악구/광진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 4등급 6개 자치구(구로구/금천구/동대문구/성북구/은평구/종로구)로 분류되었다(<표 3-2-15>, <그림 3-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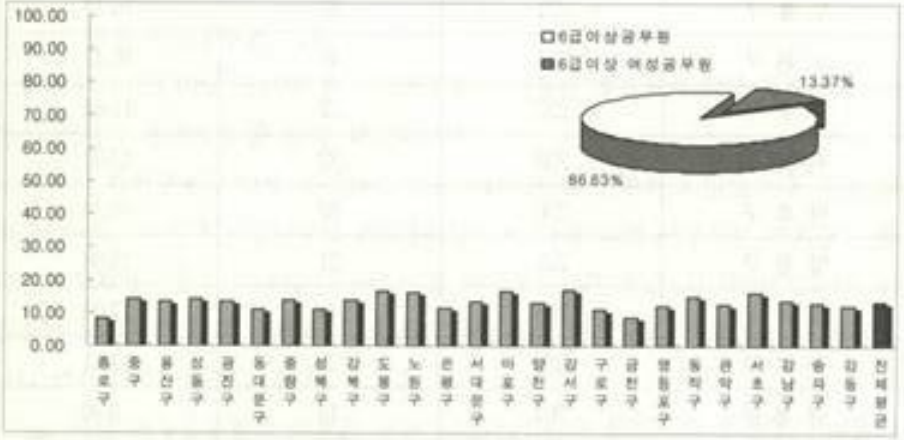
〈표 3-2-14〉 자치구별 6급이상 공무원 수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구 분	6급 이상 공무원 수	6급이상 여성공무원 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평 균	240.52	32.24	13.37
종로구	239	20	8.37
중 구	241	34	14.11
용산구	206	28	13.59
성동구	238	34	14.29
광진구	218	29	13.30
동대문구	242	27	11.16
중랑구	254	35	13.78
성북구	269	30	11.15
강북구	233	32	13.73
도봉구	221	37	16.74
노원구	274	45	16.42
은평구	232	27	11.64
서대문구	235	32	13.62
마포구	236	39	16.53
양천구	237	31	13.08
강서구	258	44	17.05
구로구	234	26	11.11
금천구	207	18	8.70
영등포구	248	31	12.50
동작구	221	33	14.93
관악구	242	31	12.81
서초구	238	39	16.39
강남구	288	40	13.89
송파구	281	37	13.17
강동구	221	27	12.22

〈표 3-2-15〉 6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6.08 (2.48)	강서,노원,도봉, 마포,서초	강남,강북,동작, 서대문,성동,중, 중랑	강동,관악,광진, 송파,양천, 영등포,용산	구로,금천, 동대문,성북, 은평,종로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6급이상 (명)	206.00	288.00	240.52 (21.00)	
	여성공무원 (명)	18.00	45.00	32.24 (6.53)	
	6급여성 비율(%)	8.37	17.05	13.37 (2.28)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기존 원칙(1등급 5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6개)을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6〉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비교

② 주요부서 5, 6급 여성공무원수

전통적으로 여성은 민원부서를 담당하고 기획 · 인사 등의 주요부서 배치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여성의 주요부서(총무 · 감사 · 기획예산 · 자치행정 및 주무팀) 배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부서 6급 이상여성 공무원 수를 평가지표로 구

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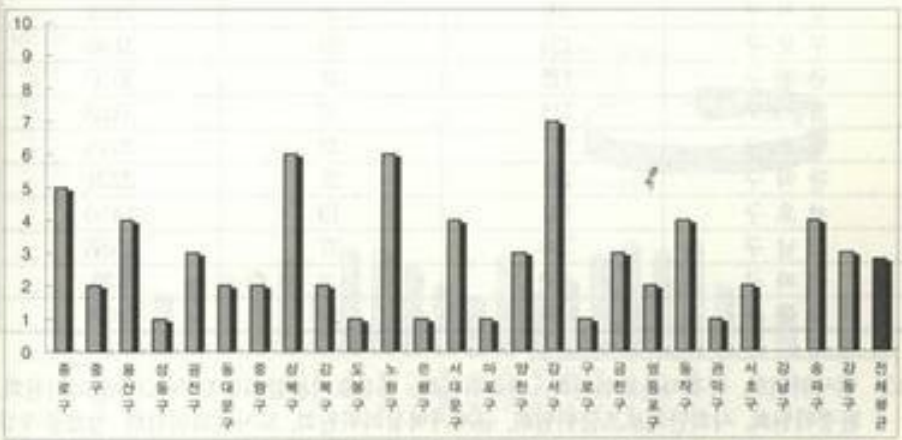
6급 이상 여성공무원 가운데 주요부서 배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5.28명으로 분석되었다.

주요부서 5, 6급 여성공무원이 5명이상인 자치구는 4개 자치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종로구)였으며, 4명은 4개 자치구(동작구/서대문구/송파구/용산구), 3명은 4개 자치구(강동구/광진구/금천구/양천구), 2명은 6개 자치구(강북구/동대문구/서초구/영등포구/중구/중랑구), 1명은 6개 자치구(관악구/구로구/도봉구/마포구/성동구/은평구)였다(<표 3-2-16>, <그림 3-2-7> 참조).

〈표 3-2-16〉 주요부서 5,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인원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주요부서 5, 6급 여성공무원수					
		5명이상	4명	3명	2명	1명	0명
주요부서 5, 6급 이상 여성공무원수	6.08 (2.48)	강서,노원, 성북,종로	동작,서대문 송파,용산	강동,광진, 금천,양천,	강북,동대문 서초,영등포 중,중랑	관악,구로, 도봉,마포, 성동,은평	강남
	주요부서 5, 6급 이상 여성공무원 기술통계량(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5,6급여성 공무원(명)	0.00		7.00		2.80 (1.83)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그림 3-2-7〉 주요부서 5, 6급 이상 여성공무원수 비교

(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주요위원회[15]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데 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

25개 자치구 평균 위촉직 위원수는 115.52명이고 이 가운데 평균 여성위원 수는 28.2명으로 25.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17〉 위촉직 위원 대비 여성위원 비율

구분	위촉직 위원수	여성위원 수	여성비율
평 균	115.52	28.2	25.35
종 로 구	108	27	25.00
중 구	86	28	32.56
용 산 구	99	20	20.20
성 동 구	104	26	25.00
광 진 구	115	30	26.09
동대문구	112	30	26.79
중 랑 구	76	23	30.26
성 북 구	158	31	19.62
강 북 구	112	39	34.82
도 봉 구	94	32	34.04
노 원 구	82	23	28.05
은 평 구	108	25	23.15
서대문구	109	20	18.35
마 포 구	111	35	31.53
양 천 구	114	23	20.18
강 서 구	102	25	24.51
구 로 구	124	39	31.45
금 천 구	115	41	35.65
영등포구	111	37	33.33
동 작 구	117	43	36.75
관 악 구	121	27	22.31
서 초 구	131	19	14.50
강 남 구	238	37	15.55
송 파 구	150	8	5.33
강 동 구	91	17	18.68

15) 인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환경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명위원회 등 13개 공통위원회에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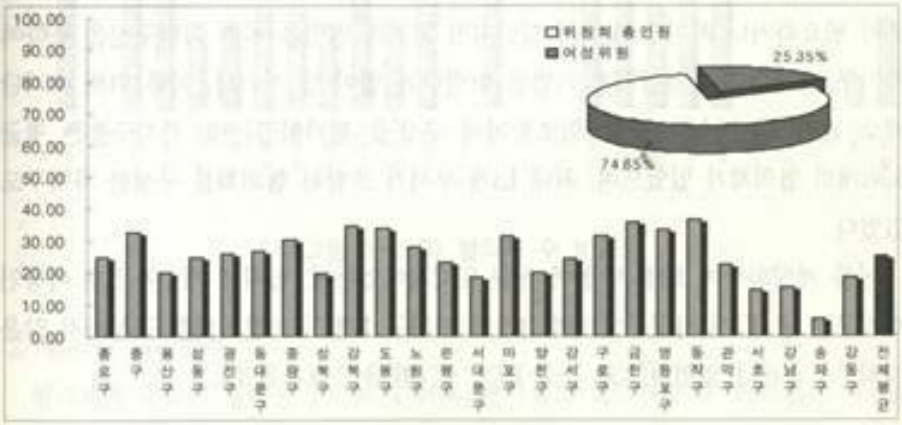
주요 위원회 총위원수는 최소 76명에서 최대 238명으로 평균 115.52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위원은 최소 8명에서 최대 43명으로 평균 28.20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위원비율은 평균 25.35%였는데, 송파구가 5.33%로 가장 낮았으며, 동작구가 36.75%로 가장 높았다.

주요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지표에서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 6.08점으로 나타났다(<표 3-2-18>, <그림 3-2-8> 참조).

〈표 3-2-18〉 주요 위원회 여성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주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6.08 (2.48)	강북,금천,도봉, 동작,영등포	광진,구로,노원, 동대문,마포,중, 중랑	강서,관악,성동, 양천,용산,은평, 종로	강남,강동, 서대문,서초, 성북,송파
	주요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위원회위원 (명)	76.00	238.00	115.52 (31.47)	
	여성위원 (명)	8.00	43.00	28.20 (8.44)	
	여성위원 비율(%)	5.33	36.75	25.35 (7.73)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기존 원칙(1등급 5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6개)을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8〉 주요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비교

(3) 협력체계 구축

오늘날 여성정책은 단지 한 부서나 담당 팀의 사업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현재의 여성정책 수행 구조를 보면 관련 부서나 담당 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점차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단지 제한된 부서나 팀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평가에서는 초기 단계로서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협력체계구축은 총 30점 만점으로, '협조협의체 구성'과 '성과'의 2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한 문서 및 협의체 회의록 등 증명 가능한 자료로 확인하였다.

① 협조협의체 구성

협조협의체 구성은 2006년도 새로이 추가된 지표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여성정책의 타부서 관련성을 인식하고 복지, 노동, 교육 등 주요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해당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을 전담케 하거나 여성부처 사업이라도 관련부처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그동안 여성정책은 여성부서에 한정된 사업으로 간주됨에 따라 다른 정책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기껏해야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되는 특징을 갖는다.

협의체구성은 여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외에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자치구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한 회의구성을 통하여 자치구 정책수립의 성인지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단계로 관련 부서 수를 통해 '협조협의체 구성'을 평가하였는데, 자치구들은 평균 5.36개의 협의체가 있었으며, 최대 13개 부서가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한 자치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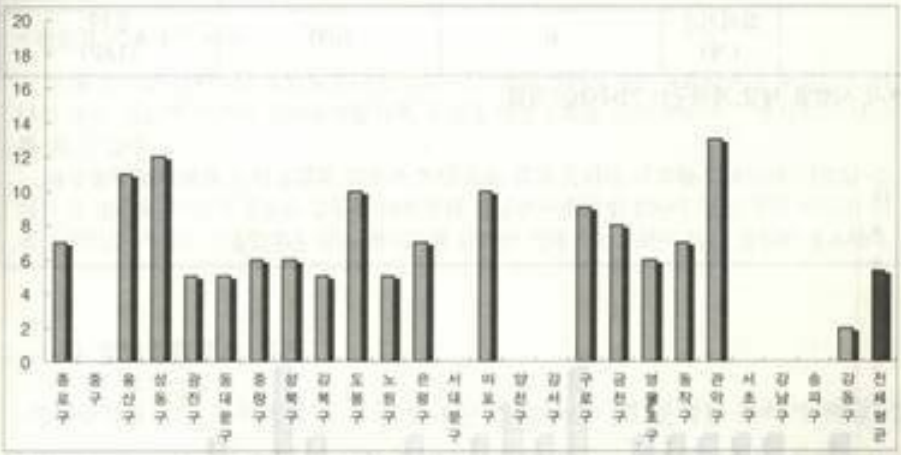
이를 계량화하여 10점 만점에 평균 6.92점이었는데, 협의체 개수가 5개 이상인 자치구는 총 17개 자치구였으며, 3개인 자치구 1개, 협조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자치구도 7개나 있었다(<표 3-2-19>, <그림 3-2-9> 참조).

〈표 3-2-19〉 협의체 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협의체 갯수				
		5개이상	4개	3개	3개미만	없음
협의체수	6.92 (4.62)	강북,관악, 광진,구로, 금천,노원, 도봉,동대문, 동작,마포, 성동,성북, 영등포,용산, 은평,종로, 중랑	-	강동	-	강남,강서, 서대문,서초, 송파,양천, 중

협의체 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협의체수 (개)	-	13.00	5.36 (4.18)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그림 3-2-9〉 협의체 수 비교

② 협의체 회의건수

협력체계 구축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협의체의 회의건수'와 '회의결과 내용분석'으로 평가하였다. 회의록을 증빙자료로 하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목적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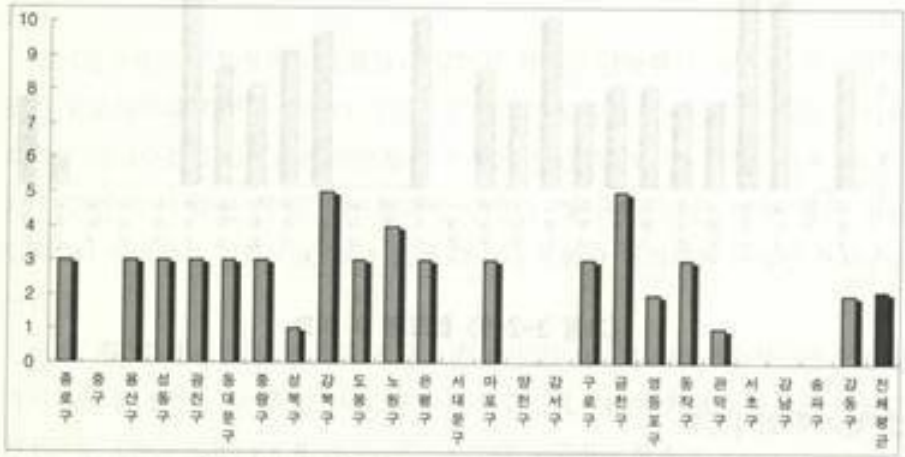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회의를 통한 결정내용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증빙할 수 있어야 자료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자치구는 당연히 회의건수가 전혀 없었고 해당기간동안 최대 5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한 자치구도 있는 한편, 평균적으로 2.12회의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표 3-2-20>, <그림 3-2-10> 참조).

〈표 3-2-20〉 협의체 회의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협의체 회의건수			
		3회이상	2회	1회	0회
협의체 회의건수	3.12 (2.30)	광진,구로,도봉,동대문,동작,마포,성동,용산,은평,종로,중랑,노원,강북,금천	강동,영등포	관악,성북	강남,강서,서대문,서초,송파,양천,중
	협의체 회의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회의건수 (개)	0	5.00	2.12 (1.62)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그림 3-2-10〉 협의체 회의건수 비교

③ 협의체 회의 내용분석

회의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은 전문가 3인이 각각 '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치구를 평가하였으며,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배점하였다.

15점 만점에 평균 7.70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에는 14개 자치구가, '상중'에는 8개 자치구가, '하'에는 3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표 3-2-21> 참조).

〈표 3-2-21〉 협의체 회의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협의체 회의 내용분석	7.70 (3.67)	강북,관악,광진, 구로,금천,노원, 도봉,동작,마포, 성동,성북, 영등포,용산, 은평	강동,강서, 동대문,서초, 양천,종로, 중,중랑	-	강남,서대문, 송파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전문가 내용평가 총평>

현재 소수의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여성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을 여성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형식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

여성정책 협력체계는 여성정책 업무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여성정책 업무가 여성정책 담당부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업무 속에서 성별영향을 갖는 것이기에 이러한 체계구축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4)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gender)별 분석을 통해서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항목 또한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중앙정부와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몇 몇 정책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성별 불평등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정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정책의 성별 평등성을 개선하고 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점차 다양한 정책에 확대·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시범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10점 만점으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여부, 성별영향평가 실적, 내용분석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계획수립방침서 및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①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 5점, 없는 경우 0점으로 배점하였다. 5점 만점에 평균 4.00점이었는데,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은 거의 모든 자치구가 수립하고 있어 20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되었고 추진계획 없는 자치구는 5개로 나타났다(<표 3-2-22> 참조).

〈표 3-2-22〉 성별영향평가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여부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유무	
		있음	없음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여부	4.00 (2.04)	강동,강북,관악,광진,구로,금천,노원,도봉, 동대문,동작,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 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	강남,강서,서대문,중,중랑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② 성별영향평가 실적

성별영향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2점, 없는 경우 0점으로 배점하였는데, 2점 만점에 평균 1.12점이었다. '실적 있음'이 14개 자치구로 나타났고 '실적 없음'이 11개 자치구로 나타나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에 비해 실제 실적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2-23> 참조).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실제 특정 정책에 적용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훈련이 크게 요구된다.

〈표 3-2-23〉 성별영향평가 실적 유무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성별영향평가 실적 유무	
		있음	없음
실적유무	1.12 (1.01)	강동,관악,광진,구로,금천,노원,도봉, 동작,마포,서초,성동,용산,은평,종로	강남,강북,강서,동대문,서대문,성북, 송파,양천,영등포,중,중랑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현황을 보면, 참여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14개중 8개), 이 외에 공무원 교육훈련, 걷고 싶은 아름다운 대로 업그레이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리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사업, 유스페스티벌 대회 등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표 3-2-24〉 자치구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현황

자치구명	사업명
종로구	노인일자리사업
용산구	노인일자리사업
성동구	성동구 공무원 교육훈련
광진구	노인일자리사업
도봉구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 교육
노원구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은평구	노인일자리사업
마포구	자원봉사자 육성·관리정책
구로구	노인일자리사업
금천구	걷고 싶은 아름다운 시행대로 upgrade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사업
서초구	노인일자리사업
강동구	유스페스티벌 대회

③ 성별영향평가 내용분석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분석은 전문가 3인이 각각 '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치구를 평가하였으며,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배점하였다.

3점 만점에 평균 1.2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에는 6개 자치구, '상중'에는 8개 자치구, '하'에는 11개 자치구로 각각 분류되었다(<표 3-2-25> 참조).

〈표 3-2-25〉 성별영향평가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성별영향평가 내용분석	1.26 (1.29)	광진,노원,도봉, 동작,용산,종로	강동,관악,구로, 금천,마포,서초, 성동,은평	-	강남,강북,강서, 동대문,서대문, 성북,송파,양천, 영등포,중,중랑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전문가 내용평가 총평>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가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이를 수행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 자치구는 손에 꼽힐 정도이다. 이 자치구들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의 공무원교육과 자료수집 등의 노력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료수집이나 교육 노력에 비하여 과제선정이 적절하지 못하여 그 노력을 감소시킨 사례들도 있어,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수의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구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별영향평가가 생소하고 별도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역량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자치구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 지원 계획과 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여성정보제공

2005년도 평가에서는 여성관련 정보 전달의 기반으로 여성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콘텐츠 구비여부를 평가하였으나 금년에는 한 걸음 나아가 실제로 여성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여성들이 얼마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지의 이용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성홈페이지 이용률'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체계적 전달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관련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여성에게 정책 정보에 대한 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모두 2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①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별 자치구마다 홈페이지 마련에는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up-date)나 이용자수에 대한 카운트(count) 기능설정을 통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후속작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내 여성홈페이지의 유무 및 이용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5점 만점에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1등급인 자치구는 이용자 수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실제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로 7개였으며, 2등급은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로 8개이다. 3등급은 홈페이지 이용자 수를 계산할 수 없는 자치구로 이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로, 4등급은 전혀 여성전용 홈페이지가 없는 자치구이다(<표 3-2-26> 참조).

〈표 3-2-26〉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3.24 (1.33)	관악,금천,도봉, 동작,송파, 영등포,용산,중	강북,구로, 동대문,서대문, 성동,양천, 은평,중랑	강남,강동,강서, 광진,노원,마포, 성북	서초,종로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이용실적 (명)	-	159,701.00	42,757.12 (50,547.687)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여성홈페이지의 유무 및 이용실적을 근거로 분류함.

②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

여성정책관련 세미나와 관련하여 '개최실적'과 '세미나 내용분석'을 확인하였는데, 증빙자료로는 세미나 개최계획과 결과보고서, 세미나 자료집을 검토하였다.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은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10개 자치구이며 최대 5건까지 실적이 있는 자치구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약1.3건을 개최하였다.

5점 만점에 평균 1.80점이었으며, 3건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한 자치구는 총 5개, 2건 개최 자치구는 총 5개, 1건 개최 자치구는 총 5개 자치구이다(<표 3-2-27>, <그림 3-2-11> 참조).

〈표 3-2-27〉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			
		3건이상	2건	1건	0건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	1.80 (1.98)	구로,금천,도봉, 마포,동작	관악,동대문, 영등포,은평, 종로	강북,강서,성북, 송파,용산,	강남,강동,광진, 노원,서대문, 서초,성동,양천, 중,중랑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개최실적 (건)	-	5.00	1.32 (1.44)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③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내용분석

10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개최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0점으로 배점하였다.

'상'에는 6개 자치구, '상중'에는 9개 자치구, '하'에는 10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표 3-2-28> 참조).

〈표 3-2-28〉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여성정책관련 세미나 내용분석	3.51 (3.32)	구로,도봉,동작, 영등포,은평, 종로	강북,강서,관악, 금천,동대문, 마포,성북,송파, 용산	-	강남,강동,광진, 노원,서대문, 서초,성동,양천, 중,중랑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6) 여성정책추진참여

'여성정책추진참여'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의 성실성'과 '참여도'는 자치구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구가 서울시에 보고한 각종 문서의 제출기한 및 내용에 대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이 직접 검토 후 평가하였다.

'업무보고의 성실성'은 '제출기한 준수여부'와 '보고내용 충실도'의 2개 지표 6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도'는 '참여지원'의 1개 지표 4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① 제출기한 준수여부

제출기한 준수여부는 3점 만점에 평균 1.84점이었으며, 최소 1점은 8개 자치구이며, 최대 3점은 4개 자치구로 나타났다(<표 3-2-29> 참조).

〈표 3-2-29〉 제출기한 준수여부 기술통계

측정지표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제출기한 준수여부 (3점 만점)	1.00	3.00	1.84	0.69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② 보고내용 충실도

보고내용 충실도는 3점 만점에 평균 2.04점이었으며, 최소 1점에 9개 자치구가 해당되었고, 최대 3점에는 10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표 3-2-30> 참조).

〈표 3-2-30〉 보고내용 충실도 기술통계

측정지표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보고내용 충실도 (3점 만점)	1.00	3.00	2.04	0.89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③ 참여도

시 차원의 여성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호응여부를 평가하는 참여도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적극 참여하여 자치구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31> 참조).

〈표 3-2-31〉 참여지원 기술통계

측정지표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참여지원 (4점 만점)	3.00	4.00	3.68	0.48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여성정책기반조성 영역의 자치구별 전문가 총평은 다음과 같다.

〈표 3-2-32〉 자치구별 여성정책기반조성 평가의견

구 분	평가의견
종로구	전년도에 비하여 여성정책 추진 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육과 아동, 소외계층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이 청소년 정책을 위주로 하는 조직에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독립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주간 행사 등을 실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나눔 장터와 같이 여성들의 자원봉사에 기댄 정책 수행이 두드러진다.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우수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면 보다 완결성이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 구	전적으로 보육과 아동정책만을 수행하고 있다. 보육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정책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여성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도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여성정책 수행의 의지나 진척을 찾아보기 힘들다.
용산구	여성정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보육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다. 영유아나 임산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들이 참여한 환경행사를 여성단체를 위한 정책 수행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 종합평가와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성동구	여성단체의 자원활동에 기댄 여성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단체의 활동도 김장나누기가 주요활동 내용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다양한 여성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

(계 속)

구 분	평가의견
광진구	여성복지를 위한 정책에 여성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지리적인 근접성이 있어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머니 교실이나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수행이 요구되며,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여성취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별영향평가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 즉 일자리 사업의 성별 직업분리 현상을 날카롭게 잘 지적하고 있다.
동대문구	여성정책이 보육과 청소년 정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 수행체계가 보육 청소년 정책을 위주로 짜여져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마라톤이 주요한 행사내용이며, 그 외에 복지관 단체견학이 여성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발굴과 시행이 요구된다.
중랑구	최근에 여성정책 수행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변경은 앞으로 여성정책의 성과를 기대할만한다. 여성주간 행사 내용도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다양한 편이나 전년에 15개였던 행사를 금년에 7개로 축소한 것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여성아카데미의 당초 계획이 8~10회였으나, 9월 중 1회만 실시한 것은 계획과 집행의 괴리가 보여지는 부분이다. 계획에 따른 충실한 여성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성북구	보육이 여성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과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앞으로 여성정책을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도 추진개요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책대상의 선정과 평가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강북구	여성주간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 영화를 통한 대중의식 개선, 부부공동재산문제, 성매매, 여성창업과 관련된 행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북여성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의 근거지가 되었으면 한다.
도봉구	그 동안 축적된 여성정책의 성과들이 금년도 여성정책 수행에서도 밑거름이 되고 있다. 여성정책 수행체계의 독립성도 높아 가정복지와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도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많으며, 여성단체, 여성정책, 웹사이트 등으로 여성정책 담당업무를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여성정책의 내용도 성별분석, 기금사업, 평화통일 사업, 여성단체 지원 등 매우 다양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도 돋보인다.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에 있어서도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가의 역량과 내용도 매우 우수하다.
노원구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정책이 혼재되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비와 국비 보조 사업인 여성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알뜰장을 운영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여성인력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굴이 요구된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성별영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

(계 속)

구 분	평가의견
은평구	보육이 여성정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 이외에 여성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눈에 띈다. 여성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자화장실의 증축과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기반 및 문화 확립이라는 목표의 세부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보다 큰 틀에서의 정책과제 조정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노인일자리 현황에 대한 통계만 제시되어 있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통계자료 및 정책현황 자료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서대문구	일본군위안부 지원, 모부자와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같은 국비 및 시비에서 보조하는 여성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 여성들의 자원활동이 주축이 되는 나눔장터가 여성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잇다. 여전히 여성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 조례의 개정 등 여성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엿보여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여성정책 수행을 기대해 본다.
마포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성희롱예방교육 정도를 수행하여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 여전히 여성단체 활동이 주가 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여성정책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자원봉사자 현황만 서술되어 있어 다소 형식적인 평가로 보여진다.
양천구	여전히 여성단체 활동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사업들이 여성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이다. 성별영향평가도 계획만 있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없다.
강서구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계획도 구비하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행을 기대해 본다.
구로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 여성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정폭력과 성매매, 모부자가정 지원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소한의 여성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남녀 30명씩을 편의표집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자료수집 노력에 비하여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금천구	여성발전 기금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한 개 증가하여 여성정책의 개선이 보인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사업은 가정폭력방지 지원, 저소득가정 지원 등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소한의 여성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사업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자료수집이나 평가노력이 매우 돋보인다.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과제선정이 적절하지 못하여 평가의의가 감소된 점이 아쉽다.

(계 속)

구 분	평가의견
영등포구	2006년에 수행한 여성정책 추진현황에 관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내용은 없다.
동작구	아동복지와 여성복지 정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육중심의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며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다. 장애인 여성복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추진 계획과 집행 실적이 없어 아쉽다.
관악구	여성정책의 흐름에 맞게 여성정책 과제들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관악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성정책 조사 사업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정책발전모임을 운영하고 있어 정책 담당자들의 성인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의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인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성별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서초구	여성정책 수행의지와 이를 위한 추진체계 및 계획이 거의 없다. 여성들의 자원봉사가 여성정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보이는 듯 하나, 이것 또한 비예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선무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강남구	사회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여성정책의 전부이다. 무엇보다도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선무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송파구	사회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보육정책이 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전부이다. 여성정책을 위한 조직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여성관련 회의도 전무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선무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강동구	눈에 띄는 여성정책으로 여성주간행사와 성희롱 예방교육 정도이며, 모자가정과 저소득층 지원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농구가 남성을 위주로 하는 경기라는 지적이 인상적이었으며,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통하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성평등문화교육 및 문화조성 - 선택부문

'양성평등문화교육 및 문화조성'은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의 8개 자치구가 선택하였으며, 크게 '양성평등문화'와 '양성평등교육'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양성평등교육·문화조성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 부문은 실제로 양성평등이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 없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관계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성별 불평등 관행이나 성차별적 의식은 법적, 제도적 강제나 일회성 사업만으로 개선되지 않으며, 그러한 관행이나 의식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 문화적 실천은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고 양성평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여성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주체적 역량(공무원들의 성 인지적 의식과 능력)과 참여자 역량(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참여 능력)을 개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문화

양성평등문화영역은 다시 여성주간사업추진과 양성평등문화사업의 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60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43.08점이다.

(1) 여성주간사업추진

여성주간사업추진은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여성주간사업건수'와 '여성주간사업에 대한 내용분석'의 2개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① 여성주간사업건수

여성주간사업은 6월과 7월의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평가하였다.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 가운데 여성주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사업만을 추렸으며, 따라서 추려진 사업만 평가점수에 포함하였다.

여성주간사업건수는 최소 5건에서 최대 10건으로 평균 7.00건의 사업이 개최되었다. 따라서 모든 자치구가 10점 만점을 취득하였다(<표 3-2-33> 참조).

〈표 3-2-33〉 여성주간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여성주간사업건수			
		5건이상	3건	2건	1건
여성주간사업건수	10.00 (0.00)	강북,강서,관악,광진,영등포,은평,종로,중랑	-	-	-
	여성주간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건수 (건)	-	10.00		7.00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표 3-2-34〉 자치구별 여성주간추진사업

구 분	사 업 명
종 로 구	찾아가는 어린이양성평등인형극, 여성리더십향상교육, 평등세상을 위한 '날개 짓'퍼포먼스, 시민을 위한 양성평등인형극,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향하여 테마별 사진전시회, 흡입한 어버이표창 등
광 진 구	나의 주장발표회개최, 민방위대원양성평등비디오상영, 여성교양대학수료생양성평등교육,저소득모부자가정혈액검사, 사랑의 밑반찬나누기 등
중 랑 구	한국여성디자인포럼회원전, 일상에서의 나의 양성평등, 남성요리솜씨 뽐내기, 중랑구립여성배구단,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병영체험 등
강 북 구	여성테마 무료영화상영, 여성창업강좌,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진전, 풍선아트를 이용한 양성평등 가족만들기, 모유수유강좌 등
은 평 구	여성정책포럼, 여성학강좌, 새생명 찾아주기 무료건강검진, 프리마돈나 양상블 초청대음악회 등
강 서 구	여성교양대학 작품전시회, 여성교양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평등부부되기 특강,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등
영등포구	여성주간기념식 및 시상식, 여성솜씨전,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부스운영, 평등부부걷기대회, 여성정책포럼 등
관 악 구	성매매 성폭력 예방캠페인, 가정폭력 없는 서울을 만들자 홍보 및 교육, 여성단체 지도자 위탁교육, 민방위대원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결의대회 등

② 여성주간사업 내용분석

여성주간사업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20점 만점에 평균 13.54점으로 나타났으며, '상'은 2개 자치구, '상중'은 3개 자치구, '중하'는 2개 자치구, '하'는 1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 내용평가는 사업의 목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며, 기획과 사업수행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표 3-2-35〉 여성주간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여성주간사업 내용분석	13.54 (2.43)	관악,중랑	영등포,은평,종로	강북,강서	광진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여성주간 사업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토대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식 뿐 아니라 남성에게 양성평등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기관의 역량과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담당자의 '여성주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본 주간 사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2-36〉 여성주간사업의 전문가 평가의견

구 분	내용평가의 전문가 의견
종 로 구	- 사업 형식에서 일방적인 강연이나 교육에서 벗어나 인형극, 역사문화 탐방,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여러 계층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모색하려 한 고민이 엿보임. - "역사 속 여성들을 찾아서"와 같은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단순히 역사나 여행의 수준을 넘어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참여 집단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반면 "훌륭한 어버이 표창"과 같은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종로구에서 현재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선발기준이나 표창기준, 그리고 양성평등문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업 시행계획과 결과 사진만 제출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것은 단순히 자료 제출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 내 사업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계 속)

구 분	내용평가의 전문가 의견
광 진 구	- 사업 내용에서 새로운 기획이나 명확한 목표의식 없이 과거와 같은 형태의 행사들을 반복하고 있음. 여성주간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구체적인 컨텐츠 개발에 대해 담당자들이 좀더 고민하고 모색하여야 함. - 문화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비디오 상영이나 일방적인 강연, 영화 감상 등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행사여서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식의 행사를 지양하고, 여성문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중 랑 구	- 사업계획이 철저하고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명확한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사업계획과 수행, 결과보고의 체계 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짐. - 계층, 연령 면에서 다양한 여성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도 비교적 다양함. 성매매예방, 이동여성상담소 등도 좋은 기획으로 돋보임.
강 북 구	- 전체적으로 사업 구성이 단조로우며 내용이 빈약하나,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돋보임. - "여성창업강좌"와 같은 경제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주제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은 평 구	- 가족관련 행사가 대부분으로 여성주간사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해 좀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걷기대회나 장터, 음악회 등에는 물론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그 사업들이 여성들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지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문화적인 주체로서 자기 의식과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이러한 검토 하에 여성주간의 각 사업들이 기획되고 수행, 평가되어야 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여성노인 인력양성'을 다룬 것이 돋보임.
강 서 구	- 여성주간사업은 각 행사를 통해 여성주간의 제정 의의를 되새기고 그 실천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주간사업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업내용도 가족관련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함. - 바자회, 가족영화 상영, 부모교육 등이 여성주간의 취지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 또, "여성교양대학"이 각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대개 이러한 명칭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에게 필요한 예절이나 소양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와 성평등 문화를 확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 비전문적이고 보수적인 함의가 강한 "여성교양대학"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명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등포구	- 여성주간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서도 여성들의 주도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성정책 향상을 위한 포럼"이 돋보이며, 여성영화제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들도 여성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었음. 또 "4행시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전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임.
관 악 구	- 사업건수가 많으며 짧은 기간 내 다양한 행사를 개설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한 기획이 돋보이나, 가족관련 행사나 여성의 성역할 수행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 여성주간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성매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민방위대원 양성평등교육"도 좋은 시도들이며, "여성정책발전 직원 연구모임"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나 1회에 그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그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이러한 "연구모임"은 정기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소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임.

(2) 양성평등문화사업

양성평등문화사업(양성평등한 가족문화사업 포함)은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와 '양성평등문화사업에 대한 내용분석'의 2개 하위지표를 통해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①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는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최소 2건에서 최대 10건으로 평균 5.00건의 사업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성평등문화사업은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수행함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의미있게 구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10점 만점에 평균 4.75점이었으며, 7건 이상 2개 자치구, 5건 이상 1개 자치구, 3건 이상 4개 자치구, 2건 이하 1개 자치구로 분류되었다(<표 3-2-37> 참조).

〈표 3-2-37〉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			
		7건이상	5건이상	3건이상	2건이하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	4.75 (3.41)	강서,종로	은평	강북,광진, 영등포,중랑	관악
	양성평등문화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건수 (건)	2.00	10.00	5.00 (2.56)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표 3-2-38〉 자치구별 양성평등문화 추진사업

구 분	사 업 명
종 로 구	달빛아래여성들, 밤길을 되찾다, 예비부부교육, 양성평등문화조성을위한 서명운동,역사속여성을찾아서, 구민양성평등교육 등
광 진 구	여성운전자등자정비교육및차량무상점검,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광진여성백일장 등
중 랑 구	남성요리솜씨 뽐내기, 중랑구립여성배구단 운영, 여성합창단운영, 여성병영체험
강 북 구	여성합창단 운영, 가정 · 성폭력 등 피해여성 지원사업, 가족성장통합프로그램, 신혼기부부교육
은 평 구	고전머리연구회, 여성장애인지원 홈헬퍼사업,양성평등캠페인 및 서명운동, 구청공무원양성평등의식도 설문조사
강 서 구	여성교양대학운영,여성문화센터및어린이 도서관건립, 여성우울증예방캠페인 등
영등포구	공무원양성평등캠페인, 양성평등 어린이세상 인형극공연, 추석맞이 평등가족만들기 양성평등 실천하는 거리캠페인
관 악 구	민방위대원 양성평등교육, '보람을 일구는 여성들'영상교육, 양성평등결의대회, 성매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양성평등가족문화강좌

② 양성평등문화사업 내용분석

양성평등문화사업의 내용분석 결과, 20점 만점에 평균 14.79점이었는데, '상' 4개 자치구, '중하' 3개 자치구, '하' 1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표 3-2-39> 참조).

〈표 3-2-39〉 양성평등문화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양성평등문화사업 내용분석	14.79 (2.74)	영등포,은평, 종로,중랑	-	강북,강서,관악	광진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표 3-2-40〉 양성평등문화사업 전문가 의견

구 분	내용평가의 전문가 의견
종 로 구	- 프로그램이 비교적 다양하고 신선한 기획들로 이루어짐. 특히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 되찾다"와 같은 사업은 성폭력 예방과 여성 인권 향상에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돋보이는 기획임. 또한 장소를 새로 복원한 청계천으로 잡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다가가려한 노력이 엿보임.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족사랑캠프", "장애인 멘티-멘토 한마당" 등은 정책의 수혜 집단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실제로 참여자중 성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성별영향평가).
광 진 구	- 사업의 성 인지성(gender sensitivity)과 양성평등 관점이 부족함. 예를 들어,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사업이 양성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이웃을 돌본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사업의 수혜자가 참여자 여성들은 아니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함. 이 사업은 양성평등문화사업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관련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그밖에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육 및 차량무상점검"사업이 양성평등문화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아차산 해맞이축제"는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아야 함. 여성운전자의 자동차 교육이나 차량무상점검을 굳이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해맞이 축제에서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 랑 구	- 구립여성배구단, 여성합창단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결과와 성과를 잘 정리하고 있음. - "일상에서의 나의 양성평등", "남성 요리솜씨 뽐내기"와 같이 남성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사업은 매우 신선하고 중요한 기획으로 평가됨. - "한국여성디자인포럼 회원전"은 문화부문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기획이라고 판단됨. - "토요문화한마당", "금요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강 북 구	- 가족중심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며 양성평등 문화조성과의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음. - "심리상담치료실 운영"과 "가정 · 성폭력 등 피해여성 지원사업"등 피해여성 관련 프로그램이 돋보이나 후자의 경우 사업예산이 매우 작아 그 효과가 의문시됨.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내 다양한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계 속)

구 분	내용평가의 전문가 의견
은 평 구	- 행사의 양은 많으나 음악관련 행사에 치우쳐 있고 가족문화행사가 대부분임. 이들 음악 행사들은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관련 사업 역시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의문시됨. - 여성자원봉사활동이나 "여성목욕봉사단 운영""사랑복지박람회"등은 여성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수혜자가 여성들은 아닐 수 있음. 실제로 이 사업들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야 함. - "구청공무원 양성평등의식도 설문조사"등은 아직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책담당자의 관심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됨. 문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서, 이후 공무원 교육과 성 인지적 정책 형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요 집단과 조직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계속 확대, 실시되어야 함.
강 서 구	- 여성문화센터를 새로 건립하여 지역내 여성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여성축구단, 경제체험교실,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등은 보통 남성적 활동으로 알려져 온 영역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함. - 여성 우울증 실태조사 사업도 신선한 기획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영등포구	- 양성평등의식을 공직사회에서 먼저 확대해가기 위한 사업으로"공무원양성평등캠페인"은 양성평등문화조성을 공직사회가 먼저 실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공직자들의 의식 개선을 통한 성 인지적 정책 형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임. - "추석맞이 평등가족만들기 거리캠페인"은 신선한 기획으로 보임. 그러나 음악회나 예술체험, 가족나들이 등의 행사에 "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들 문화행사에서 양성평등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으나 실제 내용과 무관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관 악 구	- 대부분의 사업이 가족관련 행사들로서 양성평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많으며, 여성주간사업과 동일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분리를 요함. - "결혼이민자 가정과 함께 하는 명절음식 만들기"프로그램은 소외되기 쉬운 이주여성 가족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교육' 영역은 크게 공무원 양성평등교육과 시민 양성평등 교육으로 나누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40점 만점에 평균 22.00점이었으며, 사분위수를 근거한 집단분류에서는 '상'이 2개 자치구, '상중'이 2개 자치구 , '중하', '하' 각각 2개 자치구로 구분되었다(<표 3-2-41> 참조).

〈표 3-2-41〉 양성평등교육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중상	중하	하
양성평등 교육(40)	22.00 (8.00)	은평,종로	영등포,중랑	강북,광진	강서,관악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공무원양성평등교육

공무원양성평등교육은 재단, 공무원교육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교육을 최소 7시간 이상의 교육에 한해 모두 인정하였으며, '교육이수자 통보공문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이수자 비율'과 '양성평등교육이수자 중 6급 이상 관리직 비율'의 2개 하위 지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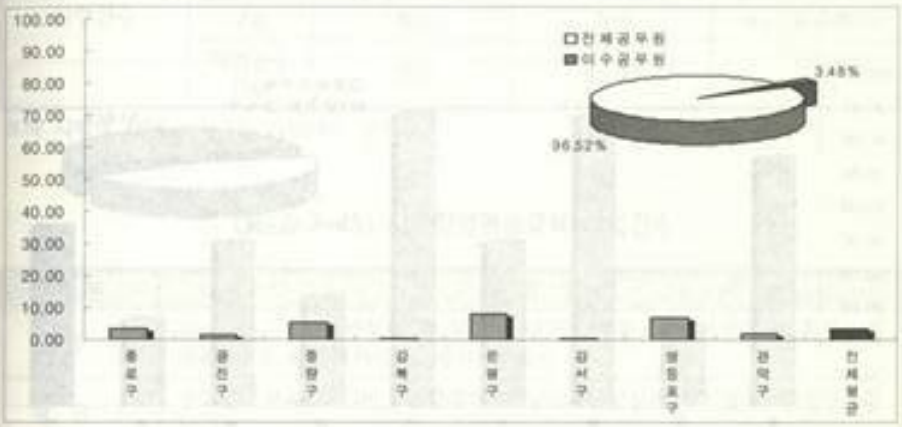
① 교육이수비율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최소 1,092명에서 최대 1,311명으로 평균 1,214명이었으며, 양성평등교육이수자는 3명인 자치구가 가장 적었으며, 최대 95명인 자치구가 있었으며, 평균 42.50명이었다. 이를 점수화하면 10점 만점에 평균 6.25점이었으며, 사분위수 근거의 등급구분에 대해 각 등급별로 2개 자치구가 차지하였다(<표 3-2-42>, <그림 3-2-14> 참조).

〈표 3-2-42〉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수자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비율	6.25(2.76)	영등포,은평	종로,중랑	관악,광진	강북,강서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수자 비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전체공무원 (명)	1,092	1,311	1,214.50 (88.02)	
	교육이수자 (명)	3.00	95.00	42.50 (36.21)	
	이수비율 (%)	0.23	8.18	3.48 (2.99)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14〉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수자비율 비교

② 관리직비율

양성평등교육이수자 중 6급 이상 관리직은 1명인 자치구가 가장 적었고, 84명인 자치구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29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이수자 중 관리직의 비율은 평균 54.62%였는데, 최소 25.00%에서 최대 88.42%로 자치구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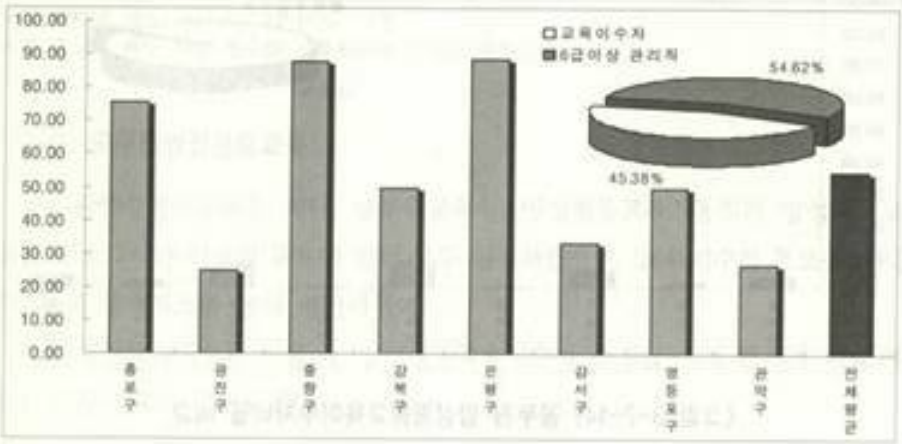
10점 만점에 평균 6.50점이었으며, 은평구와 중랑구가 1등급, 강북구와 영등포구가 2등급, 종로구와 강서구가 3등급, 관악구와 광진구가 4등급에 속하였다(<표

3-2-43>, <그림 3-2-15> 참조).

〈표 3-2-43〉 교육이수자 중 6급 이상 관리직 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중 6급이상 관리직 비율	6.50(2.73)	은평,중랑	강북,영등포	종로,강서	관악,광진
	관리직 비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관리직수 (명)	1.00	84.00	29.00 (30.83)	
	관리직비율 (%)	25.00	88.42	54.62 (26.23)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15〉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수자 중 6급 이상 관리직비율 비교

(2) 시민양성평등교육

시민양성평등교육은 시민양성평등교육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검증하였는데, 각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교육 프로그램명, 담당강사, 참여자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였으며, '교육사업건수'와 '자치구인구대비 교육참여자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①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는 평균 7.00건으로 3건인 자치구가 가장 적은 사업을 실시하였고, 13건이 최대 사업건수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화하여 10점 만점에 평균 3.00점이었으며, 10건 이상 2개 자치구, 5건 이상 4개 자치구, 4건 이하 2개 자치구로 나타났다(<표 3-2-44> 참조).

〈표 3-2-44〉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			
		15건이상	10건이상	5건이상	4건이하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	3.00 (1.51)	-	은평,종로	강북,강서, 광진,영등포	관악,중랑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건수 (%)	3.00	13.00		7.00 (3.42)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표 3-2-45〉 시민양성평등교육 사업건수

구 분	사 업 명
종 로 구	찾아가는 '어린이양성평등인형극', 구민양성평등교육,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부부아카데미, 예비부부교실 등
광 진 구	청소년성교육, 광진여성교양대학-여성리더십향상과 양성평등, 양성평등확산 등
중 랑 구	여성학강좌, 양성평등강좌, 여성아카데미, 양성평등교육
강 북 구	성희롱예방교육, 아버지교실, 여성학강좌, 성폭력예방교육 등
은 평 구	양성평등교육, 생활속의 양성평등실천, 건강한 삶을 위한 양성평등,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공익근무요원 양성평등교육, 아버지 교육, 양성평등 교양강좌 등
강 서 구	여성학강좌, 우울증 예방교육, 주부우울증 및 스트레스대처방법, 리더십아카데미, 21세기 여성의 리더십, 평등한 부부되기, 노년기 건강한 여가생활
영등포구	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한 유아 대 교사의 양성평등 활동, 양성평등- 내 몸은 육각수를 꿈꾼다, 성평등: 남녀 행복의 지름길을 향하여, 생활문화와 양성평등 등
관 악 구	여성의 몸과 정체성이해,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21세기 시대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권익증진과 권익보호

②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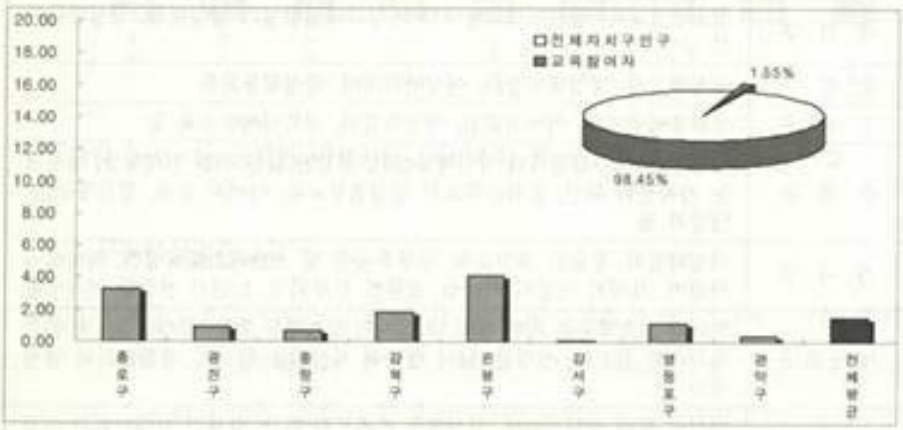
자치구의 인구는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기준으로, 종로구가 173,861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서구가 557,3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치구들의 평균인구는 416,123.50명이었다.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는 평균 5,645.75명이었는데, 참여자수 최소 420명(전체 시민 대비 1.55%)으로 가장 적었고, 최대 19,438명(전체 시민 대비 4.11%)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6.25점이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각각 두 가 자치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표 3-2-46>, <그림 3-2-16> 참조).

〈표 3-2-46〉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수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자치구인구대비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 비율	6.25(2.76)	은평,종로	강북,영등포	광진,중랑	강서,관악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 비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자치구인구 (명)	173,861.00	557,373.00	416,123.50 (120,581.64)	
	교육참여자 (명)	420.00	19,438.00	5,645.75 (5,913.52)	
	인구대비 참여율(%)	0.08	4.11	1.55 (1.44)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16〉 시민양성평등교육 참여자비율 비교

3. 여성경제활동지원 – 선택부문

○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저활용'은 낮은 고용률이라는 양적인 측면,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관리직 비중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저활용' 개선을 위해서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은 현재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 창출 사업, 경력단절여성 및 고학력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은 여성 친화적이지만 여성의 진출이 열되어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신규 일자리를 여성인력으로 채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또한 청년층 여성 및 중고령 경력단절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여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수료생을 취업과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임.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하여 저소득 여성가장 및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이나 기능을 습득한 여성기술인에게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취미교양 위주의 여성교육을 지양하고, 취업이나 개인의 취업가능성을 제고시켜 주는 교육과 취업지원사업이 중앙정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

여성경제활동지원 부문을 선택한 자치구는 도봉구, 금천구, 마포구 세 개 자치구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여성인적 자원개발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의 두 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00점을 만점으로 배점하였다.

1)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인적자원개발' 영역은 40점 만점에 세 개 자치구 평균 32.78점으로 나타났다.

(1)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

'자체사업'은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자체사업건수'와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분석'의 2개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①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건수

'자체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에 임하되, 자체사업은 예산투입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또한 1회성의 교양교육의 성격을 띤 다양한 교육사업인 경우나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여성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강좌는 취·창업의 자체사업건수에서 포함되므로 뒷부분의 평가에 포함하였다.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건수는 도봉구가 5건, 금천구/마포구가 4건을 시행하였으며, 20점 만점에 평균 16.67점으로 나타났다(<표 3-2-47> 참조).

〈표 3-2-47〉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건수			
		5건이상	3건이상	2건	1건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건수	16.67 (2.89)	도봉	금천,마포	-	-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사업건수 (건)	4.00		5.00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여성경제활동지원'의 선택 자치구가 3개이므로 기술통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생략함.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직접적인 취·창업활동과 구분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성인력 발굴이나 DB화, 여성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인력 발굴 및 양성교육 등을 이 분야의 사업에 포함하였다.

도봉구는 자체적으로 여성전용시설을 두고 지역여성인적 자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시설운영 및 시설이용에 대한 홍보사업 등은 직접적인 인적개발과 거리가 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마포구가 제출한 대부분의 사업은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금천구가 제출한 사업가운데 1회성 교육사업, 취·창업 교실은 제외하였다.

〈표 3-2-48〉 자치구별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건수

구분	사업명
도 봉 구	직업교육프로그램개발, 정부지원교육연계기반 구축, 취업지원인프라구축(여성개인정보DB화, 모니터단구성, 취업지원협의체구성) 등
마 포 구	희망시장어린이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전문기능양성, 자원봉사실무담당워크숍,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금 천 구	여성정보화교실운영, 지역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상담가양성교육, 여성의 경제력향상 강좌

②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 내용분석

자체사업의 내용분석은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평균하였으며, 20점 만점에 세 개 자치구 평균 16.11점으로 나타났다.

〈표 3-2-49〉 여성인적자원개발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중	하
자체사업내용분석	16.11(2.55)	도봉	금천	마포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3-2-50〉 전문가 의견

구분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의견
도 봉 구	2006년 3월 도봉구 여성센터를 개원하면서 도봉구 여성 인적자원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음. 센터 개원 이래 차질없이 지역구 여성의 전문직업교육기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자치단체차원에서 최초로 여성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아직까지 취업과 창업을 제외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도봉구는 도봉여성센터의 주요 사업을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참여로 구성하면서 대민홍보 강화 및 직업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정부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어서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의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계 속)

구분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의견
마 포 구	구 차원에서 꾸준히 여성직업교육 및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사업의 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므로 향후 기존사업평가에 기반한 사업 혁신이 필요함. 취업,창업 부문을 제외한 여성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여성교실 이외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자원봉사 관련교육'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여성 대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현재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타 구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수준의 사업이 많음.
금 천 구	자치구 차원의 여성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구 관내기관인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관내 여성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천여성교실의 운영목적이 취업활동 연계라면,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함.

2)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취업'과 '창업'으로 구성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는 총 60점 만점이며,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되, 각 사업은 예산 투입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세 개 자치구 평균 42.78점이었으며, 표준편차 7.88점으로 분석되었다(<표 3-2-51> 참조).

〈표 3-2-51〉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중	하
여성경제활동 활성화(60)	42.78(7.88)	도봉	마포	금천

(1) 취업

취업영역은 '자체사업건수', '실질취업률', '자체사업 내용분석'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었다.

① 취업 자체사업건수

취업 자체사업 건수는 자치단체가 여성 취업을 위해 지원한 사업에 한하여 평가하였으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동일한 사업을 여러 번에 걸쳐 수행한 경우는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표 3-2-52〉 취업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취업 자체사업건수			
		5건이상	3건이상	2건	1건
취업 자체사업건수	5.33 (4.04)	도봉	-	금천,마포	-
	취업 자체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사업건수 (건)	2.00		7.00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여성경제활동지원'의 선택 자치구가 3개이므로 기술통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생략함.

〈표 3-2-53〉 자치구별 자체 취업사업

구분	사업명
도 봉 구	체험학습강사 양성, 산후도우미 양성, 웨딩플래너, 가정봉사원 연계사업, 전통병과 생산 및 판매위탁운영 등
마 포 구	리쿠르트, 직업설계교육 및 유망직업 세미나
금 천 구	여성교실,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

② 실질취업률

취업관련 자체사업 참여자는 최소 25명에서 최대 870명까지 평균 367.00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실제 취업자는 최소 7명에서 최대 142명까지 평균 89명이었다. 또한 실질 취업률은 최소 16.32%에서 최대 57.28%로 평균 33.87%로 나타났다. 실질취업률은 10점 만점에 평균 7.33점으로 나타났다(<표 3-2-54> 참조).

〈표 3-2-54〉 실질취업률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실질취업률	7.33 (2.52)	도봉	금천	마포	-
	실질취업률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참여자 (명)	25.00	870.00	367.00 (444.91)	
	실제취업자 (명)	7.00	142.00	89.00 (72.02)	
	실질취업률 (%)	16.32	57.28	33.87 (21.10)	

③ 취업 자체사업 내용분석

여성 취업관련 자체사업의 내용분석은 10점 만점에 평균 6.67점이었으며, 3개의 자치구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표 3-2-55> 참조).

〈표 3-2-55〉 취업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중	하
자체사업내용분석	6.67(0.00)	금천,도봉,마포	-	-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2) 창업

여성의 창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건수', '실질창업률', '자체사업 내용분석'의 하위지표를 통해 자치구의 창업노력을 평가하였다.

① 창업 자체사업건수

창업 자체사업은 세 개 자치구 모두 6건으로 동일했으며, 배점 역시 동일하게 10점 만점을 취득하였다(<표 3-2-56> 참조).

〈표 3-2-56〉 창업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창업 자체사업건수			
		5건이상	3건이상	2건	1건
창업 자체사업건수	10.00(0.00)	도봉,마포, 금천	-	-	-
	창업 자체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사업건수(건)	-		6.00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여성경제활동지원'의 선택 자치구가 3개이므로 기술통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생략함.

② 실질창업률

여성창업 자체사업 참여자는 평균 282.67명이며, 최소 109명, 최대 6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창업자는 최소 17명, 최대 62명으로 평균 37명이 실제 창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질창업률은 평균 24.01%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질취업률은 10점 만점에 평균 7.33점이었는데, 도봉구가 1등급, 마포구가 2등급, 금천구가 3등급이었다(<표 3-2-57> 참조).

〈표 3-2-57〉 실질창업률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실질창업률	7.33 (2.52)	도봉	마포	금천	-
	실질창업률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참여자 (명)	109.00	618.00		282.67 (290.47)
	실제창업자 (명)	17.00	62.00		37.00 (22.91)
	실질창업률 (%)	5.18	51.24		24.01 (24.15)

③ 창업 자체사업 내용분석

여성 창업관련 자체사업의 내용분석은 10점 만점에 평균 6.11점이었는데, 마포구가 '상', 금천구와 도봉구가 '중'에 속하였다(<표 3-2-58> 참조).

〈표 3-2-58〉 창업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중	하
자체사업내용분석	6.11(1.92)	마포	금천,도봉	-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자치구별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59〉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전문가 평가의견

구분	평가의견
도 봉 구	고학력 여성과 취약계층 여성 대상에 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도봉구 자체예산이 아닌 외부 지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설하고 있음. 그러나 과정시작시 취업을 원하던 여성들이 수료후 취업을 원하지 않게 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직업의식교육 등이 교육과정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 있음.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강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운영이 돋보임. 향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동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를 타 자치구에 보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필요함. 비교적 여성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적절히 교육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창업지원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산모도우미 같은 여성특화된 창업업종의 발굴과 지원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여성창업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함.
마 포 구	각종 사업(박람회, 세미나,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여성 특성화된 일자리창출이 강구되어야 함. 여성취업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은 특징적임. 행정서포터즈 채용에서 여성채용의 성과와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 운영에서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연계성과가 향후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비교적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소상공인센터와도 연계하고 있어서 우수함. 또한 (사)여성자원금고를 통한 전문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금 천 구	자치구 관내 기관들을 활용하여 취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자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취업자수를 보이고 있음. 사회복지과를 주축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며, 돌봄노동이 여성 특화된 일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며 여성일자리 연계사업으로 가정복지과 등과의 공조 하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창업자금 지원시 관내 창업교육 이수자와 연계하여 선정하는 방안도 필요함. 금천창업스쿨의 창업교육뿐 아니라 창업자 현황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교육, 창업준비지원, 창업자금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4. 여성사회참여지원 – 선택부문

□ 여성사회참여 지원의 의의와 중요성

- 중앙정부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경우, 6가지 기본전략 중에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설정하고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의 3대 정책과제를 채택하였음. 중앙정부 제2차여성기본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설정하고,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자원봉사활성화,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참여 확대 등의 3개 정책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 여성정책4개년계획(2003-2006)에서는 정책 5대 분야의 하나로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확대'를 설정함.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및 지도자 육성'을 추진과제로 채택하여 여성단체 육성 및 파트너십 강화,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 여성포털사이트 구축 및 통합정보서비스 등의 3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민선4기 시정운영4개년계획(2006-2010)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시책 하에 '문화 등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단 육성·운영',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성발전기금 조성확대' 2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국가 및 서울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보듯,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은 여성정책의 주요과제임을 알 수 있음. 지방자치 정착단계를 지나, 지방자치의 본격적 발전단계로 진입하는 민선 4기 2006년 이후, 자치구 차원의 여성사회참여가 더 중요해지고 있음.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이 법제도 차원의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에 따라, 다음 단계로 실제 생활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높아졌음. 이를 위해 여성정책의 방향과 운동이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자치구 차원의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이러한 여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임.
  민선 3기의 '비전 2006 서울시정4개년계획' 정책방향 중에서 '지역주민 참여의식 제고와 거주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제시되었음. 이는 거주지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가 행정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일제 주민이라 할 수 있는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역할과 참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주민참여와 주민단체 활동이 우리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여성들이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의회로 진출하였고, 여성들의 지역 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지역사회활동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차원에서 자치구의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은 여성정책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임.
-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하나는 자원봉사 등의 비영리 시민단체 활동이나, 문화·학습활동 등의 시민단체활동이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함. 이러한 시민단체활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지만, 지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자치구의 지원이 필요함. 또 하나는 여성들이 지역사회 시민단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고, 이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정치활동 참여로 이어지게됨.

□ 2006년도 자치구 여성사회참여지원의 평가방향

- 2006년 자치구 여성사회참여지원 분야의 평가방향은 첫째, 법에 의해 행정 주도하에 전국 단위로 결성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의 여성단체나 여성직능단체보다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발굴과 활동지원을 위해 자치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하였음. 두 번째는, 여성단체활동 및 사회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초점을 둠.

'여성사회참여지원'은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강동구의 5개 자치구가 선택하였으며, '여성단체 육성',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 증진', '일·가정 양립지원'의 3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여성사회참여지원에 대한 전문가 총평은 다음과 같다.

- 여성 사회참여지원과 관련해 5개 자치구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여성단체지원 사업을 하는 양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원이 새마을부녀회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즉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여성단체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드물다는 한계점이 있음.
- 여성사회참여 활동 지원 내용 측면에서는 단체활동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에 한정되어, 지역사회에는 공헌을 하지만, 여성의 인적 자본 발전과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활동 이외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형식적이어서 여성 역량 강화나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자치구의 보육지원사업은 아직 양적, 질적 수준 모두 미흡한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보육지원사업은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사업도 많지만,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구 차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

1) 여성단체 육성

'여성단체 육성'은 지역여성단체 활성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지원단체 수', '여성단체 육성 관련 사업 내용분석'의 2개 지표로 평가를 하였으며, 관련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였다. 20점 만점에 평균 12.13점으로 나타났다(<표 3-2-60> 참조).

〈표 3-2-60〉 여성단체 육성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여성단체 육성(20)	12.13(4.27)	강동	노원,양천	강남	서대문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지역여성단체 활성화

① 사업추진실적

지역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은 '지원단체수'로 측정하였다. 여기

서 여성단체라 함은 ①단체성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 ②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여성복지증진 등을 단체활동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정관 등으로 이를 확인이 가능한 단체에 한하여 인정하였으며,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만 점수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하여 지원단체가 가장 적은 곳은 2개인 반면 가장 많이 지원한 자치구는 16개 단체로 평균 8.80개의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평균 2.80점으로 나타났다(<표 3-2-61> 참조).

〈표 3-2-61〉 자치구별 지역여성단체 지원실적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원단체수	2.80 (1.48)	강동	노원, 양천	서대문	강남
	지원단체수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지원단체수 (개)	2.00	16.00	8.80 (6.14)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② 여성단체 육성 사업 내용분석

여성단체 육성 사업의 내용분석은 15점 만점에 평균 9.33점이었으며, 강동구/양천구가 '상', 강남구/노원구가 '상중', 서대문구가 '하'로 분류되었다(<표 3-2-62> 참조).

〈표 3-2-62〉 여성단체 육성 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사업내용분석	9.33(3.25)	강동,양천	강남,노원	-	서대문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지역여성단체 활성화의 성과로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3-2-63〉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노 원 구	노원구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 활동 범위는 장애인, 환경, 건강, 가정폭력 등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광범위함.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여성역량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음.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지원하는 여성단체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여성단체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치중되어 있음. 여성들의 단체활동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에는 일부 기여를 했으나, 활동을 통한 여성의 인적자본 발전이나 양성평등 확산에 기여한 점은 미흡하다고 할 것임.
양 천 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한 것이 여타 자치구와 차별화되고 있음. 특히 여성리더십교육프로그램은 여성 인적자본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창의적으로 판단됨. 그러나 여성의 자기 신체권에 대한 결정권 논의가 현재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사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강 남 구	여성단체지원수가 가장 적고 지원이 편중된 반면,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활성화되어있음.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였으나, 이것이 봉사활동에 국한되면서, 지역사회 주민참여 향상과 여성의 역량강화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강 동 구	지원하는 여성단체수가 가장 많으며, 단체 활동도 성평등의식 교육,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다양함. 국제교류사업은 차별화된 사업이지만, 향후 사업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여성정책 견학사업의 경우, 방문도시의 여성단체나 해당 행정부서를 방문하여, 방문도시의 여성 단체활동 및 생활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이 내실화되면, 자치구 홍보나 위상도 올라가면서, 여성들의 인적자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은 만큼,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은 '여성지도자육성', '지역여성사회참여'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40점 만점이다. 여성전문인력 현황 및 명단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로 '지역전문인력 발굴실적'을 증빙하였으며, 자치구에 등록된 단체의 전체회원 및 여성회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였다. 40점 만점에 5개 자치구 평균은 23.00점으로 나타났다(<표 3-2-64> 참조).

〈표 3-2-64〉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 (40)	23.00 (10.12)	양천	강동,노원	강남	서대문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여성지도자 육성

① 지도자교육 이수자수

'여성지도자 육성'은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수를 통해 평가하였는데, 이수자 명단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는 한 명도 없는 자치구부터 최대 169명까지 평균 90.00명이었으며, 10점 만점에 평균 6.40점으로 나타났다(<표 3-2-65> 참조).

〈표 3-2-65〉 지도자교육 이수자수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도자교육 이수자수	6.40 (2.61)	양천	강남,강동	노원	서대문
	지도자교육 이수자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교육이수자 (명)	0.00	169.00		90.00 (72.42)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3) 지역여성사회참여

'지역여성사회참여'는 '지역전문인력 발굴실적'과 '사회단체회원의 여성비율'의 2개 하위평가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에 임하였는데, 각각은 '홍보실적' 및 '발굴건수', '전체회원 대비 여성회원비율'의 측정 지표로 구성되었다.

① 홍보실적

'지역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홍보실적'은 평균 2회로 나타났으나, 총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는 홍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화하면 5점 만점에 평균 1.60점이었으며, 가장 많은 곳은 5건 이상인 자치구이며 다음은 3건 이상의 홍보실적을 보이고 있었다(<표 3-2-66> 참조).

〈표 3-2-66〉 홍보실적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지역전문인력 발굴 홍보실적별 해당 자치구				
		5건이상	3건이상	2건	1건	0건
지역전문인력발굴 홍보실적	1.60 (2.30)	양천	노원	-	-	강남,강동, 서대문
	홍보실적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홍보건수 (건)	0.00		6.00		2.00 (2.82)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② 발굴실적

'지역전문인력 발굴실적'은 평균 21.40명이었으나, 홍보실적과 마찬가지로 3개 자치구가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15점 만점에 평균 8.60점이었으며, 전문인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78명을 발굴하였고, 다음 노원구는 29명의 전문인력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67> 참조).

〈표 3-2-67〉 발굴실적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역전문인력 발굴실적	8.60 (3.58)	양천	노원,-	-	강남,강동 서대문
	발굴실적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발굴실적 (명)	0.00	78.00		21.40 (34.04)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③ 사회단체 전체회원대비 여성회원비율

사회단체 회원은 평균 70,514.00명이었는데, 회원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5,333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자치구는 106,834명이었다. 사회단체의 여성회원은 평균 15,371.60명(31.03%)이다. 이를 점수화하면, 10점 만점에 평균 6.40점이며, 1등급은 양천구, 2등급은 강동구/노원구, 3등급은 강남구, 4등급은 서대문구로 분포하고 있었다(<표 3-2-68> 참조).

〈표 3-2-68〉 사회단체 여성회원비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사회단체 여성회원 비율	6.40 (2.61)	양천	강동,노원	강남	서대문
	발굴실적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전체회원 (명)	5,333.00	106,834.00	70,514.00 (41,359.70)	
	여성회원 (명)	3,075.00	25,658.00	15,371.60 (9,614.70)	
	여성비율 (%)	9.25	57.66	31.03 (20.35)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사회참여증진 영역에 대한 자치구별 전문가의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3-2-69〉 자치구별 전문가 평가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노 원 구	- 노원구는 여타 자치구에 비해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수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며, 지역전문인력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여타 자치구에 비해 지역사회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만큼, 지역사회단체 간 교류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회원들이 지역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리더십교육이나 활동분야 전문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계 속)

구분	전문가 의견
서대문구	- 여성단체 활동의 다양성이 여타 자치구에 비해 미흡하며, 사회단체의 여성 참여율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자체 문화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여성단체를 발굴하고, 이들 시설에서 교육수료자들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복지시설들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양 천 구	- 여성단체활동 지원 수가 가장 많고, 다양한 단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여타 자치구에 비해 여성지도자교육과 지역전문인력 발굴에도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사회단체 여성회원 비율은 양천구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양천구는 자치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자 대상으로 학습동아리, 자원봉사동아리 등의 소규모 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강 남 구	- 강남구는 기존 여성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지도자 교육 실시를 하였으나, 신규 지역여성단체 지원이나, 지역전문인력 발굴에는 미흡함. 새마을부녀회의 경우, 자원봉사활동만으로 젊은 연령층의 회원 발굴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강남구의 경우 자원봉사센터나 문화복지시설에서 소규모 여성 단체활동이 있으므로,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지도자 교육, 전문분야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강 동 구	- 강동구는 여성단체활동 수나 활동내용이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여성지도자 교육도 우수함. 그러나 여성 인적자본 발전과 양성평등 확산에 좀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할 시킬 필요가 있음.

3) 일 · 가정 양립지원

'일 · 가정 양립지원'은 '공보육기반조성', '보육서비스 향상'의 2개의 평가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은 다시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정보센터실시', '평가인증제 참여실적', '보육시설 지도 · 점검', '자체교육실시'로 세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실에서 제공한 2006년 6월말 현재 보육통계자료와 각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 · 검토하여 총 4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일 · 가정 양립지원' 영역 전체 점수는 평균 23.80점이다(<표 3-2-70> 참조).

〈표 3-2-70〉 일 · 가정 양립지원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일 · 가정양립지원 (40)	23.80 (8.56)	강동	강남,양천	서대문	노원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공보육기반조성

① 방과후 교실 2006년 목표달성률

2006년 확충을 지정받은 방과후 교실의 수는 0개소에서 2개소까지 분포하였으며, 지정받은 개수 대비 지정비율로 평가하였다. 총 9점 만점에 평균 5.8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졌다(<표 3-2-71> 참조).

〈표 3-2-71〉 방과후 교실 2006년 목표달성률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방과후 교실 2006년 목표달성률				
		10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방과후 교실 2006년 목표달성률	5.80 (4.38)	강동,서대문, 양천	-	-	-	강남,노원
	방과후 교실 2006년 목표달성률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06년지정 (개소)	0.00		2.00	1.00 (0.71)	
	06년현황 (개소)	0.00		2.00	1.20 (1.10)	
	달성률 (%)	0.00		200.00	100.00 (100.00)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② 장애아 통합보육 2006년 목표달성률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을 받은 수는 최소 1개소(강동구)에서 최대 5개소(노원구)까지 자치구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고, 자치구들은 평균 2.60개의 지정을 받았으며, 확충 현황을 보면, 최소 1개소(노원구)부터 최대 3개소(서대문구)로, 평균 2개소의 실적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률은 최소 20.00%(노원구)에서 최대 200.00%(강동구)로 평균 104.00%의 충원률을 보였으며, 8점 만점에 평균 6.60점으로 나타났다(<표 3-2-72> 참조).

〈표 3-2-72〉 장애아 통합보육 2006년 목표달성률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장애아 통합보육 2006년 목표달성률				
		10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장애아 통합보육 2006년 목표달성률	6.60 (3.13)	강남,강동, 서대문,양천	-	-	-	노원
	장애아 통합보육 2006년 목표달성률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06년지정 (개소)	1.00		5.00		2.60 (1.52)
	06년현황 (개소)	1.00		3.00		2.00 (0.71)
	달성률 (%)	20.00		200.00		104.00 (63.87)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③ 시간연장형 2006년 목표달성률

시간연장형 지정은 최소 23명(강남구/양천구)에서 최대 37명(노원구)로 평균 29.20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확충 현황은 5명(양천구)에서 최대 26명(강동구)으로 평균 15.80명의 실적을 보였다.

목표달성률은 최소 21.74%(양천구)에서 최대 78.26%(강남구)로 평균 53.30%의 충원률을 보였으며, 8점 만점에 평균 2.20점이었다(<표 3-2-73> 참조).

〈표 3-2-73〉 시간연장형 2006년 목표달성률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시간연장형 2006년 목표달성률				
		10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시간연장형 2006년 목표달성률	2.20 (1.64)	-	-	강남,강동	-	노원,양천, 서대문
	시간연장형 2006년 목표달성률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06년지정 (명)	23.00		37.00		29.20 (6.34)
	06년현황 (명)	5.00		26.00		15.80 (7.82)
	달성률 (%)	21.74		78.26		53.30 (24.08)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2) 보육서비스향상

① 보육정보센터 설치여부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3점, 미설치의 경우는 0점으로 배점하였으며, 평균 1.80점으로 나타났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강남구/강동구/노원구의 3개 자치구가 해당되었으며, '미설치'는 서대문구/양천구의 2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표 3-2-74> 참조).

〈표 3-2-74〉 보육정보센터 설치 여부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표준편차)	보육정보센터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설치여부	1.80(1.64)	강남,강동,노원	서대문,양천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② 평가인증제 참여율

자치구들의 총 보육시설수는 평균 279.80개소인데, 서대문구가 197개소로 가장 적었고, 노원구가 491개소로 가장 많았다. 평가인증제 참여시설은 양천구가 가장 적은 16개소, 노원구가 가장 많은 77개소이며, 자치구들의 평균은 37.80개소였다. 평가인증제 참여율은 최소 7.05%에서 최대 16.12%로 평균 12.8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총 4점 만점에 평균 2.60점으로 나타났다(<표 3-2-75> 참조).

〈표 3-2-75〉 평가인증제 참여기관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평가인증제 참여기관	2.60 (1.14)	강남	강동,노원	성대문	양천
	평가인증제 참여기관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총보육시설 (개소)	197.00	491.00	279.80 (121.48)	
	참여시설 (개소)	16.00	77.00	37.80 (24.22)	
	참여율 (%)	7.05	16.12	12.85 (3.69)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③ 보육시설 지도·점검

총 보육시설 대비 지도·점검 비율은 평균 54.17%였는데, 최소 23.22%부터 최대 78.20%로 나타났으며, 지도·점검시설은 최소 79개소에서 최대 165개소로 평균 124.20%였다. 4점 만점에 평균 2.40점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76> 참조).

〈표 3-2-76〉 지도·점검 참여기관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도·점검 참여기관	2.40 (1.14)	강동	양천	강남,서대문	노원
	지도·점검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지도점검 (개소)	79.00	165.00		124.20 (37.61)
	참여율 (%)	23.22	78.20		54.17 (21.66)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④ 자체교육 참여율

총 보육교사는 평균 1,333.20명으로 최소 1,026명에서 최대 1,997명이었으며, 자체교육 참여 보육교사는 최소 0명에서부터 최대 578명까지 자치구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39.40명이었다. 총 보육교사 대비 자체교육 참여율이 전혀 없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42.75%를 차지한 강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구들의 평균참여율은 19.57%로 나타났다. 본 지표는 총 4점 만점에 평균 2.40점이었다(<표 3-2-77> 참조).

〈표 3-2-77〉 자체교육 참여율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자체교육 참여율	2.40 (1.34)	강동	강남,양천	-	노원,서대문
	자체교육 참여율 관련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총보육교사 (명)	1,026.00	1,997.00		1,333.20 (392.17)
	교육참여 (명)	0.00	578.00		239.40 (251.35)
	참여율 (%)	0.00	42.75		19.57 (19.92)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한 전문가 평가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78〉 전문가 평가의견

구분	전문가 의견
노 원 구	- 노원구는 2006년 방과후 교실 확충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고, 장애아 통합보육, 시간연장 보육 목표달성률도 여타 자치구에 비해 저조함. 반면 보육정보센터 설치, 평가인증제 참여율은 비교적 높으나, 보육시설지도와 점검 달성률은 가장 저조함. 보육교사의 자체 교육 참여율도 가장 낮은 자치구에 속하고 있음. 방과후 교실이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절대수가 많은 만큼, 방과후 교실 수의 확충을 포함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서대문구	- 방과후 교실 확충, 장애아통합보육의 목표 달성률은 우수 상위 그룹에 속하나, 시간연장형 보육 목표 달성률은 미흡함. 보육서비스와 관련해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율, 보육시설 지도·점검률, 보육교사 자체교육 참여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서대문구는 동별로 소득계층, 여성경제활동참여율에 편차가 크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시설 확충 우선 지역을 설정하여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양 천 구	- 방과후 교실, 장애아 통합보육의 목표 달성률은 우수 상위 그룹에 속하나, 시간연장형 보육 목표 달성률은 하위 그룹에 속함.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율도 가장 낮음.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보육교사 자체교육 참여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양천구도 보육대상아동의 절대수가 많은 만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평가인증제 참여율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강 남 구	- 장애아 통합보육과 시간연장보육 목표 달성률은 우수 상위그룹에 속하며,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율도 상위 그룹임. 그러나 보육시설 지도·점검률과 보육교사 자체교육 참여비율은 중간수준임.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주민소득계층이 높은 만큼,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수준향상에 지속적인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강 동 구	- 공보육기반조성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방과후교실, 장애아 통합보육에 있어서 목표달성을 이루고 있으나 시간연장형은 목표에 미달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자체교육 참여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5. 여성 · 가족복지향상 – 선택부문

여성 · 가족복지 향상 부문의 전체적인 전문가 총평은 다음과 같다.

□ 평가방향

- 2006년도 여성가족복지 향상부문의 평가방향은 사업의 활성도, 사업영역의 포괄성,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사업성과에 두고 있음
  - · 사업의 활성도: 사업건수, 참여인원
  - · 사업영역의 포괄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 (심리사회적, 경제적, 지역사회활동 / 예방, 치료, 재활 등)
  - · 사업대상의 포괄성: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성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미혼커플, 결혼이민자 등)
  - · 사업관리의 전문성: 사업수행과 결과 평가 여부
  - · 사업성과: 사업목표달성정도

□ 총평

위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9개 자치구를 평가한 결과, 사업성과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서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음. 사업의 활성화정도를 보면 3건의 사업을 수행한 여성인권영역의 서초구에 비해, 성동구는 건강가정영역에서 총53건의 사업을 수행하여 활성화의 정도가 구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사업영역의 경우, 예방(교육 및 홍보), 치료,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직업재활, 자원동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포괄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예컨대 성북구의 경우, 여성인권영역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예방교육으로써 포괄성이 매우 낮은 반면, 동대문구 여성복지영역 사업의 포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전체적으로는 현금, 현물지원, 일회성, 행사성 사업의 비중이 높았음.

얼마나 다양한 집단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시키는가를 평가한 사업대상의 포괄성이 높은 구는 용산구로서, 건강가정영역에서 일반가정, 노인가정, 결혼이민자, 미혼커플, 한부모가정 등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시켰음. 반면에 서초구는 여성복지영역의 사업 모두 저소득모자가정에 국한되어 사업대상의 포괄성이 매우 낮았음.

사업관리의 전문성 또한 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음. 대상자의 만족도평가를 포함한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정도를 보면 전체 사업 중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중구가 있는 반면에, 동작구의 경우 전체 사업의 50%에서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위의 기준들과 달리, 구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부분은 목표대비 실적(결과)을 평가하는 사업성과부문임. 9개구의 전체 사업에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송파구 여성인권영역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 회복프로그램이 유일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여성 · 가족복지향상'은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의 총 9개 자치구가 선택하였으며, '여성인권', '여성복지', '건강가정'의 3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 40점, 40점, 20점으로 구성하였다.

1) 여성인권

'여성인권'은 '성매매,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사업 실적', '자체사업 내용분석',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의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40점 만점에 평균 30.96점이었으며, '상' 2개 자치구, '상중' 3개 자치구, '중하' 1개 자치구, '하' 2개 자치구로 분포하고 있다 (<표 3-2-79> 참조).

〈표 3-2-79〉 여성인권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여성인권(40)	30.96(3.57)	서초,동작	구로,동대문,송파	용산,성북	성동,중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성매매,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① 성매매 등 방지 관련 자체사업수

'성매매,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자체사업은 최소 0건에서 최대 15건으로 평균 7.78건의 사업건수를 보였다. 총 10점 만점에 평균 8.44점이다 (<표 3-2-80> 참조).

〈표 3-2-80〉 성매매 등 방지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성매매,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자체사업건수				
		5건이상	3건이상	2건	1건	0건
성매매,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자체사업	8.44 (3.25)	구로,동대문, 동작,성동, 성북,용산,중	서초	-	-	송파
	성매매,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자체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건수 (건)	0.00		15.00		7.78 (5.12)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자체사업을 보면, 예방에 관한 의식교육, 캠페인, 각종지원, 인형극 등의 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대상에 있어서 공익요원, 민방위대원, 초중고등학생, 피해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3-2-81〉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자체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중 구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사회안전망지정기탁 성금배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입소아동 후원금 지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원업무능력향상 법률강좌 등
용산구	성매매 근절 캠페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성매매집결지 성병검진 협력체계구축,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성동구	어린이집교사 성교육워크숍, 성교육인형극,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춘기 등
동대문구	성매매피해여성 무료의료사업 지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에 따른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여성단체연합회방문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성북구	성매매집결지 실태 및 방지대책 선도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에 따른 해외벤치마킹 실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관리,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와 대책 특강 등
구로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강좌 운영, 성매매없는 세상만들기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여성복지상담실 운영, 피해자 시설운영지원
동작구	공익근무요원 성매매 예방교육, 피해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폭력 예방세미나 등
서초구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성폭력피해자 지원, 성폭력 성범죄 근절 결의대회

② 성매매 등 방지 관련 자체사업 내용분석

성매매 등 방지 관련 자체사업 내용분석은 관련 전문가 3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집계하였다. 20점 만점에 평균 15.74점이다(<표 3-2-82> 참조).

〈표 3-2-82〉 성매매 등 방지 관련 자체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자체사업내용분석	15.74(1.47)	동작,성동,성북, 송파	구로,동대문, 서초,중	용산	-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표 3-2-83〉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

구분	평가의견
중 구	성희롱예방교육 등 예방사업 2건, 긴급생계지원과 성폭배분통보 등 6건 정도의 많지 않은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사업 내용 또한 예방, 물질적 지원 등에 치중되어 사업범주가 매우 제한되었으며, 여성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사업이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사업평가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사업수행의 전문성이 미흡함.
용 산 구	20개가 넘는 사업들이 경제적 지원, 예방, 의료지원,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실시되었음. 사업 건수가 경제적 지원에 치중된 점은 있으나,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포함하는 예방교육이나 성매매 집결지 점검과 같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활동이 매우 적극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성 동 구	대부분의 사업이 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방교육으로써, 사업의 포괄성이 현저히 낮으로 것으로 평가됨. 사업평가, 만족도 수행은 대략 36%정도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사업범주가 경제적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화 될 필요가 있음.
동대문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성매매관련 활동, 특히 현장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 긍정적임. 그러나 현재 치중된 예방사업 외에 피해자보호, 재활 등 사업범주의 확대와 연계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함. 현재 사업평가와 만족도 수행이 4% 수준인데,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 있음.
성 북 구	총 6건의 사업 모두 교육, 지역사회관리강화 등 예방사업으로 구성됨으로써 사업범주가 지극히 제한된 것으로 평가됨. 피해자발견과 치료, 경제적 지원 등 사업범주가 좀더 적극적이며 다원화될 필요가 있음. 실시된 사업의 경우, 사업평가나 만족도 평가가 전혀 수행되지 않아 사업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지 않음.
구 로 구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예방사업과 상담실운영, 의료기관지정 등 비교적 다수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사업의 포괄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직업훈련, 자원동원, 경제적 지원 등 사업의 범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전체 사업의 50% 정도에서 사업평가와 만족도 평가가 수행됨으로써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인정됨.
동 작 구	예방사업의 비중이 비교적 크긴 하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경제적 지원, 자원동원사업 등 다양하게 실시되었고, 성매매, 성폭력, 가족폭력 등 전 영역이 균형있게 포함되었으며 참여인원도 많았음. 그러나 사업평가, 만족도 평가가 전체 사업의 23%에서 수행됨으로써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서 초 구	다른 자치구에 비해 사업수가 매우 적고, 사업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여 사업다양성이 미흡하며, 사후관리시스템, 사업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관리 또한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음. 그러나 10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임.
송 파 구	관내 2개의 기관에서 가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주로 실시되었음. 다른 구에 비해 치료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목표대비 효과평가를 사전사후설계로 실시함으로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1건의 직업훈련을 제외하곤, 예방,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가 부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③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수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은 최소 1개소에서 최대 4개소로 평균 2.89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총 10점 만점에 평균 6.78점이다(<표 3-2-84> 참조).

〈표 3-2-84〉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수	6.78 (2.49)	서초,성동	구로,동대문,동작, 성북,송파	-	용산,중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지정기관 (개소)	1.00	4.00	2.89 (0.93)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2) 여성복지

'여성인권'은 '여성복지향상사업의 자체사업수', '참여인원', '사업 내용분석'의 3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목적, 내용, 참여자 명단이 포함된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40점 만점에 평균 31.63점이었는데, '상' 2개 자치구, '상중' 3개 자치구, '중하' 2개 자치구, '하' 2개 자치구로 분포되고 있다(<표 3-2-85> 참조).

〈표 3-2-85〉 여성복지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여성복지(40)	31.63(5.98)	성동,용산	구로,동대문,동작	서초,송파	성북,중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여성복지향상사업(한부모가정, 저소득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장애인 등)

① 자체사업건수

'여성복지향상 관련 자체사업'은 최소 3건에서 최대 13건으로 평균 6.78건의 시행을 보였으며, 10점 만점에 평균 8.44점이었고, 5건 이상이 7개 자치구, 3건 이상이 2개 자치구가 각각의 사업을 실시하였다(<표 3-2-86> 참조).

〈표 3-2-86〉 여성복지향상 자체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여성복지향상 자체사업건수			
		5건이상	3건이상	2건	1건
여성복지향상 자체사업건수	8.44 (3.24)	구로,동대문,동작, 서초,성동,송파,용산	중구, 성북	-	-
	여성복지향상 자체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건수 (건)	3.00	13.00	6.78 (3.77)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표 3-2-87〉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자체사업명

구분	사업명
중 구	결혼이민자 집단상담, 설날 저소득구민 위문, 추석저소득 구민 위문
용산구	모부자가정눈썰매 캠프, 행복한 가족나들이 행사, 희망119안경봉사단 자원봉사, 모자원 연계 사업, 청소년가정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 봉사 등
성동구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 성동 마중물 배움터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무지개 사랑학교 운영 등
동대문구	한부모가정 아동을위한 레포츠 체험,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여성가장 돕기 지원, 여성건강 영상물 대여, 결혼이민자 가정 친목회 등
성북구	모자가정 대상 성북여성교실 특별반 운영2, 한부모 가정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구로구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장학습, 여성보호시설 입소자와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엄마와 함께하는 농촌체험,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외국인 자녀 어학교육 및 주부를 위한 외국어 교육
동작구	한부모가정지원 특화사업, 모부자가정 신입생 자녀 격려, 모부자가정 종합건강검진, 여성장애인 정보화 교육,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및 육아비 지원
서초구	저소득 모부자 지원, 설날 저소득 주민 격려, 추석맞이 저소득 주민격려, 모자가정 복지자금대여, 일본위안부지원
송파구	여성장애인 운전, 한부모가정 김치담궈주기, 한부모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② 여성복지향상 사업 참여인원

'여성복지향상사업 참여인원'은 평균 1,340.89명이었는데, 최소 참여자 40명부터 최대의 참여자 6,813명으로 자치구마다 참여인원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점수화하면 총 10점 만점에 평균 6.33점이다(<표 3-2-88> 참조).

〈표 3-2-88〉 여성복지향상사업 참여인원 등급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여성복지 향상사업 참여인원	6.33 (2.60)	성동,용산	동대문,서초,송파	구로,동작	성북,중
	여성복지향상사업 참여인원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참여인원 (명)	40.00	6,813.00	1,340.89 (2,112.62)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③ 여성복지향상사업 내용분석

여성복지향상사업의 내용분석은 20점 만점에 평균 16.85점이었는데, '상'에는 4개 자치구, '상중'에는 3개 자치구, '하'에는 2개 자치구가 해당되었다(<표 3-2-89> 참조).

〈표 3-2-89〉 여성복지향상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사업내용분석	16.85(2.42)	구로,동작, 성동,용산	동대문,성북, 중	-	서초,송파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사업의 내용분석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3-2-90〉 전문가 평가의견

구분	평가의견
중 구	현금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문화체험 등 사업건수가 제한적이며 사업범주 또한 포괄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계층과 대상자를 포함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음. 사업평가나 만족도 평가가 수행된 사업이 전혀 없어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남.
용 산 구	현물지원, 자원동원 등 많은 수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9%의 사업에서 사업평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사업관리의 전문성으로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일부 행사성 사업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례관리도입 등 사업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 있음.
성 동 구	현금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정보제공, 무료서비스 등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수행되어 사업의 포괄성이 인정됨. 또한 장애아통합보육, 결혼이민자정착사업 등의 운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만족도평가를 포함한 사업평가가 전혀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업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동대문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사업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심리사회적, 문화체험, 의료, 자원동원과 연결 등 사업이 포괄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임. 또한 사업평가가 전혀 수행되지 않아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가 이뤄져야 할 것임.
성 북 구	1건의 문화체험, 3건의 현물서비스, 2건의 직업훈련 등 다른 구에 비해 사업건수가 제한되고 사업의 포괄성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내용 또한 이벤트 중심의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발견됨. 반면에 사업의 29%가 만족도평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적은 수이나마 일부 사업에서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구 로 구	현금, 심리사회, 문화체험, 현물,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범주의 사업이 수행되어 사업의 포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 전체 사업의 27%가 사업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임. 저소득층자녀, 외국인 가족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
동 작 구	현금, 심리사회, 문화체험,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저소득가구 대상 사업의 포괄성이 인정됨. 참여인원 또한 많은 것도 사업성과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전체 사업의 29%가 만족도 평가 등 사업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구에 비해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서 초 구	보고된 사업이 모두 3건의 현금서비스, 2건의 현물서비스로써 사업의 포괄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업대상자가 저소득모자가정에만 국한됨으로써 사업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여성복지분야의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평가가 전혀 수행되지 않아 사업관리의 전문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됨.
송 파 구	현금지원사업, 심리사회서비스, 현물지원, 문화체험 등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범주의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사업의 포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전체 사업의 20%가 사업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전혀 실시하지 않을 구에 비해서는 전문성 수준이 훨씬 나은 수준이지만, 이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건강가정

'건강가정'은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여부', '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건수', '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분석'의 3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총 20점 만점이며, 평균 18.55점으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건강가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등급별로는 '상' 2개 자치구, '상중' 5개 자치구, '하' 2개 자치구로 분류되었다(<표 3-2-91> 참조).

〈표 3-2-91〉 건강가정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 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건강가정(20)	18.55(3.60)	동작,용산	동대문,서초,성북,송파,중	-	구로,성동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1)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운영(건강가정지원센터 등)

① 지원센터 운영여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자치구는 5점, 미운영 자치구는 0점으로 배점을 하였는데, 전체 자치구가 모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모두 만점을 취득하였다(<표 3-2-92> 참조).

〈표 3-2-92〉 보육정보센터 설치 여부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지원센터 운영 여부	
		운영	미운영
지원센터 운영여부	5.00(0.00)	구로,동대문,동작,서초,성동,성북,송파,용산,중	-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② 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건수

자치구들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은 평균 20.78건의 실시를 보였는데, 최소 7건, 최대 45건으로 자치구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모든 자치구가 5건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여 5점 만점을 취득하였다(<표 3-2-93> 참조).

〈표 3-2-93〉 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건수별 해당 자치구 및 기술통계

측정지표	배점				
	평균점수 (표준편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건수			
		5건이상	3건이상	2건	1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건수	5.00 (0.00)	구로,동대문,동작, 서초,성동,성북, 송파,용산,중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건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사업건수 (건)	7.00	45.00	20.78 (13.15)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94〉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명

구분	사업명
중 구	먹거리가 우리아이를 바꾼다, 우리아이습관 건강한가?, 함께하면 행복이 두배-아버지학교, 가족과 함께 놀아요-유아 인터넷 중독예방 및 극복 집단상담 등
용 산 구	한부모가정 사랑 재출발, 부모교육, 미혼커플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우리가정 행복지수높이기, 남성돌봄 노동 참여를 통한 아버지 교육, 노부모와 알콩달콩 잘살기 등
성 동 구	가정의 달 모범건강가정 표창, 가족봉사단 성동가정지킴이단, 부부사랑학교, 상담자 간담회, 건강가족 튼튼농장 등
동대문구	가족이랑 식물이랑, 식물과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SBS긴급출동 SOS24외, 가족이야기, 한부모집단 상담 등
성 북 구	결혼준비교육, 집단상담, 가정의 달 행사, 아름다운 가게, 우리가족 한마음 등

(계 속)

구분	사업명
구 로 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부자가정의 가족응집성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 양성평등 실현 캠페인, 꿈나무 장난감 나라 운영 등
동 작 구	우리부부 알콩달콩 살기, 부모교육, 즐거운 양성평등교육, 부부등반대회, 청소년경제교육실천사업 등
서 초 구	가족사랑캠페인, 결혼준비교육, 다양한가족 · 어울림한마당, 상담자 슈퍼비전, 우리아이 사춘기극복하기 등
송 파 구	자녀의 학습방법진단 심리검사,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마음다스리기, 자녀의 진로탐색을 위한 심리검사, 내아이의 성격과 적응상태가 궁금해요 , 부모교육 등

③ 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분석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8.55점이었으며, '상'은 2개 자치구, '상중'은 5개 자치구, '하'에는 2개 자치구가 속하였다(<표 3-2-95> 참조).

〈표 3-2-95〉 지원센터 운영사업 내용분석 등급별 해당 자치구

측정지표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사업내용분석	8.55 (3.61)	동작,용산	동대문,서초, 성북,송파,중	-	구로,성동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3-2-96〉 전문가 평가의견

구분	평가의견
중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생활습관훈련, 가족집단상담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센터가 개소 직후의 시작단계인 점이 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사업범주의 포괄성과 사업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임.
용 산 구	상각지상담실, 용산문화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3개의 가족지원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일반가정, 노인가정, 결혼이민자, 미혼커플, 한부모가정 등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사업성과면에서도 참여인원수와 실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됨. 사업평가는 30%사업에서 수행되어 비교적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성 동 구	무지개사랑학교, 성동가정지킴이단 발족 등 사업의 특화노력이 인정되나, 사업대상이 일반가정으로 한정되고, 부부사랑학교, 육아 등 사업범주가 단조로운 것으로 평가됨. 9%에 불과한 사업평가가 개선되어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좀더 다양화될 것이 요구됨.
동대문구	상담사업, 한부모상담, 주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평가가 전체 사업의 45%수준에서 수행됨으로써 사업관리의 전문성이 다른 구에 비해 상당수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유관기관, NGO단체들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성 북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사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가족교육, 집단상담, 봉사단, 문화체험 등 비교적 다양한 범주의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전체 사업의 20%정도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사업이 활성되어야 하며, 사업의 지역특화와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구 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가족지원관련 인프라는 갖춘 것으로 평가됨. 부모교육, 한부모가정심리강화, 농촌체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화, 교육, 상담 등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사업대상이 한정되며, 다른 기관과의 연계사업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 사업평가 실시율이 4%에 불과하여 사업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동 작 구	미혼, 부부, 노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며, 욕구조사실시, 체계적인 사업구성, 68%의 사업평가 실시율 등 사업이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되었음. 또한 특화사업의 개발, NGO, 유관기관 등 지역구 내의 유기적인 공조시스템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됨.
서 초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갖추고, 결혼준비교육, 부모역할교육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건수도 많아 전체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임. 입양가족, 장애인가족, 이혼경험자자조모임 등 사업대상자 또한 다양한 집단을 포함시킨 것으로 평가됨. 사업평가 실시율은 19%로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송 파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 심리검사, 부부성장교육, 아동양육교육, 예비부모교육, 가족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센터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에 사업평가 실시율이 0%로서 사업관리가 전문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6. 수범사업

수범사업은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의 3개 영역에서 자치구들이 선택적으로 평가에 임하도록 하였는데, '여성복지향상' 영역은 10개 자치구가 선택하였으며, '양성평등달성'은 7개 자치구, '여성경제사회참여'는 8개 자치구가 선택하였다. 제출한 수범사례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각각의 영역별로 공통적으로 '사업수립', '집행' '성과'의 3단계에 걸쳐 평가하였으며, 각각의 자치구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3-2-97〉 자치구 제출 수범사례 목록

연번	자치구명	선택부문	사업명
1	종 로 구	여성복지향상	여성장애인산모도우미제 및 장애인 멘토-멘티한마당
2	중 구	양성평등달성	남녀가 화합하는 양성평등
3	용 산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용산여성 아카데미
4	성 동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취·창업을 위한 성동여성대학 운영
5	광 진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광진경제활성화를 위한 성공창업 강좌
6	동대문구	양성평등달성	동대문구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7	중 랑 구	여성복지향상	중랑구 여성교실
8	성 북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사랑의 바느질 집
9	강 북 구	여성복지향상	강북여성정보센터
10	도 봉 구	양성평등달성	하하호호 가족사진 콘테스트
11	노 원 구	양성평등달성	좋은 엄마만들기
12	은 평 구	여성복지향상	여성정책포럼
13	서대문구	여성복지향상	여성복지센터 운영
14	마 포 구	양성평등달성	여성주간행사(당당한 여성되기)
15	양 천 구	여성복지향상	취·창업 중심의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6	강 서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강서구여성교양대학 썸머스쿨
17	구 로 구	양성평등달성	양성평등문화조성
18	금 천 구	여성복지향상	폭력없는 양성평등한 행복세상(여성상담소)
19	영등포구	여성복지향상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만들기
20	동 작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IT일자리지원 프로젝트(웹쇼핑몰 관리자 양성과정
21	관 악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창업 인큐베이터실 운영
22	서 초 구	사회경제활동참여	홀로노인을 위한 서초여성자원봉사
23	강 남 구	여성복지향상	여성센터 여성교실
24	송 파 구	양성평등달성	송파구 양성평등 전통 성년례
25	강 동 구	여성복지향상	여성결혼이미낮를 위한 행복한 가족만들기

〈표 3-2-98〉 자치구 수범사례 요약

자치구명	선택부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종로구	여성복지 향상	여성장애인산모도우미제와 장애인멘토-멘티 한마당	임신출산, 육아양육 지원이 필요한 종로구 등록 여성장애인	10명	12,000,000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산모도우미파견(인건비) : 1인×1,000천원×10인=10,000천원 -산모도우미 교통비 : 1,800원×500회=900,000원 -준비비(교통카드 및 문구류 구입 등) : 100,000원 -홍보물 제작 : 1,000천원 등의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다. 2. 장애인 멘토-멘티 한마당은 비예산 사업으로 -현수막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협조하였고 -대학로 소재 계림라 극장과 연계 공연 무료 관람 협조, -공연 후 멘토와 멘티간 만남의 장 운영 시 다과비는 행사취지에 동참하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운영됨.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고통 경감 및 생활지원
중구	양성평등 달성	남녀가 화합하는 양성평등	구민 300여명	구민 300여명	3,800,000	○ 여성주간과 관련한 여성강좌등의 행사를 위해 -예 산 액: 3,800천원 -홍보방법: 매년 가정복지관련사업 예산계획을 수립, 예산확보. -집행내역: 강사료, 프래카드 등 행사소요물품비 등 -사업진행사항: 구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생조직체 월례회등을 통한 홍보로 2006. 7. 21(금) 14:00 ~ 16:00,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일반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강좌 실시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적인 여성관과 성 역할에 대한 의식변화 및 사회 저변의 양성평등문화 기반 조성을 위함.
용산구	여성경제 사회참여	용산여성 아카데미	18세 이상 용산구 거주 여성	논술지도사 (30명), 심리상담사 (40명), 노인교육 지도사 (30명)	48,000,000	○예산액: 48,000,000원 ○예산집행 내역: 33,200,000원 -수강료 지원: 31,600,000원 -수료식 경비: 1,600,000원 ○교육기간 단축 (주2회에서 주4회로 변경) -2006. 6. 5 ~ 2006. 8. 31(11주, 3개월)→2006. 6. 5 ~ 2006. 7. 30(8주, 2개월) ※ 숙명여자대학 평생교육원의 강의실 배정 곤란 및 수강생 자녀의 방학 문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취득하여 여성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 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자치구명	선택부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성동구	여성경제 사회참여	창업.취업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성동구 거주 여성	1,710명 -30명×19개반×3기 = 1,710명	166,292,000	□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법 ○예산의 규모: 166,292천원 - 인건비: 50,000천원 - 운영비: 8,865천원 - 기타대학 운영: 107,427천원 ○예산의 확보: 구 자체 예산편성 지원 □ 예산집행 ○구민대학운영: 161,067천원 - 인건비: 150,000천원 - 기 타: 11,067천원 ○구민대학개관: 5,225천원 - 행사운영비: 3,125천원 - 개관업무추진: 2,100천원	여성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사회적 참여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등 어려워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창업 · 취업과 문화적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의 욕구 충족을 위해여하고자 운영
광진구	여성경제 사회참여	광진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강좌	광진구 거주주민	약 150명	200,000	○ 최근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신규 일자리는 물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창업을 하여도 경험과 정보, 자금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실패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강좌내용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한 실전 창업 11단계 -다양한 상권분석 사례 소개로 창업시장 이해 -창업교육, 상담등 다양한 창업서비스 및 정보 제공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창업시장을 분석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중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향후 사업운영 및 창업의욕 고취로 최적의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창출 도모**
동대문구	양성평등 달성	동대문구 한마음체육대회	동대문구 거주 여성	28개팀	16,935,350	□ 예산규모 및 확보방법 ○소요예산: 16,935,350원 ○확보방법: 2006년 예산에 반영 □ 집행내역 ○행사위탁: 6,980,000원 -이벤트 행사 및 경기진행, 경기용품 준비 등 전반 -홍보물 제작(현수막 제작) ○각 선수단 유니폼 및 행사비용 지원: 6,160,000원 -26개동사무소 여성단체연합회 2개팀 ○홍보물 제작: 550,000원 -초청장 및 리플릿 ○시상품 및 경품: 2,200,000원 ○기타 동대문체육과 대관비 등: 545,350원 ○기타 준비비용: 500,000원	제11회 여성주간(2006.7.1~7.7)을 맞이하여 우리 구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table>
<tr><th>자치구명</th><th>선택부문</th><th>사업명</th><th>사업대상</th><th>사업인원</th><th>예산액</th><th>비고(사업내용)</th><th>사업목표</th></tr>
<tr><td>중랑구</td><td>여성복지 향상</td><td>중랑구 여성교실</td><td>중랑구 저주여성</td><td>20~40명</td><td>45,400,000</td><td>○ 예산
-총 45,4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2,800천원
(수료증 800천원, 안내문 1,000천원, 현수막 1,000천원)
· 여성교실 운영비 : 700천원
· 기술교육 강사료 : 36,000천원
· 여성교실 비품수리 : 1,000천원
· 냉방기 구입비 : 4,900천원
○ 사업실행 결과
-2005년도 6기 258명 수료
-2006년도 7기 167명 수료 7기 236명 수강중</td><td>○여성의 여가선용으로 잠재능력개발
○여성의 생산적인 사회활동 참여 및 경쟁력 향상
○취업, 창업 및 가계에 보탬이 되는 여성교실 강좌운영</td></tr>
<tr><td>성북구</td><td>여성경제 사회참여</td><td>사랑의 바느질 집</td><td>저소득여성가장</td><td>25명</td><td>17,166,500</td><td>○예산규모: 17,166,500원
-보 조 금: 12,000,000 원 -자체부담금: 5,166,500 원
○예산 확보방법 :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및 여성증앙회 자체사업비
○집행내역
-현수막: 440,000원 -리더쉽 강사료: 200,000원
-포스타: 825,000원 -의류수선전문가 과정 강사료: 4,500,000원
-전단지: 450,000원 -창업특강 강사료: 300,000원
-디자인비: 500,000원 -교재비: 450,000원
-홍보물 발송비: 180,000원 -재료비: 500,000원
-손세라피 강사료: 200,000원 -교육진행비: 1,300,000원
-전시회: 495,000원 -장소대관료: 1,670,000원
-오리엔테이션: 50,350원 -회의비용: 280,900원
-사무비, 재료비: 873,930원 -사업진행보조인건비: 3,127,820원
-진행도우미: 800,000원 -전시회도우미: 103,900원</td><td>○전반적 소득 수준이 미흡한 성북구 구민들의 소규모 사업으로 창업 유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봉제 의복 및 수선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활동에 기여
○인력부족 직종 중의 하나인 봉제의복 제조업에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고,중·고령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학력,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단기간 훈련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정책적 자립기반을 갖추게 하고자 함</td></tr>
<tr><td>강북구</td><td>여성복지 향상</td><td>강북여성 정보센터</td><td>강북구 거주여성</td><td>6명의 전문직원 배치</td><td>136,050,000</td><td>□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법
총계 | 일반 운영비 | 연구 개발비 | 시설비/부대비 | 자산 취득비 | 임시사역 인부임 | 예산 확보 세부내역
136,050 | 20,000 | 28,250 | 17,892 | 46,283 | 23,625 | ○본예산: 50,000천원
○세무과 인센티브사업비 지원 : 68,385천원
○추경예산 : 3,665천원
□ 집행내역 (2006년 9월28일 현재 기준)
(단위:천원)
총계 | 일반 운영비 | 연구 개발비 | 시설비 /부대비 | 자산 취득비 | 임시사역 인부임
132,535 | 20,000 | 28,250 | 17,892 | 46,283 | 20,140</td><td>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보의 접근성, 정보역량, 활용도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과 사회진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신체적 장애인, 저소득 및 지역 취약계층과 일반계층간의 정보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여성관련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정보제공을 통하여 정보이용의 접근편리성을 도모하고 지역여성들에게 배우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 창구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td></tr>
</table>

자치구명	신체부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도봉구	양성평등 달성	하하호호 가족사진 릴레이즈	도봉지주 2인이상 가족		6,330,000	□ 소요예산 ○ 총 산 액 : 6,330,000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 : 경상경정비, 일반운영비, 통신운영비 - 여성문화 : 경상경정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 여성복지 : 경상경정비, 일반보상금, 행사비보상금 □ **집행내역 : 6,330,000원** ○ 필름카드 구매 : 80,000원 ○ 행사안내장 주식비, 행수 지급 : 250,000원 ○ 참석자용 상품 지급 : 200,000원 ○ 통신비용 : 2,300,000원 ○ 수상자 상금 : 1,700,000원 ○ 수상자 상장 제작 : 150,000원 ○ 가족사진 인화 및 액자 제작 : 700,000원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벗어나 가족과 지역이 함께 하는 문화체계 필요 ○복장제한에 자유스러지 않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
노원구	양성평등 감성	좋은 엄마 만들기	노원지주 여성	임산부교육 8회명 놀이미요가 맛사지 6명 어린이교실 100명 장애아엄마 30명과 자녀 40명	5,666,000	□ 예산액 : 5,666,000원 □ 홍보방안 : 구비 100% □ 집행내역 : 3,666,000원 - 임산부 교육 : 2,119,000원 - 놀이미 요가 맛사지 : 150,000원 - 어린이 교실 : 816,000원 - 장애아 엄마 교육 : 500,000원 □ 사업진행사항 - 임산부 교육은 06.4.10~4.17 (2일간)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총원 200명(임신부 100명, 가족 어른 동반 100명)이였으며 참여인원은 6명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놀이미 요가 맛사지는 06.5.12에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6명 - 어린이 교실은 06.6월부터 9월까지 3회 운영하여 100명이 참여함 - 장애아 엄마 모임은 2006.7.24에 1회 운영하여 장애아 엄마 30명과 자녀 40명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에는 노원구의 장애아 엄마 5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정	여성의 사회진출 및 자기개발 등에 가장 큰 장애물인 육아문제와 전업주부로 여성들이 필요한 자신과 자녀를 위한 출산과 미혼이 나타나고 자녀에 엄마들의 스그룹 모임을 통한 부모 교육, 육아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임신부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미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건강하고 책임있고 행동하는 가족간의 양성평등에 기여하고자 함
은평구	여성복지 향상	여성정책포럼	사회복지관련기관,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일반주민 등	150명	3,500,000	□ **예산규모 : 3,500,000원** □ **홍보방법 :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편성** □ **집행내역** - 여성정책포럼 회장 300부 제작 : 1,785,000원 - 포럼 참여자 원고료 지급(5명) : 1,000,000원 - 초청장 제작 및 우송 : 230,500원 - 다과 등 기타 행사 경비 : 500,000원	노동력의 양적확대를 위한 인구출산정책뿐 고령인력 및 여성인력 활성화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성의 인권향상을 최우선으로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자치구명	선택부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서대문구	여성복지 향상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서대문구 거주 만 18세이상 여성	780명	94,884,000	예산집행 - 예 산 액 : 94,884천원 - 확보방법 : 일반회계 예산 반영 - 집행내역 : 70,652천원(2005. 11~2006.10월) · 운영 홍보 및 교육운영 제잡비 : 4,732천원 · 강사료 : 61,593천원 · 운영물품 구입 : 3,982천원 - 향후 집행계획 : 운영비품 구입 8,000천원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부업 및 창업을 위한 기능 · 직업교육 및 건전한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생활문화교육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 및 건전한 사회참여에 기여하는데 있음.
마포구	양성평등 달성	당당한 여성되기	마포 거주 여성		19,000,000	총 예산규모는 1,900만원으로 전액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 집행내역은 여성발전유공자 상패제작 100만원 "아줌마 닷 컴" 공연비 280만원 세미나 강사료 160만원 세미나 책자 제작 100만원 전시회 도록 제작 500만원 홍보물 제작 200만원 기타 행사준비비 50만원 집행총액 1,390만원	일반인에게 아직까지는 낯선 여성주간을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여성주간 기념식 후 남녀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아줌마 닷 컴" 공연과 관내 여류작가들의 작품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사양화전을 준비하였으며, 요즘 가장 관심사인 경제부분의 직업설계교육 및 유망직업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양천구	여성복지 향상	여성교실	양천거주 18세 이상 여성	23개 과목 25개반 494명	146,688,000	□ 사업비 지출(05. 11월 ~06. 9월) ○ 강사료 : 96,450천원 ○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 : 7,756천원 ○ 공사 및 비품 구매 : 6,486천원 -환풍기교체, 냉방기 교체, 방수공사, 가스레인지 교체, 주방용품 구매 등 ○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 2,866천원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여성들의 많아 여성들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으로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 어학 강화**를 운영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들이 임시 · 시간제 · 일용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어 여성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기술교육 중심의 **여성교실**을 운영
강서구	여성경제 사회참여	강서여성 코양대학 썸머스쿨	강서구 거주여성	120명	3,803,800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강사료와 현수막 제작비를 합쳐 총3,803,800원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룩함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자치구명	선택분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사 업 명	사업참관	소요예산	
구로구	양성평등 실현	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축제	구로구 거주 가족	10,000여명	64,567,000	1	가족봉사단 구성 운영회	21명 26명	-	양성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등 양성평등과 가족친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구체적인 문화사업 및 캠페인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2회실시	-	
						3	양주-수봉의 함께하는 구로축제한마당 축스타일	1,000명	65,450,000	
						4	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축제	3,000명	10,000,000	
						5	여성학 강좌운영	7학기반 175명	서북산	
						6	제11회 여성주간 행사	10개사업	13,450,000	
						7	아빠 양육하는 사랑의 세상 알기	50명	2,370,000	
						8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체험 교육	45명	18,700,000	
						9	가족건강 증가대회	1,400명	-	
						10	주민 참여형 성사랑 따른 주말 프로그램 (5.6월/9월2회)	15개 동사무소 40명	-	
						11	구민합창단 창단 연주회	-	12,500,000	
						12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2개 동사무소	-
						13	양성평등 캠페인 및 시책홍보		3회 1,000명	-
						14	사업성평등 강화교육		8곳육	1,100,000

자치구명	선택부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금천구	여성복지 향상	폭력없는 양성평등한 행복세상 (여성관련 상담소)			18,320,000	▶폭력 없는 양성 평등 행복세상을 이루기 위한 성 · 가정폭력 등 **여성관련 전문상담소 운영** - 상담원 : 8명(상담사 또는 전문자격증을 갖춘 상담원 - 예산액 : 12,570천원(임대료는 별도) ▶관련공무원 및 상담원 전문교육 및 워크샵 실시로 질적 향상에 노력 - 제6기 가정폭력, 가정법률 전문상담원 교육 : 2명 - 2005년 성폭력 등 관련공무원 전문교육 : 1명 - 예산액 : 404,730원 ▶지역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추진 및 간담회 실시 1.가족여성회 소속 열린가족상담센터(독산1동 149-38)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와에도 이혼, 사별 등으로 심적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감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자가정 여성가정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지원을 함께 수행(비예산) 2.지역내 사회복지시설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세미나 개최(비예산) ▶찾아가는 상담 운영 활성화 -예산액 : 300천원 ▶생애주기별 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학 교육 실시(예산액 : 650천원)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취업, 창업 연계사업 실시 -연계기관: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살구회 -예산액: 16,000,000천원 ▶소외계층가정을 위한 거리문화행사 마련 홍보: 문화공보과 협조 -예산액 : 68,457,000원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피해 여성 및 그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가정복귀에 도움을 주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폭력은 일차적으로 가정내에서 이뤄진 경험을 바탕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위기 가정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행복한 가정, 여성의 인권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
영등포구	여성복지 향상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만들기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가정		30,403,830	예산의 규모는 총 30,403,830원으로 일반회계, 사회단체가군, 단체기부채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영진 한글교실'은 결혼이민자들의 호응으로 잘 운영되었으며 10월 11일 작품전시, 수료증 전달, 종강파티 등 수료식까지 끝마쳤다. 9월에 진행되었던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와 결혼이민자들의 멘토링 결연식 이후 '사랑나눔 알뜰장터', '전통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 함께 참여하였고 멘토-멘티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간 갈등야기, 가족해체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형태, 내용, 가족구성원의 시각, 사회에 형성된 담론들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결혼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영등포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목표로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고자 함.

자치구명	선택부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동작구	여성정책 사회참여	동작구 여성취업 지원사업	동작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가장의 여성가장 및 미인한 청소녀 30명		30,000,000	□ 예산 ○ 예산근거 : 30,000천원 ○ 계 산 : 2005 서울시 여성정책 추진방향 가이드라인 사업근거 ○ 모집홍보인원(산출인원) : 38명/2과정(100%) ○ 수료생수료인원(실적) : 18명/20명(90%) ○ 취업률(취업인원/산출인원) : 14명/18명(78%) ○세부 추진내역 교육과정 교육내용 취업지원 및 알선 ▸총 교육시간 : 333시간 과목 ▸개인상담 : 3차 구분실시 - 전문교육 : 320시간 ▸1차 : 영어회화 (전문교육에서 받는 취업상담) - 소양교육 : 8시간 ▸2차 : 컴퓨터 1부 ▸취업알선 - 취업교육 : 5시간 ▸3차 : 최종마무리 - 교육기관 및 산학업체 연계 ○ 수료 및 취업률(2005. 9. 20현재) 참여인원 교육인원 수료인원 계 취업 진행중 기타 38명 18명(95%) 11명 1명 1명 1명(퇴직자) ※ 수료인원에 수료자 1명 포함(퇴직)	여성취업 수요의 증가와 취업실패 폐소를 위해 지역내 저소득층 여성 및 미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IT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알선을 추진하여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정책을 도모하고자 함.
관악구	여성정책 사회참여	장애인택시팀 운영		9명	10,000,000	○**예산근거 및 장행내역** : 1회이용으로 수근모의 장애 소멸물의 교육을 위한 기자물(팸플릿등) 구입하고 전문적인 인터넷 쇼핑몰 장애 교육을 1시 비용으로 집행 ○**성과** : 오라인 장애아동 함께하는 쇼핑체험 투자가 필요하여 장애아동의 경제이 없는 장애아동으로도 경제활동을 실행 체크하지 못함 이 경제이 없는 장애아동으로도 경제활동을 실행 체크하지 못함 그 외에는 장애아 여가지 아이템으로도 경제활동을 실행 체크하지 못함 마련의 경우를 제외한 활용하여 베드의 휴지피 없이 전문교육과도 장애아동 교육 수 인정함 ○**목표달성도** : 장애인택시팀 구성하여 전문적인 인력과 소양을 장애교육실시하여 2005년 1월 구성하여 목표로, 여성인력개발 교육수 1,730 명이상의 교육목표치 수의 713 % 전문 교육 참가자 수 대비 27.8%이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사회참여가 적은 현상에 서 적은 것으로 이유를 구분할 수 있는 기관 경제활 사업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사회 ·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서초구	여성정책 사회참여	서초 사랑의 소리	지역거주 여성장애인사업자들 → 독거노인	30명	14,800,000	사랑의 소리 사업사업을 위한 예산의 규모는 구예산 5,000천원이며, 전체 내용은 사랑의 소리 운영비 600천원 남 수리비 1,000 천원이다. 서초지역내에서 및 지역기관은 소리의 홍보활동을 위한 전단제작비 외 전단 상담관련 교육을 도와 참여하는 상담자들 후 활동활동을 위해 기타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및 관련 교육이수자 활동하고 있다. 사랑의 소리 운영은 기관 간접고용 사업으로 구분하는 9,600천원이며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는 4,800천원이다. 총 지출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 전체 지출 총 21건의 계획이 집행되었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의 정책으로 홀로노인이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생활하며 소외된 이웃의 고독감을 해소시켜 삶의 의욕을 고취.

<table>
<tr><th>자치구명</th><th>선택부문</th><th>사업명</th><th>사업대상</th><th>사업인원</th><th>예산액</th><th>비고(사업내용)</th><th>사업목표</th></tr>
<tr><td>강남구</td><td>여성복지 향상</td><td>여성센터 여성교실</td><td>지역거주 여성</td><td></td><td>302,386,000</td><td>○ 목표달성 정도
<table><tr><td>사업명</td><td>강남구여성센터 (구민회관, 청담문화)</td><td>신사·논현생활문화교실</td><td>세곡동생활문화교실</td></tr><tr><td>대표 프로그램</td><td>1인 1자격증 갖기</td><td>여가활동 및 자조모임성</td><td>농촌여성리더</td></tr><tr><td>주요 프로그램</td><td>· 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 프로그램이수후 학습동아리 결성하여 동아리활동 전개
· 자격증취득(조리사, 컴퓨터)</td><td>· 여성·노인일자리추천 프로그램운영
· 여가활동을통한 좋은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추진운영</td><td>· 농촌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과 연계하여 운영
· 농번기 일손지원을 위한 영재후 어린이프로그램 운영</td></tr><tr><td>전문인력 활용실적 (자격증 취득현황)</td><td>· 국제공인MOS마스터과정
· 한식조리기능사2개
· 포장요리송무이과정
· 이력서작성기능사2개
· 리더쉽전문가2개
· 실버크루레이션도우미2개
· 중식명리조리기능사1개</td><td>· 한식조리사 : 1개
· 회화기능사 : 5개
· 전문예술지도자양성 : 14명 취업2명</td><td>· 디지털 영상편집 : 인터넷동영상 취업을 통한 농어촌홍보의 역 활용
· 주부로 일할이 가능한 예쁜 손글씨 전문가 양성</td></tr><tr><td>교육과목 및 수강인원 (명)</td><td>· 36개 프로그램7,200명</td><td>· 24개 프로그램7,925명</td><td>· 23개 프로그램 4,320명</td></tr><tr><td>'05 예산</td><td>238,750천원</td><td>154,070천원</td><td>126,750천원</td></tr><tr><td>이용인원</td><td>연7,200여명</td><td>연5,400여명</td><td>연3,000여명</td></tr></table></td><td rowspan="2">강남구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은 강남구를 대표하는 여성복지정책의 중심기관으로, 지역주민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학습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의 능력함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여성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함. 아울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성인교육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함.</td></tr>
<tr><td>송파구</td><td>양성평등 달성</td><td>전통성년례</td><td></td><td>150여명</td><td>2,430,000</td><td>집행내역은 복식대여료(500천원), 진행자 사례비(1,200천원), 장소사용료(230천원), 기타 소모품(300천원)임.
행사내용은 1부 양성평등 성년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주선 사무총장이 강의를 하고, 2부에서 양성평등 성년례 시연을 하였는데, 예절 전문강사 이월희의 진행으로 예절교육전문지도자 12명 및 청소년 2명이 시연을 하였음.</td><td>사회 저변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을 전통문화인 성년례를 통하여 남녀간의 가치관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성년례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실시하여 여성을 비하한 측면이 있어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남·여 모두에게 맞는 성년례를 개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td></tr>
</table>

자치구명	선택부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인원	예산액	비고(사업내용)	사업목표
강동구	여성복지 향상	행복한 가족만들기	강동구 관내 여성 결혼이민자 30명	30명	7,750,000	□ 예산규모(내역) - **연계사업포함예산 27,250천원)** - **본 사업예산 7,750천원** (한가위어울마당:16,000천원, 한국어강좌 3,500천원) ▶강사료 - 200,000원 × 12회 = 2,400,0000원 - 통역자원봉사자 : 5,000원×5명×12회= 300,000 ▶문화유적 및 주요시설 견학(차녀, 자원봉사자 등) - 30,000원×80명 = 2,400,000원 ▶홍보물 제작 - 500,000원 ▶현수막제작 20,000원×5개= 100,000원 ▶재료비 : 20,000원×30명 = 600,000원 ▶일반운영비(문구류 등 기타 경비) : 500,000원 ▶여성결혼이민자 프로그램운영- 500,000원 ▶수료생간담회 5,000원×30명 = 150,000원 □ 집행내역 및 사업진행사항 - 교육진행 후 강사료지급 · 예절교육(강사료- 한복대여료 포함) · 다도악히기(강사료 - 다기대여, 간식비 포함) · 노래교실(강사료-선호곡 CD포함) · 요리교실(강사료-재료비 포함)	강동구의 경우 외국인 결혼여성이 9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우리구에서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리문화의 충분한 이해를 통한 행복한 강동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시키고자함

1) 사업수립

'사업수립' 단계는 사업의 목적이 적합한지에 대한 '목표 적합성', 사업기획이 얼마나 창의적이며 독창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의 독창성',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지역특성 반영'의 총 3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평가 지표는 정성평가인 경우 '우수', '양호', '보통'의 3계급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는데, 해당영역 전문가 3인이 자치구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배점토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인의 결과를 평균하여 각 자치구의 점수로 집계하였다.

(1) 합목적성-목표적합성

'목표적합성'은 자치구가 선택하여 제출한 사업이 해당영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복지향상'을 선택한 자치구들이 평균 8.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성평등달성' 영역이 평균 7.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성평등달성 목표가 다분히 추상적 성격을 띠므로 정확히 각 제출한 사업들이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인과관계의 설정이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99〉 목표적합성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지표	선택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목표 적합성 (10)	여성복지향상	8.07 (1.32)	강남,서대문, 영등포,종로	강동	강북,양천, 중랑	금천,은평
	양성평등달성	7.00 (1.48)	동대문,송파	도봉,마포	구로,중	노원
	여성경제사회참여	7.29 (2.13)	관악,동작, 성북,용산	-	서초,성동	강서,광진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2) 독창성-기획의 독창성

'기획의 독창성'이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사업대상, 사업의 수행방법 등에서 자치구의 창의력을 발휘한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자치구의 특성화를 유도하려는데 의미를 두었다. '여성복지향상' 영역이 평균 7.7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경제사회참여'가 평균 6.46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각 선택영역별 등급구분은 '여성복지향상' 영역의 경우 강북구/영등포구가 '상', 강동구/금천구/은평구/종로구가 '상중', 강남구/서대문구/양천구/중랑구가 '중하'로 분류되었으며, '양성평등달성' 영역의 경우 동대문구/마포구/송파구가 '상', 도봉구가 '상중', 구로구/중구가 '중하', 노원구가 '하'로 분류되었고,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의 경우는 관악구/동작구/용산구가 '상', 성북구가 '중상', 강서구/광진구/서초구/성동구가 '중하'로 분류되었다(<표 3-2-100> 참조).

〈표 3-2-100〉 독창성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지표	선택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기획의 독창성 (10)	여성복지향상	7.77 (1.44)	강북,영등포	강동,금천, 은평,종로	강남,서대문, 양천,중랑	-
	양성평등달성	7.05 (1.13)	동대문,마포, 송파	도봉	구로,중	노원
	여성경제사회참여	6.46 (1.44)	관악,동작, 용산	성북	강서,광진, 서초,성동	-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3) 지역특성화-지역특성 반영

해당 지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지역특성 반영' 사항은 '여성복지향상' 영역이 평균 7.8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성평등달성' 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은 평균 6.81점이었다.

각 선택영역별로 자치구들의 등급을 살펴보면, '여성복지향상'에서는 '상'에 2개 자치구(강북구/영등포구), '상중'에 4개 자치구(강남구/금천구/양천구/중랑구), '중

하'에 2개 자치구(강동구/종로구), '하'에 2개 자치구(서대문구/은평구)가 속하였고, '양성평등달성'에서는 '상'에 2개 자치구(동대문구/마포구), '상중'에 3개 자치구(구로구/도봉구/송파구), '중하'에 2개 자치구(노원구/중구)가 해당되었으며, '여성경제사회참여'에서는 '상'에 2개 자치구(성북구/용산구), '상중'에 2개 자치구(관악구/동작구), '중하'에 3개 자치구(강서구/서초구/성동구), '하'에 1개 자치구(광진구)가 분류되고 있었다(<표 3-2-101> 참조).

〈표 3-2-101〉 지역특성반영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지표	선택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지역특성 반영 (10)	여성복지향상	7.83 (1.25)	강북,영등포	강남,금천, 양천,중랑	강동,종로	서대문,은평
	양성평등달성	6.81 (1.51)	동대문,마포	구로,도봉, 송파	노원,중구	-
	여성경제사회참여	7.04 (1.72)	성북,용산	관악,동작	강서,서초, 성동	광진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2) 집행

'집행' 단계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예산규모',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홍보 및 대상선정'의 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3인에 의해 '우수', '양호', '보통'의 3계급으로 배점되었고, 3인의 결과를 평균하여 각 자치구의 점수로 인정하였다.

(1) 예산의 적정성-예산유무 및 규모

수범사업의 '예산규모'는 '여성복지향상' 영역이 평균 99,939,183.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성평등달성' 영역이 평균 17,021,192.86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양성평등달성' 영역이 자치구간 편차가 가장 적었으며, '여성복지향상' 영역이 자치구간 편차가 가장 컸다. 즉, '여성복지향상' 영역은 평균적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컸으나, 자치구간의 예산차이가 매우 컸으며, '양성평등달성' 영역은 자

치구들의 예산규모 평균이 낮지만 자치구들간의 예산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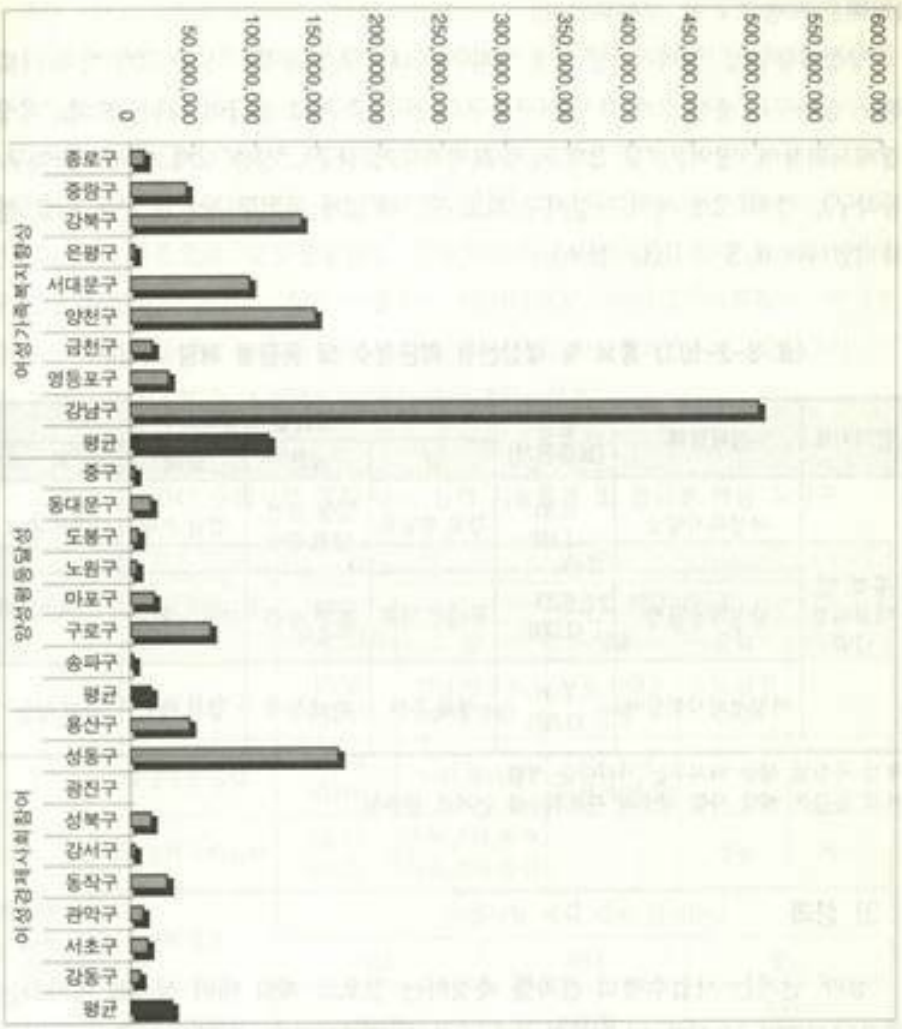
수범사업의 '예산규모'는 '여성복지향상' 영역과 '양성평등달성' 영역이 각각 평균 8.30점과 평균 7.0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분야와 가장 점수가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각 선택영역별 자치구 등급에 대해서는, '여성복지향상'에서는 '상'에 5개 자치구(강남구/강동구/금천구/영등포구/종로구), '중하'에 4개 자치구(강북구/서대문구/은평구/중랑구), '하'에 1개 자치구(양천구)가 해당되었고, '양성평등달성'에서는 '상'에 2개 자치구(노원구/송파구), '상중'에 2개 자치구(구로구/중구), '중하'에 3개 자치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가 속하였으며, '여성경제사회참여'에서는 '상'에 2개 자치구(광진구/성북구), '상중'에 5개 자치구(강서구/관악구/동작구/성동구/용산구), '하'에 1개 자치구(서초구)가 분류되고 있었다(<표 3-2-102>, <그림 3-2-17> 참조).

〈표 3-2-102〉 수범사업 예산규모 기술통계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지표	선택영역	배점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예산규모 (10)	여성복지향상	8.30 (1.89)	강남,강동, 금천, 영등포,종로	-	강북,서대문, 은평,중랑	양천
	양성평등달성	7.00 (2.24)	노원,송파	구로,중	도봉,동대문, 마포	-
	여성경제사회참여	7.50 (1.70)	광진,성북	강서,관악, 동작,성동, 용산	-	서초
	선택영역	수범사업 예산규모(원)				
		최소		최대	평균	
	여성복지향상	3,500,000.00		50,238,600.00	99,939,183.00 (151,171,149.86)	
	양성평등달성	2,430,000.00		64,987,000.00	17,021,192.86 (22,119,322.48)	
	여성경제사회참여	20,000.00		166,292,000.00	36,282,787.50 (54,711,896.76)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17〉 수범사업 예산규모 비교

(2)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홍보 및 대상선정

수범사업의 '홍보 및 대상선정'은 '여성복지향상' 영역이 평균 8.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이 평균 7.08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여성복지향상' 영역은 '상' 2개 자치구(강북구/영등포구), '상중' 4개 자치구(강동구/금천구/양천구/중랑구), '중하' 2개 자치구(강남구/은평구), '하' 2개 자치구

(서대문구/종로구)로 분류되었다.

'양성평등달성' 영역은 '상' 2개 자치구(동대문구/마포구), '상중' 2개 자치구(도봉구/송파구), '중하' 3개 자치구(구로구/노원구/중구)로 등급이 나뉘었으며,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은 '상' 2개 자치구(성북구/용산구), '상중' 2개 자치구(관악구/동작구), '중하' 2개 자치구(강서구/서초구), '하' 2개 자치구(광진구/성동구)로 분류되었다(<표 3-2-103> 참조).

〈표 3-2-103〉 홍보 및 대상선정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지표	선택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홍보 및 대상선정 (10)	여성복지향상	8.30 (1.89)	강북,영등포	강동,금천, 양천,중랑	강남,은평	서대문,종로
	양성평등달성	6.33 (1.39)	동대문,마포	도봉,송파	구로,노원,중	-
	여성경제사회참여	7.08 (1.68)	성북,용산	관악,동작	강서,서초	광진,성동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3) 성과

'성과' 단계는 사업수행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목표달성도와 '수혜자 만족도'의 2개 지표로 평가하였다. 수혜자 만족도는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만족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 목표달성도 -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실적'은 '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달성',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이 각각 평균 89.10%, 80.00%, 92.38%로,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실적이 높았다.

계획 대비 실적의 점수는 '여성복지향상' 평균 15.50점, '양성평등달성' 평균 11.43점, '여성경제사회참여' 평균 18.13점으로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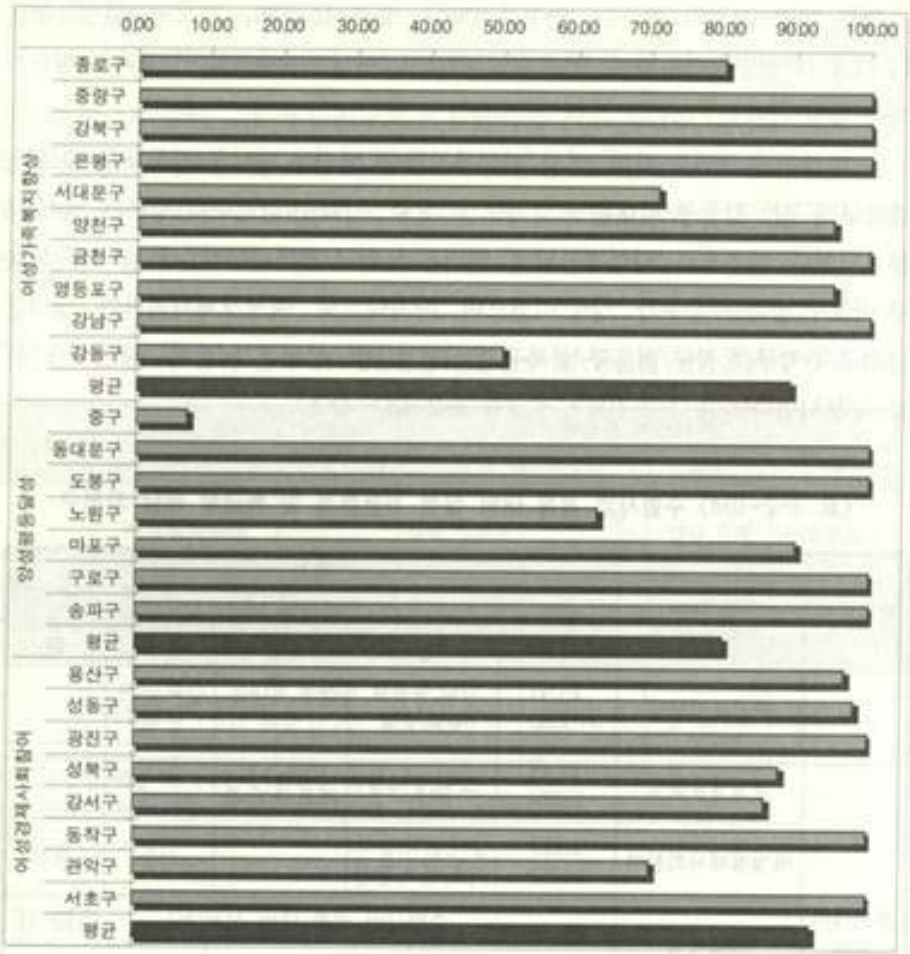
각 영역을 등급별로 보면, 먼저 '여성복지향상' 영역은 강남구/영등포구/종로구/중랑구가 '상', 강동구/서대문구/양천구가 '상중', 강북구/금천구/은평구가 '중하'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달성' 영역은 노원구/동대문구가 '상', 구로구/도봉구/마포구/송파구/중구가 '상중'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은 강서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성북구/용산구가 '상', 성동구가 '중하', 광진구가 '하'로 구분되었다(<표 3-2-104>, <그림 3-2-18> 참조).

〈표 3-2-104〉 수범사업 계획 대비 실적 기술통계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지표	선택영역	배점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상	상중	중하	하
계획대비 실적 (20)	여성복지향상	15.50 (5.34)	강남,영등포, 종로,중랑	강동,서대문, 양천	강북,금천, 은평	-
	양성평등달성	11.43 (5.86)	노원,동대문	구로,도봉, 마포,송파,중	-	-
	여성경제사회참여	18.13 (4.22)	강서,관악,동작, 서초,성북,용산	-	성동	광진

선택영역	수범사업 계획 대비 실적(%)		
	최소	최대	평균
여성복지향상	50.00	100.00	89.10 (17.01)
양성평등달성	70.00	100.00	80.00 (34.92)
여성경제사회참여	70.30	100.00	92.38 (10.50)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그림 3-2-18〉 수범사업 계획 대비 실적 비교

2) 수혜자 만족도

'수혜자 만족도'는 각 자치구별로 수범사업 참여자 중 6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공받은 명단을 근거로 외부 전문 리서치기관이 각 자치구별로 15명의 표본을 무작위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6].

16) 부득이 60명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한 수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 명단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인원이 15명에 근접한 일부 자치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문항의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가 0.8633으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수범사업 참여자 성별은 남자 23명(6.23%), 여자 346명(93.77%)으로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권역별[17]로는 도심권 39명(10.57%), 동북권 45명(12.20%), 서북권 105명(28.46%), 동남권 105명(28.46%), 서남권 75명(20.33%)이 분포하였다.

수범사업 영역별로는 여성복지향상 144명(39.02%), 양성평등달성 105명(28.46%), 여성경제사회참여 120명(32.52%)로 나타났다(<표 3-2-105> 참조).

〈표 3-2-105〉 수범사업 수혜자 만족도 응답자 현황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	23	6.23
	여	346	93.77
권역주)	도심권	39	10.57
	동북권	45	12.20
	서북권	105	28.46
	동남권	105	28.46
	서남권	75	20.33
수범사업	여성복지향상	144	39.02
	양성평등달성	105	28.46
	여성경제사회참여	120	32.52

※N=369

※주):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 동북권(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중랑구), 서북권(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동남권(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서남권(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양천구/영등포구)으로 구분.

수범사업 수혜자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0.497, p=0.619), 권역 및 수범사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의 동남권역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17) 권역은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구분한다.

높았으며, 용산구/종로구/중구의 도심권역 참여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범사업별로는 '여성복지향상' 평균 25.50점, '양성평등달성' 평균 20.00점, '여성경제사회참여' 평균 21.87점이었는데, 이런 점수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여 '여성복지향상' 관련 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양성평등달성' 관련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표 3-2-106> 참조).

〈표 3-2-106〉 권역 및 수범사업별 수범사업 수혜자 만족도 차이

		통계량			F(p)
		빈도	평균	표준편차	
권역	도심권	39	3.62	0.56	6.430***(0.000)
	서북권	45	3.71	0.70	
	동북권	105	3.98	0.67	
	서남권	105	3.87	0.89	
	동남권	75	4.25	0.70	
	Duncan's Test	도심권/서북권/서남권 < 서북권/서남권/동북권 < 동남권			
수범사업	여성복지향상	144	4.12	0.66	8.041***(0.000)
	양성평등달성	105	3.76	0.74	
	여성경제사회참여	120	3.85	0.84	
	Duncan's Test	양성평등달성/여성경제사회참여 < 여성복지향상			

*<0.1 **<0.05 ***<0.01

또한, 수범사업 참여자의 연령과 수혜자 만족도간에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참여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3-2-107> 참조).

〈표 3-2-107〉 연령과 수혜자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연령(세)	수혜자만족도(점)
연령(세)	r (p)	1.000 .	
수혜자만족도(점)	r (p)	0.136*** (0.009)	1.000 .

*<0.1 **<0.05 ***<0.01

한편, 수혜자 만족도에 대한 각 사업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복지향상' 영역은 강동구/영등포구/중랑구가 1등급, 강남구/강북구/금천구/서대문구/양천구가 2등급, 은평구/종로구가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양성평등달성' 영역에서는 동대문구가 1등급', 송파구가 2등급, 노원구/도봉구가 3등급, 구로구/마포구/중구가 4등급이었다.

'여성경제사회참여' 영역은 서초구/성북구가 1등급, 강서구가 2등급, 동작구/성동구/용산구가 3등급, 관악구/광진구가 4등급으로 나뉘고 있었다(<표 3-2-108> 참조).

〈표 3-2-108〉 수범사업 수혜자 만족도 평균점수 및 등급별 해당 자치구

평가지표	선택영역	평균 (표준편차)	등급별 해당자치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수혜자 만족도 (30)	여성복지향상	25.50 (3.69)	강동,영등포, 중랑	강남,강북, 금천,서대문, 양천	은평,종로	-
	양성평등달성	20.00 (5.77)	동대문	송파	노원,도봉	구로,마포,중
	여성경제사회참여	21.87 (5.94)	서초,성북	강서	동작,성동, 용산	관악,광진

※각 사항별 해당 자치구는 가나다순 정렬.
※각 등급은 해당 사항 점수의 사분위수를 근거로 분류함.

4) 평가영역별 전문가 평가의견

(1) 여성복지향상

① 지표별 평가 종합

구분	평가의견
사업수립	□ 목표적합성 목표적합성이란 사업내용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정도를 의미함. 10개 자치구중 목표적합성이 가장 높은 구는 영등포구로 평가됨. 이 구에서 실시한 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방문, 실태조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인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이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증진이라는 목표에 일관되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나머지 9개 구의 경우 사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내용간의 부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예컨대 취, 창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경쟁력 제고가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시된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과 무관한 취미교육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목표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기획의 독창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과 가족관계증진 사업을 타 구에 앞서 제일 처음 실시한 영등포구, '전화'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실시한 강북구의 독창성은 인정됨.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독창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개구의 취업, 취미교육 관련사업, 1개구의 상담소관련사업, 서울시의 사업을 구에서 실시한 경우, 다른 구에서 이미 수행한 유사사업 등은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지역특성화 영등포구와 같이, 지역특성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특성화를 시도한 구가 있는가하면, 종로구, 금천구, 동대문구처럼 관련기관과 서비스의 부재라는 이유로 사업을 실시하는 '소극적' 지역특성화를 시도한 구도 있음. 그러나 소극적으로 특성화를 시도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내용에서 지역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임. 반면에 대단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여성인력활용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와 같이 지역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음.
집행	수년째 지속되는 사업으로 홍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1개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 홍보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반면에 대상선정의 적정성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같이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대상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한 반면, 취미, 직업교육, 상담 등 서비스 표적집단이 광범위한 경우, 대상선정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② 자치구별 의견 종합

구분	평가의견
종 로 구	서울시의 동일한 사업에서 본 구가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인정되나, 사업과 관련한 구의 특성이 반영된 점은 찾기 어려움. 사업내용의 목표부합성은 확보되었으나, 도우미파견 기간이 30일 정도로 제한되어 목표달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중 랑 구	관내에 여성능력개발관련 기관이 부재하다는 지역특성이 고려된 사업임은 인정되나, 사업내용에 관내 여성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기획의 독창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진술된 것은 인정되나, 사업 실시과정에서 그 목적대로 취업연계가 활발하게 수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강 북 구	전화를 이용하여 IT지식의 부재로 인해 정보화에서 뒤처지는 세대의 정보접근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구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와 사업의 독창성이 인정됨. 또한 관내의 높은 저소득층과 여성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에 정보접근성과 활용성 증진을 위해 수행된 사업으로 전화를 통한 정보서비스 외에 각종 심리사회적 상담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사업의 목표적합성이 약화되었음.
은 평 구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주제의식과 관내의 인력자원을 활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포럼내용에서 관내 특성이 반영된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모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논의 수준이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임. 수범사례로 선정될 만큼의 독창성, 효과성, 지속성, 구 특성반영도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됨.
서대문구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취미, 직업교육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욕구부합성은 다소 인정되나, 제공되는 교육내용에서 지역특성화나 독창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 또한 교육이 자격증취득, 취업, 창업, 사회참여 등과 직결되지 않아 여성인력의 활용 및 건전한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에의 부합성이 다소 결여되는 것으로 평가됨.
양 천 구	취, 창업중심의 여성교육프로그램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프로그램의 취업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고, 중도에 여성어학강좌들이 폐지됨으로써 사업기획단계에서 욕구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드러냄. 또한 교육내용에서 다른 구의 유사사업과 거의 차별화되지 않음으로써 지역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홍보는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인정되나, 선착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장 최적의 대상자를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평가됨.

(계 속)

구분	평가의견
금 천 구	복지상담소 운영은 독창적인 기획으로 보기 어려우나, 지역사회협의체 구축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찾아가는 상담'이라는 점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부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로인한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적극성과 의의가 인정됨. 그러나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일부 사업의 목표적합성은 약하며, 단일 수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업간의 통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됨.
영등포구	결혼이민자방문, 실태조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인적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사업간의 상호연계성과 사업목표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됨.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 다른 구에 앞서는 독창성이 인정되며, 25개 지치구 중 결혼이민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특성에 매우 적합한 사업으로 평가됨. 다양한 홍보전략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돋보임.
강 남 구	4개 기관이 위치한 지역특성에 기초한 사업차별화와 특화를 시도한 점과 사업의 목표부합성이 인정됨. 수준높은 외국어반운영과 교육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강남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인정됨. 반면에 '1기관 1대표 프로그램'은 미완성이고, 사업이 결국 취미, 취업교육 중심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독창성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강 북 구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적극성과 대상 선정의 최적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미 다른 구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복입기, 한국노래배우기 등 사업이 한국문화체험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목표부합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 양성평등달성

① 지표별 평가종합

구분	평가의견
사업수립	□ 목표적합성 - 수범사례사업은 여성주간사업이나 양성평등문화사업과는 달리 명확한 양성평등 개념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것들이 많아 별도의 공모사업으로서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올해가 수범사례 공모 첫 해인 때문인지 공모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는 자치구가 더러 있었음. 수범사례를 공모하는 이유는 타 자치구에서 시도하지 않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기획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족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양성평등의 증진에 기여하려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의식,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인식하게 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젠더 관계를 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족관련 사업들은 제시하는 슬로건에 비해 그 내용이나 실제 참여 수준, 그리고 결과의 면에서 그다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아동과 어머니들만이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양육 책임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가족관련 사업을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기획의 독창성 - 수범사례사업답게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아직 여성주간사업이나 양성평등문화사업 전반과 특별히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음. - 여성주간이나 양성평등문화사업 중 하나를 선정해서 제출하는 데서 나아가 처음부터 수범사례로 기획하고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며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특성화 -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음. 왜 굳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수범사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 지역 주민의 성별 특성과 요구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검토 위에 수범사례를 기획하고 집행, 평가해 나가야 함. 매우 새로운 아이템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내 여성들의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의 추진 결과 여성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하다면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집행	-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업주부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이나 남성의 참여를 유도한 것들도 있었음. 그 외에 지역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여성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홍보 방식에서도 사업의 취지나 계획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가 저조한 사업들이 더러 있었음.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남성(아버지)의 참여를 목표로 한 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당초 기획과는 달리 여성(어머니)들만의 행사로 끝난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자치구별 의견종합

구분	평가의견
중 구	- 부부의 경제적 평등이라는 주제는 참신하나 1회성 강연이나 책자 배포 방식은 이미 널리 이루어져 왔으며, 그 효과 역시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범사례가 될 수 있으려면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주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나 진행과정,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평가가 어려움.
동대문구	- 여성들의 체육대회 자체가 양성평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사업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사내용이 다양하며, 지역 내 각 동 거주 여성들을 참가팀으로 조직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축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들의 관심이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쉬운 체육 활동에서 여성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성과 조직적 특성, 행사 내용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님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과 팀웍(teamwork), 연대의식을 기르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이 사업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 구성시 양성평등 관련 문제의식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퀴즈시간에 제시되는 문제를 양성평등과 관련한 것으로 규정하여 참가자들이 미리 이에 대한 준비나 공부를 하고 오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밖에, 남성적 운동으로 알려져 온 종목을 포함시켜 여성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도 봉 구	- 사업부문을 "양성평등"과 "화목가정"으로 나누어 시행한 것은 사업의 담당자가 양성평등문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양성평등과 화목가정의 관련성, 즉 화목한 가정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진 콘테스트는 영상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적 흐름을 적절히 고려한 사업방식이며, 특히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방식을 보여줌. 그러나 사진공모 작품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움. -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며(왜 도봉구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실제 참여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은 지역사회 내 이 사업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계 속)

구분	평가의견
노 원 구	- 사업의 취지 자체가 양성평등보다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아야 함. 양성평등 사업이 되려면 임산부 교육이나 아기 돌보기에 남성들이 함께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히 임산모의 산전교육, 자녀양육교육만으로는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움. - 이 사업에 대한 지역적 요구(needs)가 명확하지 않으며(노원구의 임산모 수나 상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 사업의 성격 역시 보건소의 사회복지업무와 연계시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마 포 구	- 여성주간행사 전체를 수범사례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수범사례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성주간행사 자체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들의 참여와 주도성이 돋보임. 여성들이 취약한 부분인 경제관련 행사, 즉 직업설계교육이나 유망직업세미나 등은 여성의 취업수요가 증대하는 시점에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임.
구 로 구	-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총괄적인 사업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역시 수범사례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독특하게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찾기 어려움. 일반적인 여성주간 사업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부족함. - 전반적으로 가족문화 사업의 비중이 큰데 이것이 양성평등 문화조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부모와 함께 하는" 등의 제목을 붙여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참여만이 두드러져 다각도의 홍보가 필요함이 나타났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송 파 구	-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업으로 양성평등 개념이 명확하고 청소년 대상 사업이 드문 가운데 유일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판단됨. - 그러나 수범사례사업을 굳이 전통 성년제로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참가자들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더욱 바람직할 것임.

(3) 여성경제사회참여

① 지표별 평가의견 종합

구분	평가의견
사업수립	□ 목표적합성 - (경제) 구 자체의 여성정책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여성경제활동참여지원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맞도록 수립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사업으로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행사를 제시한 구가 있고, 여성경제활동참여지원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부족한 사업도 있음. 향후 각 구별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수요에 밀착하고, 여성경제활동참여지원이라는 고유의 목표에 부응하도록 사업이 수립되어야 함. - (사회) 여성사회참여 지원 수범사업에서 목표 적합성이란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명확화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가령 30-40대 전업주부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 단계로 여성의 인적자본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는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 60대 이상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사업을 하는 경우,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장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획의 독창성 - (경제) 전반적으로 타 구 또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음.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은 구 차원에서 독자적인 기획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므로, 향후에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거나 지역의 여성경제활동과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공모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안임. - (사회)기획 독창성이란 사업의 성과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과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특성화 - (경제)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화의 노력은 보이지 않음. 여성의 수요도출을 위해서는 관내 여성실태 파악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관내 여성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지역특성화란 자치구의 여성인구 특성, 즉 학력, 경제수준, 경제활동 참여율, 욕구 등을 고려하였는지, 또는 자치구에 입지한 기관이나 시설 등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집행	□ 홍보 및 대상선정의 적정성 - (경제) 특별한 사업대상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많으며, 여성과 특성이 다른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공통으로 사업대상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음. 여성 특히 성인 여성은 동연령대의 남성이나 청소년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있으며, 여성 내부에서도 학력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도 특성이 다름. 향후 분명한 사업대상을 설정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에 따라 홍보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임. - (사회) 사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사업대상 선정자는 사업목표에서 제시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② 자치구별 의견종합

구분	평가의견
용 산 구	'용산여성 아카데미' 사업은 전문자격증 취득과 여성취업난 해소라는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과 집행, 평가단계별 계획도 창의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었다. 특히 사업평가결과를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한 점이 매우 탁월하였다. 용산구의 지역자원이라 할 수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은 매우 뛰어난 기획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홍보 측면에서는 대상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동사무소, 문화원, 초등학교, 어린이 집, 아파트 관리사업소를 활용한 점이 매우 탁월하였다. 아카데미 수료생의 자격증 취득률이 92%나 되어, 성과 달성률도 매우 높았다. 이 사업의 가장 탁월한 점은 2005년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이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료생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과 창업,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욕구파악을 한 후, 2007년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 논술지도 및 상담 인건비를 편성하여 이들 수료생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여성의 인적 자본 발전을 통한 경제사회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사회참여사업의 우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획/ 집행/ 평가의 사업단계별로 모범적 운영을 실행한 대표적 모범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성 동 구	- 여성경제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를 위하여 특화된 정책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여성대학의 운영목적도 취미교양을 위한 것인지 경제활동을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통상 다른 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강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취업과 창업 관련 교육, 여성경제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 - 전반적으로 타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과 유사하고, 프로그램개발의 독창성이 보이지 않음. 또한 전담인력 1명(행정)으로 질 높은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지역별 특성이 보이지 않아 성동구 지역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특별한 사업대상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징적인 홍보활동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광 진 구	- 여성정책으로서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며 일회성 행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수범사업으로는 미흡함. 향후 여성특화된 창업강좌가 될 필요가 있음. - 내용도 기존의 창업관련세미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창업강좌로 구성되어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 광진구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향후 광진구 여성의 수요파악(창업)을 위하여 관내 여성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 여성을 특화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노력도 보이지 않음
성 북 구	-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고, 서울지역에서 인력부족이 심한 직종으로 분류된 것을 적절하게 사업으로 도출하였음. 특히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었음. - 사업수행시 구 자체 예산과 민간기관의 자체사업비를 종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교육직종 또한 저학력 중장년층 여성의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적절함. 그러나 4개월 교육과정으로 창업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심화과정 및 창업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요구됨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미흡한 구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음. 특히 봉제산업은 서울지역의 지역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의미가 있고, 향후 패션산업분야에서 의류봉제 직종의 전문화된 인력창출 효과가 기대됨.

(계 속)

구분	평가의견
강 서 구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썸머스쿨 운영' 사업은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활성화 사업이라기 보다는, 교양대학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교육대학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썸머스쿨 프로그램도 영어기초회화, 손님초대요리, 양재초급, 댄스다이어트, 노래교실, 피부관리, 제과제빵으로 기획하여, 여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이 없었고, 이들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여성경제사회활동으로 연계한다는 특별한 방안이 없었다.
동 작 구	- '05년 서울시 여성정책 종합평가 인센티브 시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선정한 것이 특징임. 그러나 향후 교육수강뿐 아니라 수료자의 취업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지역내 미진학 청소년 및 여성가장을 사업대상으로 한 점은 기획의 독창성은 인정됨. 또한 전문화된 IT교육과정의 운영과 수강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여성가장의 경우 IT분야의 교육습득, 관련 분야 취업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인지될 필요가 있음. - 교육생 모집이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에 어느 정도 사업대상자가 있는지, 사업대상으로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사전인지를 하지 못하였음. 향후 동작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취업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 전문교육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한 점은 적절하나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 여성가장과 미진학 청소년을 동일한 대상 집단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그러나 홍보활동의 경우 센터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기관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고 있고, 사업대상의 선정과정이 서류, 면접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관 악 구	- 구 자체의'06 여성정책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창업인큐베이터실 운영을 설정하였으며, '05년 서울시 평가 인센티브로 시작하게 된 점이 특징적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섬세한 여성의 강점을 활용하였다고 판단됨. 단, 컨텐츠를 위하여 여성 친화적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함. 또한 사업의 제목은 창업 인큐베이터실 운영이나, 교육의 내용은 쇼핑몰 창업교육으로 내용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쉬움. - 사업의 추진을 전문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여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교육의 기획, 쇼핑몰 창업과정 교육참가자의 27.8%가 취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돋보임. 여성이 인터넷의 온라인쇼핑창업에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아이템을 정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관악구의 지역특성을 특별히 반영하는 과정으로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자본금의 부담이 적은 온라인 오프마켓 창업 인큐베이터를 선정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으로 보여짐 - 사업의 집행은 관내에 위치한 전문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됨.
서 초 구	'홀로 노인을 위한 서초구 여성자원봉사' 사업은 상담전문교육 수료생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나 사업목표가 노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평가단계에서 자원봉사자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추진해야한다는 자체평가를 내렸으나, 이를 향후 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제 4 장

자치구 여성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제4장 자치구 여성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제1절 자치구 여성정책의 문제점 도출

1. 여성정책 추진 기반조성

1) 여성정책 담당조직의 낮은 위상과 독립성 미흡

오늘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WID(Women in Development)적 접근을 넘어서 정책의 성 관점 반영을 위한 GAD(Gender and Development)적 접근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있다. 현실적으로 자치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내의 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당팀의 기능과 역할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여성사업,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의 여성복지, 여성주간행사 주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담당팀의 기획·조정 역할이 조금씩 가미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이 팀 수준이며, 담당인력의 조직상 지위도 낮음으로써 정책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성 인지적' 관점, '성주류화', '양성평등' 등 새로운 여성정책 관련 용어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여성정책의 전문성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정책 담당인력조차 한 해동안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담당자의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뿐만아니라 의사결정자도 필수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 담당인력은 자치구 평균 약 4.5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수준이나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3) 예산확충의 필요성

예산은 '정책에 대한 숫자적 표현'이라 할 만큼 정부활동의 구체적 실현수단이 된다. 여성정책 담당 팀의 1년 예산 평균은 약 5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치구 총예산 대비 평균 여성정책담당팀 예산 비중은 0.25%에 불과하며, 타부서의 여성관련 예산의 총예산 대비 비율이 0.43%로 나타나 여성관련 예산은 자치구 전체 예산의 0.68%로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이 아직까지 수사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현실화되기 위해서 예산확충이 요구된다.

4) 여성의 대표성 제고의 필요성

공공부문에서 여성공무원의 위상은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것이 곧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확대라는 측면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자치구 6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평균 비율은 1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13개 공통위원회를 추출하여 위촉직 여성위원비율을 평가한 결과 약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협조체제 구축과 역할의 강화 필요성

자치구 수준에서 협조체제 구축은 처음 시도된 것이다. 이는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과 여성정책 담당팀의 위상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팀

수준에서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관장 직속기구에서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의체 협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본 사업, 즉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를 위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협조체계 구축의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 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더 나아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 조성

1)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내용의 부적절성

의식교육이나 의식개선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이 환경에의 민감한 대응성이 사적부문에 비해 둔하다는 점에서 특히 의식개선을 통한 의식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치구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관련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성주간 행사 중 하나로 '효부상'에 대한 시상 등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선 선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데 따른 오류와 무엇보다 담당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식개선이 더욱 어려운 일인 만큼 사업담당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반시민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 필요

양성평등 교육이나 문화사업은 주로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향후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행사이후의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가 필요하다.

3. 여성경제활동지원

1) 여성경제활동 지원기반의 취약성

여성경제활동 지원은 여성정책분야 가운데 특히 취약한 분야의 하나이다. 인적자원 개발이나 취·창업지원 등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 인력, 전달체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이나 여성취·창업 지원이 이전에 해오던 자원봉사 교육이나 취·창업 관련 여성강좌를 몇 개 운영 하는 등의 사업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확충 등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

취창업을 위한 자체사업의 대부분이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자치구가 있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지원 기반이 취약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예산확보와 관련 부서나 혹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취약기반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사업과 성과의 연계부족

여성경제활동지원 분야의 평가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취·창업을 위한 자체사업의 실질 취업률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이 각종 교육강좌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취·창업 교육훈련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사회참여지원

1) 여성 사회참여 지원의 한정성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이 있어온 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육성한 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참여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에 한정되고 있어 여성의 인적 자본의 발전과 지역사회활동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지역여성인력 발굴의 활성화

정책과정에서 여성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자원봉사활동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정책과정, 예를 들면 일반시민의 대표로서 위원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때에 유능한 각계의 전문분야에 여성인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구 여성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자치구가 확보한 여성인재에 대한 DB가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역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자원봉사뿐 아니라 정책과정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서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

여성정책 분야의 다양한 사업 가운데서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투입 예산과 인력으로 치자면 모든 여성정책 분야를 통틀어도 보육사업의 비중을 넘지 못한다. 보육이 이같이 중시되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보육항목의 평가결과 보육시설 지도점검 비율이 평균 5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자치구가 자

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참여율 평균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은 전체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이나 보육교사 교육 등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여성가족복지향상

1)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업의 체계적 접근 필요성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대상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적 처방에의 접근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 교육이 용이한 청소년층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강의교육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이후의 사업평가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검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범주에 있어서도 피해자 보호나 재활 등 사업범주의 확대와 같은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복지 사업 관리의 전문화 필요성

여성복지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별사업의 수행 후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참여자의 사후 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자체프로그램의 경우, 현금지원이나 문화체험, 저소득층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등 사업이 제한되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1. 여성정책기반조성

〈〈목표〉〉

정책의 성 관점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추진 기반 강화

□ 기본추진 방향

여성정책의 추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할 것임. 하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여성정책의 범주이고(예; 여성사회참여활성화,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복지 향상), 다른 하나는 자치구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통한 성 주류화의 달성임. 이제까지 주로 전자에 치우쳐 왔으나 향후의 추진방향은 후자의 추진 기반 강화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추진과제

1) 성 주류화 기반 강화
-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확대
- 각종 자료의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생산 등

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 강화
- 여성정책 추진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 여성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등

2.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목표〉〉

지역사회 여성들의 문화적 요구를 수렴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반을 조성하며, 가족과 직장,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해와 소통, 파트너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제도적 수준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함

□ 추진기본 방향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성주간사업이나 양성평등문화사업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젠더 이슈(gender issues)를 개발하고 제기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함.
- 특히 여성주간사업과 양성평등문화사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사업이 갖는 목표와 기대효과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임. 여성주간사업은 지역사회 내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이라는 돌봄노동의 책임에서 벗어나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의 경험을 늘리며, 여성들 사이의 연대감(連帶感)을 공유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 따라서 가족과는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다수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내 여성들의 축제가 되어야 하며, 사업 결과 여성의 자아의식과 사회참여의식, 연대의식이 향상되어야 함.
- 이와 비교하여 양성평등문화사업은 좀더 포괄적으로 사회와 직장, 가족 속에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다양한 차원의 활동을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대안적인 양성 관계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남성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 대한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키우고 성평등을 증진시키려는 남녀의 노력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족행사나 보육, 자원봉사활동, 일반적인 문화활동 등은 그 자체로는 양성평등 문화조성과 관계가 없음. 다만 이런 행사들 속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평등한 젠더 관계를 훈련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좀더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함.
- 아울러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행 방식에서도 여성들을 수동적인 관람객으로 만들기보다는 주도적인 행위자나 적극적인 생산자로 만들어 갈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가야 함. 그런 점에서 일회성 강연이나 단순한 공연물 관람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들 스스로 기획하고 행위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야 함.

□ 추진과제

1. 지역사회 내 젠더 이슈를 찾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
   예) 올해의 경우 종로구의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 되찾다"는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성매매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이나 "추석맞이 평등가족만들기 캠페인"(영등포구) 등도 좋은 사업임.

2. 여성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예) "여성창업강좌"(강북구), "이동여성상담소"(중랑구), "심리상담치료실"(강북구),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 지원사업"(강북구), "여성우울증 실태조사"(강서구) 등 여성의 현실적 요구를 찾아 그것을 해결,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남성과의 격차, 성별 불평등을 줄여가는 사업, 남성의 의식 개선 사업
   예) "남성 요리솜씨 뽐내기"(중랑구), "여성축구단 지원"(강서구), "민방위대원 양성평등교육"(관악구외) 등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남성들의 의식을 개선하며 여성들이 소외되기 쉬운 영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4. 소외된 여성집단을 정책의 주체이자 수혜자로 통합해가는 사업

예) "결혼이민자 가정과 함께 하는 명절음식 만들기"(관악구), "저소득모부자 가정 가족사랑캠프"(종로구), "장애인 멘티-멘토 한마당"(종로구) 등 이주 여성이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 여성 등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5.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 성 인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조사"(은평구), "여성정책포럼"(은평구외) 등 성 인지적 정책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성평등 관점에서 인간과 역사,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예) "역사 속 여성들을 찾아서"(종로구), "여성 영화제"(영등포구) "여성디자인포럼"(중랑구), "4행시 공모전"(영등포구) 등 역사와 문화에 나타난 여성들의 모습과 활동, 성평등에 대한 지향을 탐색해 가는 사업

7. 유아, 10대, 청소년소녀들의 양성평등의식 함양 사업

예) "양성평등 인형극"(종로구외) 등 아동이나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 함양 활동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프로그램 등은 감수성이 풍부한 성장기 소녀와 소년들에게 성평등의식을 길러줌으로써 미래사회의 젠더관계를 평등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임.

3. 여성경제활동지원

〈〈목표〉〉

관내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 추진기본 방향

○ 관내 여성 일자리 수요 파악

○ 관내 성인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파악

○ 관내 성인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사업, 직업의식함양교육 등 강화

○ 관내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전문 교육훈련기관화 지원

□ 추진과제

○ 자치 구 수준에서는 독자적인 여성경제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다음 사업의 추진도 필요함.

- 관내 취약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수요 파악
- 관내 여성교육훈련기관에 전문 직업상담사 지원하여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관내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지원
- 관내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전문 직업교육프로그램 지원

4. 여성 사회참여 지원

〈〈목표〉〉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여성의 역량발전과 양성평등 확산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추구를 목표로 함.

□ 추진기본 방향

자치구의 향후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첫째, 사회참여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의 인적 자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회참여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의식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주민들의 지역사회참여 확산까지 고려하여, 여성사회참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추진과제

- 여성대상 리더십 및 전문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활동을 대 주민 홍보 전개
- 다양한 단체 발굴과 지원단체의 다각화
- 연령계층별 단체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가족단위 참여활동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 평생교육 수료생의 동아리 활동 지원
- 평생교육과 사회, 경제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5. 여성 · 가족복지향상

여성 · 가족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방, 개입, 관리의 총체적 접근과, 사업영역과 대상의 포괄적 접근, 사업관리의 전문적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임.

□ 추진기본 방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사회, 경제의 통합적 접근의 강화
- 가족문제예방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강화
-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제공
- 복지자원의 효율 극대화
- 지역사회내 여성 · 가족복지네트워크 강화

□ 추진과제

- 예비부부, 재혼가족 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과 상담서비스 실시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 한부모가정 방문상담사업

제 5 장

결 론

제5장 결론

본 평가사업 수행 후 여성정책 담당자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 자치구여성정책평가를 위한 자료준비 기간 평균 33일, 1일 투입인원 평균 2.66명으로 평가로 인한 자치구 담당자의 노력과 이에 따른 업무부담의 양은 과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여성정책평가' 사업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의 세 가지 목적, 즉 책임성 확보, 행정관리의 개선, 이론에의 기여 외에도 현실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다. 여성정책이 상징적 특성에 머무르지 않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실천적인 노력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평가지표' 자체가 여성정책 추진의 지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분야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율 등의 평가지표는 그동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란 여성정책의 추상적 목표를 보다 구체적·실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평가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지 않는 성과도 꼽을 수 있다.

올해로 3회째인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사업의 의미를 평가사업이 갖는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정책목표의 달성과 연계하여 사업 여성정책 추진상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 첫 해는 여성정책 영역을 10개의 범주로 나누고 여성정책의 실적을 계량적 지표로 구체화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사업수행의 실적을 일정한 평가지표를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여성정책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2005년 평가에서는 평가방법을 다원화하였는데 전문가 내용평가를 도입하여 계량적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없는 사업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 평가방식과 같이 계량적 평가와 전문가 내용평가를 병행하였으며,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기존의 종합평가 방식에서

여성정책 부문별로 자치구가 선택하여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의 역량과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자치구 여성정책의 WID적 접근을 넘어서 정책의 성 관점 반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의 GAD적 접근의 여성정책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평가방향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번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서 나타난 정책수행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여성정책추진 기반조성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여성정책 담당조직의 낮은 위상과 독립성 미흡,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예산부족, 여성의 대표성 제고의 필요성, 협조체제 구축과 역할의 강화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분야의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내용의 부적절성,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여성정책활동지원 분야의 문제점으로 여성경제활동 지원기반의 취약성,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 사업과 성과의 연계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여성사회참여지원 분야의 문제점으로 여성사회참여 지원의 제약, 지역여성인력 발굴 활성화 미흡,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점검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복지 향상 분야의 문제점으로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사업의 체계적 접근 필요성과 여성복지 사업 관리의 전문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자치구여성정책의 평가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영역별 전문가가 제시한 향후 자치구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정책기반조성의 기본추진 방향으로는 물적·인적자원 확충 등과 같은 여성정책 추진 역량 강화뿐 아니라 정책의 성 주류화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한다.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여성들의 문화적 요구를 수렴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가족과 직장,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해와 소통, 파트너쉽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제도적 수준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

는 문화를 형성한다.

여성경제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의식함양 교육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사업 연계,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구체화한다.

여성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단지 사회참여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인적 자본의 발굴, 양성평등의식의 확산과 연계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한다. 또한 가족문제예방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자원의 효율 극대화, 지역사회 내 여성·가족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평가'가 피평가자나 평가자에게 시간과 노력 등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렇지 않건 간에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이다. 실제적으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서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의사결정자의 이해와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여성정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반시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향후 여성정책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담당자와 평가자 각각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사업추진 담당자 혹은 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잠깐 지적되었듯이 전통적으로 해 온 여러 가지 여성복지사업이 여성정책의 전부가 아니다. '이번 해에 기획하는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가?' '누가 정책 대상이 되며 정책이 가져올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정책이 여성정책 담당 팀에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기 위해서 여성정책 팀이 무

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의 실행은 팀 수준을 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관심을 요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이와 같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한다든지 자치구 사업의 성별 분리 통계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치구 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평가자에게 역시 과제가 남아 있다. 어떻게 평가담당자로 하여금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평가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는 일이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업무의 부담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업의 기획과 성과의 관리가 자연스럽게 평가 자료화 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함으로써 이와 같은 업무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지표를 보다 객관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실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는 현재의 지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내용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지표를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지표를 보다 객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분야별 성과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며, 또한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치구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치구 여성정책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자치구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자, 여성정책담당자(피평가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남여성회(1998), "경상남도 여성정책 평가," 『1995~1998년 민선자치단체 경상남도 여성정책 평가회』, 경상남도

김경희(2006),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김명수(2001),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김복규(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여성정책연구』제3권, 대구광역시, pp. 11-48

김옥희(1998), "부산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시정연구』(부산시), pp.313-362.

김유나 · 고선주(2006), 통계로 본 서울여성, 서울특별시 · 재단법인 서울여성

김재인 · 김성경(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 정해숙 · 김원홍 · 김영옥 · 김영희 · 장혜경 · 김이선(1998), 『현 정부의 여성정책평가 및 새 정부의 단기 여성정책 추진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 박성정 · 정경아 · 정윤수(2001), 『정책의 성분석 모형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 조연숙(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외(2002), 경기도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 개발연구, 경기도.

김양희 · 민무숙 · 장영아 외(200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서울: 여성부.

김혜순 · 이상성 · 김병욱 · 구익서 · 김수정 · 이승은(2001), 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 분석보고서, 행정자치부.

노화준(1991), 『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박민자(1997),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9: pp. 191-212.

변화순외(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박희정 · 박해육 · 이병기 · 김건위 · 이혜영(200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 이병기 · 이혜영 · 김건위(2005),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울여성백서 각년도

손봉숙(1993), "제6공화국의 여성정책 평가", 『6공의 여성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pp. 3-29.

송희준(1992), "한국의 공공정책 연구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 창간호: pp. 63-84.

신경아(2006),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시 여성정책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윤선영(1999),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철(1997), "전남의 여성정책," 『사회과학연구』광주대, 7, pp. 289-300.

이진주 외(1998),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서울: 나남출판사.

이혜숙(1998), "지역여성의 현실과 여성정책-경남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경상대학교, 16(2), pp. 89-117.

정정길(1997),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조연숙(2002), "성주류화의 과제와 단계적 추진 방안," 경기논단, pp.11~25.

차의환(1998),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한올아카데미

초의수(1999), "부산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여성연구논집』신라대학교, 10, pp. 117-153.

한국여성단체연합(2002), "16개 광역시도 2001 여성정책 평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터.

부 록

1. 자치구 수범사례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 및 작성지침

부록 1. 자치구별 수범사례

1. 여성 · 가족복지 향상

1) 종로구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 및 장애인 멘토-멘티 한마당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 관리 지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인권헌장 제11조 -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를 실천함.
○ 관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 및 장애를 딛고 일어선 분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한 후 멘토-멘티를 엮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자리를 마련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는 여성장애인의 산전, 산후, 육아에 대한 역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정에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고, 도우미 파견 이외의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여성장애인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의뢰 후 연계하여 지원함.
- 대　　상 : 임신,출산, 육아양육 지원이 필요한 종로구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인원 : 총10명
- 추진기간 : 2006. 8월 ~ 12월말
- 사업내용
  · 산전지원(가사, 병원동행, 육아지원, 출산준비 등)
  · 신생아관리 및 산모관리(목욕, 수유, 기저귀 갈기, 산모영양관리 등)
  · 육아지원(영양관리, 부모역할 대행, 육아용품 등)
  · 1인 지원예산 : 1,000천원(도우미 파견)

○ 장애인 멘토-멘티 한마당은 여성이면서 장애라는 이중고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장애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 함.
1. 초대장 발송 및 홍보
- 대　　상 : 총 298명(혜화동 우선 실시후 타동 확대여부 검토)
- 홍보기간 : 2006. 9. 15(금) ~9. 27(수)
- 홍보내용 :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공연 초대장 발송
2. 멘토링 대상자 연계
- 장애인 단체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대학정립단'과 연계하여 뚜렷한 직업으로 자립을 한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과 멘토링 연계
- 멘토 대상자 모집 홍보 후 대상자 확정
3. 대학로 소재 게릴라 극장과 무료 관람 협조
- 공연일시 : 2006. 9. 28(목) 14:00
- 공연장소 : 게릴라 극장(혜화동 15-29 대표 남 미 정)
- 공연 후 멘토와 멘티의 만남의 장 사용협조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예산사업)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를 홍보하는 포스터 100부, 전단지 200부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보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사회복지관, 산부인과 15개소 등에 배포하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총 275건을 적극 홍보 후 대상자 선정.
- 연계기관은 관내 장애인 전문복지관의 부재로 타 구 소재의 장애인 복지관과 협의하여 선정

○ 장애인 멘토-멘티 한마당(비예산사업)
우선 동을 중심으로 장애인 현황을 성별로 분석하여 여성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홍보함. 또한 현수막을 게첨하여 극장과 동사무소, 구청 가정복지과에 창구를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실행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 산모도우미파견(인건비) : 1인×1,000천원×10인=10,000천원
- 산모도우미 교통비 : 1,800원×500회=900,000원
- 준비비(교통카드 및 문구류 구입 등) : 100,000원
- 홍보물 제작 : 1,000천원

등의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다.

○ 장애인 멘토-멘티 한마당은 비예산 사업으로
- 현수막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협조하였고
- 대학로 소재 게릴라 극장과 연계 공연 무료 관람 협조,
- 공연 후 멘토와 멘티간 만남의 장 운영 시 다과비는 행사취지에 동참하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운영됨.

◆ 성과

• 사업의 성과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
- 여성장애인이 지불해야 하는 분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11만7000원으로 전체 평균(7만4000원)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55.0%로, 전체 평균(36.7%)보다 18.3% 높은 가운데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는 그 어느 서비스보다 절실한 욕구이었기에 신청자 수는 적었지만 만족도는 높다.
-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때문에 위험한 자연분만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적이다.

○ 장애인 멘토-멘티 한마당

- 여성장애인을 위한 멘토링(mentoring)은 멘토(mentor)가 이미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를 멘티(mentee)에게 전해줌으로써 멘티의 발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장애인과의 멘토링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 멘토링이 다소 생소한 프로그램이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은 부모가 일하느라 장애 당사자만 참여하였고 장애아동일 경우는 그 부모가 같이 참여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로 민·관이 함께한 소통의 자리가 됨. 참여도는 낮았지만 워낙 진진한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향후 계속 추진되길 희망함.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제

1. 한계 및 문제점
   여성장애인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당당한 출산의 한 주체로서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이동조차 어려운 여성 장애인이 막상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도 병원의 침상 이나 진료기구 등이 일반인 기준으로 되어 있고, 신체의 떨림으로 인해 검진과 검사가 어려워 기본적인 산전, 산후 진료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에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시설과 이동과 진료를 도와줄 인력(도우미)이 필요하다.
3. 향후계획
   - 최소 100일 산후도우미 지원 보장
   - 의료진에 대한 장애인 교육
   - 응급 시 이동권 지원 체계 강화

○ 장애인 멘토-멘티 한마당

1. 한계 및 문제점
   여성장애인은 장애차별, 성차별의 이중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해야 했으며, 교육 받을 권리, 모성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 등에서 배제돼 왔다. 비장애여성과 다르지 않은 욕구와 능력을 가진 여성이라는 점과 이들의 사회화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여야한다.
2. 개선방안
   - 여성장애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외출, 사회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립생활지원센터 건립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해주는 지원활동과 동료상담 실시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학습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3. 향후계획
   - 여성장애인 도우미 전문교육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서비스(여가생활지원, 가족나들이, 방문메이크업 등) 제공
   -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중랑구 - 여성교실운영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여성의 여가선용으로 잠재능력 개발
○ 여성의 생산적인 사회활동 참여 및 경쟁력 향상
○ 취업, 창업 및 가계에 보탬이 되는 여성교실 강좌운영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 운영과목 : 10개 과목 13개반
(퀼트, 출장요리, 규방공예, 수지침, 발건강관리, 한복, 제과제빵, 피부관리, 양재, 한식조리 자격증)
- 교육장소 : 중랑구민회관 소회의실(1층)
- 과목별 인원 : 20~40명
- 운영기간 : 연중(3개월 단위 운영)
- 대 상 : 중랑구 거주 여성
- 접수방법 : 과목별 선착순 모집
- 수 강 료 : 무료(단, 재료비는 본인부담)

○ 추진배경
- 우리 구 에는 여성발전센타 또는 인력개발센타 등의 여성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인근 자치구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구비로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미·기술교육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의식변화 및 자기정체성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사업을 선별한 이유
- 여성의 정서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특히 대부분 여성취업과 관련하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어 수료 후 취업, 창업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공하고자 함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홍보활동
-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
  · 현수막 제작 : 5개소
  (게첨장소 : 관내 공공게시대 5개소)
  · 안내문 제작 : 1,000부
  (배부 : 관내 20개 동사무소 비치, 35 개소 아파트 단지, 20개 동별 새마을부녀회, 20개 여성단체)
- 중랑구소식지, 일간지, 지역신문 게재
- 중랑구청 홈페이지 게재 : 2005.11 2006.05 2006.08
- 여성단체 및 통·반장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

○ 대상사업 선정의 기대효과
- 지역적으로 낙후한 우리구 여건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취업 및 부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및 자격을 취득하여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확대

• 사업실행

○ 예산
- 총 45,4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 2,800천원
  (수료증 800천원, 안내문 1,000천원, 현수막 1,000천원)
  · 여성교실 운영비 : 700천원
  · 기술교육 강사료 : 36,000천원
  · 여성교실 비품수리 : 1,000천원
  · 냉방기 구입비 : 4,900천원

○ 사업실행 결과
- 2005년도 69기 258명 수료
- 2006년도 70기 167명 수료 71기 296명 수강중

◈ 성과

• 사업의 성과

○ 69기 (05.12~06. 2) : 401명 접수, 258명 수료
○ 70기 (06. 6~06. 8) : 277명 접수, 167명 수료
○ 71기 (06. 9~06.11) : 296명 접수, 교육 진행중
○ 2004 - 여성정책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 시행
○ 2006 -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의실 면적과 기자재에 맞추어 수강인원 축소하여 접수
- 비인기과목인 한복, 규방공예, 수지침 강좌 폐지
- 취업과 연결되는 의류수선, 헤어자격증반 신설
○ 2006 - 중랑구여성단체연합회의 지원으로 모부자가정 8가정 재료비 780,000원지원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한계 및 문제점

2003년도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예산 미 확보로 인하여 중단됨에 따라 현재 구민회관 1층에서 운영중인 여성교실의 시설을 2004년 여성정책평가 인세티브 사업비로 리모델링하였으나 시설의 확대가 불가능하여 다양한 수강과목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여성교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설물의 노후화와 과목시간 선택, 강좌정보 부족 등 불만이 있는바, 시설 및 기자재의 개보수를 위하여 2007년도 예산 편성 등 별도 대책을 수립

○ 향후계획

-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주간에만 운영중인 강좌를 야간반 운영
-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여성과 남성에게 재료비를 지원하여 기술교육 후 취업기회 및 자립기반 조성
- 여성위주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 기반 조성

3) 강북구 - 강북여성정보센터 설치 · 운영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목적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보의 접근성, 정보역량, 활용도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과 사회진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중 · 장년층이나, 신체적 장애인, 저소득 및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과 일반계층간의 정보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여성관련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정보제공을 통하여 정보이용의 접근편리성을 도모하고 지역여성들에게 배우고 알고자 하는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 창구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목표

○ 구민(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여 질 높은 One-Stop 정보제공

○ 정보 제공의 계층(청년, 중장년, 노년)에 따른 시스템의 다양화 추구

○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폭력 · 성폭력 자녀교육 등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 사업의 독창성

기존 자치구의 요보호 여성, 소외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탈피하여, 35만 강북 인구 중 51%에 달하는 18만 여성들의 요구를 파악 · 수렴하여, 서울시 25개구에서 유일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정보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사업개요 및 내용

□ 추진배경
○ 2005년 9월 NGO인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과 협력하여 관내 여성들에게 지역사회 의식 및 참여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도나 시설 등 각종 궁금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 여성관련 시책을 운영하는 정부시스템과의 정보공유 필요
○ 이에, 여성단체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후 설치·운영

□ 정보센터 설치
○ 설치 장소 : 강북구청사내 / 별동(20평 규모)
○ 정보자료 확보 : 11,000건 수록(자체 개발한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건강/보건/복지/노인/보육/문화/취업 등 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전문기관 및 상담센터 현황 등

□ 소요예산 : 136,050천원

□ 운영개요
○ 운영일시 : 2006. 4. 25~ (운영시간 : 09:00~18:00)
○ 운영방법
- 대표전화 개설 One-Stop 정보서비스 (☎ 901-6000)
- 전문직원(6명)이 내방민원 상담 및 즉시 답변불가사항 사후확인 전화안내
○ 안내 및 상담내용
- 공공기관 복지, 교육, 건강 등 각종 기관 및 시설관련 정보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요보호 여성기관과 연계 조치
- 심리적 부적응 등 심리상담 치료 및 자녀양육 등 각종 가정문제 상담 (강북 심리상담치료센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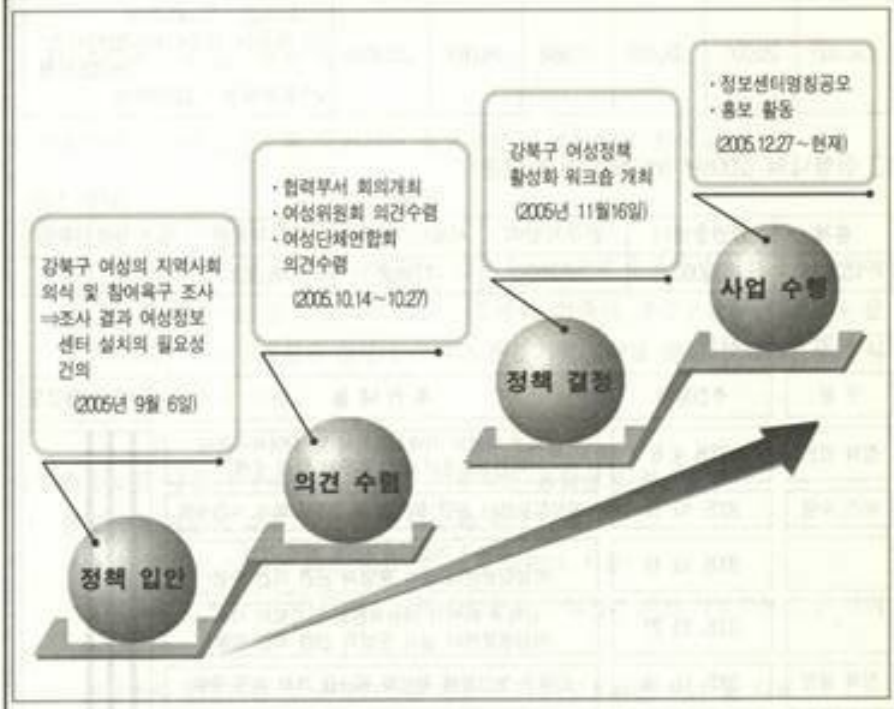
□ 기획의도
○ 차별화된 여성관련 맞춤정보 제공으로 여성들의 경쟁력 확보
○ 다양한 정보자원에의 접근성 및 정보공유 활용의 시너지 효과
○ 여성관련 지식정보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추진하여 정보격차를 해소
○ 단일화된 가족정보지원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 선별 이유
지금까지 여성정책의 수혜가 일반여성들보다 요보호 여성들에 치중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여성정보센터는 강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요구(need)를 파악, 수렴하여 지역자치의 최대 수요자인 일반여성, 요보호 여성들의 욕구와 권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심리치료실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으로 가족을 위한 사전예방적 통합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여성정보센터 사업 선정 로드맵(Road Map)



지난해 9월 관내 NGO단체인 녹색살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식 및 참여욕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권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서 여성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사기관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이용하려면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산재 되어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 자료화하여 안내해 줄 센터가 필요하다고 건의함에 따라, 관내 여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 여성단체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Work-Shop를 개최하여 「강북여성정보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실과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시험가동 등 준비절차를 마치고 2006.4.25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 사업실행

□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법

(단위: 천원)

총 계	일 반 운영비	연 구 개발비	시설비/ 부대비	자 산 취득비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 확보 세부내역
136,050	20,000	28,250	17,862	46,283	23,655	○본예산 : 50,000천원 ○ 세무과 인센티브사업비지원 69,395천원 ○추경예산 : 3,895천원

□ 집행내역 (2006년 9월28일 현재 기준)

(단위: 천원)

총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부대비	자산취득비	일시사역인부임
132,535	20,000	28,250	17,862	46,283	20,140

□ 사업 진행 사항

구 분	추진일자	추 진 내 용	목표 달성정도
정책 입안	2005. 9. 6	강북구 여성의 지역사회의식 및 참여욕구조사 (여성정보센터 설치 필요성 의견 수렴)	
의견 수렴	2005. 10. 14	여성정보센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회의 의견수렴	
〃	2005. 10. 19	강북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의 개최 (여성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의견 수렴)	
〃	2005. 10. 27	강북구 하반기 여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여성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의견 수렴)	
정책 결정	2005. 11. 16	강북구 여성정책 활성화 워크숍 개최 의견 수렴	
사업 추진	2005. 12. 5~27	협력부서 관계자회의/여성정보센터 명칭 공모	
〃	2006. 1. 6.	강북여성정보센터 설치 계획 수립	
〃	2005. 12월~1.15	1차 자료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서울시, 구청, 보건소,동사무소 등 행정조직관련자료)	50%
〃	2006. 1.16~2.28	2차 자료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신문, 기발행된 자료 등)	
〃	2006. 1. 17/ 2.21	여성정보센터 추진 현황 보고회 1차, 2차	80%
〃	2006. 1월~3. 8	시스템 시험가동 및 점검/ 문제점 보완/인력배치	
〃	2006. 3.9~3.14	사무가구 및 비품 구입, 전화회선 설치 등	
〃	2006. 3. 15	여성정보센터 시험 운영	
〃	2006. 3. 21/ 4. 18	여성정보센터 추진 현황 보고회 3차, 4차	
사업 수행	2006. 4. 25	강북여성정보센터 개소 운영 개시	100%

◆ 성과

• 사업의 성과

□ 사업의 성과

○ 중·장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

○ 자발적인 민원중심사고를 도입하여 정보전달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 독립적인 여성정보전담기구 설치

- 특히 별도 설치된 여성정보센터에 대한 접근 용이성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가정폭력, 성폭력, 주부우울증, 자녀교육 문제 등 다양한 가정문제들을 쉽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맞춤정보에 대한 욕구증대에 부응한 차별화된 통합정보 제공

- 정보제공 계층에 따른 시스템의 다양화 추구
  - 청년, 중장년, 노년에 따른 자료 및 제공 방법에 차등
  - 심리치료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운영으로 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 여성권익 보호계층 및 건강가정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및 지원

○ 유기적 연계시스템을 통한 전문 여성정보 허브포털(Hub Portol) 구축

-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관련시설과의 유기적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여성정보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
  - 심리치료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무료법률사무소,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스러기 사랑나눔회(1:1 지역사례관리), 풀뿌리 여성단체, 가정폭력시설, 성매매시설 등 관내 여성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생산적 정보 활용 및 지원 서비스

□ 목표달성도 : 여성정보센터 설치·운영(목표대비 100% 달성)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개선방안)

○ 정보의 변동성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로 전달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

○ 정보의 다양성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인 정보와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인 여성들의 욕구에 대한 피드백(Feed Back)을 통한 콘텐츠 발굴

□ 향후 발전 계획

○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센터 운영 활성화

2006년 9월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취업연계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용 홈페이지에 교육운영, 취업알선기능 연계 시스템 구축 계획

- 각종 취업포탈사이트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서울시 자치구 등과 D/B 공유로 교육 및 취업정보 연계
- 체계적인 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정례적 평가를 상·하반기로 실시
- 결과에 따른 고객 요구를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

○ 여성정보센터 전용 홈페이지 구축

- 기존 정보시스템간에 여성정보의 공유 및 활성화
-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용자 편리성 증진
- 정보와 지식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추구로 가치 있는 정보 제공
-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User Interface를 극대화

4) 은평구 - 여성정책포럼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현재의 출산율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이 여성인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여성인력이 증가함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확대를 위한 인구출산장려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인력 활성화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성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 포럼제목 : 고령화 사회 대비 여성인력 강화를 위한 개성방안
- 일　　시 : 2006. 7. 6(목) 14:00 ~ 17:00
- 장　　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 참여인원 : 150명(사회복지관련기관,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일반구민 등)

□ 추진배경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고령화 사회에서의 여성노인 인력활용 방안
  - 여성노인 적합한 직종 개발
  - 여성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취업상담과 적응교육 제공
  - 취업기관 정보 네트워크 공유 및 여성직업훈련기관의 활용 확대
  - 연령에 따른 취업제한 개선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여성노인 자원봉사자의 역할
  - 병원 자원봉사자의 역할
  - 문화예술영역의 자원봉사자의 역할
  - 사회봉사활동(전통음식 만들기, 바느질 가르쳐주기 등)
- 노인수발보험제도와 돌봄의 사회화
  - 가정봉사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건강한 여성노인이 중증노인 간호서비스
- 여성인력강화를 위한 대책방안(근로빈곤층 여성)
  -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 여성인력강화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
  - 여성에 대한 초기상담 시스템 구축

□ 사업 선별사유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심화
- 여성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논의
- 고령화 사회에서 올바른 여성의 역할 모델 제시
- 여성노인 인력 활용과 경제활동 활성화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문을 통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분야인 고령화 사회, 저출산,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선정

□ 주 제 : 고령화 사회대비 여성인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세부주제
  · 고령화 사회에서의 여성노인 인력활용 방안
  · 노인부양을 위한 여성자원봉사자의 역할
  · 노인수발보험제도와 돌봄의 사회화
  · 여성 인력강화를 위한 대책방안
- 포럼홍보
  · 구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반상회, 각종 직능단체회의시 홍보

□ 예산규모 : 3,500,000원

□ 확보방법 :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편성

□ 집행내역
- 여성정책포럼 책자 300부 제작 : 1,768,470원
- 포럼 참여자 원고료 지출(5명) : 1,000,000원
- 초청장 제작 및 우송 : 231,530원
- 다과 등 기타 행사 경비 : 500,000원

□ 사업진행사항
- 여성정책 포럼 제목 : 고령화사회 대비 여성인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포럼진행 인원 (5인) : 사회자 1인, 발표자 4인

구 분	성 명	소 속	발 표 제 목
사회자	이상원	한국여성개발원	
발표자	강정숙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고령화 사회에서의 여성노인 인력활용 방안
	박정자	은평자원봉사센터소장	노인부양을 위한 여성자원봉사자의 역할
	김정희	에버그린복지재단대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돌봄의 사회화
	김두선	은평자활후견기관	여성 인력강화를 위한 대책방안

□ 세부진행 계획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제 1부	14 : 00 ~ 14 : 10	참가자 접수	
	14 : 10 ~ 14 : 30	국민의례 및 개회식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씀(구청장) · 축사(내빈)	사회자 (여성정책팀장)
제 2부	14 : 30 ~ 14 : 50	발표 1	강정숙
	14 : 50 ~ 15 : 10	발표 2	박정자
	15 : 10 ~ 15 : 20	휴식	
	15 : 20 ~ 15 : 40	발표 3	김정희
	15 : 40 ~ 16 : 00	발표 4	김두선
	16 : 00 ~ 16 : 30	토론 및 질의 응답	
	16 : 30 ~ 17 : 00	정리	

◆ 성과

• 사업의 성과

□ 사업의 성과 및 목표달성

고령화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여성인력자원 개발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다각적인분야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여성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포럼을 통해서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음.

- 세부성과 내용
  - · 여성인력의 사회적 · 경제적 역할수행이 필수적임
  - · 여성에 적합한 직종개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여성노인인력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분야별, 소그룹으로 개발
  - · 여성노인인력활용방안에 대한 평생학습교육 필요
  - ·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일자리 수요를 여성인력으로 활용
  - · 건강한 여성노인인력이 중증노인수발대상을 간호서비스
  -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제고
  - · 노인의 의식변화를 통한 자원봉사 동기부여로 긍정적 자아상 창출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여성노인의 취업직종 제한 및 저임금 문제
- 여성노인의 사회적 편견, 연령차별
- 취업알선기관의 고용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알선기능이 취약함
- 지역별 여성인력 수요에 대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미비
- 보육 등 취업지원정책의 미비와 낮은 정책 실효성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여성고용구조 악화

□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여성노인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 개발의 필요
- 여성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취업상담과 적응교육 제공
- 여성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보장대책마련
- 취업기관 정보 네트워크 공유 및 여성직업훈련기관의 활용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고령자우선고용 직종선정
-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전담기구의 설치 · 운영 필요
- 은평구 지역내 유관기관, 기업체와 협의체 구성
- 협의체에서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여성인력 취업대책방안 연구

5) 서대문구 - 여성복지센터 운영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부업 및 창업을 위한 기능·직업교육 및 건전한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생활문화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 및 건전한 사회참여에 기여하는데 있음.

• 사업개요 및 내용

□ 여성복지센터 운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대 상 : 서대문구 거주 만 18세이상 여성
- 장 소 : 여성복지센터(서대문문화회관 지하)
- 연간교육인원 : 780명
- 운영강좌 : 13개 강좌(자격증 6, 취업·부업 2, 생활문화교육 2)
- 운영방법 : 구 직영
- 사 업 비 : 94,884천원

□ 기별 운영내용
- 교육기간 : 4개월(연 3기)
- 교육시간 : 강좌별 32회 96시간(주2회 1일 3시간)
- 강좌내용 : 조리사 자격(한·양·중·일식), 가정요리, 제과제빵 자격, 제과제빵, 의상제작(초·중급), 퀼트와 홈패션, 미용(초급·자격), 피부관리사 양성, 네일아트
- 수 강 료 : 4만원, 재료비 본인부담

□ 추진배경
- 구 특성상 중산층 이하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주거밀집지역인 만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에 비해 현실은 가사, 자녀교육, 사회적 인식 등에서 사회로 진출하는데 어려운 요소가 많음에 따라
- 가사와 자녀교육을 병행하면서 저렴한 수강료로 단기간에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자 1999년부터 여성복지센터를 개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예산에 의해 계속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선정을 위한 별도의 홍보나 사업선정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없음

• 사업실행

□ 사업진행사항
- 2005.10월 35기과정을 시작하여 2006. 9월말로 37기 교육과정을 마치고, 10.11(수) 15:00에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며,
- 9.22~10.9까지 38기과정 수강신청을 받아 10.11 개강식후 4개월간의 교육운영을 시작함

□ 기별 추진사항
- 운영계획 수립 : 운영강좌, 홍보, 수강신청 일정·방법 등
- 운영사항 홍보 : 현수막, 포스터, 구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 활용
- 수강신청 : 인터넷 접수후 추첨, 미달과정 추가접수
- 개강식 및 강좌별 오리엔테이션
- 과정별 교육운영, 교육에 필요한 운영물품 등 구입 지원
- 수료식

□ 예산집행
- 예 산 액 : 94,884천원
- 확보방법 : 일반회계 예산 반영
- 집행내역 : 70,652천원(2005. 11~2006.10월)
  - 운영 홍보 및 교육운영 제잡비 : 4,732천원
  - 강사료 : 61,920천원
  - 운영물품 구입 : 3,992천원
- 향후 집행계획 : 운영비품 구입 8,000천원

◆ 성과

• 사업의 성과

35기부터 37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기수	운영기간	운영강좌	정원	등록인원	수료인원
계			780	594	554
35기	2005.10~2006.1	12	260	184	173
36기	2006.2~2006.5	12	260	192	180
37기	2006.6~2006.9	12	260	218	201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문제점

-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경제활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교육 수료후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구취업정보은행을 안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음
- 여성복지센터가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 시설이나 기능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타구 및 타 복지수요자를 위한 시설에 비해 매우 부족함

□ 개선방안

- 취업·창업지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확대 운영
- 문화·생활체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NGO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프로그램, 요보호 여성·가족의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그 외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여성을 위한 종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개선

□ 향후계획

- 현재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
-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부터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 2010년 개관을 목표로 지역 여성을 위한 종합 문화·복지공간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

6) 양천구 - 취업·창업 중심의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우리 양천구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가 많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욕구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여성어학강좌의 3개분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취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여성교실을, 그리고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여성들의 많아 여성들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으로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 어학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들이 임시·시간제·일용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어 여성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기술교육 중심의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저렴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은 후 경쟁력을 갖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및 내용

□ 프로그램 현황

구 분	교육과정	프 로 그 램	모집정원
		23개 과목 25개반	494명
기술교육	3개월	제과·제빵자격증반, 출장요리, 조리사자격증반, 미용사 자격증반, 꽃집창업반, 홈패션 등 17과목 19개반	334명/분기
취미교육	3개월	한글서예, 한문서예, 동양화	60명/분기
외국어	3개월	영어, 일본어, 중국어	60명/분기
여성장애인 자활	6개월	양재, 홈패션	40명/반기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실 연중 2회 운영 : 2기(4~6월), 4기(10~12월)
- 매주 월요일 19:00~21:00/생활요리, 피부미용

□ 수 강 료 : 기별 15,000원 (단 저소득층은 수강료 면제)

□ 수강생모집 및 관리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이전에 취업의 경험 유무를 떠나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욕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주로 30대 후반 이후에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취·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 후 오랜 기간 육아와 가사활동으로 인해 취업환경을 잘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직업능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전문지식이나 기술부족을 들고 있고 양천구 여성 중 일반여성의 36.3%가, 저소득 여성은 63.8%가 전문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성들이 기술교육을 받아 취업을 하고, 자기능력 개발로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실행

□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개최(매년 11월)
○ 기　　간 : 2005.11.10(목)~11.12(토)
○ 장　　소 : 양천문화회관 전시실
○ 전시작품 : 여성교실 수료생 및 수강생 작품 300여점
□ 수료인원 : 1,910명 등록 및 1,644명 수료(수료율 86.1%)
□ 수강생 모집방법 개선(방문접수⇒온라인접수)
○ 추진시기 : 06. 9월(4/4분기 수강생 모집부터)
○ '여성홈페이지' 개편과 연계 추진
○ 수강생의 70%이상이 40대 이상의 여성이므로 인터넷 신청이 정착될 때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 병행
○ 과목별 정원의 1/2을 인터넷 우선 접수 후 나머지 1/2과 인터넷 미달인원은 방문접수
○ 수강신청의 편리함 제공과 여성의 정보화 수준 업그레이드 효과
□ 수강생 모집 홍보
○ 양천구 소식지, 지역신문, 양천방송 등 보도매체 활용
○ 관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홍보게시 협조 요청
□ 사업비 지출(05. 11월~06. 9월)
○ 강사료 : 95,450천원
○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 : 7,756천원
○ 공사 및 비품 구매 : 6,496천원
　- 환풍기교체, 냉방기 교체, 방수공사, 가스레인지 교체, 주방용품 구매 등
○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 2,856천원

◈ 성과

• 사업의 성과

○ 취업을 희망하는, 특히 전업주부에서 경제활동을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저렴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수강생들에게 호응이 높습니다.

○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수강생 모집을 하는 첫날은 오전7시부터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조리사자격증반, 출장요리, 제과 자격증반 등은 몇몇 선호도가 높은 과목은 불과 10여분 만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보화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올해 06년 4/4분기 수강생모집부터는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며 점차 방문접수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연1회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을 모아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임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여성교실 등에서 등록율이 40% 미만으로 폐강하여야 할 강좌는 없으나 신규 수강생의 참여가 저조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일부 취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생들의 수요조사(06 9월~10월 실시 중)후 2007년부터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직업 기술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06 11월에 강사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 여성교실에서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직종으로 취·창업을 한 사례도 있지만 취업기회가 없어 배운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 마련하고 구 홈페이지의 온라인 '여성일자리센터'의 구인, 구직 시스템이 운영중임을 수강생들에게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7) 금천구 - 여성복지 전문상담소 운영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사 업 명 : 위기가정 지원 및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성전문상담소 활성화

1. 목적 및 목표 :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피해 여성 및 그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가정복귀에 도움을 주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폭력은 일차적으로 가정내에서 이뤄진 경험을 바탕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위기 가정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행복한 가정, 여성의 인권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

2. 사업의 독창성 : 금천구 여성전문상담소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협의체 구축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 활용 및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상담은 물론, 지역사회내 협의체와 구청내 문화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세대에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등을 추진.

   - 소외계층 여성들에게는 상담과 병행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준비」 과정과 같은 취업, 창업 관련 교육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금천구에서의 여성전문상담소의 역할은 매우 큼.

※ 중, 고등학교에 이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및 부모 특별상담실시

•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배경 및 본 사업을 선별한 지역특성)

행복한 가정은 국가경쟁력이다. 가정의 불행은 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그 문제는 지역사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가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 금천구는 지역특성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가시간이 많아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여성보다는 경제활동 통계수치로 잘 나타나지 않는 소규모 가내공업에서 일용이나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이 많아 자녀 또는 부부와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상담 역할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타 자치구는 대학교가 있거나 서울여성의전화, 민우회 등 대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활동 전문단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 다양한 교양강좌 또는 예방관련 가족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반면, 금천구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금천구 인구는 서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9월말 현재 인구 255,063명의 98,960세대를 이루고 있고, 이중 0.9%에 해당하는 2,469명의 938 세대가 모, 부자 세대이다. 이러한 취약 계층의 높은 비율은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 등 인프라가 부족한 금천구에서는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직접 발로 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위기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천구는 2007년초 개소 예정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금천구여성복지상담소는 금천구 여성과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타구와는 달리 상담원을 공개로 모집하고, 상담원 모두가 전문상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저마다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어 이미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다.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한 중학교 출장상담에 이어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상담 방법도 매우 다양해 졌으며 학교에서도 매우 좋은 효과를 얻고 있어 상담원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명예교사증 까지 받은 바 있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우리 금천구여성복지상담소의 역할은 더욱 강건해 질 것이며 또한 추후로도 계속적인 연구와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대상사업 선정 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세미나 개최 : 5회
- 상담원들과 워크샵 개최
- 지역 금천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관련부서와 네트워크 구축

○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실시 홍보(독산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 전 학교로 사업내용 홍보 안내문 발송
- 구청 홈페이지 및 여성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여성관련 전문상담소 및 문화행사 홍보
- 구청 홈페이지 및 여성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전문상담소 운영홍보를 전 부서에 알려 홍보토로 독려
- 구청 소식지를 통한 홍보
- 모자가정 전 세대에 상담 안내문 발송
- 취업 창업관련 정보 모자가정 전 세대에 안내문 방송

• 사업개요 및 내용

○ 폭력 없는 양성 평등 행복세상을 이루기 위한 성·가정폭력 등 여성관련 전문상담소 운영
- 위 치 : 독산1동 289-7 - 상담시간 : 월-금(매일10:00-17:00)
- 방 법 : 전화, 내방상담, 온라인상담, 출장상담(초, 중, 고등학생)
- 상담원 : 8명(상담사 또는 전문자격증을 갖춘 상담원
- 예산액 : 12,570천원(임대료는 별도)

○ 관련공무원 및 상담원 전문교육 및 워크샵 실시로 질적 향상에 노력
- 제8기 가정폭력, 가정법률 전문상담원 교육 : 2명
- 2006년 성폭력 등 관련공무원 전문교육 : 1명
- 예산액 : 404,730원

○ 지역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추진 및 간담회 실시

1. 기독여민회 소속 열린가족상담센터(독산1동 149-38)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외에도 이혼, 사별 등으로 심적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감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자가정 여성가정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지원을 함께 수행(비예산)
- 1차 협력회의 : 2006. 4. 7(금) 11:시 2차 협력회의 : 2006. 6. 14
- 3차 최종사업평가회의 : 2006. 11월 예정

2.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기관과 네트워트 구축하여 세미나 개최(비예산)
- 빈곤가정 여성세대 통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 찾아가는 상담 운영 활성화
-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아이들의 생각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상담 추진
- 예산액 : 300천원

○ 여성 행사 때 야외로 나가 직접 여성들의 고민과 문제해결과 나의 행복지수 알아보기 출장상담 추진

○ 올바른 성 문화 정착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전개 및 캠페인 전개

○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 생애주기별 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학 교육 실시(예산액 : 650천원)

○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취업, 창업 연계사업 실시
- 연계기관 :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살구회
- 예 산 액 : 16,000,000천원

○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거리 문화행사 마련 홍보 : 문화공보과 협조
- 예 산 액 : 68,457,000원

◈ 성과

• 사업의 성과

전문상담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원으로 운영하면서 상담내용이 위기가정, 청소년, 노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 상담, 성매매 등 상담분야가 다양화 되었으며, 내방 상담뿐 아니라 찾아가는 지역상담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그 범위를 넓혀갔다.

- 2006년 실적 : 655건(9월말 기준)

1.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상담 실시(중학교, 고등학교)
   - 시흥중학교 : 410건 상담 - 금천고등학교 : 295건 상담
2. 행복한 직업 찾기 『청소년 진로상담』실시
3. 초등학생 중 일상생활에서 산만하고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 중 상담을 원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특별 상담프로그램 운영
4. 지역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가. 기독여민회 소속 열린가족상담센터와 모자가정 여성가장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상담 수행
   나. 빈곤가정 여성세대 통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 개최
   - 협의체 : 금천구청,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청소년 지원센터,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보육원, 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 금천한우물생협
   다.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 · 청소년계 (오 정민 경장)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인수 후 상담 실시
5. 소외계층 여성가장을 위한 상담 이외에 취업, 창업교육 연결
   - 네트워크 구축 :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살구회
6. 생애주기별 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학 교육 실시
7.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거리 문화행사 마련 및 홍보 : 문화공보와 협조
8. 여성주간 및 자원봉사대축제 행사에 여성복지상담소 홍보부스와 창업을 위한 1일 가게 마련(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생) : 2006. 9. 27(수)
9.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 성과

• 사업의 성과 (문화 면)

○ 찾아가는 무료 문화행사 마련
- 구민과 함께 하는 무료 연극
일 시 : 2006. 2. 8 - 2. 9 / 공연명 : 라이방
장 소 : 문화체육센터

- 금빛공원 준공기념 가족문화행사 개최
일 시 : 2006. 2. 20(월) 14:00 - 16:30
장 소 : 금빛 공원 내 야외무대
예산액 : 12,000천원

- KBS 전국노래자랑
일 시 : 2006. 4. 5(수) / 장 소 : 금천 체육공원 운동장
예산액 : 7,000천원

- 2006 월드컵 개막전 거리 응원 이벤트
일 시 : 2006. 6. 13(화) 20:00 - 24:00
장 소 : 시흥역길(시흥역 앞) / 예산액 : 25,300천원

- 한 여름 밤의 신나는 웃음 한마당 "마당놀이 토선생전 개최"
일 시 : 2006. 7. 28(금) 20 :00 - 21:30
장 소 : 금빛공원 야외무대
예산액 : 21,700천원

- 가을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
일 시 : 2006. 9. 29(금) 19:30 - 21:30
장 소 : 서울 두산초등학교 운동장
예산액 : 23,600천원

- 금천구에서 지구촌 카니발을!!! 금빛공원 9월 문화공연
일 시 : 2006. 9. 15(금) 19:39- 21:30
장 소 : 금빛공원 야외마당
예산액 : 21,600천원

- 우리 춤, 우리가락이 어우러진 문화한마당
일 시 : 2006. 10. 10(화)
장 소 : 문화체육센터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현재 금천구 여성복지전문상담소 상담원은 순수 실비 교통비와 식비만 받으면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처음 개소할 때에는 내방민원과 전화상담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찾아가는 상담 형태로 확대 되면서 상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 물론 자원봉사 형태로 공개 모집 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하여 전문교육을 분야별로 교육 이수토록 하고 지급되는 수당 역시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은 당사자의 상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까지 함께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취업, 창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8) 영등포구 -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만들기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국제결혼으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간 갈등야기, 가족해체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형태, 내용, 가족구성원의 시각, 사회에 형성된 담론들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결혼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영등포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목표로 모두가 평등하고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만들기는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조사,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영등포구는 타자치구보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을 펼친 바 있다. 국제화·세계화 조류에 발맞추어 다문화주의의 확산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바 이에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와 함께 나아가는 열린 사회,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증진과 한국문화이해를 돕기 위한 '열린 한글교실'은 초급반과 중급반 2개반으로 편성, 주3회 총20강 수업이 진행됐다. 한국어교육은 단지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지체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연동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자조집단 체계 구성과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멘토링 체계 구축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체험 가족나들이를 통해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체험 및 가족애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추석상차림 음식만들기, 결혼이민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구현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알뜰장터 개장 등 한국 및 지역사회에의 원만한 적응을 돕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20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을 펼친 바 있는 영등포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문화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만들기'를 선정, 10월 현재는 '영등포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자치구단위에서 진행 중인 바 이를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편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성화할 것임.

• 사업실행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통합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구가 선정한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의 필요성은 절실했다. 그러나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가 협소하여 추경예산확보에 목표를 두고 일정을 맞춰가며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초기단계에 하반기 추경예산확보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비예산 위주, 하반기에는 예산 위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다행히 결혼이민자지원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표명, 사업의 필요성 등을 호소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산의 규모는 총 30,403,830원으로 일반회계, 사회단체기금, 단체기부채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열린 한글교실'은 결혼이민자들의 호응으로 잘 운영되었으며 10월 11일 작품전시, 수료증 전달, 종강파티 등 수료식까지 끝마쳤다. 9월에 진행되었던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와 결혼이민자들의 멘토링 결연식 이후 '사랑나눔 알뜰장터', '전통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 함께 참여하였고 멘토-멘티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등포구 여성 홈페이지 내 결혼이민자정보마당 메뉴를 신설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 관련자료나 새소식 등을 게재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앞으로 이야기 나눔방 메뉴도 신설, 활성화하여 결혼이민자들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자치단체 단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조사 용역 · 시행중이며 10월말 경 정책제안대시 등 포럼을 앞두고 있다. 이는 우리구 향후 정책수립시 반영할 부분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자세한 사업집행내역은 수범사례F-2 결과보고서 파란내지에 표로 작성되어 있음.

◈ 성과

• 사업의 성과

○ 국적미취득자(체류자격F-2-1) 현황파악
-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결혼이민자들의 현황이 중요한 바 민원여권과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현황파악.

○ '영등포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를 용역, 시행중
- 당초 계획수립 이후에 7월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경 포럼을 개최할 예정.
자치구단위 최초로 시행하는 이 연구조사는 결혼이민자들의 need파악 및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07년도 영등포구 결혼이민자지원 사업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등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것.

○ 한국어교육
-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본즐기이자 자녀의 교육과 깊은 연관이므로 중요함. 결혼이민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음.

○ '어울림 한마당', '추석상차림 음식만들기', '자조집단모임', '멘토링 결연', '사랑나눔 알뜰장터' 등
-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와 국적을 떠나 한자리 모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 심리사회적 지지기반을 갖게 된 점(인적네트워크의 구축)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의 한계
- 집합교육의 한계 : 시간, 거리, 교육시간 중 탁아문제
  => 결혼이민자들의 인터넷 사용율이나 온라인교육수요조사를 통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에 대한 검토
- 홍보 및 참여 : 도시적 익명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신분 불안 등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점이 쉽지 않음.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도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방법을 보완·강구해 나가야 한다.

○ 향후계획
- 2007 '열린 한글교실' + 무료탁아방 운영
  : 결혼이민자들의 참여율 제고 및 교육참여의 효율성 증대
- 정보화교육, 한국음식만들기 등 2~3개월과정의 교육프로그램
  : 인권 및 국적취득과 관련한 상담방 운영 등 신규 프로그램과 2006년 추진한 지 - 가족프로그램
  :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배우자 나라 생활언어 배우기 등
- 문화체험프로그램
  : 고궁나들이, 음악축제참가, 한국문화체험관련박물관 등
- 결혼이민자 자녀 공부방 운영 등
  2006년 결혼이민자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9) 강남구 -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활성화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목 적

강남구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은 강남구를 대표하는 여성복지정책의 중심기관으로, 지역주민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학습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의 능력함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여성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함. 아울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성인교육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함.

□ 목 표

1. 여성에 대한 멘토(Montor)역할 수행 ⇒ 자아실현기회 제공 · 전문인양성
2. 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 1시설 1대표 프로그램

□ 독창성 - '여성의 전문화-Woman 2006', '소외된 이웃사랑'

<강남구 여성센터>

○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모임 활동 : 보람을 찾는 영어사절단, 사랑依 옷만들기, Amour(기타부)등 8개단체의 동아리들이 자원봉사자 모임을 결성하여 통역봉사, 장애인시설 빵 전달, 어르신께 사랑依 만들어드리기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강남구 여성열전 : 두려움없는 선택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
"희망으로 기억되는 강남여성"

○ 평생학습인상 제정 및 시상, 한글사랑운동전개

<생활문화교실>

○ 주민을 위한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밑반찬 자원봉사 및 이웃사랑 실천-*신사논현생활문화교실*
매월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을 위하여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

○ 지리적,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세곡동생활문화교실*
나이어린 자녀세대와 농가세대 밀집지역의 특성에 맞고,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 등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및 내용

○ 추진배경 (기획의도 및 본 사업 선별이유)

강남구를 대표하는 여성복지정책의 중심기관인 여성센터와 생활문화교실의 활성화를 통해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업알선, 자원봉사 연계 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강남구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전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기에 본 사업을 선정함.

○ 사업개요(주요사업 및 구체적 사업내용)

- 지주민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
-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 여성 및 가정문제의 상담·지도, 여성자원봉사활동 및 취업알선
- 기타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사업선정의 기본방향

1. '여성의 전문화 - Woman 2006'

○ 2006년 '여성의 전문화'라는 주제로 정보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 가정뿐만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전문성 신장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방법을 제시

○ 강남구를 대표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 기존의 정규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

2.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사업 강화

○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학습욕구 충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정보교류, 관계증진에 기여

○ 상호이해활동을 통한 각 기관 실무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강화

3. 교육서비스 수준향상

○ 강남구를 대표하는 성인 교육기관으로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공기관의 이미지를 탈피,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4. 홍보방안

○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실정에 맞는 맞춤 홍보를 진행,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

○ 봉사자, 홍보대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기획, 개발 등에 주력 할 수 있도록 노력

○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 교실의 프로그램 및 사업성과등을 강남까치소식, 인터넷방송,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

○ 평생학습 축제 참여, 다양한 워크샵 참석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사업 전파

• 사업실행

□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계	구 보조금지원			자체예상수입			비고
		계	인건비	강사료	계	수강료	이월금등	
계	1,066,766	502,386	273,906	228,480	564,380	461,360	103,020	
여성센터	520,756	218,756	124,676	94,080	302,000	215,000	87,000	
신사 · 논현1	268,899	154,879	87,679	67,200	114,020	100,000	14,020	
세곡동	277,111	128,751	61,551	67,200	148,360	146,360	2,000	

□ 예산의 확보 방법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및 사회복지관 시비 사업계획 지침에 의거 지원
○ 강사료 : 40%지원
○ 운영비 : 수강료수입 등 수입으로 자체운영비 충당

□ 사업진행사항

○ 여성인적자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
  - 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연수 참여
  - 올바른 여성상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조사 활동 및 연구
○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
  -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 어학관련 여성인력 발굴 및 파견
  - 동아리지도자 교육
  - '열린사랑방'기획 및 사랑방지기 발굴
  - 자격증 강좌 개설
  - 여성직업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개발 프로그램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지속적인 재테크 강좌 개설
○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특화 사업
  - 올바른 부모 교육을 위한 무료특강
  - '가족'을 주제로한 영화시리즈 상영
  - 가족건강을 위한 이불관리 요령 특강
○ 수범사업
  - 평생학습인상 제정
  -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기금 제정 및 기금마련 사업
  - 한글사랑운동전개
○ 기타사업
  - 홈페이지 개편 및 확충 운영
  - 이용자 만족도 조사(방법:전화인터뷰)
  - 반대표회의 실시

• 사업의 성과

□ 사업의 성과

○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운영은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강좌 관계자의 정보교환 및 워크샵 개최, 프로그램 서포터즈 활용, 철저한 강사관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

○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개설로 주민 복지증진기여

○ 작품전시회, 각종 동아리 활동등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

□ 목표 및 목표달성정도

○ 목표

- 여성에 대한 멘토(Mentor)역할 수행 ⇒ 자아실현기회 제공 · 전문인양성
- 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 1시설 1대표 프로그램

○ 목표달성 정도

시설명	강남구여성센터 (구인회관, 청담분원)	신사 · 논현생활문화교실	세곡동생활문화교실
대표 프로그램	1인 1자격증 갖기	여가활동 및 지도자양성	농촌여성지원
주요 프로그램	· 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 프로그램이수후 학습동아리 결성하여 봉사활동 전개 · 자격증취득(조리사, 컴퓨터)	· 여성 · 노인일자리주선 프로그램 운영 · 여가활동을 통한 좋은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중점운영	· 농촌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과 연계하여 운영 · 농번기 일손지원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발굴실적 (자격증 취득현황)	- 국제공인MOS마스터: 66명 - 한식조리기능사: 7명 - 포장코디네이터: 3명 - 하훼장식지기능사: 3명 - 리본아트전문가: 2명 - 실버크리에이션지도자: 13명 - 중식,양식조리기능사: 9명	- 한식조리사 : 15명 - 화훼기능사 : 5명 - 전문베이비시터양성 : 14명(취업: 2명)	· 디지털 영상편집 : 인터넷동영상 파일을 제작, 농산물홍보등에 활용 ·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예쁜 손글씨 전문가 양성
교육과목 및 수강 인원 ('05)	· 345개 프로그램/7,588명	· 249개 프로그램/7,925명	· 339개 프로그램/4,503명
'06 예산	218,756천원	154,879천원	128,751천원
이용인원	연17,300여명	연8,400여명	연11,000여명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의 한계

○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학습프로그램 미흡

○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되고 진행중인 프로그램 관리에 치중

○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 기회 부족

□ 개선방안

○ 프로그램 관리보다 새로운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필요

○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로 전문화 및 특성화 추구

- 여성의 권익신장 및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 중점 운영

○ 여성능력, 지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외부전문가 초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확보

- 1시설 1대표 특화프로그램 개발 : "브랜드 프로젝트"추진

○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기능강화 및 수준 향상

- 점차적 사회문화교육 축소 및 기술교육과정 확대

○ 수료생 취업률 향상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연계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취업알선기능 강화

○ 교육서비스 수준향상 : 프로그램개발·운영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례화

○ 「여성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등 홍보활동 강화

○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 기틀 마련

○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10) 강동구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행복한 가족만들기』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강동구의 경우 외국인 결혼여성이 9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들은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우리구에서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를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리문화의 충분한 이해를 통한 행복한 강동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시키고자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교육기간 : 2006. 9월 ~ 2006. 11월(3개월) - 매주 수요일 14:00~16:00
□ 장　　소 :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교육장(농협 로데오지점 3층)
□ 대　　상 : 강동구 관내 여성 결혼이민자 30명
□ 교 육 비 : 무료
□ 운영방법 : 구에서 직접 운영
□ 교육내용

가. 한국어교육

○ 자치센터의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수요에 따라 한국어교실 별도 운영

나. 생활교육 및 상담사업 -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하여

○ 체험학습 : 한국문화 이해하기, 한복입기, 명절문화, 한식조리 등
○ 문화관람 : 우리구(서울시)문화유적 등 견학, 문화공연 초대 등
○ 개인상담 : 구민회관 여성복지상담실 활용

다. 모성보호 사업

○ 이민 여성들의 출산, 육아, 건강검진 등의 기본적 정보제공- 보건소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사업의 선정을 위해 각 종 언론 매체를 통해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 - 전북장수군,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

그 결과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는 데는 체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리란 판단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별도 한글반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별개로 문화체험, 검강검진, 노래교실, 요리교실, 동사무소 등 관공서 방문의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선정

- 지역신문, 케이블 방송, 강동구 소식지, 현수막 게첨 및 개별 홍보문 발송
- 대상자 명단은 민원봉사과 외국인업무 담당 및 호적업무 담당 협조

• 사업실행

□ 예산규모(내역) - 연계사업포함예산 27,250천원)
- 본 사업예산 7,750천원 (한가위어울마당:16,000천원, 한국어강좌 3,500천원)
▶강사료
- 200,000원 × 12회 = 2,400,0000원
- 통역자원봉사자 : 5,000원×5명×12회= 300,000
▶문화유적 및 주요시설 견학(자녀, 자원봉사자 등)
- 30,000원×80명 = 2,400,000원
▶홍보물 제작 - 500,000원
▶현수막제작 20,000원×5개= 100,000원
▶재료비 : 20,000원×30명 = 600,000원
▶일반운영비(문구류 등 기타 경비) : 500,000원
▶여성결혼이민자 프로그램운영- 500,000원
▶수료생간담회 5,000원×30명 = 150,000원

□ 예산확보방법 : 2006 추경에 반영 확보

□ 집행내역 및 사업진행사항
- 교육진행 후 강사료지급
· 예절교육(강사료- 한복대여료 포함)
· 다도익히기(강사료 - 다기대여, 간식비 포함)
· 노래교실(강사료-선호곡 CD포함)
· 요리교실(강사료-재료비 포함)

◈ 성과

• 사업의 성과

○ 낯선 환경이지만 행복한 꿈을 갖고 온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제시

○ 의사소통이 어려운 한국의 가족들과 생활하다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동일국 출신의 친구들을 만나 고국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을 달래는데 도움을 줌

○ 노래교실은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됨

○ 시어머니, 자녀, 남편과 함께 참여하여 가족애를 느끼는 계기 마련

○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및 mbc방송국의 관심어린 취재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국내 대학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국가 정책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향후 추진 사업
-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친정부모 및 언니 만들기)
- 동일국 출신 여성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응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교환
- 여성 결혼 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추진
- 취업교실, 정보화 교육, 자녀를 위한 보육정보 제공 등 한국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상담,통역 등)
- 노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 알선 등

2. 양성평등달성

1) 중구 - 남녀가 화합하는 양성평등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발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적인 여성관과 성 역할에 대한 의식변화 및 사회 저변의 양성평등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 초청 강좌를 실시, 성 평등의식 제고 및 여성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부부간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경제권, 재산처분, 혼인중 재산분할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배부, 부부평등, 성평등 등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 제11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발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적인 여성관과 성 역할에 대한 의식 변화 및 사회저변의 양성평등 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일　　시 : 2006. 7. 21(금) 14:00 ~ 16:00
- 장　　소 : 중구청 7층 대강당
- 참가인원 : 구민 300여명
- 초청강사 : 장 성 자(현 남서울대 객원교수)
- 강의내용 :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여성주간에 맞춰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고 중구소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부의 협조로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해" 라는 홍보책자와 맞는 강좌와 강사를 섭외,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여성강좌를 개최함.

• 사업실행

○ 여성주간과 관련한 여성강좌등의 행사를 위해
- 예 산 액 : 3,800천원
- 확보방법 : 매년 가정복지관련 사업 예산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
- 집행내역 : 강사료, 프래카드 등 행사소요물품비 등
- 사업진행사항 : 구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생조직체 월례회등을 통한 홍보로 2006. 7. 21(금) 14:00~ 16:00,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일반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강좌 실시

◈ 성과

• 사업의 성과

○ 여성발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 주민들의 이해와 호응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부부간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경제권, 재산처분, 혼인 중 재산분할 등 또한 알기 쉽게 만화로 설명한 책자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목표달성

- 양성평등에 관해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미비하였고 사업내용 또한 강좌에 치우친 면인 있어 목표달성이 미약함.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문제점

- 유명강사 섭외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여성주간행사를 강좌에 그치지 않고 중구소재 충무아트홀을 통한 문화공연 관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양성평등프로그램 개발, 가정폭력관련 및 성폭력관련상담소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책자배부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전개로 보다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2) 동대문구 -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제11회 여성주간(2006.7.1~7.7)을 맞이하여 우리 구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제14조(여성주간) 및 동법시행령제26조(여성주간행사)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제6조(여성주간행사)

□ 추진방향

○ 날이 갈수록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여성주간을 통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여성주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가정주부로서, 직장인 또는 봉사자로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육행사를 가짐으로써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 나아가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추구하는 실현의 계기 마련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매년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동대문구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함 으로써 동대문구 여성단체연합회 및 여성 등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지속적으로 체육대회를 실시 및 타 구와 좀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순수한 여성들만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좁은 공간이 아닌 넓은 공 간에서 경기와 응원을 통하여 한마음이 되고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음.
○ 전년도에 실시한 동대문구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결과를 분석 후 새로 운 방식의 경기 종목 및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였음
○ 관련사업에 경험과 수행능력이 우수한 전문 업체를 선정 후 기획과 이벤트행사, 경기 운영방안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주민 등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 현수막 게첨과 각 동사무소 및 동대문구 소식지, 언론매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음

• 사업실행

□ 예산규모 및 확보방법
○ 소요예산 : 16,935,350원
○ 확보방법 : 2006년 예산에 반영

□ 집행내역
○ 행사위탁 : 6,980,000원
- 이벤트 행사 및 경기진행, 경기용품 준비 등 전반
- 홍보물 제작(현수막 제작)
○ 각 선수단 유니폼 및 행사비용 지원 : 6,160,000원
- 26개동사무소 여성단체연합회 2개팀
○ 홍보물 제작 : 550,000원
- 초청장 및 리플릿
○ 시상품 및 경품 : 2,200,000원
○ 기타 동대문체육과 대관비 등 : 545,350원
○ 기타 준비비용 :500,000원

□ 사업진행사항
○ 선수단 선발 : 28개 팀
- 각 동사무소 및 동대문구 여성단체연합회에 선수단 구성 요청
○ 체육대회 실시 전 여성주간 기념식 및 유공단체 여성지도자 등에게 표창
○ 두드락 공연단의 식전행사 실시
○ 선수단 옴풀기 체조
○ 체육대회(본 경기) 실시
- 경기종목 : 에드벌룬 굴리기 등 8개 종목
- 기타행사 : 각 동사무소, 여성단체연합회 응원전 및 행운권 추첨 등
- 경기 종료 후 시상식 실시
· 대상 등 12개 팀에게 상패(트로피)수여

◆ 성과

• 사업의 성과

□ 사업의 성과 및 달성도

○ 동대문구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전에 실시한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단체, 여성(지도자)등에게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주간의 의미를 많은 여성 등에게 다시 한번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사 전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면을 대변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두드락 공연팀의 강렬한 리듬과 시원하고 웅장한 식전행사 공연으로 선수단 및 응 원단이 일체감과 분위기를 고조시켜 축제의 한마당으로 이끌었으며 또한, 순수한 여성들만의 행사로 경기와 응원을 통한 하나되고 단합된 마음을 형성 뜨거운 열기 속에 여성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성한마음 체육 대회를 매년 실시할 때마다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음

○ 아울러 순수한 여성들만의 행사로서 넓은 공간에서 많은 여성(800여명)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응원과 경기를 통하여 한 마음 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 구와 차별화된 행사가 되었음

○ 동대문구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기획에서 진행까지 원활하고 호응도 높게 추진되었음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한정된 예산으로 대규모 행사를 치루다 보니 참여한 여성 등에게 보다 다양한 행사 및 볼거리(축하공연 등)를 보여주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으며, 행사장소(체육관)의 사정상(수용인원) 좀더 많은 여성 등이 참가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였음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상시제한)으로 인한 먹을거리,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없는 등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이 있었음

□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여성주간 및 동대문구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참여한 여성 등에게 볼거리에 대한 욕구충족 및 원활한 사업(행사) 추진

○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등에게 유니폼구입 비용 등 적정 행사비 지원 사기 진작 방안 강구

○ 선거법 저촉여부 사전검토 후 관내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협찬한 물품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좀더 낳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양한 경기방식 및 운영방안 등을 강구

3) 도봉구 - 하하호호 가족사진 콘테스트

◆ 기획단계 (사업수립)

• 목적

○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벗어나 가족과 지역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 필요
○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
○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테마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김
○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성평등한 공감대 형성
○ 생활 속의 양성평등 문화 실천현장과 가족간 화목하고 행복한 순간을 렌즈에 담는 대회를 개최하여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추진배경
○ 주 5일 근무로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원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부족
○ 기존의 여성위주의 대회를 탈피하여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는 계기 확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6. 6. 1 ~ 6. 24
○ 참여부문 : 양성평등 공모 부문, 화목가정 현장사진 부문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시　　상 : 각 부문 최우수상 1명 외 16명

□ 세부추진내용
○ 양성평등부문 사진공모
- 접수기간 : 2006. 6. 1~6. 15
- 참가자격 : 누구나(2인 이상 가족)
- 참가방법 : 아날로그 및 디지털사진 부문 중 선택 제출
- 내　　용 :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가족구성원이 모여 찍은 사진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도봉구청 홈페이지 사진 업로드

○ 화목가정부문 현장사진공모
- 일　　시 : 2006. 6. 24(토) 18:00~19:30
- 장　　소 : 방학사계공원
- 참가자격 : 누구나(2인 이상 가족)
- 내　　용 : 가족구성원간 활기차고 화목한 모습의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에서 촬영하여 제출
- 제출방법 : 메모리스틱에 담아 현장 제출 및 인터넷 업로드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추진경위
○ 가족이 모두 참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 : '05. 8월
○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 : '05. 9월
  - 설문기간 : 2005. 9. 5 ~ 9. 7 (3일간)
  - 설문내용 : 가정내 양성평등 실천내용 및 정도, 참여 프로그램등 조사
○ 가정내 양성평등문화 [프로그램 운영 소모임], 회의개최

□ 홍 보
○ 구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창 게재 협조요청
○ 관련부서 지역방송 및 보도자료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
○ 전국 시군구에 행사 홍보에 대한 협조

• 사업실행

□ 소요예산
○ 예 산 액 : 6,330천원
○ 예산과목
  -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집행내역 : 6,330천원
○ 플래카드 구매 : 80,400원
○ 행사관계자 중식비, 생수 지급 : 225,090원
○ 심사위원 심사료 지급 : 200,000원
○ 행사비용 : 2,300,000원
○ 수상자 시상금 : 1,700,000원
○ 수상자 상장 제작 : 158,100원
○ 가족사진 인화 및 액자 제작 : 790,000원

□ 심사방법
○ 심사위원 : 2명 위촉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기준, 항목별로 점수 부여
  - 심사위원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결정
  - 동점일 경우는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 순으로

◆ 성과

• 사업의 성과

□ 추진실적

○ 사진접수현황

- 양성평등부문 : 49점
- 화목가정 현장사진부문 : 35점

□ 시상내용

○ 시 상 식 : 2006. 7. 4(화) 14:00

○ 시상내역

- 최우수상(각 1점씩) :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우 수 상(각 1점씩) :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장 려 상(각 7점씩) :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 부문별 수상작

- 양성평등부문 : 최우수상<청소는 즐거워>외 8점
- 화목가정 현장사진 부문 : 최우수상<너무 좋아요>외 8점

□ 작품전시 : 도봉평등걷기 행사(2006.7.8 15:00~)시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문 제 점

○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사진자료 공모 및 홍보협조에 어려움이 따름

○ 참가자들에게 '양성평등'의 의미를 인지시키는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음

○ 화목가정 현장사진 참여부문은 참가자들의 참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로 선정하여 참여부문이 저조했음

□ 개선방안

○ 관내 학교 사진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진 공모전 실시

○ 양성평등부문 사진공모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알림으로써 다양한 사진제출 유도

○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선정 및 적극적인 홍보

4) 노원구 - 좋은 엄마만들기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여성의 사회진출 및 자기개발 등에 가장 큰 장애물인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출산과 더불어 나누고자하며 엄마들의 소그룹 모임을 통한 부모교육, 육아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내에서 미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협동하는 가족간의 양성평등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의 개요
-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가족내 여성의 가치 향상을 위해 산전·산후 검사, 이유식교실, 임신부체조 등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지원

○ 기획의도
- 여성의 사회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인 출산문제와 관련하여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가족내 육아문제의 부모간 양성평등 달성을 위함

○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영아들의 하루 4만여명이 사망하고 우리나라는 1년에 3만명의 영아 사망과 신생아 백명중 2명꼴로 기형아 출산이 늘고있는 현실의 해결책 필요
- 우리나라 제왕절개수술이 38.1%로 WHO 기준 10%, 미국의 27.6%보다 높아 여성들의 건강과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핵가족화로 인한 임신과 출산, 육아과정에서의 남편의 육아에 대한 교육 필요 성 중대

○ 사업의 내용
-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검진, 구강관리, 엄마·아빠 신생아 교육, 모유수유, 임신부체조, 라마즈 분만법, 베이비요가, 이유식 교실등을 운영
- 직장여성을 위한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 사업선정사유 : 여성의 가정내 가사 및 육아와 관련하여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가정내 육아의 부모 공동의 책임을 인식케하여 가정내 남녀평등을 달성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여성의 자기개발 시간의 확대 및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일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와 관련하여 좋은 엄마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였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과 직장여성을 위한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직장여성을 위한 모성건강관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등을 실시하여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실행

○ 예산액 : 5,666,000원

○ 확보방안 : 구비 100%

○ 집행내역 : 3,585,000원
- 임신부 교육 : 2,119,000원
- 베이비 요가 맛사지 : 150,000원
- 이유식 교실 : 816,000원
- 쌍둥이 엄마 교육 : 500,000원

○ 사업진행사항
- 임신부 교육은 06.4.10~4.17 (2일간)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486명
  2006.10.19~10.26 임신부 교육 예정이며, 각종 언론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베이비 요가 맛사지는 06.5.12에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68명
- 이유식 교실은 06.4월부터 9월까지 3회 운영하여 103명이 참여함
- 쌍둥이 엄마 모임은 2006.8.22에 1회 운영하여 쌍둥이 엄마 30명과 자녀 40명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말까지는 노원구의 쌍둥이 엄마 95%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정

◈ 성과

• 사업의 성과

오늘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신과 육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좋은 엄마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사을 통하여 노원구 소재 임신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교류 등에 있어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였으며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임신부 57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등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수 있다. 임신부 교육, 베이비 요사 맛사지, 이유식교실, 쌍둥이 엄마 모임 및 직장 임신부 여성의 날 운영을 통하여 여성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다. 현재 여성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지원을 통하여 가족내에서의 육아관련 양성평등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이 실행되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문제에서 해방되어 보다 나은 사회진출 및 자기개발에 치중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리라 본다.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좋은 엄마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았으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별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남성들이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은 직장문제와 전통적인 시각에서 임신은 여성의 문제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점이라 본다. 또한 가정주부들은 참여율이 높지만 직장여성들의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홍보의 부족도 있지만 직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되어진다.

향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시에는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운영을 확대하여 전통적인 남성의 시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임신과 육아에 있어서 남성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직장여성들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5) 마포구 - 여성주간행사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일반인에게 아직까지는 낯선 여성주간을 구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접할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여성주간 기념식 후 남녀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아줌마 닷 컴" 공연과 관내 여류작가들의 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양화전을 준비하였으며, 요즘 가장 관심사인 경제부분의 직업설계교육 및 유망직업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 사업개요 및 내용

○ 제11회 여성주간기념식과 "아줌마 닷 컴" 공연
- 일 시 : 2006. 7. 6 17:30 - 19:30
- 장 소 : 마포문화센터 대공연장
- 내 용 : 여성발전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구청장의 기념인사 후 이어지는 "아줌마 닷 컴"공연은 30대에서 50대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극으로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이 시대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들여 주고자 했음

○ 직업설계교육 및 유망직업세미나
- 일 시 : 2006. 7. 6 - 7. 7 13:00 - 16:00
- 장 소 : 마포문화센터 소강당
- 내 용 : 결혼, 출산 보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및 가정에서 전업주부로만 생활하던 여성들에게 직업의식 및 경제의식을 고취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업을 찾아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세미나를 준비하였음.

○ 여류작가 초대전
- 일 시 : 2006. 7. 7 - 7. 14
- 장 소 : 마포문화센터 전시실
- 내 용 : 여류작가 8인으로 구성되어 마련된 서양화전으로 복잡하고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솔루션으로 문화가 트랜드인 만큼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였음.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아줌마 닷 컴"공연은 전년도에 극단에서 발송한 홍보물을 통해 연극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그 해 가을 예산편성 시부터 공연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음.

또한 직업설계교육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직업전문교육을 계기로 이를 많이 홍보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했으며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여류작가전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작가들이 주로 인사동 등과 같이 갤러리 밀집지역에서 주로 전시회를 갖는 것을 우리구의 문화센터에서 전시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음.

• 사업실행

○ 여성주간 기념식과 "아줌마 닷 컴" 공연
○ 직업설계교육 및 유망직업세미나
○ 여류작가 초대전

총 예산규모는 1,900만원으로 전액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

집행내역은 여성발전유공자 상패제작 100만원

"아줌마 닷 컴" 공연비	280만원
세미나 강사료	160만원
세미나 책자 제작	100만원
전시회 도록 제작	500만원
홍보물 제작	200만원
기타 행사추진비	50만원
집행총액	1,390만원

금년도부터 바뀐 선거법에 의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장애가 있었음.

선거기간에만 선거법이 적용되던 것이 변경된 선거법에서는 상시 적용이 되어 유공자 표창 시에도 부상을 줄 수 없고, 행사에 책자 발간에도 구청장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갈 수 없으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념품이나 다과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술전시회의 오픈식 날의 다과는 참여 작가분들이 준비하여 마련되었으며, 유망직업세미나의 진행은 우리구 여성직업교육을 위탁진행하는 (사)여성자원금고에서 맡아서 해주셨으며, 세미나 후 설문조사에 까지 응하여 준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줄 수 없어 아쉬운 감이 있었다.

◆ 성과

• 사업의 성과

○ 여성주간 기념식과 "아줌마 닷 컴" 공연

기념식에서 10명의 여성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이어진 공연으로 행사에 초대된 관객이 함께 연극에 참여하여 공연을 이끌어 감으로써 능동적으로 행사에 같이 동요되어 일반 공연장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봄

○ 직업설계교육 및 유망직업세미나

30대에서 60대 전업주부로서만 생활하였던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력을 가진 "당당한 여성되기"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유망직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나눔으로써 '내 직업은 내가 만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봄.

○ 여류작가 초대전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서 그림전시회를 접하게 함으로써 할머니, 어린아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서 전시회장의 미비점이나 그림에 대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 작가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여성주간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가장 힘들었음.

초청장 발송, 관내 현수막 게첨,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포스터 부착, 마포구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지만, 예상보다는 참여자 수가 적었음. 행사규모가 자치구 전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행사가 아닌 가정복지과 주관행사로 여겨져 타 부서나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예산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실시되는 구민 문화행사 등의 예산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마포구 주민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서부터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주간기념식을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남녀평등의식을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임.

6) 구로구 - 양성평등 문화조성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등 양성평등적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구체적인 문화사업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기획의도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전반에 양성평등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

□ 추진방향

○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대
○ 양성평등 문화정책 이해
○ 젠더 파트더쉽 형성
○ 가족과 직장, 사회전반의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천 능력 함양

□ 추진배경

구로구는 전통적으로는 구로공단과 현재는 벤처단지 지역으로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가족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따라서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함께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 결정을 분담하는 가정일 것임. 이에 건강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욕구가 발생함.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제 11회 여성주간 행사 추진
○ 양성평등 캠페인 및 서명운동
○ 시민 양성평등 강좌 운영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사업
  - 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축제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벼룩시장 페스티벌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 서울시 여성학 강좌 운영
○ 관련부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가족봉사단 운영
  -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 2일 휴무제 실시에 따른 주말 가족 프로그램 운영
  -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 걷기 대회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사랑의 새집 달기
  -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체험 교육
  - 구립 합창단 정기 연주회

• 사업실행

연번	사 업 명	계획수립	사업물량	소요예산
1	가족봉사단 구성 운영계획	2006. 2. 7	21팀 78명	-
2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2006. 8.11	2회실시	-
3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구로벼룩시장 페스티벌	2006. 9.15	1,000명	6,548,000
4	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축제	2006. 9. 5	3,000명	10,000,000
5	여성학 강좌운영	2006. 4. 3	7개기관 12강좌	시예산
6	제11회 여성주간 행사	2006. 6.13	10개사업	13,419,000
7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사랑의 새집 달기	2006. 2. 2	500명	2,370,000
8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체험 교육	2006. 6.12	475명	18,700,000
9	가족건강 걷기대회	2006. 8.23	1,800명	-
10	주2일 휴무제 실시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토요별난학교외)	2006. 2.10	19개 동사무소 400명	-
11	구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2005.12. 6	-	12,800,000
12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2005.12	2개 동사무소	-
13	양성평등 캠페인 및 서명운동	2006. 9.29 2006.10. 2	3회 1,600명	-
14	시민양성평등 강좌운영	-	8강좌	1,150,000

◆ 성과

• 사업의 성과

14개의 단위사업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가족이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완성함. 특히 가족봉사단 운영과 19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주말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가족문화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양성평등 캠페인 및 서명운동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명절문화에 대한 양성평등적인 관점이 잘 나타나도록 3회에 걸쳐 1,6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양성평등에 대한 폭넓은 참여와 이해를 높였다는데 큰 성공을 거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은 성매매 안하기,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등 매달 주제를 가지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계속 확대 시켜 나갈 예정임. 시민 양성평등 교육은 총 8회를 관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강사료를 지급함.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여성주간의 의미를 널리 알려 행사의 효과성 및 축제 분위기를 마련함.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행사, 교육,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영역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양성평등 가족문화에 조성에 대한 사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미흡한 점을 분석해 보면 시민양성평등 교육은 8개 강좌를 실시하여 좀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관내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관내 관공서 및 기업체 등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함. 또한 양성평등 캠페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 향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과 더불어 주제를 가진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임. 여성주간 행사에 여성의 권익증진뿐만 아니라 남성도 참여도가 높아야 진정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어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함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행사뿐만 아니라 캠페인, 교육을 확대하고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속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행사계획을 실시해 나가고자 함.

7) 송파구 - 양성평등 전통 성년례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사회 저변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전통문화인 성년례를 통하여 남녀간의 가치관을 재정비하고, 그동안 성년례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여 실시하여 여성을 비하한 측면이 있어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남·여 모두에게 맞는 성년례를 개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전통적으로 성년례는 관혼상제의 하나로 어린아이들이 초경을 치룰 나이가 되면 어른이 되기 전 준비를 시켜주는 전통문화로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에게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좋은 행사라 생각하여 본 행사를 준비함.

2006.07.06(목) 14:00~15:30, 방이동 소재 한국지역사회교육회관 소극장에서 15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하고, 송파구청(가정복지과)에서 후원하였음.

2부로 진행하였는데 1부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김주선 강사가 여성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 역할의 고정관념 깨기, 양성평등의 필요 알기,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세계적 경향에 대하여 강의하였음.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송파구 각 부서 및 사업 위·수탁단체에 여성주간 관련 각 부서 성격과 예산규모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출된 사업중 여성정책 중 양성평등달성에 부합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을 여성정책팀, 가정복지과장의 회의를 통해 선정함.

• 사업실행

본 사업의 예산은 총 2,230,000원으로 (송파)구비 150,000원으로 플래카드를 제작 게첨하고 나머지는 한국지역사회교육원 자체예산으로 실시하였음.

집행내역은 복식대여료(500천원), 진행자 사례비(1,200천원), 장소사용료(230천원), 기타 소모품(300천원)임.

행사내용은 1부 양성평등 성년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주선 사무총장이 강의를 하고, 2부에서 양성평등 성년례 시연을 하였는데, 예절 전문강사 이월희의 진행으로 예절교육전문지도자 12명 및 청소년 2명이 시연을 하였음.

시연은 남성, 여성의 옷입는 방법이 삼가례, 단가례로 구분되있는 전통에서 벗어나 모두 삼가례를 하였고 남성은 술, 여성은 차를 내리는 초례에선 양성 모두 차를 내리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가자례에선 양성 모두에게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어울리는 "자"를 지어주었음.

본 행사의 홍보는 송파소식지(반상회보), 송파구청 홈페이지, T.V 및 일간지에 홍보하고 한국지역사회교육원 회원들에게 공문발송, 홈페이지, 지부에 참석 공문 발송등의 형태로 이루어 졌음.

◆ 성과

• 사업의 성과

우리 고유의 전통 성년례를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하여 거행함으로써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의식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양성평등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참석한 학부모와 예절지도자들에게 양성평등 성년례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각으로 확대 보급하는 기회가 됨.

행소에 우리 가정과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 전통문화의 좋은 점을 되살릴때, 취지는 살리되, 형식은 변화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부모들은 남성과 같이 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해야겠다는 인식과 의지를 갖게 될 것임.

사전 행사진행은 철저한 준비로 행사가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고, 식전 · 후에 부대행사로 실시한 Tea-Art는 참가자들에게 격조있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느끼게 함.

여성주간행사의 역사를 되새기고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참여의 한 방법으로 예절전문자원봉사자의 활동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송파지역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이 많은 예절지도자들이 모여 행사에 동참함.

본 행사는 내용면에서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충분한 홍보(외부 현수막, 홈페이지 등)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기관장, 학교장이 참석하여 우리 문화 보급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행사 중간에 행사의 확대와 수정으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에 애로점이 있었음.

이 사업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청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현재 이루어지는 성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성년례는 대체로 전통 성년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양성평등 성년례"로 변화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행사의 대상을 소외 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 청소년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3. 여성경제 · 사회참여 활동지원

1) 용산구 - 용산여성 아카데미 교육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사업의 목적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취득하여 여성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 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목표

- 전문교육(자격증 대비반) 실시로 여성 취업기능 강화
-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과목 채택
- 지역여성들에게 저렴하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 개요

- 교육 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육 기간 : 2006. 6. 5 ~ 2006. 8. 31(11주, 3개월)
- 교육 대상 : 18세 이상 용산구 거주 여성
- 교육 과목 : 논술 지도사 (30명), 심리상담사 (40명), 노인교육 지도사 (30명)
- 수 강 료 : 2/3 구에서 지원, 1/3 수강자 본인 부담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수업시간)	교육 인원	교육비(단위:천원)			지원자격	비고
			총액	구청(2/3)	본인(1/3)		
논술지도사	10주 (120)	30	480	320	160	전문대졸	
심리상담사	11주 (100)	40	400	267	133	고 졸	
노인교육지도사	11주 (120)	30	540	360	180	고 졸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사업 홍보
- 용산구 소식 홍보 : 100,000부 발생 용산구 가정 배부
-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케이블 TV, 중계유선 홍보
- 안내문(10,700매) 제작 발송
  - 동사무소 : 2,000매(20개동*100매=2,000매)
  - 문화원 및 복지관 : 600매(3개소*200매=600매)
  - 용산구 초등학교 : 3,000매(15개소*200매=3,000매)
  - 어린이 집 : 3,100매(62개소*50매=3,100매)
  - 아파트 관리사무소 : 2,000매(50개소*40매=2,000매)
- 주요간선로 현수막 5개소 게첨 및 작년 수료자 메일 홍보

○ 수강생모집 결과 : 105명(논술지도사 36명, 심리상담사 47명, 노인교육지도사 22명)

• 사업실행

○ 예산액 : 48,000,000원

○ 예산집행 내역 : 33,200,000원
- 수강료 지원 : 31,600,000원
- 수료식 경비 : 1,600,000원

○ 교육기간 단축 (주2회에서 주4회로 변경)
- 2006. 6. 5 ~ 2006. 8. 31(11주, 3개월)→2006. 6. 5 ~ 2006. 7. 30(8주, 2개월)

※ 숙명여자대학 평생교육원의 강의실 배정 곤란 및 수강생 자녀의 방학 문제

○ 수강생 접수 및 등록 현황

과 목	모집인원	인원 현황			비 고
		접수	등록	수강	
논술지도사	30	36	30	27	3명 중도자퇴
심리상담사	40	47	40	40	
노인교육지도사	30	22	21	21	
계	100명	105	91	88	

◆ 성과

• 사업의 성과

○ 용산여성아카데미 96.7% 수료(등록91명, 수료88명)

○ 수료생 만족도 97.33%"가 "만족한다."로 조사

○ 2006년도 자격증 취득현황
- 심리상담사2급 : 36명 응시 36명 합격(취득율 100 %)
- 논술 지도사 및 노인교육 지도사 자격시험 10월 실시 예정
  ※ 2005년도 용산여성 아카데미 합격률 : 92.18% (64명 응시 59명 합격)
- 심리상담사 2급 : 37명 응시 37명 합격(취득율 100%)
- 독서 지도사 : 18명 응시 14명 합격(취득율 77%)
- 노인교육 지도사 : 9 명 응시 8명 합격(취득율 88%)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명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 용산여성아카데미 수료생들 고급교육과정 개설요구
  → 특정 주민만 교육을 지원 할 경우, 타 구민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고급과정의 많은 예산 소요 (심리상담사 1급 경우 1인당 200만원 소요)
- 취업연계 여부 불확실
- 교육기간 너무 짧아 주부들이 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움

○ 개선방향 및 향후계획
- 용산여성아카데미의 교과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 및 예산 확충
- 용산여성아카데미 수료생 설문조사결과 취업32%, 창업4%, 자원봉사 42.67%로 조사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 및 예산에 저소득 가정의 논술 지도 및 상담 인건비를 편성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용산여성아카데미 "2개월 주4회 교육에서 4개월 주2회" 교육기간 변경

2) 성동구 - 창업·취업을 위한 성동여성대학 운영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여성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사회적 참여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등 어려워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창업·취업과 문화적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 의 욕구 충족을 위해 취미반, 창업반, 취업반 등 여성경제 사회참여의 기반조성 및 후원을 위해 여성대학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여성대학, 사회교양대학, 문화대학 등 통합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 써 여성 구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

• 사업개요 및 내용

□ 추진배경

○ 여성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사회적 참여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등 어려워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창업·취업과 문화적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의 욕구 충족을 위해 취미반, 창업반, 취업반 등 여성경제 사회참여의 기반조성 및 후원을 위해 여성대학을 운영추진

□ 추진방향

○ 지역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자기계발 기회제공

○ 여성 수요자의 욕구에 적정히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 저소득 및 실업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부업과 자격취득반, 창업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기타 지역사회 활동영역 개발 확대 지원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06.1~12월

○ 운영장소 : 성동문화회관

○ 운영과목 : 18개 과목 19개반

- 취업을 위한 자격증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반
- 창업을 위한 창업반, 기타 건강생활을 위한 기체조반 등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사업선정
○ 양성평등의 성 인지적 관점의 사회대두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성의 경제적 참여인 점을 감안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구 여성대학에서 운영중인 창업·취업과 문화적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성경제 사회참여의 기반조성 목표에 크게 부합하여 선정 추진

□ 사업선정 홍보
○ 안내문 배부 : 각 동사무소, 여성단체, 관내 아파트등
○ 상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 언론매체 활용 : 성동구 소식지, 지역신문, 일간지, CATV 등
○ 현수막게첨 : 지정게시대 게첨

• 사업실행

□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법
○ 예산의 규모 : 166,292천원
- 인건비 : 50,000천원
- 운영비 : 8,865천원
- 기타대학 운영 : 107,427천원
○ 예산의 확보 : 구 자체 예산편성 지원

□ 예산집행
○ 구민대학운영 : 161,067천원
- 인건비 : 150,000천원
- 기 타 : 11,067천원
○ 구민대학개관 : 5,225천원
- 행사운영비 : 3,125천원
- 개관업무추진 : 2,100천원

□ 사업진행
○ 운영과정 : 년 3기(4개월 과정)
○ 운영과목 : 18개 과목 19개반
○ 교육인원 : 1,710명
- 30명×19개반×3기 = 1,710명

◈ 성과

• 사업의 성과

□ 사업성과

○ 제 87기 성동여성대학 수료
- 일　　시 : 2006.1.25(수)
- 수료인원 : 310명
  - 자격취득(90명), 꽃집창업(9명), 기타취미 등(211명)

※ 자격취득 및 창업 수료자들이 취직 및 창업을 위해 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區 에서도 적극 지원 예정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창업 · 취업을 위한 여성대학 강좌 확대 운영
-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대학에서 운영중인 과목을 취업 · 창업을 포함 대폭 확대운영
- 여성대학 수료자들이 취업 · 창업을 원할 때는 취업정보은행이나 중소기업지원기금 등을 활용 적극 지원.

○ 여성대학의 활성화 추진
- 여성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 각자 운영중이던 프로그램을 성동구민대학으로 통합하여 교육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어 구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물론 평생교육과 문화서비스 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광진구 - 광진경제활성화를 위한 『성공창업강좌』 개최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창업시장을 분석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중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향후 사업운영 및 창업의욕 고취로 최적의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창출 도모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 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14:00 ~ 18:00(4시간)
○ 장　　소 : 광진구청 대강당(제1별관 3층)
○ 참석인원 : 약 150명
○ 개최방법 : (주)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개최
○ 주관·후원 : 한국실행창업센터 및 산업자원부

□ 행사내용

○ 최근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신규 일자리는 물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창업을 하여도 경험과 정보, 자금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실패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강좌내용
  -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한 실전 창업 11단계
  - 다양한 상권분석 사례 소개로 창업시장 이해
  - 창업교육, 상담등 다양한 창업서비스 및 정보 제공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창업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창업정보가 제공되고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무료창업컨설팅 및 창업교육참가 기회제공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이론 무장

○ 창업을 하고자 하여도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 대출상담 및 정부기관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담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2천만원~5천만원) 대출서비스

○ 자영업자의 점포 경영과 관련된 문제점 상담 및 무료교육

• 사업실행

○ 한국경제신문 『사고』를 통한 홍보 - 9월 25일
⇒ 매주 월요일 및 http://www.hankyung.com 공지사항

○ 관내 주요지점 현수막 게첨 : 5개소

○ 구 홈페이지(Pop-up) 및 광진구청인터넷방송국을 통한 홍보

○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등에 보도자료 배포

○ 9월 아차산메아리 및 벼룩신문 등에 홍보 안내

○ 광진구상공회 행사 안내문 발송

○ 동사무소 및 창업지원센터 등에 포스터 게첨

○ 취업 안내 창구 및 민원실 등에 홍보물 비치

○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음용수 아리수 비치

◆ 성과

• 사업의 성과

○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에 대한 자신감 획득하고 단계적 교육과 상담등을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

○ 12시간의 창업교육 이수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심사를 통한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 자영업자들에게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자금 지원등 정보제공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 참석인원 목표인 150명 이상이 참석함으로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과 실제로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한 구민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여성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창업은 자기자본 전제하에 창업자금을 대출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 성공할 확률이 있으나 자기자본 없이 대출만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인한 자금압박 등 경영난으로 실제로 성공창업이 어려움

○ 그러므로 자기자본이 없는 예비창업자는 창업교육을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준비된 창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4) 성북구 - "사랑의 바느질 집" 창업을 위한 의류수선전문가 양성스쿨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전반적 소득 수준이 미흡한 성북구 구민들의 소규모 사업으로 창업 유도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봉제 의복 및 수선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활동에 기여

○ 인력부족 직종 중의 하나인 봉제의복 제조업에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중·고령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 학력,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단기간 훈련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게 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랑의 바느질 집」창업을 위한 의류수선 전문자 양성스쿨

○ 사업기간 : 2006. 3 ~ 11월(9개월)

○ 교육기간 : 2006. 4. 19 ~ 8. 9

○ 교육인원 : 25명

○ 소요예산 : 금18,205천원

- 보조금 : 금12,000천원 - 자체부담 : 금6,205천원

○ 교 육 비 : 수강료 무료, 재료비 3만원

○ 교육장소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업주관 : (사)여성중앙회

□ 사업내용

○ 의상의 기본이 되는 디자인, 재단, 봉재 등의 전 과정 교육

○ 창업시 성북구청과 여성중앙회가 지정하는 「사랑의 바느질 집」 운영을 위한 인증 현판 수여

○ 교육수료 후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

○ 교육수료 후 교육과정 결과물을 전시

패션산업분야에서 의류봉제직종의 전문화된 인력창출 효과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최근, 불황의 여파로 유행이 지난 옷이나 잘 입지 않는 옷을 새로운 스타일로 개조하는 의류 수선점이 활성화 되고 있어, 실제로 서울 이대, 명동, 압구정 일대의 의류 수선점은 1998년 이후로 수익이 3배 이상 늘었으며, 의류 수선점의 미래가 밝은 편이며, 또한 알뜰 소비가 정착화 되면서 재활용, 수선, 리필 등 이른바 "3R 비지니스"가 유망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상권 중의 하나인 성신여대 상권에 의류매장이 밀집되어 있어 의류수선점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의류 부자재나 원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동대문이나 광장시장과 거리가 가까워 의류 수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용이함

○ 의류 수선점은 다른 직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사업실행

○ 예산규모 : 17,166,500원
- 보 조 금 : 12,000,000 원
- 자체부담금 : 5,166,500 원

○ 예산 확보방법 :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및 여성중앙회 자체사업비

○ 집행내역
- 현수막 : 440,000원
- 포스터 : 825,000원
- 전단지 : 450,000원
- 디자인비 : 500,000원
- 홍보물 발송비 : 180,000원
- 춤세라피 강사료 : 200,000원
- 전시회 : 485,000원
- 오리엔테이션 : 50,560원
- 사무비, 재료비 : 873,920원
- 진행도우미 : 800,000원
- 리더쉽 강사료 : 200,000원
- 의류수선전문가 과정 강사료 : 4,500,000원
- 창업특강 강사료 : 200,000원
- 교재비 : 450,000원
- 재료비 : 500,000원
- 교육진행비 : 1,390,000원
- 장소대관료 : 1,670,000원
- 회의비용 : 210,900원
- 사업진행보조인건비 : 3,127,820원
- 전시회도우미 : 103,900원

○ 사업 진행사항
- 사업일정계획 수립
- 사업 취지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확정
- 강사선정
-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포스터, 전단지 제작

- 홍보/공고/ 모집/접수
- 교육생 선발 : 총 94명 지원 / 25명 선발
  · 접수시 설문지 작성과 면접, 예비합격자 5명 발표
- 개강식 : 2006. 4. 19(월) 9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대강당
- 교 육 : 춤세라피, 비즈니스리더십, 의류수선전문교육, 창업교육 등
- 수료식 : 2006. 8. 10(목) 10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대강당
- 패션작품 전시 발표
  교육수료생이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고 직접 모델이 되어 작품 소개
- 의류수선 심화반 운영 : 22명 수료생 중 14명이 신청하여 수강
  ※ 수강료의 50% 여성중앙회에서 부담
- 창업관리
  · 사후관리 매니저에 의한 관리
  · 교육 수료생 모임 구성(박예순 선생님의 참여로 의류수선의 정보 제공)
  · 여성중앙회 창업 지원실에 모임장소 및 창업정보 제공

◆ 성과

• 사업의 성과

○ 교육신청 : 총 94명 신청(여성가장 20명, 차상위 계층 6명, 모자가정 4명)
  - 선발 교육생 : 25명(교육생의 25%가 여성가장, 차상위 계층 6명)
  - 높은 교육신청으로 의류수선가라는 직업에 대한 성북구 여성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성북구내의 수선집에 대한 수요도 높다는 반증이 됨
○ 일일 4시간씩, 180시간의 교육으로 교육의 집중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안 구성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임.
○ 수료율 88% : 교육생 25명 중 22명이 수료(출석률 80%이상)
○ 창업자 : 2명(창업 구상중 10명)
○ 수료생의 패션작품전시회
  - 수료생이 교육을 통한 의류수선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이를 하나의 성과물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 교육수료생이 자신만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작품을 만들어 성취감과 자신감을 제고
○ 창업교육 실시
  - 의류수선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 또한 이번 사업의 목표가 되므로 소상공인센터의 상담사와 종로여성인력센터 취업 · 창업상담사를 통한 창업일반 절차와 지원제도교육과 실제 의류 수선점을 운영하는 분을 모시고 창업성공사례 교육실시
○ 창업시 『사랑의 바느질 집』 운영을 위한 인증 현판 수여
  - 창업시에 성북구정사업 수료생임을 나타내는 현판을 제공하여, 창업의욕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기술제공

□ 창업사례

○ 세탁소 창업 : 정경복 "크린토피아 길음점(사업자등록번호 : 209-08-71767)"

- 세탁의 경우는 본사에서 해주고, 수선은 직접 함. 기존 세탁소의 부족한 수선부분을 보완, 전문화했고, 수선점만 운영했을 경우의 부담감을 줄임

○ 재활용 의류 수선, 판매점 창업 : 김경선 "늘푸른마을 (사업자등록번호 : 210-09-37112)"

- 재활용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점. 수선도 접목시켜 재활용의류를 판매와 동시에 수선도 함께 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킴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의 한계

○ 부족한 교육시간

4개월간 180시간 동안의 교육을 받았으나, 의류수선은 의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이 부족함. 장기적인 교육 필요

○ 의류수선 취업의 어려움

의류 수선점의 경우, 소호점으로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주가 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음.

○ 교육생의 자신감 부족

교육생들이 의류수선자체에는 매력을 느끼지만,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없어, 다시 양재관련 교육을 받는 등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움.

○ 예산부족

많은 교육신청자가 있었으나,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었는데, 성북구 예산 증대로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함.

○ 계속적인 지원관리 필요

차상위계층 여성이나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가 교육생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청년실업자나 일반교육생들과 달리 취업의 벽이 높고, 창업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 이들을 같은 기준에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향후계획

○ 차별화된 의류수선 창업반 편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효율성 높임

○ 여성중앙회 창업 지원실 오픈(2006년 10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실현.

○ 창업자금 안내

구청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및 여성가족부, 소상공인 지원센터등 창업자금 지원계획 홍보 및 협조요청

5) 강서구 - 여성교양대학 썸머스쿨 운영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사회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의 인력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강서구여성교양대학은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룩함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올 7월에 처음 시행된 썸머스쿨은 강서구 여성들을 위한 훌륭한 배움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이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 사업개요 및 내용

여성교양대학의 일부 인기 있는 강좌의 경우 정원초과로 수강할 수 없는 신청자들이 발생하여 휴강기간 동안에 썸머스쿨제를 운영하여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한 여성의 잠재능력의 개발 및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고자 7월 한달간 썸머스쿨제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모집과목은 수강생 모집시 접수가 제일 빨리 되며 강의실을 확보할 수 있는 강좌를 선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교육대상은 만18세이상 강서구 거주 여성(미달시 타지역 거주자)으로 교육기간은 2006. 7. 3 ~ 7.31로 강의실 사정에 따라 영어기초회화(30명), 손님초대요리(30명), 제과제빵(30명), 양재초급(20명) 피부관리(25명)는 주3회, 댄스다이어트(40명), 노래교실(60명)은 주1회로 강의 일정이 계획되었다. 모집방법은 여성들의 정보화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6.19 ~ 6. 21(3일간)까지 100% 인터넷 접수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은 수강료 50%를 감면해주며, 수강료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환불치 않으나 강좌별 개강일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해 소정양식에 의거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액을 강좌별 개강일 이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기로 하였다.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제14기 여성교양대학 수강생들에게 강서구교양대학의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기강좌 참여 의향에 대한 답변결과 과목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78.7% 이므로 교양대학의 방학기간인 7월을 이용하여 인기강좌에 대해 썸머스쿨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은 아이들의 방학기간과 휴가철이 맞물려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지만 수강생들의 배움의 열정에 의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는 인기강좌 중 영어기초회화, 손님초대요리, 제과제빵, 양재초급, 피부관리, 댄스다이어트, 노래교실 7개과목을 선정하였다. 홍보방법은 지역신문, 까치뉴스 및 구 청사 전광판을 통한 홍보, 관내 지하철역 현수막 게첨, 교양대학 수료생들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 사업실행

예산은 2006년 예산 편성시 확보하였고, 썸머스쿨운영시 수강료 예상 수입은 수강료 30,000원인 주3회 강의 5개과목 135명, 수강료 10,000원인 주1회 강의 2개과목 100명으로 5,050,000원을 예상하였고, 소요예산은 현수막 제작비 163,800원, 강사료4,760,000을 합쳐 4,968,000원으로 예상하였다. 휴가철인 7월에 강의를 한다는 것이 꽤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수강생들의 설문결과에 믿음을 가지며 접수를 시작했다. 영어기초회화, 손님초대요리, 제과제빵, 양재초급은 접수완료가 빨리 되었지만 피부관리, 댄스다이어트, 노래교실은 접수결과가 좋지 않았다. 피부관리는 4명, 댄스다이어트 22명, 노래교실은 18명, 정원의 50%가 안되는 반은 폐강하기로 결정하여 수강생과 강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폐강을 하였다. 피부관리와 노래교실이 폐강되어 아쉬움은 있었으나 7월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열의로 5개과목을 개강하게 되었다. 총 120명의 수강생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강의에 참석하여 주었고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강사료와 현수막 제작비를 합쳐 총 3,803,800원이었다.

◈ 성과

• 사업의 성과

강서구는 영구임대주택이 많고 고소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아니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강서여성교양대학은 수강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취미활동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 강좌가 시작되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끝나므로 단기코스인 1개월 동안에 4개월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수강생중 주1회 총4회인 과목은 3회이상 출석한 사람을 수료생으로 주3회 12회인 과목은 8회이상 출석한 사람을 수료생으로 선정하여 총 120명중 103명(86%)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썸머스쿨의 운영은 처음이었고 여름 휴가철과도 겹치는 시기이므로 수강생들의 신청이 많지 않아 운영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으나 다행히 구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 이번 썸머스쿨 운영을 기획해 보니 구민들의 다양하고 폭 넓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강의실의 부족으로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단기코스로 모두 개강할 수 없어 아쉬었으며, 민원인들이 강서구청 메인홈페이지에서 여성교양대학으로 찾아오는 방법이 어려워 안내 문의가 많았고, 인터넷 접수방법을 몰라 여성교양대학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접수한 분들 또한 많았다. 또한 인터넷상에 대기자 명단을 받아놓지 않아 개강전에 수강생의 환불요청이 있을때 수기로 받은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에 제2기 썸머스쿨을 시행할 때는 2006년도에 하지 않았던 인기강좌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고, 인터넷 접수시 강서구청 메인홈페이지에서 직접 여성교양대학으로 찾아올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연구하며, 인터넷상에서 정원의 10%정도의 대기자 명단을 받아 민원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여성교양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6) 동작구 - IT일자리지원 프로젝트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여성취업 수요의 증가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내 저소득층 여성 및 미진학 청소년를 대상으로 IT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여성 취업전문교육기관인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업위탁
○ 사업기간 : 2006. 1월 ~ 2006. 9월
○ 교육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가정의 여성가장 및 미진학 청소녀 20명
○ 교육시간 : 1일 3시간 주5회 (총333시간) - 5개월 과정
○ 교육내용
- 웹디자인 · 서버, 엑셀 · 파워포인트, 세무회계 이론 및 실기(320시간)
- 직업상담 및 취업 · 건강증진 교육 및 취업 적응교육(13시간)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교육종료후 6개월까지

□ 추진배경
○ 미진학 청소녀 및 여성가장이 저학력 단순인력이라는 일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돕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
○ 여성 유망직종으로 인식확산 및 높은 취업률이 예상되며, 소자본 창업도 가능
○ 기본적인 사무업무 및 회계관리까지 가능한 쇼핑몰 관리자로서 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선호함

□ 기획의도
○ 교육 수료생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 여성정책부서 의견수렴 : 여성취업 지원사업 추진 결정
○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 내부토의
○ 사업채택 및 방침결정
○ 사업비 교부
○ 사업내용 홍보
- 동작구 여성홈페이지 및 2006. 1월 동작구 소식지 게재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게재
- 지역신문, 관련기관(동작구내 학교, 청소년시설 등) 공문발송,
- 센터 주변 6개동 및 지하철 역사 전단지 배포
- 구직 등록자에 대한 안내지 DM발송 및 전화상담

• 사업실행

□ 예　　산
○ 예산규모 : 30,000천원
○ 재　　원 : 2005 서울시 여성정책 종합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 사업추진
○ 준비단계
- 2005. 12. 5 여성 취업 지원사업 의뢰(구 → 센터)
- 2005. 12. 12 여성 취업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센터 → 구)
- 2005. 12. 15 여성 취업 지원사업 계획 방침 수립
- 2005. 12. 25 사업비 교부(구 → 센터)
- 동작구보 게재 : 2006. 1. 25
- 홍보 및 교육생 모집 : 2006. 2. 1 ~ 3. 10
- 신청자 접수 : 2006. 3. 10 ~ 3. 10
- 대상자 선발 : 2006. 3. 10 ~ 3. 15
○ 교육 및 취업알선 단계
- 교육실시 : 2006. 3. 20 ~ 8. 21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2006. 8. 21 ~ 2007. 2. 28
○ 사업추진결과보고 : 2006. 9. 5
○ 평가단계
-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2006. 9. 18

◆ 성과

• 사업의 성과

○ 모집률(응시인원/선발인원) : 38명/20명(190%)
○ 수료율(수료인원/정원) : 18명/20명(90%)
○ 취업률(취업인원/선발인원) : 14명/18명(78%)
○ 세부 추진실적

교육실적	교육평가	취업지원 및 알선
▸총 교육시간 : 333시간 - 전문교육 : 320시간 - 소양교육 : 8시간 - 취업교육 : 5시간	3회 ▸1차 : 웹쇼핑몰 ▸2차 : 엑셀, PP ▸3차 : 회계처리	▸개인상담 : 3차 구분실시 (전문교육강사, 담임, 취업담당) ▸취업알선 - 유관기관 및 산학업체 연계

○ 수료 및 취업현황(2006. 9. 29현재)

교육인원	수료인원	취 업 인 원				
		계	취업	자영업	조기취업	기타
20명	18명(90%)	14명(78%)	11명	1명	1명	1명(단시간)

※ 수료인원에 이수자 1명 및 중도탈락 1명 미포함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사업 추진상의 한계 및 문제점
○ 대상자 선정 애로
- 미진학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대학입학을 염두에 두고 있어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못하였으며,
- 여성가장의 경우, 교육기간 중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 IT분야는 어느정도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의욕만 가지고 시작한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취업 알선 문제
- 연령대가 낮은 교육생은 취업에 무리가 없었으나, 50대 여성의 경우 취업 의지와 교육이수 실적이 우수함에도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채용을 꺼리고 있음

□ 향후 개선 방향
○ 대상자를 고려한 맞춤식 일자리사업 추진
→ 연령대별, 적성별 세분화 필요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사업 추진
○ 여성친화적 일자리 개발로 취업 경쟁력 확보

7) 관악구 - 사회참여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 목적 : 여성들의 경제적인 사회참여가 적은 현실에서 적은 자본으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사회 · 경제적 참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 독창성 :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들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을 통한 상대적으로 실패와 자본금의 부담이 적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창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부여함.

• 사업개요 및 내용

○ 사업개요: 여성정책 4개년 계획의 정책방향으로 "여성창업 지원, 여성CEO 육성 등 경제활동 지원"에 근거를 둠.
온라인 오픈 마켓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 창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함.

○ 기획의도 : 여성의 사회 · 경제적 참여가 낮은 현실에서 소규모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여성들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활용을 통한 사회 · 경제적 참여욕구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2005년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의 인센티브 비용으로 비교적 지원이 적은 여성 · 경제 분야의 사회참여사업에 관심을 재고하고자 함.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저조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라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센티브 비용 중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예산 관련 부서에 요구함.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위탁 관리가 예산의 절감이 용이하다는 판단 아래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누리는 사업을 선정함.

• 사업실행

○ 예산규모 및 집행내역: 1천만원으로 소규모의 창업 쇼핑몰의 교육을 위한 기자재(컴퓨터8대) 구입하고 전문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 교육 실시 비용으로 집행

○ 확보방법 : 2005년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 인센티브 집행비용으로 지원.

○ 사업진행사항 : 교육 목표자 수를 128명으로 하였고 1~9월까지 현재 90명이 교육에 참가하여 올 연말까지는 교육 목표자 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리고 쇼핑몰 창업 과정 교육자 수 중 25명 취업함으로써 교육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소자본 창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됨.

◆ 성과

• 사업의 성과

○ 성과 : 온라인 창업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금전적 투자가 필요하여 창업의 경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실패의 부담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가지 아이템으로도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오픈 마켓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의 홍보비 없이 전업주부까지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

○ 목표달성정도 : 창업인큐베이터실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교육실시하여 2006년 1월~9월까지의 통계자료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총 참가자 수가 1,731명이었으며 쇼핑몰 창업과정 교육자 수가 90명(교육목표자 수 128명)으로 교육목표자 수의 70.3 %, 전체 교육생의 5.2%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취업생 수가 25명(쇼핑몰 창업 교육 참가자 수 대비 27.8%)이었음.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 한계 및 문제점 :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여성의 경우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수료 후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수강생의 대부분이 전업 주부로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만 집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투자에 대한 소득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쉽게 포기하는 현상이 반복됨.

○ 개선방향

① 창업인큐베이터 운영과 함께 전문 창업상담인력이 지원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또한 창업후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고 수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② 짧은 기간 안에 투자에 대한 소득의 기대보다는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한 장기간의 기대효과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소양교육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게 해 주는 직업 훈련으로서의 자리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여성들의 사회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귀울여야 할 것임.

8) 서초구 - 홀로노인을 위한 서초구 여성자원봉사

◈ 기획단계(사업수립)

• 목적

잠재된 유휴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관내 홀로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핵가족화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홀로노인의 소외되고 방치되는 사례를 막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함이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의 실천으로 홀로노인이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생활하여 소외된 이웃의 고독감을 해소시켜 삶의 의욕을 고취.

• 사업개요 및 내용

서초 사랑의 소리 자원봉사 활동은 총 16명의 여성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4명 1조로 구성하여 가정복지과 서초사랑의 소리 상담실에서 관내거주 홀로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문안전화걸기, 전화상담, 말벗등 으로 일상생활의 문제점등을 상담하여 관할 지역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자는 매일 자원봉사일지를 기록하고, 연 1회이상 정기교육 및 수시자체교육등을 실시하며, 간담회 및 표창수여등을 통해 봉사자를 관리,격려하고 있다.

봉사자 선발시 상담전문교육 수료생 또는 희망자 상담수료후 활용하고, 기타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및 관련 교육이수자를 활용하고 있다.

홀로노인을 위한 또하나의 사업으로 사랑의 된장, 간장담그기 사업으로 서초구 직원부인 자원봉사회 30여명의 활동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우리구 거주 홀로노인과 소년소녀 가정을 포함하여 210명이며, 약 5개월에 걸쳐 준비된 된장, 간장으로 수혜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업이다.

우리 장맛에 익숙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장을 담그지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홀로노인에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된장, 간장을 8년째 직접담가 전달하고, 봉사자와 함께 하는 만남의 날을 갖고 있다.

사랑의 된장은 1인당 5㎏가량으로 국산콩으로 만든 메주 5,000여덩이 660㎏이 소요된다.

이 두 사업을 선별한 이유는 수혜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인식과 중년 유휴여성인력의 자기개발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여성자원봉사자가 가정내에서 자녀세대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링이 됨으로써 자원봉사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다.

◈ 집행단계(사업실행)

• 사업의 선정

각 사업시행을 자원봉사자 정비와 서초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신문, 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상담전문교육 수료생 또는 희망자 상담수료후 활동하도록 안내, 관할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홀로노인 요보호여성등 자료를 근거로 수혜대상을 선정한다.

• 사업실행

사랑의 소리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는 구예산 5,300천원이며, 집행내역은 사랑의 소리 운영비 600,천원, 만남의 날 추진비 1,050,천원이다.

서초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신문, 소직지 홍보를 통한 신규봉사자 모집, 상담전문교육 수료생 또는 희망자 상담수료 후 활동하도록 안내, 기타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및 관련 교육이수자 활용하고 있다.

사랑의 된장, 간장담그기 사업은 예산의 규모는 9,500천원이다.

예산확보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 지원에 의거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집행한다.

재료비 지출 총 7,128,천원이 집행되었다.

사랑의 된장 담그기 추진사항은 대원농장에서 1,2,3작업, 서초구청 강당에서 사랑의 장 전달식(만남의날)이 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제1차 작업은 2006. 2. 15 메주털고, 소금풀기, 2006. 2. 16 된장 담그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2차 작업은 2006.3.31(금) 된장 간장 분리 및 된장에 메주가루 섞기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제3차작업 2006. 6. 1 된장 뜨기가 실시되었다.

2006. 6. 2 서초구청 강당에서 홀로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200세대에게 된장, 간장이 전달되고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 성과

• 사업의 성과

사랑의 소리 19명의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총 500여회 활동일수 동안 약 9000여통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상담을 통한 수혜자의 욕구를 해소하고, 수혜대상자들에게 방문간호 및 의료지원서비스 등을 위한 실태파악이 쉽게 이루어졌다.

문안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점 등을 상담사여 관할 동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해결지원하였다.

전화를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말벗의 역할은 홀로노인의 외로움의 달래드려, 이웃과 늘 함께한다는 따뜻함과 핵가족화에 따라 늘어가는 홀로노인이 소외되도록 방치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였다.

서초사랑의 소리 홀로노인에게 직원부인자원봉사회에서 담근 사랑의 된장, 간장이 1세대당 된장 5㎏과 간장 2ℓ가지원되었으며,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의 대화로 사랑이 숨쉬는 훈훈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 사업의 한계 및 향후계획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 및 문제점은

첫째 자원봉사자들이 집중배치 되어있는 오전시간은 노인들이 외출하기 좋은시간대이므로 안부전화시 부재중일때가 많다.

둘째는 한공간의 상담실에 3-4명이 배치되어 청력이 좋지않은 노인분들과의 통화에서 목소리가 커져 심도있고 여유로운 상담이 어렵다.

따라서 상담전화가 부분적으로 홀로노인의 생사확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오전집중배치 활동에서 오후로 분산조정하여 불통율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좀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사랑의 된장, 간장 담그기 와 같이 수혜자들과 사랑을 나눌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부록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 및 작성지침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공통부문	여성정책 기반조성 (200)	추진역량 (100)	조직의 독립성 (30)	- 조직의 주체성(10)	○ 부서/팀명 - 여성정책팀/양성평등팀 - 여성팀 - 여성과 기타 팀	10 5 3	- 자치구 전체 조직도 - 여성관련 과 조직도 ※여성부서의 독립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노력
				- 기획·조정 기능 수행 여부(10)	○ 부서기능과 역할 - 우수 - 양호 - 보통	10 5 3	- 자치구 조직의 기능과 역할 - 여성정책 담당부서 업무분장표 - 조직/팀의 업무분장표 비교('05~'06)
				- 성과(10)	○ 내용분석 - 기획/조정 포함 - 약간개선 - 전통사업 위주	10 5 3	- 조직/팀의 사업계획서 비교('05~'06년) ※ '05~'06 사업계획서(결재본)
			인력구성(20)	- 전문성(10)	○ 성인지교육 이수비율[1]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성인지 교육 이수자 명보 공문사본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교육을 최소 7시간 이상)
				- 인력의 충분성(10)	○ 담당공무원 수/자치구여성인구대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자치구 여성인구 : '06 서울여성통계 기준
			여성부서 예산 (30)	- 전년도 대비 증가율(20)	○ 전년대비 증가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20 15 12 10	- 자치구 예산서중 해당 부분 사본 첨부 (여성부서 예산 '05년~'06년)
				- 총 예산대비(10)	○ 총 예산대비 여성관련 예산비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여성부서 외에 타 부서 여성사업 포함) - 여성사업이란 양성평등달성, 여성정책참여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복지향상 등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1) 각 등급의 자치구 수는 1등급-5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6개로 하고 이하 동일적용 함(*비율이 동률일 경우 동일등급)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공통부문	여성정책기반조성 (200)	추진역량 (100)	여성발전기금 (20)	- 여성발전기금 운용(5)	○ 조성계획 수립여부 - 있음 - 없음	5 0	- 여성발전기금 조성 계획 방침서 등 증빙서류
				- 기금조성(10)	○ 기금조성액 - 7억원 이상 - 5억원 - 3억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10 7 5 3 1	- 발전기금 통장 사본 또는 투융자기금에 적립하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실적(5)	○ 기금지원 실적 - 있음 - 없음	5 0	- 사업지출 내용
		기반체계 (100)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20)	- 6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 (10)	○ 6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10 7 5 3	- 전체 공무원 수 - 6급 이상 공무원 현황(부서별, 성별 현황)
				- 주요부서 (총무, 감사, 기획예산, 자치행정 및 주무팀) 팀장급이상 여성공무원 수 (10)	○ 5·6급 여성공무원수 - 5명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10 8 6 4 2	
			각종위원회 여성참여(10)	- 위원회 여성비율(10)	○ 주요위원회 여성비율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10 7 5 3	- '06. 상반기 자치구 실적 중 13개 공통위원회 • 인사위원회, 공공자금관리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유재산분합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환경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명위원회
			협력체계 구축 (30)	- 협조협의체 구성(10)	○ 협의체 수 - 5개 이상 - 4개 - 3개 - 3개 미만	10 7 5 3	-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 한 공문 (협의체 관련부서는 과 단위) - 회의록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목적 등이 명시) - 회의결과 결정내용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성과(20)	○ 회의건수 - 3회 이상 - 2회 - 1회 - 없음	5 3 1 0	
					○ 회의결과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15 10 5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공통부문	여성정책기반조성 (200)	기반체계 (100)	성별영향평가 (10)	- 성별영향평가 추진 (10)	○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있음 - 없음	5 0	- 계획수립 방침서 - 성별영향평가결과 보고서 (평가자료 제출기한내 성별영향 평가결과만 인정)
					○ 성별영향평가 실적 - 있음 - 없음	2 0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3 2 1	
			여성정보제공 (20)	- 여성홈페이지 이용률 (5)	○ 이용실적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5 3 2 1	- 월평균 이용자 수(1~9월) (자치구 여성인구 대비 일정기간 이용자 수)
				- 여성정책관련세미나 (15)	○ 개최실적 - 3건이상 - 2건 - 1건	5 3 1	- 개최계획과 결과보고서 - 세미나 자료집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10 5 3	
			여성정책추진 참여(10)	- 업무보고의 성실성 (6)	○ 제출기한 준수여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3 2 1 0	- 여성정책담당관에 보고한 각종 문서의 제출기한 및 내용을 분석하여 반영
					○ 보고내용 충실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3 2 1 0	
				- 참여도 (4)	○ 참여지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4 3 2 1	- 각종 여성정책 관련 사업 추진시 참여 실적 반영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성평등부문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100)	양성평등문화 (60)	여성주간사업추진 (30)	- 사업추진실적 (30)	○ 사업건수 - 5건 이상 - 3건 - 2건 - 1건	10 5 3 1	-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 (6~7월 사업포함)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20 15 10	
			양성평등문화 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사업 포함) (30)	- 사업추진실적 (30)	○ 사업건수 - 7건 이상 - 5건 - 3건 - 2건 이하	10 5 3 1	-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20 15 10	
		양성평등교육 (40)	공무원양성평등교육 (재)한국공무원교육원,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	- 양성평등교육이수자 비율 (10)	○ 교육이수비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전체공무원 수 - 양성평등교육(최소 7시간 이상) 이수자 수 • 교육이수자 통보 공문 사본 - 6급 이상 관리자 수 ※ 서울시 인사마당 통계자료 활용 대조
				- 6급 이상 관리직 비율 (10)	○ 관리직 비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시민 양성평등 교육(20)	- 사업추진실적 - 교육 참여자 수 (20)	○ 사업건수 - 15건 이상 - 10건 - 5건 - 4건 이하	10 5 3 1	-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교육프로그램, 담당강사, 참여자 수 등 포함)
					○ 교육참여자 수 (자치구인 구대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선택부문	여성경제활동지원(100)	여성인적자원개발(40)	자체사업(40)	- 사업추진실적(40)	○ 사업건수 - 5건 이상 - 3건 - 2건 - 1건	 20 15 12 9	-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사업은 예산투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20 15 10	
		여성경제활동 활성화(60)	취 업(30)	- 자체사업건수(10)	○ 사업건수 - 5건 이상 - 3건 - 2건 - 1건	 10 5 3 1	-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사업은 예산투입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성과(20)	○ 실질 취업률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10 5 3	
			창 업(30)	- 자체사업건수(10)	○ 사업건수 - 5건 이상 - 3건 - 2건 - 1건	 10 5 3 1	-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관련 증빙 자료)
				- 성과(20)	○ 실질 창업률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10 5 3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선택부문	여성사회참여 지원 (100)	여성단체육성 (20)	지역여성단체 활성화 (20)	- 사업추진실적(5)	○ 지원단체 수[2]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5 3 2 1	-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관련 증빙 자료)
				- 성과(15)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15 10 5	
		여성역량강화및 여성사회참여 증진 (40)	여성지도자육성 (10)	-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수(10)	○ 지도자교육 이수자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사업계획서(이수자 명단 포함)
			지역여성사회참여 (30)	- 지역전문인력 발굴실적 (20)	○ 홍보실적 - 5건 이상 - 3건 - 2건 - 1건	5 3 2 1	-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 여성전문인력 현황 및 명단
					○ 발굴건수(명)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5 12 10 7	
				- 사회단체회원의 여성비율(10)	○ 여성비율/전체회원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등록단체의 전체회원수 - 여성회원수
		일·가정양립 지원 (40)	공보육기반조성 (25)	- 맞춤형보육시설 확충 (25)	○ 방과후 '06년 목표 달성률 - 100% - 80% - 60% - 50% - 50%미만	9 7 5 3 1	- 맞춤형 보육시설 현황 및 증빙자료

2) 여성단체란 다음 두 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여성단체로 인정함
① 단체성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 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여성복지증진 등을 단체 활동 목적으로 하는 경우(정관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선택부문	여성사회참여 지원 (100)	일·가정 양립지원 (40)	공보육기반조성 (25)	- 맞춤형보육시설 확충 (25)	○ 장애아 통합보육 '06 목표 달성률 - 100% - 80% - 60% - 50% - 50% 미만	 8 6 4 3 1	
					○ 시간연장형 '06목표 달성률 - 100% - 80% - 60% - 50% - 50%미만	 8 6 4 3 1	
			보육서비스향상 (15)	- 보육정보센터설치(3)	○ 보육정보센터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3 0	- 총 보육시설 수 - 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 평가인증제 참여실적(율) (4)	○ 참여기관수(비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4 3 2 1	
				- 보육시설 지도·점검 (4)	○ 총시설대비 지도·점검 비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4 3 2 1	
				- 자체 교육실시 (4)	○ 전체보육교사 대비 교육참여율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4 3 2 1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배점	준비자료
선택부문	여성·가족복지향상 (100)	여성인권 (40)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보호 (40)	- 실적(10)	○ 자체사업수 - 5건이상 - 3건 - 2건 - 1건	10 5 3 1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성과(20)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20 15 10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10)	○ 의료기관지정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여성복지 (40)	여성복지향상 사업(한부모가정, 저소득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장애인 등)(40)	- 실적 (10)	○ 자체사업수 - 5건이상 - 3건 - 2건 - 1건	10 5 3 1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업목적, 내용, 참여자 명단이 포함)
				- 성과(30)	○ 참여인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10 7 5 3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20 15 10	
		건강가정 (20)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20)	- 지원센터 운영(5)	○ 운영여부 - 운영 - 미운영	5 0	-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 지원센터 운영현황 - 결과보고서
				- 실적(5)	○ 사업건수 - 5건이상 - 3건 - 2건 - 1건	5 3 2 1	
				- 성과(10)	○ 내용분석 - 우수 - 양호 - 보통	10 5 3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배점	제출자료
공통부문	특수사업(수범사례) 영역별(100)	여성복지향상(100)	사업수립(30)	- 합목적성(10)	○ 목표 적합성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사업의 수립배경, 사업목적, 지역특성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수립배경이 분명하게 명시 • 예산 및 집행내역을 포함 - 사업 참가자 명단 (60명-이름, 거주지, 연락처 명시)
				- 독창성(10)	○ 기획의 독창성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지역특성화(10)	○ 지역특성 반영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집행(20)	- 예산의 적정성(10)	○ 예산규모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10)	○ 홍보 및 대상선정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성과(50)	- 목표달성도(20)	○ 계획 대비 실적 - 90%이상 - 80% - 70%	 20 15 10	
				- 수혜자 만족도(30)	○ 만족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30 25 20 15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배점	제출자료
공통부문	특수사업 (수범사례) 영역별(100)	양성평등달성 (100)	사업수립(30)	- 합목적성(10)	○ 목표 적합성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사업의 수립배경, 사업목적, 지역특성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수립배경이 분명하게 명시 • 예산 및 집행내역을 포함 - 사업 참가자 명단 (60명-이름, 거주지, 연락처 명시)
				- 독창성(10)	○ 기획의 독창성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지역특성화(10)	○ 지역특성 반영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집행(20)	- 예산의 적정성(10)	○ 예산/규모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10)	○ 홍보 및 대상선정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성과(50)	- 목표달성도(20)	○ 계획 대비 실적 - 90%이상 - 80% - 70%	 20 15 10	
				- 수혜자 만족도(30)	○ 만족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30 25 20 15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배점	제출자료
공통부문	특수사업 (수범사례) 영역별(100)	여성경제사회 참여 (100)	사업수립(30)	- 합목적성(10)	○ 목표 적합성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사업의 수립배경, 사업목적, 지역특성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수립배경이 분명하게 명시 • 예산 및 집행내역을 포함 - 사업 참가자 명단 (60명-이름, 거주지, 연락처 명시)
				- 독창성(10)	○ 기획의 독창성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지역특성화(10)	○ 지역특성 반영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집행(20)	- 예산의 적정성(10)	○ 예산규모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10)	○ 홍보 및 대상선정 - 우수 - 양호 - 보통	 10 7 5	
			성과(50)	- 목표달성도(20)	○ 계획 대비 실적 - 90%이상 - 80% - 70%	 20 15 10	
				- 수혜자 만족도(30)	○ 만족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30 25 20 15	

06-정책-017

2006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

인쇄 2007년 1월 19일
발행 2007년 1월 22일

발 행 인 : 김 금 래

연 구 자 : 조연숙 · 고선주 · 조영미 · 이종환

발 행 처 :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Tel. 02) 776-5577 (代)
www.seoulwomen.or.kr

인 쇄 처 : 한 기 획
Tel. 02) 2268-1324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www.seoulwomen.or.kr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시 중구 예장동 4-6
Tel : 776-5577 / Fax : 776-6556